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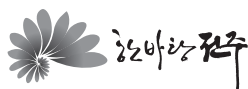
전라감영복원 준공기념 학술대회

전라감영의 역사와 복원

일시 / 2020. 9. 11(금) 13:30

장소 / 전라감영 선화당

주최



주관

전북사학회
JEONBUK HISTORICAL ASSOCIATION

◇ 목 차 ◇

• 인사말	개회사	전북사학회 회장 이동희	007
	환영사	전주시장 김승수	009
	축사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	011
		전라감영복원재창조위원장 이명우	013
• 발표문	1주제	전라감영의 역사성과 그 의미 이동희 / 전주역사박물관	017
	2주제	전주부성과 전라감영의 건축 홍승재 / 원광대학교	037
	3주제	전라감영지 발굴조사 내용 및 성과 유 철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049
	4주제	조선후기 외국인에 비친전라감영 조법종 / 우석대학교	079
	5주제	전라감영 선화당 내 기물과 의식구의 원형 고증연구 장경희 / 한서대학교	107
	6주제	『안영일록』으로 본 전라감영 문화콘텐츠와 활용방안 김순석 / 전통문화연수원	141
	7주제	전라감영 복원의 의미와 과제 홍성덕 / 전주대학교	165
• 토론문	1주제	박정민 / 전북학연구센터	185
	2주제	김지민 / 목포대학교	187
	3주제	이택구 / 조선문화유산연구원	189
	4주제	김윤희 / 전주대학교	191
	5주제	최영숙 / 문화재청	193
	6주제	문윤걸 / 예원예술대학교	195
	7주제	하태규 / 전북대학교	198

◇ 학술대회 일정

일 시	발표내용	발표자
13:00~13:30	학술대회 등록 및 준비	사회 : 김건우 / 전주대학교
13:30~13:50	개 회 사 전북사학회장	이동희
	환 영 사 전주시장	김승수
	축 사 전주시의회의장 전라감영복원재창조위원장	강동화 이명우
13:50~14:10	1주제 전라감영의 역사성과 그 의미	이동희 / 전주역사박물관
14:10~14:30	2주제 전주부성과 전라감영의 건축	홍승재 / 원광대학교
14:30~14:50	3주제 전라감영지 발굴조사 내용 및 성과	유 철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14:50~15:05	중간휴식	사회 : 윤상원 / 전북대학교
15:05~15:25	4주제 조선후기 외국인에 비친전라감영	조법종 / 우석대학교
15:25~15:45	5주제 전라감영 선화당 내 기물과 의식구의 원형 고증연구	장경희 / 한서대학교
15:45~16:05	6주제 『완영일록』으로 본 전라감영 문화콘텐츠와 활용방안	김순석 / 전통문화연수원
16:05~16:25	7주제 전라감영 복원의 의미와 과제	홍성덕 / 전주대학교
16:25~16:40	중간휴식	
16:40~18:00	종합토론 - 좌장: 이재운 / 전주대학교 - 토론: 박정민 / 전북학연구센터 김지민 / 목포대학교 이택구 / 조선문화유산연구원 김윤희 / 전주대학교 최영숙 / 문화재청 문윤걸 / 예원예술대학교 하태규 / 전북대학교	

개 회 사

전라감영 복원 준공을 앞두고 전주시와 전라감영재창조위원회, 전북사학회가 뜻을 같이하여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님과 강동화 전주시의회의장님, 이명우 전라감영 복원재창조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학술대회 좌장을 맡아 주실 이재운 교수님을 비롯하여 발표자와 토론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아쉽습니다만 좋은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복원된 선화당에서 학술대회를 하게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아마 전라감영을 복원하고 첫 번째로 갖는 행사가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선화당이 전라감사 집무처를 보여주는 것과 함께 고담준론이 오가고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장소로 널리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전라감영은 조선시대 전라도 최고의 통치관서입니다. 전라감영은 고려말에 전주에 설치되어 조선말 까지 이어졌습니다. 전라감영에서 오늘날의 전라북도과 전라남도과 함께 제주도까지 다스렸습니다. 전주는 전라감영이 소재한 호남의 수부였습니다. 전라감영은 전주의 정체성입니다.

전라감영 자리는 고려시대 전주목 치소가 있었던 곳으로도 추정됩니다. 발굴성과를 놓고 볼 때 통일신라 시기 전주의 치소 자리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라감영지는 그만큼 역사성이 깊은 곳입니다.

2005년 전북도청이 이전되고 전라감영복원 논의가 본격화 되어 2020년 마침내 전라감영 동편 전라감사 영역의 복원을 마쳤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감영복원을 기념해 전라감영의 역사성을 밝히고, 향후 복원 방향을 논하며, 복원된 감영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전라감영의 가치를 높이고, 향후 발전방향을 풀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라감영복원이 여기까지 오는데 참 긴 세월과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전주시를 비롯하여 그간 복원에 애써주시고 협조해주신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모시고 학술대회를 열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러지 못해 아쉽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전북사학회장 이 동 희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전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도시로, 조선왕조 500년을 꽃피운 조선의 본향이자, 전라도와 제주도의 실질적인 통치행정기관인 전라감영을 소재했던 전라도의 대표도시입니다. 이후 오늘날에 이르러 전북도청 소재지로서 전주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중심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라감영은 조선의 국왕을 대신해 지방 민심을 위무하기 위해 부임된 전라감사가 머물며 근무하는 곳으로 행정·문화·교육·군사·사법적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바로 이곳 전라감영에서 조선시대 전주의 문화와 역사가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전라감영이 일제강점기에 허물어지고 도청사가 들어서게 되면서 그 역할이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2005년 전북도청이 신도심으로 이전한 후 전라감영 복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해, 올해 전라감영 동편 영역을 준공하게 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주시가 국가관광 거점도시로 선정된 해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전북사학회가 주관하고 전주시와 전라북도, 전라감영복원재창조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라감영 복원 준공 기념 학술대회’는 전라감영의 역사 및 전라감영을 복원하기 위해 각 영역의 전문 연구자들이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이 축적된 연구 내용을 전주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마련된 뜻 깊은 자리입니다. 또한 준공 이후 산적한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며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가 연구자나 관련 전공자에게만 국한되기보다 더 많은 시민과 타지역에 알려 전라감영에 대한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북돋는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을 모실 수 없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지만 전라감영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논의하는 현장의 뜨거운 열기가 감영의 돌담을 넘어 전국 각지로 퍼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로 많은 분들이 전라감영과 전주에 더 큰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소중한 옥고와 시간을 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동희 학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2020. 9.

전주시장 김 승 수

축사

유난히 길었던 장마가 지나가고 온 세상이 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결실과 풍요의 계절 가을에 전라감영 복원 준공기념 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각계 전문가 여러분을 비롯해 이같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전북사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 이전 후 전라감영 복원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전라감영이 복원되고 준공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된다고 하니 새삼스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전라감영은 조선시대 전라도는 물론 제주지역까지 다스렸던 행정, 사법, 군사의 최상위 기관으로서 전라도 일도를 총괄했으며, 우리 전주는 전라감영의 소재지로 지난 500년간 전라도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에서 전라도를 이끌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전라감영은 우리 지역이 호남의 중심으로서 당당한 기세를 떨쳤던 과거에 대한 역사적 증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라감영의 복원은 단순히 조선시대 관공서를 복원하는 것이 아닌, 전라감영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우리 전주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현대에 되살려 우리 고장 전주, 나아가 전라북도의 자부심을 세우고 더 큰 도약을 향해 나아가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전라도의 수부로서 전주가 가졌던 역사적 위상을 상세히 알아보고 전라감영 복원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2020. 9.

전주시의회의장 강 동 화

축 사

2020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연초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과 유례없는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로 한국사회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마스크가 일상화되고, 온라인 화상회의나 비대면 학술대회 등 새로운 일상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또 한편으로 2020년은 잊지 못할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전주시가 국가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해이며, 오랜 논의 끝에 전라감영 동편 영역이 복원되어 이제 준공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간 전라감사가 머물며 전라도 지방의 통치한 행정기관인 전라감영이 소재한 전주는 조선왕조의 발상지이자 전라도를 대표하는 으뜸도시입니다. 나아가 견훤왕이 900년부터 후백제의 수도로 삼았던 왕도였기 때문에 천년고도라 불리는 역사 깊은 도시입니다.

이처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전주의 심장에 해당하는 바로 이 자리에 복원 준공된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전라감영 복원 준공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전라감영을 복원하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했던 수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의 결실을, 전주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김승수 시장님과 이동희 학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전라감영 연구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어 향후 많은 연구가 진행될 초석으로 자리매김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연구자에게 연구 주제가 되고, 이 곳을 방문하는 전주 시민에게 자긍심을 북돋워 주는 이름이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전라감영이 전주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향후 산적한 과제들이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술대회 준비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학회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주시와 전북사학회의 끊임없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전라감영복원재창조위원장 이 명 우

전라감영의 역사와 복원

발표문

-
- 1 전라감영의 역사성과 그 의미 017
이동희 / 전주역사박물관
 - 2 전주부성과 전라감영의 건축 037
홍승재 / 원광대학교
 - 3 전라감영지 발굴조사 내용 및 성과 049
유철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 4 조선후기 외국인에 비친전라감영 079
조법중 / 우석대학교
 - 5 전라감영 선화당 내 기물과 의식구의 원형 고증연구 ... 107
장경희 / 한서대학교
 - 6 『완영일록』으로 본 전라감영 문화콘텐츠와 활용방안 ... 141
김순석 / 전통문화연구소
 - 7 전라감영 복원의 의미와 과제 165
홍성덕 / 전주대학교

전라감영의 역사성과 그 의미

이동희*

< 목 차 >

- I. 머리말
- II. 전라감영의 설치와 행영제
- III. 유영제로 개편과 전라감영 확대
- IV. 맺음말

I. 머리말

전라감영은 조선시대 전라도 일도를 총괄하는 도내 최고 통치행정관서이다. 전라감영은 고려시대 전라도안찰사영에 이어 전주에 설치되었으며, 경상감영, 충청감영과 달리 임진왜란 후에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전주에 있었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북도과 전라남도, 제주도까지 포괄하는 지역이다. 전주의 옛 지명이 완산이어서, 전라감영을 完營이라고 많이 부른다.

전라감사는 종2품으로 행정과 함께 사법과 군사 등 도내 모든 통치권한을 국왕으로부터 위임받아 처결하였다. 전라감사는 도내 지방관들이 올리는 보첩과, 지역민들이 올리는 소장을 처결하였고, 검사와 판결 등 도내 최고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임 병사와 수사를 지휘하고 도내 군사를 총괄하는 군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감영은 지방의 작은 정부이고, 그 수장이 감사이다.

조선말 1895년 8도제를 23부제로 개편하면서 조선 본연의 감영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전라감영도 폐지되었다. 1910년 조선이 멸망한 후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감영 건물들은 도청 건물로 쓰이다가 점차 철폐되었다. 전라감사의 집무처로 전라감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인 선화당마저 1951년 전쟁중에 도청 무기고가 폭발하면서 도청본관과 함께 전소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05년 전북도청이 신도심으로 이전하면서 전라감영 복원논의가 본격화되어 2020년 마침내 전라감영의 동편 전라감사영역이 복원되었다. 선화당이 복원되었고, 그 주

* 전주역사박물관 관장

변으로 관풍각, 연신당, 내아 등이 복원되어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전라감영의 복원은 호남의 수부로서 전주의 역사성 회복과 도청 이전후 원도심의 문화관광을 활성화 하는 차원이었다.

그간 전라감영에 대한 연구에서 전라감영의 역사성에 대한 기본적인 해명은 있었으나 이를 주제로 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다.¹⁾ 그래서 전라감영의 설치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또 선화당 등 감영 관아건물들은 언제 건립되었는지, 조선후기 감영제가 확대된다면 그 구체적인 실상은 무엇인지 여전히 의문점이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전라감영만이 아니고 조선시대 감영제 연구에서 아직 해명이 부족한 면이기도 하다.

본고는 전라감영 복원을 기념하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라감영의 설치와 확대의 시기와 내용,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본고가 전라감영의 역사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전라감영이 소재했던 전주 지역사를 밝혀 가는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I. 전라감영의 설치와 행영제

1)도관찰출척사로 개편과 전라도

감영(監營)이란 감사(監司)가 근무하는 관아라는 뜻이다.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아라는 의미로 전주에 설치되었고, 완영(完營)이라고 많이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전라도는 고려시대 5도 양계 중에서 가장 먼저 1018년(현종 9)에 도로 편제되었다. 그러나 이 때 전라감사가 일도를 통제하는 감영제가 실시된 것은 아니다. 고려 때는 구역을 도로 나누고, 5, 6품의 안찰사(按察使, 按廉使)가 6개월 단위로 파견되어 일도를 순력하는 정도였다. 고려시대 5도양계제는 행정구역을 나눈 의미가 컸고, 지방장관에 의해 일도가 통제되는 행정도제로서의 의미는 약했다.

그렇기는 하지만 조선시대 감영제와 관련해 고려시대 안찰사영의 존재가 주목된다. 안찰사영은 안찰사가 순력하지 않을 때 머물면서 일을 보는 관아로 안찰사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계수관(界首官) 군현에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계수관이란 도내 중심이 되는 큰 읍으로, 고려시대 전라도 계수관은 전주목과 나주목이었다. 안찰사영에는 창고 관리를 비롯한 실무를 담당한 서리(胥吏:아전, 향리) 등이 배치되었다.

전라도안찰사영은 그 설치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주에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말 전라도안찰사를 지낸 이달충이 1367년(공민왕 16) 경에 지은 「전주 관풍루기」에서 확인된다. 여기에서 이달충은 전라도안찰사영이 전주에 설치되어 있고, 이 안찰영에서 도내에 왕명이 선포되고 소송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²⁾ 전라감

1) 전라감영의 역사성을 언급한 연구로는 이희권, 『조선후기 지방통치행정 연구』, 집문당, 1999 ; 이동희, 「고지도로 본 조선후기 전주부성과 전라감영」, 『전북사학』26, 2003 ; 김태웅, 조선후기 감영 재정체계의 성립과 변화 :전라감영 재정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89, 역사교육연구회, 2004 ; 이희권외, 『전라감영 연구』, 전주역사박물관·전북대전라문화연구소, 2008 등이 있다.

영의 전주 설치는 전라도안찰사영이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

지방장관인 관찰사가 임용되어 일도를 전제하는 감영제는 고려말 도관찰출척사 설치에서 비롯되었다. 다음은 『고려사』에 실려 있는 안렴사 연혁이다.

창왕 <즉위년(1388)> 8월에 안렴사의 관품이 낮다고 하여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고쳐서 양부(兩府) 대신을 임명하였으며, 교서(敎書)와 부월(斧鉞)을 하사하여 파견하였다. 공양왕 원년(1389)에 처음으로 경관(京官)의 구전(口傳)을 폐지하고 따로 제수하여 임무를 전제하도록 하였다. <공양왕> 2년(1390)에 각 도에 관찰사와 경력사(經歷司)를 설치하였다.(『고려사』 77, 志 31, 백관 2, 외직)

위 기사에서 보듯이, 위화도회군후 이성계세력은 정권을 장악하고 지방제를 정비하면서, 1388년(창왕 즉위년) 8월 안렴사제를 혁파하고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를 신설하여 2품 이상의 양부 대신을 임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듬해 공양왕 원년(1389)에는 경관(京官)을 구전(口傳)으로 도관찰사에 임용하여 겸임하게 하는 비전임관제를 폐지하고 전임관 도관찰사제로 개편하여 도정에 전임하도록 하였다.

공양왕 2년에는(1390)에 관찰사 예하에 사무기구 경력사(經歷司)를 설치하였다. 경력사에는 4품 이상의 경력이나 5품 이하의 도사를 首領官으로 두어 관찰사를 보좌하게 하였다. 보통 경력을 두면 도사를 두지 않는데, 『태조실록』에 "경상도 도관찰사 이지와 경력 최관과 도사 이제 등이 전 판개성부사 박천상의 집 재산을 적몰하기를 실상대로 하지 않았습시다."라고 한 것에서 보듯이 둘을 같이 두기도 하였다.⁴⁾

도관찰사의 임기도 1년으로 연장되었다. 우왕 4년에 사헌부에서 안렴사의 임기가 6개월로 짧아서 벌여놓은 공무를 다 마치지 못하고, 1년에 두차례나 교체됨으로서 지방에서 영송의 폐단이 크니 임기를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였다.⁵⁾ 『호남도선생안』을 통해 전라도안렴사를 보면 이후에도 안렴사가 6개월마다 교체되고 있어서 그대로 시행된 것 같지는 않으나 전라도 첫 도관찰출척사 최유경, 노송 등이 1년여를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⁶⁾ 보아 임기 1년 연장도 도관찰출척사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말 도관찰출척사제로의 개편을 통한 감영제 설치의 위화도회군을 통해 집권한 이성계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창왕 즉위년 7월 조준은 상소를 올려 토지제도 개편을 극력 간하면서 안렴사를 도관찰출척사로 개편할 것을 진언하였다. 즉 안렴사가 대읍의 수령들보다 직급이 낮아 지방관들을 규찰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우므로 양부 대신들 중에서 도관찰출척사를 임용하여 地方통치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⁷⁾ 조준은 토지제 개혁의 선봉에 섰던 이성계세력이다. 이러한 이성계 세

2) 『동문선』 71, 記, 「전주 관풍루기」 “…咨于邑之鬻老曰 惟爾 之州 故所都也 故其號冠於一方 而按部營焉 王命之頒 莫不始于此 民情所訟 莫不萃于茲 時當暑月 館宇卑湫 無以避炎溽 廳事之北 有小亭曰 綠筠軒 甚陋塞 不堪處也 官給其費 易亭而樓之 可乎 咸曰 固所望也 … 予嘗按是道 主是營 病暑而幾殆 州之南 有寺曰南高 移寓幾日而復命 韓公之意 則予志也…”

3) 이동희, 「고려시대 전주목의 설치와 그 위상」, 『전주학연구』 11, 전주역사박물관, 2017, 26~27쪽

4) 『태조실록』, 태조 6년 8월 20일 기해

5) 『고려사』 59, 志 29, 選舉 3, 銓注.

6) 『호남도선생안』(1875년, 전북도청소장)

7) 『고려사절요』 33, 신우 4, 우왕 14년 7월

력의 도관찰출척사 신설에 따른 지방제 개편 주장은 지방세력들에 대한 통제와 함께 토지제도 개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는 창왕 즉위년 관찰사제를 신설하여 각 도에 관찰사를 파견하면서 토지를 측량하게 한 것에서도⁸⁾ 읽어 볼 수 있다. 이성계세력은 위화도회군후 대신급의 도관찰출척사를 각 도에 파견하여 지방통치의 문란함을 바로잡으면서 지방통제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장악력을 강화하고 토지제를 성공적으로 개편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런 여파만은 아니겠지만, 공양왕 3년 토지제 개혁을 과전법으로 완수한 이듬해 공양왕 4년(1392)에 관찰사를 없애고 안렴사를 복치하였다.⁹⁾ 이는 문하시중 심덕부의 상언으로 이루어졌다. 역성혁명파 문하시중 심덕부, 수시중 배극렴이 여러 시무를 올리면서 여러 도의 관찰사를 혁파하고 안렴사를 복구할 것을 청하였다.¹⁰⁾ 조선건국 3개월전의 일이다.

전라도는 고려말 1388년 도관찰사로 개편후 최유경이 첫 번째 도관찰출척사로 부임하여 1년여간 재임하였으며 이어 노송이 부임하여 1년 넘게 재임하였고, 이어 김사안, 하륜 등이 도관찰출척사로 부임하였으며 재임기간은 6개월정도 되었다. 전라도에 고려마지막으로 부임한 인물은 이원으로 도관찰사가 혁파되고 안렴사로 부임하였다¹¹⁾

2)감영제의 확립과 전라감영 설치

조선건국직후에도 안렴사가 임용되었다. 조선건국 직전 공양왕 4년 4월 안렴사제로 다시 돌아감에 따라 전라도관찰출척사 하윤이 공양왕 4년 4월에 체직되고 이원이 전라도안렴사로 5월에 임용되었다. 조선건국후 태조 원년 10월에는 김희선이 전라도안렴사로 임용되었다. 태조 2년 9월에 안렴사가 혁파되고 다시 도관찰출척사제로 복치됨에 따라 안경공이 태조 2년 10월에 전라도 도관찰출척사로 임용되었다. 안경공은 조선건국후 전라도 도관찰출척사로 처음 임용된 인물이다.¹²⁾

이후 태종이 왕위에 오른후 1401년(태종 원년) 1월에 다시 또 안렴사제로 돌아가,¹³⁾ 전라도안렴사로 조휴가 태조 원년 3월에 임용되었다. 그해 11월에 사간원에서 안렴사제를 폐하고 관찰사제를 다시 설치하고, 수령관으로 5품 이하로 도사를 삼아 각각 임기를 1년으로 하자고 건의하였다.¹⁴⁾ 그리하여 태종 2년 1월 도관찰출척사제를 다시 설치하고 전라도 도관찰출척사로는 유염을 제수하였다.¹⁵⁾

태종 13년에 양계지역을 영길도와 평안도로 개칭하여 조선 8도제를 완비하고,¹⁶⁾ 태

8) 『고려사절요』 33, 신우 4, 우왕 14년 8월

9) 『고려사』, 백관지, 외직, 안렴사

10) 『고려사절요』 35, 공양왕 4년 4월

11) 『호남도선생안』(1875년)

12) 『호남도선생안』(1875년)

13) 『태종실록』, 태종 1년 1월 24일 갑신

14) 『태종실록』, 태종 1년 11월 7일 신묘

15) 『태종실록』, 태종 2년 1월 20일 계묘

16) 『태종실록』, 태종 13년 10월 15일 신유

종 17년에 이 양계지역에도 도관찰출척사를 파견하였다.¹⁷⁾ 이후 감영제는 1895년 23 부제로 개편될 때까지 이어졌다. 행정도제의 의미를 갖는 감영제도는 고려말에 처음 설치되어 조선건국후 태종대에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도관찰출척사, 도관찰사, 관찰사 등으로 직명을 사용하다가 1466년(세조 12) 지방제를 정비하면서 관찰사라는 직명으로 정착되어,¹⁸⁾ 『경국대전』에 임기 1년의 관찰사로 법제화되었다. 감사의 수령관 경력은 세조 11년에 혁파된 것으로 보이고,¹⁹⁾ 종5품 도사와 종9품의 심약·검을 등이 감사의 보좌관으로 『경국대전』에 법제화 되었다. 심약과 검을은 감사의 보좌관으로서 태종 원년 지방제 개편 요구 때 도사만 보이고 이들에 대한 언급이 없고 『세종실록』 이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세종대 이후 설치된 것이 아닌가 한다. 감영제는 고려말에 등장하여 태종대에 기본 틀이 확립되고, 이후 보완 정비과정을 거쳐 성종대 『경국대전』으로 법제화 되었으며, 전라감영도 이와 궤를 같이 하였다.

전라감영의 설치 시기는 도관찰사제가 정착된 태종대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도관찰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말이지만 아직 감영이 설치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른 것 같다. 고려말에서 조선건국초 도관찰사제는 여러 차례 치폐를 반복했고, 감영의 틀을 갖추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태종대는 도관찰사제만이 아니라 조선 정치체제의 기본틀이 형성된 시기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감영시설들이 갖추어지는 것이 감영설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17세기경으로 넘어가므로 태종대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전라감영이 고려시대 전라도안찰사영에 이어 전주에 설치된 이유는 우선 한양에서 전주가 나주보다 가깝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감영은 도내 계수관 가운데 한양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되었다. 이는 국왕의 교화가 임금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데부터 내려간다는 논리와 관련이 있다.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 30년 경상감영을 상주로 옮기는 것에 대해 경주지역민들이 항의하자 경주가 상주보다 크지만 풍화는 임금이 있는 한성부에서 상주를 거쳐 경주로 내려가는 것으로 평안도의 평안감영, 전라도의 전주감영, 강원도의 원주감영, 황해도의 해주감영 등이 모두 서울에 가까이 있는 것도 다 이런 이유라고 하였다.²⁰⁾

또 전라감영이 전주에 설치된 배경에는 전주가 영남과 호서지역으로 나가는데 용이한 교통의 요지이며, 나주보다 물산이 더 풍부하다는 것이 작용했다. 유영제로 나갈 때 전라감사 이흥로가 치계하여, “감영을 설립할 곳으로는, 나주는 하도(下道)에 치우쳐 있어 형세상 불편치 못하고, 전주는 또 상도(上道)에 치우쳐 있으나 영남과의 접경이 멀지 않으면 게다가 호서와도 가깝고 물력(物力)도 조금은 나은 듯하여, 일찍이 체찰사 이덕형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였었습니다.”라고 하였다.²¹⁾

17) 『태종실록』, 태종 17년 10월 15일 정유

18) 『세조실록』, 세조 12년 1월 15일 무오

19) 『경상도선생안』; 이수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222쪽.

20) 『세종실록』, 세종 30년 4월 5일 경신; 대구향토문화연구소, 『경상감영사백년사』, 대구광역시중구, 1998, 42~43쪽; 오영교, 『강원감영연구』, 원주시, 2007, 30~31쪽

21) 『선조실록』, 선조 34년 4월 9일 병자

이와 함께 전주에 전라감영이 설치된 이유는 조선왕실의 발상지라는 것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주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본향으로 그 선조들이 살았던 곳이다. 그리하여 전주는 조선건국후 건국자의 고향 풍패지향(豐沛之鄉)으로 예우되고 조선왕조의 근본지지(根本之地)로 인식되었다. 함경감영도 함흥에 설치되었으며, 이시애난으로 성종 1년 영흥으로 옮겼다가 중종 4년 함흥부로 다시 옮겼는데, 함흥은 태조가 살았던 곳이며, 영흥은 태조가 태어난 곳이다. 임진왜란후 충청감영이 충주에서 공주로 옮기고, 경상감영이 상주에서 대구로 옮겼음에도 전라감영을 전주에 그대로 둔 것도 조선의 풍패지향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3)행영제 하의 전라감영 운영

조선건국후 감영제 운영형태는 감사가 감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내 군현을 순력하며 일도를 통괄하는 순영제(巡營制, 行營制)였다. 고려시대 안찰사가 6개월을 임기로 일도를 순력하던 것이 조선건국후 감영제하에서도 근무형태는 그대로 이어져 감사가 일도를 순력하는 형태로 도정을 총괄하였다. 그러다가 임진왜란후 17세기에 감사가 감영에 머물면서 일도를 다스리는 유영제(留營制)로 근무형태가 바뀌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인 선조대에 전라감사를 역임한 미암 유희춘(眉庵 柳希春)의 일기 『미암일기(眉巖日記)』에 보면, 미암은 1571년(선조 4) 3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201일 동안 전라감사로 재임하면서 모두 4차례에 걸쳐 도내 군현을 180일간 순력하였으며, 전주 감영에 머문 기간은 21일밖에 되지 않았다. 오히려 나주에서 전주보다 긴 30일을 체류하였다.²²⁾ 이처럼 조선전기 순영제 하에서 전라감사는 전라감영에 머물지 않고 도내 군현을 순력하는 형태로 도정을 살폈다.

그러므로 감영의 조직은 조선후기 유영제하에서처럼 크지 않았다. 유희춘의 『미암일기』를 통해 조선전기 전라감영 조직의 일단을 살펴 보면 전라감사의 보좌관으로 심약·검률·도사와 중방이 있었고, 영리 30명(서리 24명, 마두 6명) 등으로 구성되었던 것 같다. 선조 4년 10월 전라감사로 있던 유희춘이 대사헌으로 전직되어 떠나면서 자신을 보좌했던 감영의 관리들과 이서(吏胥)들에게 전례에 따라서, 그간의 과오를 씻는다는 의미로 목면과 벼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이들이다.²³⁾

이 중에 중방(中房)은 거느리고 다니는 겸인(僉人)·반인(伴人)으로 감사의 사적 보좌관이다. 중방은 곧 조선전기 감사가 국왕에게 아뢰어 차임하였던 대솔군관(帶率軍官, 啓請軍官)으로 대개는 전직 관리들로 행정실무에 밝은 자들이다. 이 중방, 즉 대솔군관이 곧 훗날의 비장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22) 『眉巖日記』. 미암이 나주에 오래 머문 것은 보통 순력할 때 민폐를 줄이기 위해 부유한 고을에 오래 머무르는 것과, 미암이 해남출신이고 후에 처가인 담양으로 이주해 나주 일원과 연고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3) 『미암일기』, 선조 4년 10월 15일

24) 이희권, 「전라감영의 조직구조와 관찰사의 기능」, 『전라감영연구』, 전주역사박물관·전북대전라문화연구소, 2008, 8~9쪽 ; 정약용, 『목민심서』, 호적조 ; 『중종실록』, 중종 17년 11월 16일 무오조.

미암의 이 기록에서 吏가 없는 것도 주목된다. 인리는 영리와 달리 도정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감영내의 사무운영을 전담하는 아전으로, 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곧 전주에 전라감영이 설치되었지만 여기에 머무는 감영시설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전기 행영제 하에서 별도의 감영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영제인 평안도와 함경도 양계지역을 제외하고 그 아래 6도의 경우도 그러했을 것이다. 감사가 대부분의 재임기간동안 군현을 돌면 도정을 살피고 감영 소재지 본영에 머무는 기간이 극히 짧으므로 별도의 감영시설이 필요 없었다.

『미암일기』에 보면 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전라감영 관아시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미암이 순력을 마치고 전주에 머물 때는 전주객관에 거쳐하여 도정을 처결하였다. 미암은 도입하여 남문으로 들어와 태조어진을 모신 경기전에 숙배하고 감영으로 들어가 지방관들의 인사를 받았다. 그런데 그 장소를 선화당이라고 하지 않고 後大廳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 조선후기 전라감사 일지들에 보면 선화당에서 인사를 받고 있다. 미암은 부임하례 이후에도 후대청이라고 써놓았지 선화당이라고 하지 않았다. 『미암일기』에는 ‘선화당’이라는 기록이 없다. 이는 선화당이라는 별도의 전라감사 집무처가 없고, 營邑 본영에 머무는 기간동안 대청과 방이 있는 객관에서 도정을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전주 동헌에도 대청이 있지만 이는 전주부윤 이 상주하는 정청으로 전라감사가 거쳐할 수는 없었다.

행영제하에서 전라감사가 전주 객관에 거쳐했음은 미암의 다음 기록에서 분명해진다. 미암이 순력을 하다가 실록봉안사 박상 일행이 전주로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순행을 멈추고 전주로 급히 돌아오게 되었다. 이 때 전주 거처에 대해 『미암일기』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5월 11일 실록 봉안사 박상일행과 함께 전주성에 입성하여 객관 대청에 우선 실록을 봉안하고, 5월 13일 가마를 타고 한벽당에 가서 기약을 올리고 점심을 먹고 피곤함에 먼저 객관[館舍]으로 돌아왔다고 하였다.

5월 16일에 실록각에 실록을 봉안하고 돌아오는 대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

나(전라감사 미암)는 박공(봉안사 박상)과 더불어 가마를 타고 나란히 행하여 府館(객사)으로 들어가 조금 쉬었다. 나는 공사를 처결하고 미시에 대청에서 모여 술을 마셨는데 봉안사는 동에 앉고 나는 서쪽에 앉아 수작이 끝난 뒤에 다시 가까이 앉아 別盞을 마셨다. 봉안사는 몸이 편치 못하다며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객관) 동헌방으로 들어갔다.(『미암일기』, 선조 4년 5월 16일)

여기에서 府館은 객관이고, 봉안사의 거처 동헌방은 객관의 동익헌 방을 가리킨다. 유희춘과 박상은 실록각에 실록을 봉안하고 객사에 들어와 쉬었으며, 술을 마시고 박상은 몸이 편치 않다고 동익헌 방으로 들어가 쉬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일기에, “봉안사가 아침에 서헌에 들러서 나를 보고 갔다.”라고 기록해 놓았다. 이는 당시 미암이 객관 서헌방을 거처로 쓰고 있음을 알려준다.

전라감사 미암은 본래 동헌방을 거처로 사용하다가 실록 봉안사 박상이 오자 동헌

방을 양보하고 자신은 서헌방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미암이 박상을 맞으러 여산에 갔을 때도 여산 객관 동헌방에 거쳐하다가 박상이 오자 동헌방을 내주고 서헌방으로 옮겼다. 미암이 전주에 유영시 객관 동헌을 처소로 썼음은 7월 5일 순행을 마치고 전주로 들어올 때 전주부윤 남궁침이 지영을 하였지만 받지 않고 동헌방으로 들어가 만났다는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건국후 행영제 하에서 전라감사가 도내 군현을 순행하면서 지방관들을 규찰하고 도정을 처결하였으므로 전주의 감영 본영에 별다른 감영시설이 없었다. 행영제의 다른 감영들도 그러했을 것 같다. 행영제 하에서 감사가 본영에 머물 때는 감영 소재 군현의 관아시설을 활용했던 것이다. 그 때 전라감사는 전주객관을 임시거처로 이용하였으며 다른 감영들도 그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군현의 동헌건물은 수령이 집무를 보는 곳이고, 객관은 왕을 상징하는 건물로 수령의 집무처 동헌보다 격이 높다.

감영의 표기도,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조선전기에는 관찰사영(觀察使營)·감사영(監司營)·본영(本營) 등으로 칭하였다. 『세종실록』, 세종 7년에 ‘都觀察使營’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고²⁵⁾ 이후 중종대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관찰사영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감사영(監司營)’도 『태종실록』을 비롯해²⁶⁾ 조선전기의 실록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 세종 31년 기사에는 “감사는 주(州)를 겸하여 본영(本營)이라 일컫고[況監司兼州, 號稱本營]”라고 하였다.²⁷⁾

그러다가 『선조실록』, 선조 26년에 “연안에 감영을 설치해야 한다.[延安當爲監營]”²⁸⁾ 기사에서 ‘감영(監營)’이라고 표기한 것이 처음 보인다. 이후 조선후기 실록에는 관찰사영이나 감사영이 아니라 거의 ‘감영’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유영제가 논의되고 시행되면서 감영이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III. 유영제로 개편과 전라감영 확대

1) 유영제로의 감영제 개편 논란

감사가 감영에 머물며 도정을 처결하는 留營制는 임기 2년의 久任制, 감사가 감영 소재 군현의 수령을 겸하는 兼牧制, 임지에 가족을 데려오는 挈眷制와 서로 연계되어 궤를 같이한다. 유영제가 되기 위해서는 구임제와 설권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유영제를 운영하려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가 營畵의 수령을 겸하는 겸목제가 시행되는 구조이다.

감사의 구임을 통한 유영제는 사실 조선초부터 논의되어 왔다. 그래야만 감사의 권

25) 『세종실록』, 세종 7년 8월 18일 갑신
 26) 『태종실록』, 태종 14년 4월 2일 을사
 27) 『세종실록』, 세종 31년 1월 22일 계묘
 28) 『선조실록』, 선조 26년 7월 29일 신사

한이 강화되고 지역의 실정도 파악하여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성과도 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영제를 운영할 수 있는 물적 기반 확보의 어려움과 감사의 세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컸다. 그래서 구임제 주장이 있고, 때로 시행되기도 하였지만 1년 임기로 돌아가곤 하였다.

세종 17년(1435)에 구임론이 제기되어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법을 만들라고 하였으나²⁹⁾ 바로 시행되지는 못한 것 같고, 세종 30년에 임기 1년을 30삭으로 늘려 가족을 데려가게 하고 영읍 수령을 겸하게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³⁰⁾ 즉 세종 30년에 구임, 설권, 겸목을 토대로 한 유영제가 시행되었다. 그렇지만 바로 이듬해 세종 31년 사간원에서 유영제의 폐단이 다시 제기되었고,³¹⁾ 단종 2년((1454)에 구임, 겸목, 설권, 유영제의 폐단이 논의 되어 겸목제는 폐기되었다.³²⁾ 그결과 유영제는 유지되지 못하고 行營制로 돌아갔다.

유영제는 중종대에도 시행된 적이 있다. 중종 14년(1519) 5월에 감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가족을 데려가는 설권제를 토대로 다시 논의되어 시행되었으나, 얼마 안되어 그해 11월 민폐가 크다는 이유로 6도 감사의 임기를 도로 1년으로 하는 것으로 환원되었다. 경상도는 좌우도로 나뉘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졌다.³³⁾

유영제는 이러한 논란을 거쳐 선조대에 이르러서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시행단계로 들어갔다. 율곡 이이가 그 주역이었다. 선조 14년 貢法 개정을 논의하면서 이이는 수령의 근만은 감사에 달려 있다고 하며 감사의 겸목구임론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선조는 감사가 힘이 강해지고 독단을 부릴 수 있다고 하여 반대하였다.³⁴⁾ 선조 16년에 이이는 다시 또 감사의 겸목구임제를 역설하였고, 전라도와 경상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얼마뒤 율곡이 죽자 감사의 발호를 염려한 선조에 의해 구제로 환원되었다.³⁵⁾

구임론은 이후 임진왜란 때 다시 제기되었다. 전란의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수령 통제를 통한 관찰사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조 25년(1592) 전라감사 이정암이 올린 장계가 문제가 되어 그 체직여부를 논할 때 전쟁 중이니 체직시키지 말자는 주장은³⁶⁾ 그런 사정을 시사해 준다. 선조 26년에는 해주 황해감영을 유영제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시행되지는 않았다.³⁷⁾ 선조 27년(1594)에는 전주부윤 홍세공을 전라감사에 임용하고 전주부윤을 겸하게 하고, 감영에 시설을 두어 가족을 데려올 수 있게 하고 구임하게 하였다.³⁸⁾ 그러나 『호남도선생안』에 홍세공이 전주부윤으로서 전라

29) 『세종실록』, 세종 17년 9월 19일 정해

30) 『세종실록』, 세종 30년 4월 22일 정축

31) 『세종실록』, 세종 31년 1월 22일 계묘

32) 『단종실록』, 단종 2년 7월 28일 정축 및 30일 기묘

33) 『중종실록』, 중종 14년 5월 19일 신해)·20일 임자 및 11월 30일 경신

34) 『선조수정실록』, 선조 14년 5월 1일 계해

35) 『선조실록』, 선조 16년 4월 14일 을축 ; 『선조수정실록』, 선조 16년 5월 1일 임오

36) 『선조실록』, 선조 27년 5월 26일 계묘

37) 『선조실록』, 선조 26년 2월 26일 기유. 황해감영을 유영제로 하자는 논의는 있었으나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38) 『선조실록』, 선조 27년 5월 28일 을사

감사에 임용되었다고는 나오나 전주부윤을 겸한 것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때도 시행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유영제가 兼牧하여 법제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더라도 감사가 전란으로 인해 감영에 머물며 다스리는 현상들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조 29년(1596)에 선조가 감사와 어사에게 내린 글에, “방백의 임무가 어찌 한곳에만 앉아 있는 것이겠는가. 말로는 감영에 머물러 수작하며 문부(文簿)만 왕래하면 된다고 하지만, 반드시 궁벽한 산골이나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두루 편력하여 한결 같이 질고(疾苦)를 위문하고 폐단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라고³⁹⁾ 한 것은 그런 저간의 사정을 보여준다. 『완산지』에 1597년 정유재란 때 전라감영 선화당이 소실되어 이듬해 1598년 전라감사 황신이 증견하였다고 한 것은 이런 유영제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다.

그러다가 전란이 끝난 후 1601년(선조 34)에 감사가 영읍 수령을 겸한 검목제와 유영제가 삼남지방에서 운영되었다.⁴⁰⁾ 『호남도선생안』에 보면 1601년에 전라감사에 임용된 허성부터 전주부윤을 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얼마 안되어 선조 39년(1606)에 민력의 피해를 들어 전라감영과 충청감영·경상감영 삼남의 유영제를 혁파하였다.⁴¹⁾ 이 때 유영제가 혁파되었음은 『호남도선생안』에 허성부터 한준겸, 장만에 이어 1605년에 전라감사로 부임하여 1607년에 이임한 권협까지 전주부윤을 겸한 것으로 기록된 데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또 선조 40년(1607) 2월 20일 사헌부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고 있다.

“감사를 1년마다 교체시키는 것이 조종조의 법제인데, 전에 일이 많아 충청·전라·경상도의 감사가 임시로 영문(營門)을 설치한 관계로 2년을 기한으로 하였습니다. 이제 이미 영문을 혁파하였는데도 양남(兩南)의 감사는 수비가 급하다 하여 임기가 끝난 뒤에도 그대로 두고 있으니 법제에 어긋날 뿐만이 아닙니다. 감사 권협과 유영순은 부임해서 영문을 설치할 때에 가족을 대동하고 오래 머물면서 폐를 끼친 것이 또한 많으므로 인심이 고달파 하며 염증을 내는 것이 극에 이르렀으니, 정사의 체모로 볼 때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권협과 유영순 모두 체차(遞差)를 명하소서.”라고 하니 임금이 이를 윤허한다고 답하였다.(『선조실록』, 선조 40년 2월 20일 계축)

선조 40년 사헌부에서, 하삼도에 영문을 임시로 두었다가 혁파하였는데 여전히 그대로니 경상감사 권협과 전라감사 유영순을 모두 교체하라고 탄핵하고 있다. 유영제를 혁파하였음에도 전라감영과 경상감영에는 감사 유영의 형태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유영제와 관련한 광해군 5년(1613)의 기사이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하삼도의 감영은 일찍이 대간의 계사로 인해 이미 혁파되었으나, 그 후 조정의 본뜻을 헤아리지 않고 명색은 혁파했어도 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감영에서 하는 일이 예전과 다름없이 고치지 않아 못 고을에 폐해를 주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본영을, 항상 머무르는 편리한 곳으로 여겨 일년 중 태반을 감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령들의

39) 『선조실록』, 선조 29년 2월 25일 임술

40)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7월 12일 계유. 비변사가 구임제를 요청하며 올린 계에 1601년 구임제를 삼남지방에 설치하였다가 1607년경 폐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41) 『선조실록』, 선조 39년 11월 16일 신사

잘잘못과 군졸 백성의 어려움을 순찰하지 못하고, 수령의 성적을 매기는 중요한 일도 단지 품문에 의거해 하고 있으니, 감영에 머물러 있는 폐해가 한결같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삼도의 감사로 하여금 감영의 부속물들을 모조리 혁파하고 한 곳에 항시 머무르지 않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광해군일기』(중초본), 광해군 5년 2월 18일 병오)

사간원의 말은 하삼도의 유영제를 혁파했음에도 일년에 태반을 감영에 머물러, 수령 규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여러 폐단이 일고 있으니 감영의 부속물들을 모두 없애고 감사가 유영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선조대 이이에 의해 구임제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임진왜란의 위급한 전쟁 상황에서 유영제가 도입되어, 비록 치폐를 반복하였지만 감사가 유영하면 근무하는 형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조대에 유영제가 정착된 것은 아니었다.

구임제는 인조대에 다시 제기되었다. 1638년(인조 16) 비변사에서 아뢰어, 양계지역 평안도와 함경도는 이미 구임제가 시행되고 있고 경기도와 강원도는 군현이 많지 않고 거리가 가까우니 제외하고, 해서는 비록 작더라도 서관(西關)과 직접 통하는 길목으로 임무의 중대함이 평안도와 다를 바가 없으니 전라·충청·경상도 삼남지방과 함께 황해도에도 구임제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조는 物力の 부족과, 설권의 어려움, 그간 성과가 없었음을 들어 수락하지 않았다.⁴²⁾ 비변사에서 또 아뢰기를, 대구가 전주, 공주에 비해 물력이 떨어지기는 하나 그런대로 물력을 갖추었으니 경상감영도 구임제가 가능하고, 황해도도 아직 구임시킨 적은 없으나 營中의 使喚이나 器具가 넉넉하니 구임제를 할만하다고 하였다.⁴³⁾

2)유영제의 정착과 전라감영

이러한 논란을 거쳐 1652년(효종 3) 겸목구임제가 전라감영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효종 3년에 전라감사 심택으로 하여금 전주부윤을 겸하게 하고 임기를 3년으로 하여 먼저 시험적으로 시행하게 하였으며,⁴⁴⁾ 성과가 없고 폐단이 크다고 하여 현종 5년(1664) 전라감사 조귀석 때 전주부윤을 겸하는 것을 폐지하였다.⁴⁵⁾ 이 때 전라감영에서 구임겸목제가 실제로 시행되었음은 『호남도선생안』에서 확인된다. 이 전라감사 명부에 보면, 전라감사 심택이 효종 2년에 전라감사로 부임하여 효종 3년에

42)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7월 12일 계유

43)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7월 14일 을해

44) 『승정원일기』, 효종 3년 3월 18일 기축 “...今者 全南監司沈澤 受任暮年 治效已著 民心洽然 惟恐失之 仍令兼任全州 以終三年 則實爲便益 全南一道 先試舉行 宜當 臣太和·臣金堉·臣時白等意皆然 而事係重大 卽遣郎廳 相議于領中樞府事李敬輿 前領議政李景奭 則亦無異同 伏候上裁 如以臣等之言爲可 則其間節目 從當詳講稟定 敢此具啓 傳曰 依啓 才難難慎之言 極爲合當 後不必爲例 似可矣”

45) 『승정원일기』, 현종 10년 1월 20일 갑인 “...宋時烈曰 監司久任事 臣每欲陳達而未果矣 頃年全羅監司 許兼全州府尹 而旋即罷之 監司必須久任 然後可以責效矣 閔鼎重曰 此論出於宣祖朝先正臣李珥 而臣曾以湖南廉問御史 陳請於先朝 命以全羅監司 兼全州府尹矣 其後趙龜錫 爲監司 狀啓罷之 蓋出於兼府尹之不能善處 致有是弊 而其實監司 必須挈眷久任 然後可以責效矣 上曰 此議自前有之 事勢亦然矣 後日諸大臣登對時 稟定 可也 遂罷出

전주부윤을 겸하였고, 이어 후임 전라감사들이 전주부윤을 겸하여 전라감사 정만화가 지 이어지고 있다. 정만화의 전임자가 바로 조귀석이다. 이들의 재임기간과 교체사유를 보면 심택이 39개월에 과체로 되어 있고, 조계원이 24개월에 과체, 김시진이 27개월에 과체로 되어 있다. 그런가하면 조귀석 다음의 정만화는 12개월에 과체로 되어 있다.⁴⁶⁾ 1652년(효종 3)부터 1664년(현종 5)까지 12년에 걸쳐 전라감영에서 검목, 구임, 설권을 토대로 한 유영제가 처음 시행된 것이다.

구임제, 설권제를 토대로 한 유영제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이 확보되어야 했다. 감영의 관속들과 감사의 가족, 또 감영시설 운용비 등이 마련되어야 유영제를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감영은 이때까지 독자적인 재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군현을 순행할 때 그 해당 군현에서 경비를 담당하는 형편이었다.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타개되어야 유영제가 가능했다.

대동법의 시행은 감영의 독자적 재정마련에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 1657년(효종 8) ‘대동사목(大同事目)’에 감영에서 쓰는 영수미(營需米)가 규정되어, 각 군현 대동미에 감영의 영수미를 책정해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감영이 제도적으로 감영재원을 마련하고 재정권을 부여받는 감영재정체계가 성립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감영이 독자적 재정권을 가지고 감영을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에 기반하여 유영제가 자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⁴⁷⁾

전라감영이 유영제를 처음 시행한 것은 이런 물력에 힘입은 것이다.⁴⁸⁾ 전라도는 국가재정의 태반을 담당하다시피 하는 곳이고, 전주 자체도 대읍이었다. 읍격으로 보아도 전주는 종2품의 부윤이 임용되는 읍이었고 충청감영 공주는 정3품 목사, 경상감영 대구는 종3품 도호부사의 임용읍이다. 그 결과 1652년 전라감영서 처음 유영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1664년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전라감영의 시범운영을 토대로 1669년(현종 10)에 마침내 양계 이남지역에 유영제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현종 10년에 양계 이남 지역에도 감사 임기 2년의 구임제와 가족을 데려갈 수 있는 설권제가 시행되었으며, 감사가 영읍 수령을 겸하는 겸목제도 이 때 같이 시행되었다. 다음은 이를 살펴본 것이다.

『경국대전』 체제에서 감사의 임기는 북쪽 양계지역인 함경도와 평안도는 2년이었지만, 그 남쪽 6도는 전라도를 비롯해 감사의 임기가 1년이었다. 조선초부터 감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구임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감사가 가족들을 동반하는 등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감사의 힘이 지나치게 커지는 염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1년 임기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선조대 이이가 강력하게 구임제를 주창한 이래 그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효종대 전라감영에서의 운영을 거쳐 1669년(현종 10)에 마침내 구임제가 시행되어 양계 이남의 관찰사 임기가 2년으로 연장되었다.⁴⁹⁾

46) 정만화가 전주부윤을 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임기는 1년을 역임하고 과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가 전주부윤 발령을 받은후 겸목구임제가 혁파되었기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47) 김태웅, 앞의 논문, 174~175쪽.

48) 김태웅, 앞의 논문, 174~175쪽.

구임제가 실제로 시행되었음은 전라감사의 명부 『호남도선생안』에서 확인된다. 구임제가 시행되기 전인 현종 6년에 전라감사로 부임한 민유중은 16개월을 재임하고 과체로 되어 있으며, 현종 8년에 임용된 홍처후는 14개월을 복무하고 과체로 되어 있고, 현종 9년에 임용된 민점은 15개월을 재임하고 과체로 되어 기록되어있다. 과체는 임기를 다채우고 교체된 것을 말한다. 구임제 시행 이전은 감사의 임기가 1년이었으므로 재임기간이 1년이 넘으면 과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임제가 시행된 이듬해 현종 11년에 전라감사로 부임한 오시수는 재임기간 27개월에 교체사유가 ‘과체’로 되어 있다. 현종 14년에 임용된 이동직도 26개월을 재임하고 과체라고 되어있으며, 숙종 2년에 임용된 박신규도 28개월을 재임하고 과체로 표기되어 있다.⁵⁰⁾

1669년(현종 10) 구임제 시행과 함께, 삼남지방 전라·충청·경상감영에 가족을 임지로 데려갈 수 있는 설권제(挈眷制)도 마련되었다. 『현종실록』, 현종 10년 기사에 구임제 시행과 함께 삼남지방에 설권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다.⁵¹⁾ 행영제하에서는 감사가 순력을 함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였고, 이것이 감사를 기피하는 이유가 되었다. 북쪽 양계지역은 변경 방어 문제로 2년 임기에 가족을 데려오는 구임설권제(久任挈眷制)와 감사가 목사를 겸하는 겸목제(兼牧制)가 일찍이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남은 17세기에 유영제가 시행되면서 구임설권제가 시행되었던 것이다.

『완영일록』에 보면 전라감사 서유구가 어머니를 모시고 부임하고 있고, 조상들의 신주(神主, 위패)도 모셔오고 있다. 설권에 따른 경비 문제로 경상감영과 충청감영은 숙종 3년에 구임설권제가 폐지되었다가 후에 복구되지만 전라감영은 재정적 여력으로 1699년 구임설권제가 제도화된후 그대로 유지되었다.⁵²⁾

1669년(현종 10) 유영제가 시행되면서 감사가 감영 소재지 蠶邑의 수령을 겸하는 겸목제도 삼남지방 전라·충청·경상감영에 시행되었다.⁵³⁾ 『호남도선생안』에 보면, 현종 10년 7월에 부임한 전라감사 김징부터 전주부윤을 겸하고 있다.⁵⁴⁾

행영제(순영제)하에서는 감사가 도 전역을 순력 하였으므로 수령을 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유영제로 바뀌어 감사가 순력하지 않고 감영에서 일도를 총괄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겸직체제가 가능해졌다. 또 유영제가 되면서 경비 절감을 위해 감사가 영읍의 수령을 겸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런 연유 등으로 겸목제로 개편되었고, 이에 따라 감사가 영읍의 실무들까지 일일이 다 챙겨 볼 수 없으므로 종5품의 판관을 파견하여 실질적인 부윤·목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전라감영도 유영제가 되면서 전라감사가 전주부윤을 겸하고, 전주판관이 전주부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유영제는 1746년(영조 22) 『속대전』으로 법제화 되었다. 『속대전』에 구임제가 법제

49) 『현종실록』, 현종 10년 2월 8일 신미 “命諸道監司瓜限 以二周年定式 時判府事宋時烈首發此議 請令挈眷 左議政許積以爲挈眷有弊 領議政鄭太和以爲 惟在得人 領府事李景奭 判府事鄭致和皆以久任爲宜 上問于宋浚吉 浚吉亦以爲然 故有是命 而後因諸議 只使三南監司挈眷 ; 『승정원일기』, 현종 10년 2월 8일 신미

50) 『호남도선생안』

51) 『현종실록』, 현종 10년 2월 8일 신미

52) 『숙종실록』, 숙종 3년 1월 10일 정해

53) 『비변사등록』, 현종 10년 6월 25일 ; 『승정원일기』, 현종 10년 6월 25일 ; 『호남도선생안』

54) 『호남도선생안』 “관찰사 겸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전주부윤 김징 … ”

화 되어 경기감영을 제외하고 모두 임기 2년으로 늘었고, 검목제는 경기감영과 강원감영을 제외하고 전라·충청·경상·황해도 감영에 법제화 되었다. 강원감영은 정조대 『대전통편』에 와서 검목제가 되었다.

이는 곧 감영제가 유영제로 완전하게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유영제는 선조대 전란 속에서 유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제화 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감사가 감영에 머물며 통치하는 경향이 일었으며, 효종대 전라감영에서 시험적으로 10여년간 검목구임과 설권을 토대로 한 유영제를 운영하였으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하여 마침내 현종 10년 검목구임과 설권을 토대로 한 유영제로 개편하였으며, 영조대에 『속대전』으로 유영제들을 법제화하였던 것이다.

경상감사 조재호(趙載浩)는 1752년(영조 28)에 경상감사로 부임하여 1년 1개월 정도를 재임하면서 순력은 단 2차례 행하였다. 이 중 1차 순력은 7월 28일에 출발하여 21일간 수행하였고, 대구감영으로 돌아와 12일간 체류한 다음, 2차 순력을 9월 2일에 출발하여 23일간 수행하였다.⁵⁵⁾ 즉 조재호는 1년 1개월간 경상감사로 재임하면서 도합 44일 정도만 도내 군현을 순행하고 나머지 모든 기간은 대구감영에서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⁵⁶⁾

전라감사 풍석 서유구는(楓石 徐有楨)는 1833년(순조 33) 4월에 전라감사로 부임하여 1835년 3월에 이임하였는데, 1833년 가을에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16개 고을을 순행하였고, 1834년 가을에는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 14일간 16개 고을을 순행하였다.⁵⁷⁾ 즉 서유구는 1년 11개월정도의 전라감사로 재임 기간 중에서 2차례 순행하였고, 합하여 25일정도만 순행하였다. 풍석은 전라감사로 재임한 대부분의 기간을 모두 전주 감영에 유영하면서 서무를 처결하였다.⁵⁸⁾ 이러한 서유구의 유영제 근무형태는 임진왜란 이전 행영제하에서 전라감사를 역임한 미암 유희춘과 대조적이다.

3) 전라감영의 관아시설 건립과 확대

유영제가 시행되고 감사 역할이 강화되면서 감영 관아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조선전기 순영제하에서는 별다른 시설이 없었지만, 조선후기 유영제하에서 감사가 유영하고 영리들이 감영에서 복무하게 되면서 많은 관아시설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감사의 권한 증대에 따른 기구의 확대도 감영시설의 증대를 가져왔다. 감사의 군사 보좌관인 중군이 신설되고, 이에 따라 군관과 군사들이 대량으로 감영에 배속되었다. 아전들만 해도 임진왜란 이전 선조대에는 미암일기에 영리만 30명정도 보이는데, 정

55) 이수건, 「경상도감영의 성립과 직제」, 『경상감영의 종합적 연구』, 경상북도·경북대영남문화연구원, 2004, 18쪽.

56) 조재호, 『嶺營日記』

57) 서유구, 『完營日錄』

58) 『完營日錄(完營日錄)』, 이 일지는 전라감사 서유구가 1833년 4월 도입시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록한 것으로 전라감영 연구만이 아니라 조선시대 감영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조대 전라감영지에는 영리와 인리 149명이 수록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진왜란 이전 행영제하에서는 전라감사의 집무처 선화당도 없었다. 『완산지』에 감영개설 초기에 선화당이 창건되었다고 한 것은 조선건국초가 아니라 유영제가 시행되어 감영 관아들이 들어서는 선조대 이후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 같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선조대 감영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을 감영을 설치한다는 의미의 ‘新設監營’, ‘全州爲營’, ‘海西監兵營設置事’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⁵⁹⁾

『완산지』에 수록된 선화당 연혁을 보면, 감영개설 초 창건했다는 기록에 이어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 선화당이 소실되어 이듬해 1598년 전라감사 황신이 중건하였고, 이후 선화당 건물이 퇴락하여 폐각(廢閣)된 것을 1771년(영조 47)에 전라감사 윤동승이 개건하였다고 하였다. 이 해는 조선왕실의 시조사당 조경묘를 경기전 북편에 창건하던 해이다. 윤동승은 선화당중수상량문에, 언제부터인지 선화당이 퇴락하여 정청으로 쓸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선화당은 이후 1792년(정조 16)에 불에 타서 그 해 전라감사 정민시가 중건하였다.⁶⁰⁾정조대 1789년경 편찬된 『전라감영지』에 의하면 선화당에 영조가 81세에 쓴 “民惟邦本 本固邦寧(백성이 나라의 근본이고, 근본이 탄탄해야 나라가 편안하다)”이라는 편액이 있었다고 한다.⁶¹⁾

영조대 『여지도서』에 강원감영 선화당을 유영제가 시행되던 1665년(현종 6)년에 처음 창건하였다고 한 것처럼⁶²⁾ 전라감영 선화당도 조선초에는 없었고 선조대 유영제가 논의되면서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미암이 1571년(선조 4) 전라감사로 부임할 때만 해도 선화당 건물은 없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선화당(宣化堂)’이라는 기사는 1686년(숙종 12)에 처음 나온다.

감사 가족들의 살림집 내아도 유영제하에서 설권이 허락됨으로서 건립되었다. 전라감영도 마찬가지이다. 미암은 전라감사 재직시 부인 송덕봉과 떨어져 있었다. 또 임진왜란 후 중군이 설치되어 군사들과 함께 이와 관련한 주필당을 비롯한 군사시설이 선화당 남쪽으로 들어섰다. 감사들의 사적보좌관인 비장들의 근무처 비장청도 선화당 앞에 건립되었다. 중앙에서 파견된 감사의 보좌관 도사, 심약, 검율 등의 집무처와, 영리와 인리 등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아전들의 근무처도 건립되었다. 전라감사의 처소 연신당은 1688년(숙종 14)에 전라감사 이유가 창건하였고, 포정루는 전라감사 조영국이 1743년(영조 19)에 건립하였다.⁶³⁾

현존하는 감영도(監營圖)에 나타난 감영은 유영제 이후 확대된 18, 19세기 감영의 모습들이다. 전라감영의 관아시설들을 상세하게 담고 있는 「완산부지도」나 「전주부지도」는 모두 유영제하의 전라감영이다. 「전주부지도」는 1790년대, 「완산부지도」는 1870년대 전라감영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⁴⁾ 『완산지』에 수록된 전라감

59) 『선조실록』, 선조 26년 7월 29일 신사, 선조 33년 2월 20일 갑오, 선조 33년 2월 20일 갑오 등.

60) 『완산지』(1907년경), 공해조.

61) 『전라감영지(전라도관찰사영지)』(1789년경,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公廩조.

62) 『여지도서』, 강원도 관찰영 공해조.

63) 『완산지』(1907년경), 공해조.

64) 전북대 박물관에 소장된 「전주부지도」는 지금까지 1840년대의 지도로 알려져 왔으나 전주부성 시설들을 놓고 볼 때 1793년(정조 17)에서 1796년(정조 20)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전주박

영 관아는 총 41개 정도 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감사가 감영에 머물면서 조직과 기구 등을 갖추고 감영체제를 완비한 것은 17세기 유영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행영제에서 유영제로의 개편은 감사의 권한과 역할을 증대시켜 조선의 지방통치를 강화하는 방편이었다. 즉 고려 안찰사제를 조선건국후 감영제로 개편하여 감사의 품계를 높이고 역할을 강화해 일도를 전제하게 했고, 17세기 감사의 근무형태를 순영제에서 유영제로 개편하여 감영 시설들을 설치하고 감사를 유영하게 하여 중앙의 지방 통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감영제 확대와 강화 하에서 전라감영은 임진왜란후에도 전주에 그대로 두어졌다. 임진왜란난후 충청감영은 충주에서 공주로 옮기고, 경상감영은 상주에서 대구로 옮겼다.⁶⁵⁾ 이런 이전은 영읍의 형편도 고려되었지만, 유영제와도 관련된 것으로 도내 모든 곳에서 감영 왕래가 편리한 지역으로 옮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조대 해주를 유영지로 논의할 때, 황해도 24개 군현들이 “모두 해주로부터의 거리가 하루 이틀의 노정이어서 백성들의 소원(訴冤)과 관청의 행문(行文)에 크게 편합니다.”라고 하였다.⁶⁶⁾ 그럼에도 전라감영을 전라도 북단인 전주에 그대로 둔 것은 물력이 풍부하고 조선의 풍패지향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주는 조선왕조 5백년 내내 전라도의 수부였다.

조선의 감영제는 조선말 1895년(고종 32) 8도제를 23부제로 개편하면서 폐지되었다. 전라도는 전주부·남원부·나주부·제주부 등 4개부로 분리되고, 각각 전주부관찰사·남원부관찰사·나주부관찰사·제주부관찰사가 임용되었다. 부 아래 군현명은 모두 ‘군(郡)’으로 통일되었다.⁶⁷⁾ 관찰사의 권한은 크게 축소되어 내부대신의 지휘를 받게 되었고, 군사권, 경찰권, 재판권 등이 분리되었다.⁶⁸⁾ 관찰사가 머무는 본영과 영읍은 관찰사영, 관찰사부로 불렸다.

이듬해 1896년 23부제를 폐지하고 도제를 다시 설치해 13도제로 개편하였다. 13도제 실시에 따라 전라도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분도되어 전라북도관찰사·전라남도관찰사가 각각 따로 임용되었다. 전라북도관찰사영은 전주에, 전라남도관찰사영은 광주에 두었다.⁶⁹⁾ 1910년 조선 멸망과 함께 관찰사를 도장관으로 고쳤으며, 1919년에 도장관을 도지사로 개칭하였다. 도청이라는 관서명도 1910년 이전에 이미 쓰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V. 맺음말

물관에 소장된 「완산부지도」는 1871년에서 1875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전주에서 올해 발간 예정인 전라감영복원종합보고서의 이동희, 「고지도·옛사진으로 본 전라감영과 감영건물의 당호」 참조.

65) 경상감영은 1601년 대구로 이전을 확정했고, 충청감영은 1602년경에 공주로 옮겼다.

66) 『선조실록』, 선조 26년 6월 26일 기유

67) 『고종실록』, 고종 32년 5월 26일 병신

68) 『고종실록』, 고종 37년 8월 1일(양력) ; 고종 43년 6월 19일(양력)

69) 『고종실록』, 고종 33년 8월 4일(양력)

고려말 1388년 창왕 즉위년 위화도회군세력에 의해 고려 안렴사제가 도관찰출척사제로 개편되고 전라도에도 도관찰출척사가 임용되었다. 관찰사 본영은 전라도안찰사영에 이어 전주에 설치되었다. 전라감영은 전라도안찰사영이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관찰출척사는 이후 치폐 과정을 반복하다가 태종 2년에 정착되었고, 태종 17년 양계지역에도 도관찰출척사가 임용되어 조선의 지방통치체제로 감영제가 확립되었다. 그렇지만 조선건국후 감영제는 감사가 감영에 머물며 도정을 처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 안렴사제에 이어 감사가 일도를 순행하며 도정을 처결하는 行營制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행영제 하에서 감사의 집무처 선화당을 비롯하여 감영시설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전라감사가 전주에 머물 때면 전주객관에 거처하면서 도정을 처결하였다. 그런 점에서 조선전기 감영제는 완비되어 가는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조선초부터 감사가 감영에 머물며 도정을 처결하는 留營制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선조대 이이가 구임을 통한 유영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임진왜란 때 전란의 급박한 상황을 거치면서 구임을 통한 유영제가 부분적이고 임시적이지만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652년(효종 3)부터 1664년(현종 5)까지 전라감영에서 검목구임을 통한 유영제를 12년간 처음으로 시험 운영하였다. 전라감영이 유영제로 시범 운영된 것은 재정적 여력에 기인한 것이었다. 전주의 물력에 기반하여 전라감영에서 유영제가 처음 시행된 것이다.

유영제는 久任制, 挈眷制, 兼牧制와 연계되어 있는 체제이다. 감사가 유영하면서 통치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2년으로 늘어야 하고, 가족을 임지로 데려올 수 있어야 하며, 감사가 영읍의 수령을 겸해야 되었다. 그리고 감영의 독자적 재정권이 확보되어야 했는데, 대동법이 시행되어 1657년(효종 8) 대동미 중에 營需米가 마련됨으로써 유영제로 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1669년(현종 10)에 마침내 양계지역 이남에 유영제가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구임제가 시행되고 설권이 허락되었으며 검목제도 시행되었다. 그리하여 유영제는 1746년(영조 22) 『속대전』으로 법제화 되었다. 전라감영은 유영제가 시행된 이래 다른 감영들과 달리 물적 기반에 힘입어 조선말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유영제가 되면서 감영시설이 건립되기에 이르렀다. 감사의 집무처 선화당을 비롯하여 가족들이 기거하는 내아, 감사 보좌관들의 근무처, 아전들의 근무처 영청과 작청들을 비롯하여 감사의 유영에 따른 많은 관아건물들이 들어섰다. 또 조선후기에 감사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면서 새로 설치된 중군과 감영 군사들, 늘어난 아전인원들로 관아시설은 더 확대되었다.

감영제는 고려말에 도관찰사제에서 시원하여 조선건국후 새왕조의 지방제로 확립되었다. 임진왜란후 과도기를 거쳐 17세기 후반 감사의 근무형태가 행영제에서 유영제로 개편되었으며 유영에 따른 감영시설들이 건립되어 감영제가 완비되었다. 전라감영

은 유영제가 처음 시행되었고 유영제 개편의 선도적 위치에 있었다.

전주는 조선왕조 내내 전라감영이 소재한 전라도의 수부였고,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었다. 전주는 통일신라 때 州가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전라도 내지 전북권의 중심으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특이한 지역으로 그 중심에 전라감영이 있다. 전라감영 자리는 고려 전주목의 치소가 자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통일신라 때 전주 치소 자리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라감영은 전주의 정체성이다.

【참고문헌】

- 『眉巖日記』(柳希春)
『다시 읽는 미암일기』 1~5(국역, 담양군, 2004)
『完營日錄』(徐有渠)
『완영일록』 1~5(김순석·박정화·배경옥·이덕현·이선아역주, 흐름, 2018)
『湖南日記』(李錫杓)
『湖南日記』(李相瓚)
『湖南道先生案』(1875년)
『全羅道觀察使營誌』(1790년경)
- 이수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장명수, 『성곽발달과 도시계획연구 -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1994.
이동희, 『조선시대 전라도의 감사·수령명단-전북편』,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1995.
대구향토문화연구소, 『경상감영사백년사』, 대구광역시중구, 1998.
이희권, 『조선후기 지방통치행정 연구』, 집문당, 1999.
경상북도·경북대영남문화연구원, 『경상감영의 종합적 연구』, 2004.
오영교, 『강원감영연구』, 원주시, 2007.
이희권·이동희·홍승재·김태웅·이태영·김현영·원도연, 『전라감영 연구』, 전주역사박물관·전북대전라문화연구소, 2008.
전주시·전라감영복원재창조위원회, 『전라감영복원백서-천년의 시간을 읽다』, 2015.
장인진, 「조선후기 경상감사고」, 『도협월보』 21-1·2·3, 1980,
이동희, 「고지도로 본 조선후기 전주부성과 전라감영」(『전북사학』26, 2003)
김태웅, 朝鮮後期 監營 財政體系의 成立과 變化:全羅監營 財政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89, 역사교육연구회, 2004.
김경숙, 「16세기 전라도 관찰사의 순행길」, 『지방사와 지방문화』13-2, 역사문화학회, 2010.
이동희·최우중, 「전라감영 선화당의 연혁과 위치」, 『전주학연구』 4, 전주역사박물관, 2010.
여상진, 「『완영일록』에 나타난 19C초 전라감사의 직무와 전주부 관영시설 이용」,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0.
김순석, 「『完營日錄』 國譯 研究」,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구열희, 19세기 전라감영의 재정상황과 부담전가의 양상 -규장각 소장 全羅監營재정 자료를 중심으로, 규장각 52,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배경옥, 「『완영일록』으로 본 전라감사 서유구의 교유서와 교귀·연명」, 『전북사학』 56, 전북사학회, 2019.
송영애, 포크(Foulk)의 일기에 기록된 전라감영의 접대문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2, 한국콘텐츠학회, 2019.
설현지, 「조선후기 감사 구임제 논의와 시행」, 『조선시대사학보』 92, 조선시대사학회, 2020.

전주부성과 전라감영의 건축

홍승재*

< 목 차 >

- I. 서론
- II. 전주부성과 전라감영
- III. 전라감영의 건축
- IV. 맺음말

I. 서론

감영은 조선시대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관아이다. 관찰사는 도의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군사 등 지방통치 행정상의 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의 집무처인 감영은 지방 행정의 중심인 동시에 해당 도의 최상위 관아였다.

전라감영은 개국 초기에 전주에 설치되었다. 타도의 경우 감영처가 변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감영의 위치가 옮겨진 곳도 있지만 전라감영은 일제 강점기에 감영시설이 해체되기까지 한 자리를 지켜왔다.

건축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것이 자리한 장소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대 터를 잡고 건축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상과 시대적 배경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조선을 개국한 후 한양으로 천도할 때 도성의 입지와 경복궁의 위치를 정하는데 풍수사상이 배경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도성계획에서는 법궁인 경복궁의 위치와 함께 종묘와 사직의 위치도 정해진다. 종묘와 사직의 위치는 경복궁의 영건(營建)을 주도한 정도전을 비롯한 유학자들이 이상으로 여기던 중국의 하,은,주 삼대의 건축제도를 따랐다.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의 도성제도인 좌조우사(左祖右社)의 원칙을 따라 경복궁을 중심으로 좌측(東)에 종묘, 우측(西)에 사직을 배치하였다. 경복궁 건축에서 나타나는 삼문삼조(三門三朝), 전조후침(前朝後寢)의 공간구성도 중국의 궁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제도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도성계획에서 면조후시(面朝後市)의 원칙은 따르지 않았다. 경복궁이 백악을 등지고 자리하게 되어 뒤쪽에 시장을 배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양도성은 중국의 제도를 받아드리면서 한양의 자연환경에 맞추어 우리만의 독자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한양의 도성계획에는 풍수지리사상과 유교 국가의 이상이 담겨져 있다. 이와 같은 한양의 도성계획은 지방의 읍성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고는 전주부성의 전체적 틀 속에서 부성계획과 전라감영의 관계를 살펴보고, 전라감영의 건축적 특징을 개관하고자 한다.

II. 전주부성과 전라감영

전주성은 언제 초축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명견루기(明見樓記)』에는 ‘1388년 관찰사 최유경이 전주성을 창축하고, 동서남북에 4대문을 설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그 전부터 성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사 명종 12년(1182) 3월 경인 조¹⁾의 전주성 관련 기록과 1376년에 왜구가 침입하여 전주를 함락한 기록 등을 볼 때 전주성은 관찰사 최유경이 처음으로 창축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성곽을 대대적으로 개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는 왜구의 침입이 극성의 시기였다. 충정왕 2년(1350)부터 본격화된 왜구의 침입은 공민왕대(1352~1374)에 115회, 우왕의 재위(1375~1388) 14년 동안 378회 기록²⁾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에 걸쳐 그들의 침탈은 심각한 지경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유경은 왜구의 침입을 대비하여 기존의 성곽을 대대적으로 개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성곽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석성의 둘레는 1,288보(步)’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지승람』에는 ‘석축의 둘레가 5,356척, 높이가 8척이며 성안에 우물이 223개소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전라감영의 설영과 관련된 기록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조정에서 안렴사³⁾를 파견하고 전주부에 감영을 열었다’는 기록이 유일하다.⁴⁾ 또한 이 기록에는 태조 원년인 1392년에 상주에 경상감영을 설치한 사실과 1395년에 충청도, 황해도, 강원도에 관찰사를 두고 감영을 설치한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전라감영의 설영 시기를 경상, 충청, 황해도 감영이 설치되는 1392년에서 1395년 무렵 또는

1) 『전주시사』, 전주시 .P. 253, 1997. 전주에서 전주사록 진대유와 상호장 이택민 등이 관선(官船)을 건조하는 공사 감독을 가혹하게하자 기두(旗頭) 죽동(竹洞)의 주도로 농민과 관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안찰사 박유보(朴惟甫)가 도내의 군사를 풀어 난민들을 쳤으나 그들이 성문을 닫고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 (중략) 공숙 등이 전주성에 들어가서 일품군 수정에게 난적의 주모자를 처치하도록 권유 ~

2) 『전주시사』, 전주시 .P. 267, 1997.

3) 관찰사제는 태종 1년 11월에 여말 이래의 안렴사(安廉使)가 관찰사제로 개편되면서 점차 정비되어 세조 12년 관제개편 때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를 관찰사로 개칭한 것이다.

4)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직관고 17, 외관 1, 관찰사조 (全羅道)本朝置安廉使 開營於全州府 ...

그 이전으로 볼 수 있다.⁵⁾ 그러나 당시 안렴사는 임기 6개월 동안 순행구역을 계속해서 순행 안찰하다가 귀경하는 봉명사신이었으므로 감영 같은 행정관청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안렴사의 파견이 곧 감영의 개설로 볼 수 없으며, 전라감영의 설영 시기를 태종 2년 이후 늦어도 세종 29년 이전으로 보기도 한다.⁶⁾

강원감영의 경우를 보면 강원감영은 1395년에 원주목에 설치되는데, 설영 초기의 강원감영은 고려 후기에 건축한 기존 관아를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⁷⁾ 전라감영도 설영 시기를 늦춰 보기 보다는 초기에는 기존의 관아를 사용하다가 점차적으로 감영의 모습을 갖추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조선전기 감영의 모습을 밝혀 주는 명확한 자료는 없다. 기문 등을 통해 조선 전기 전주의 모습은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

임란 이전에 부성 안에는 객사·녹균정(후에 관풍루)·풍낙헌·선화당·매월당⁸⁾·청연당⁹⁾·교방·진남루·경기전·실록각·향교¹⁰⁾ 등이 건립되어 있었고, 성 밖에는 한벽당·황강사·제남정·만화루·화산서원·비비정이 존재하고 있었다.¹¹⁾

객사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殿牌) 또는 궐패(闕牌)¹²⁾를 모시는 곳이다. 관찰사를 비롯한 관리들이 국가에 큰일이 있을 때나 매월 초하루와 삭망 때 이곳에서 향궐망배(向闕望拜) 의식을 통해 임금에 대한 충성과 목민관으로서의 소임을 다짐하는 곳으로 읍성 내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었다. 그러므로 객사는 전주부성의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성곽의 축성과 함께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관찰사의 청사인 선화당과 전주 부윤¹³⁾의 청사인 풍낙헌이 건립되고, 태종과 성종연간에는 진남루, 한벽당, 경기전, 실록각 등이 건립되었다. 이와 같이 전라감영은 개국 초기에 객사와 선화당, 풍낙헌으로 대표되는 감영과 부영의 중심 시설이 갖추어지고, 점진적으로 부속 시설들을 건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부성과 전라감영은 1597년 정유란 때 선화당을 비롯한 많은 시설들이 피해를 입는다. 선화당은 이듬해 관찰사 황신(黃愼)에 의해서 재건되었으나 다른 시설들의 피해

5) 신순철, 「전라감영의 역사적 고찰」, 『전라감영 복원 기본계획』, 전주시, 2007, p.9
 6) 이희권, 「전라감영의 조직구조와 관찰사의 기능」, 『전라감영연구』, p.7, 전주역사박물관·전라문화연구소, 2008. 「전라감영의 설치」, 『천년의 시간을 읽다- 전라감영복원백서』, p.19. 전주시·전라감영재창조위원회, 2015.
 7) 『동국여지승람』, ‘元 延祐 연간(고려 충숙왕)에 건축한 것으로 지금부터 백수십년이 되었다’
 8) 1483년(성종 14)에 당시 부윤이었던 이봉(李封)이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객사 동북쪽 구석에 있었다.
 9) 강징(姜澂, 1466~1536) 부윤 재임 시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전주향교는 1354년(공민왕 3)에 세워진 것으로 전해진다. 본래는 경기전 근처에 있었으나 1410년에 주변에 경기전이 세워지면서 성 밖 화산동으로 옮겼으며, 1603년에 현재의 장소로 다시 이거하였다.
 11) 『全州府史』, 1942, pp.91~93
 12) 궐패는 본래 중국의 황제를 상징하였다. 1896년 8월 15일 칙령 53호로 각 부, 목, 군의 전패를 궐패로 고쳐 부르는 개호에 대한 안건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13) 1450년(세종 32)에 관찰사는 고을의 부윤을 겸하였으나 1454년에 폐지되고 선조, 효종, 영조 때 복구와 폐지를 거듭하다가 1759년(영조 35)이후 겸직이 계속 시행되었다. 이 때 판관은 감사를 대신하여 감영이 있는 해당 고을의 모든 행정을 담당하였다.

와 복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조선후기 전라감영의 모습은 문헌과 고지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18세기 이후의 자료이다. 그중 가장 시기가 빠른 자료가 규장각 소장 <전주지도>이다.

이 지도는 부성의 4대문 가운데 북문에만 옹성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아 관찰사 조현명이 전주부성을 개축한 1734년 이후에 그린 것이다. 1743년에 건립한 포정문이 묘사되어 있으며, 경기전 북쪽에 1771년(영조 47)에 창건된 조경묘가 없기 때문에 지도의 작성연대는 1743~1771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주부성은 1734년에 관찰사 조현명이 대대적으로 개축한다. 정유란 때 함락되어 황폐화된 채 방치되고 있던 성곽을 이 때 수축한 것이다. 당시 공사에 대해서는 축성을 주도하였던 조현명이 쓴 『축성계초(築城啓草)』에 일정과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부성을 개축함과 동시에 감영시설에 대한 보수와 중건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곽의 개축 시사간원에서 ‘호남이 제일 기근이 극심하니 성역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¹⁴⁾으로 보아 재정적 문제 등으로 개축 후 바로는 어려웠을 것이다. 감영의 정문인 포정루가 1743년(영조 19)에 건립되는 것을 볼 때 점차적으로 시설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 <전주지도>와 같은 틀을 갖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全州地圖(규장각소장)

<전주지도>와 임란 이전에 부성 안에 있던 주요 건물들을 비교해 보면 부성의 기본적인 공간구조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734년 개축 공사로 인하여 전주부성은 체성의 길이가 369보(步)가 늘어났으며, 치성 및 방어시설이 보강된다. 눈에 띄는 변화로는 기존에는 4대문 모두에 옹성이 있었으나 문루¹⁵⁾를 개축하면서 북문에만 옹성을 만들었다.¹⁶⁾ 그러나 객사와 감영, 동헌, 경기전 등 주요시설과 주간선 도로 등은 조선 전기와 큰 변화가 없었으며, 향교만 1603년에 현 위치로 이 건한 모습이다. 전주부성의 공간 구조를 한양도성과 비교해 보면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전주지도>는 전주부성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천을 같이 표현하여 주변의 자연과 전주부성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는 범위가 그들이 생각하는 옛

14) 『영조실록』 권27, 영조 10년 2월 신해, 계축.

15) 4대문은 남문(명건루), 서문(상서문), 동문(판동문), 북문(중거문)이며 이중 명건루는 내외 홍예 육축 위에 2층의 문루이며, 나머지 세문은 단층 누문의 형식이다.

16) 공사는 1734년 1월 10일 벌석공사를 시작으로 3월 말까지 돌 운반을 마치고, 본격적인 축성은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체성과 치성, 여장 공사를 완료했으며 문루 공사는 9월 말에 완공하였다. 이 공사로 인해 전주읍성은 성곽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면적이 조금 확대되고 새로운 방어시설도 보강되었다.

전주의 공간적 범위로 볼 수 있다. 전주부성은 주변이 산과 구릉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부성의 중심에 객사가 있다. 객사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기 때문에 한양도성의 법궁인 경복궁에 해당한다. 도성에서 제일 중요한 시설은 임금이 머무는 궁궐이다. 풍수적으로 궁궐이 자리한 곳이 혈자리이며 명당이다. 궁궐의 위치와 함께 주례(周禮)의 도성제도인 좌조우사의 원칙에 따라 종묘와 사직의 위치를 잡는다. 자리가 정해지면 건물의 배치를 위하여 좌향을 잡는다. 임금의 좌향은 남향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경복궁은 주산인 백악을 등지고 남향하였다. 주요시설의 위치와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요 간선로와 시전 등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도성을 방어하기 위한 성곽을 조성한다, 한양 성곽은 내사산¹⁷⁾의 능선을 따라 쌓았다. 성곽에는 4대문을 내고 그 사이에 4개의 소문을 만든다. 4대문과 4소문은 기능적 측면도 있지만 임금의 뜻이 사방팔방에 미친다는 상징적 의미도 내포한다. 한양의 주요 간선도로는 동대문(흥인지문)과 서대문(돈의문)을 연결하는 동서간선로가 주축이다. 이 도로 북측에 법궁인 경복궁을 비롯하여 동궐인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가 자리한다. 동서간선도로에 남대문(숭례문)에서 이어지는 남북 간선로가 만난다. 숭례문이 안산(案山)인 목멱산 때문에 한쪽에 치우쳐 있어 남북간선로가 휘어져 있지만 전체적인 도로체계는 T자형 도로망을 이룬다.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 앞의 육조거리가 동서간선도로와 연결된다.

전주부성의 주요 간선로도 T자형 가로체계를 하고 있다. 동문(완동문)과 서문(패서문)을 잇는 동서간선도와 남문(풍남문)으로 이어지는 남북로가 만나 T자형을 이룬다. 부성의 4대문 가운데 남문이 가장 중요하고, 주요 간선도와 부성 내외부 도로의 연계 등으로 볼 때 다음으로 동문, 서문이 중요하다. 북문인 공북문은 한양도성 북문(숙정문)과 같이 성 안팎으로 대로가 놓이지 않았다. 하지만 조현명 관찰사는 성문을 개축하며 북문에만 옹성을 남긴다. 옹성은 성문 방어를 위한 기능적 측면이 우선이다. 이전에 4대문 모두 옹성이 있었는데 북문에만 옹성을 둔 것은 주산인 건지산의 약한 산세를 풍수적으로 비보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보여 진다.¹⁸⁾ 이와 같은 비보(裨補)의 수법은 객사 배면의 조선(造山)에서도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고지도에는 객사 정청 북쪽에 인위적으로 구릉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은 조산이 있다. 백악을 등지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전주 객사는 평지에 자리하고 있어 정청 뒤를 든든하게 받칠 수 있도록 배산을 만들어 비보하려는 의미가 있다. 객사는 전주부성의 정신적 공간적 중심이다. T자형 도로의 교차지점 북쪽에 서쪽으로 조금 치우쳐 자리하였다. 객사는 남향을 취하고 있으며, 외삼문-중삼문-내삼문을 거쳐 정청에 도달한다.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 앞마당까지는 광화문, 흥례문, 근정문 삼문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객사도 삼문 진입을 통해 진입공간의 깊이를 두어 권위를 표현하고 있다.

객사에서 풍남문으로 이어지는 남북간선로를 사이에 두고 전라감영과 전주동헌(貳衙)이 있다.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 앞에 육조를 두어 육조거리를 형성하는 것과 같이 서

17) 내사산은 주산인 백악, 좌청룡인 타락산(낙산), 우백호인 인왕산, 안산인 목면산을 말하며, 북한산, 아차산, 덕양산, 관악산이 한양의 외사산이 된다. 한양 성곽의 길이는 전체 18.627km이다.

18) 한양도성도 풍수적으로 취약한 동대문에만 옹성이 설치되어 있다.

측에 감영을 두고 동측에 동헌을 배치한 것이다. 감영의 정문인 포정문은 이 도로에 면하여 동향하였다.

전주부성 동남쪽 모서리에는 경기전과 조경묘가 자리한다. 경기전은 태조 진전으로 1410년에 창건되었고, 조경묘는 1771년에 창건하였다. 공간의 성격으로 볼 때 경기전과 조경묘는 종묘에 해당한다. 따라서 좌조우사의 도성제도에 맞추어 부성의 좌측(東)에 자리잡았고, 사직은 서문 밖 전주천 건너 화산(현 기전대학)에 자리하였다. 당시 전주부의 공간적 범위는 고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단지 성안 뿐 아니라 부성 밖의 장시(場市), 마을 그리고 부성을 둘러싸고 있는 천과 산까지를 포함한다.

전주부성은 한양의 도성계획과 같이 풍수사상과 그 시대의 시대정신이었던 유교적 이상과 예제(禮制)를 전주의 자연환경과 부성의 격에 맞추어 적용함으로써 전주부성만의 특성을 보여준다.

III. 전라감영의 건축¹⁹⁾

조선 후기 전라감영은 40여 동의 많은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감영의 건물들은 공간의 성격에 따라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감영의 중심공간인 감사영역과 중심영역에 진입하는 진입공간, 관원 및 하부실무자들의 업무영역, 중영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영역, 그밖에 각 영역을 지원하는 부속시설 및 창고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감영의 각 영역은 직제와 기능에 따라 각각의 영역을 형성하며 유기적으로 배치된다. 또한 전라감영의 문화적 특성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는 선자청과 지소(紙所), 인출방(印出房) 등이 있다.

1) 감사영역(정청과 내아영역)

정청(政廳) 및 내아영역은 감사의 영역으로서 감영의 핵심 공간이다. 감영 전체로 볼 때 동북쪽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공간은 관찰사가 정무(政務)를 처리하던 선화당을 중심으로 관풍각, 응청당, 연신당, 내아 및 행각 등으로 구성된다. 감사영역은 전조후침(前朝後寢)의 예제(禮制)에 따라 정청인 선화당 뒤쪽에 내아를 배치했다.

선화당은 정청의 권위와 규모에 맞추어 전면에 넓은 마당을 두었다. 마당 중앙에는 내삼문에서 기단까지 답도가 깔려 있다²⁰⁾. 답도는 포정루, 중삼문, 내삼문으로 이어진다. 선화당 동쪽에는 관풍각이 있다. 규장각 소장 <전주지도>의 관풍각은 누각형태이며,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건물 전면에 누각을 오르내리는 계단이 있고 누각 주위에는

19) 전라감영의 시대적 변화와 건축적 특징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졸고 (홍승재, 전라감영의 시대적 변화와 건물의 구성, 『전라감영연구』, 전주역사박물관·전라문화연구소, pp. 97~131, 2008)로 대신 하고 본고는 간단히 영역별 특징만을 요약토록 한다.

20) 4폭 병풍 <전주지도>, (전북대 박물관 소장)에만 답도가 그려져 있음.

난간을 시설하였다. 감영에서 누각은 민정과 풍속을 살피는 곳이며, 감사의 휴식과 접대의 공간이다. 따라서 누각은 선화당 가까이 배치하거나 후원과 연계하여 배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위에는 연지를 조성하기도 하고, 전라감영처럼 나무를 식재하여 누각의 풍치를 더했다.

선화당과 관풍각 뒤로는 행랑과 담장으로 구획되어 내아와 응청당, 연신당이 있다. 연신당은 1688년(숙종 14)에 관찰사 이유(李濡)가 건립하였고, 응청당은 1728년 이전에 건립하였다. 내아는 감사 가족들의 처소이다. 1757년부터 1759년 사이에 경기도를 제외하고 각 도에서 감사의 유영체제(留營體制)가 고정되면서 감영에서 내아의 역할이 커졌다. 내아 동쪽에는 감사의 처소인 연신당이 별도로 위치한다. 상류주택에서 남녀 공간을 구분하여 안채와 사랑채를 두듯이 감사의 거처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선화당과 내아 및 연신당 사이에는 예방비장의 집무소인 응청당이 있다. 다른 비장들은 비장청에 근무하지만 예방비장은 특히 감사의 친척을 임명하여 내아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완산부지도 감영부분 모사도

감영의 중심건물인 선화당은 1597년 정유재란 때 소실되어 이듬해에 전라감사 황신(黃愼)이 재건하였다. 1771년(영조 47)에 관찰사 윤동승(尹東升)이 개건하였으나 1792년에 화재로 다시 소실되어 1804년에 관찰사 정민시가 중건하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한때 도청사로 사용되었으며, 1951년 경찰국 무기고 폭발로 전소되었다. 전주부사에 당시 선화당의 모습을 7칸집에 78평의 단층집으로 기록하고 있다. 사진자료 및 현존하는 타 감영의 선화당과 비교해 볼 때 선화당은 정면 7칸, 측면 4칸의 단층 팔작지붕이다. 기단은 장대석 2중 기단으로, 전면 하단은 월대(月臺)처럼 구성하였다. 원형 초석에 두리기둥을 사용하였으며 공포는 이익공구조로 추정된다. 평면은 간살의 구성으로 볼 때 정면 5칸, 측면 2칸의 내진에 사방으로 퇴가 둘러있는 형태이다. 내진은 향좌측 3칸이 관찰사가 공적인 행사를 치르는 정청(政廳) 마루이고, 우측 2칸은 방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정면 7칸의 건물일 때는 가운데 칸(御間)인 4번째 주간(柱間)을 가장 길게 잡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선화당은 대청의 중심에 맞추어 3번째 칸의 주간이 좌우 협칸에 비해 1자 정도 크다. 답도와 계단의 중심도 이 칸에 맞추어 있어 전체적으로 외부 공간의 중심축이 좌측으로 치우친 느낌을 준다. 전면의 유리

창호는 일제강점기에 개조된 모습이다.

2) 진입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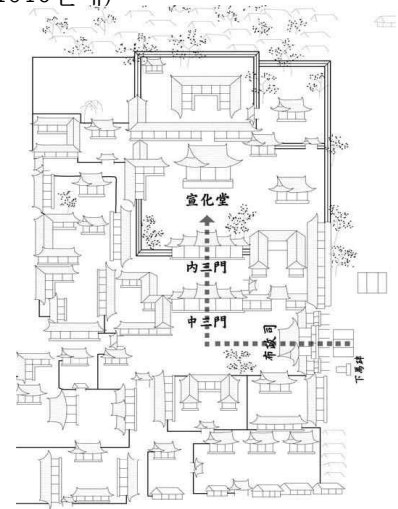
감영에서 정청인 선화당으로의 진입방식은 일반적으로 포정문-중삼문-내삼문의 과정을 거친다. 대부분의 감영은 이처럼 문 3개를 거쳐 선화당 앞마당에 이르나 경상감영과 평안감영은 2문



선화당(1910년대)

구성을 하였다. 진입의 방식은 직선형과 'L'자로 꺾이는 굴절형,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평안·함경·충청감영·경상감영은 직선형, 전라·경기·강원감영은 굴절형을 보인다.

전라감영은 객사에서 풍남문에 이르는 대로에 면하여 정문인 포정문(布政門 또는 布政司라 표기)이 동향하고 있다. 포정문은 1743년(영조 19)에 관찰사 조영국(趙榮國)이 창건하였다. 포정문을 지나면 좌측 길 아래로 작청과 중영을 중심으로 한 군사시설과 선자청, 진흙청 등이 있고, 우측으로는 길게 행각이 이어진다. 행각 중간에는 선화당으로 통하는 중삼문과 비장청(막부)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중삼문은 선화당과 같이 남향하고 있어 정문인 포정루와는 직각을 이룬다. 내삼문은 선화당, 중삼문과 같은 축선상에 있으며 문 좌우로 담장을 둘러 선화당 영역을 형성한다.



전라감영의 진입방식

전라감영의 진입 방식은 포정루가 세워지는 1743년 이후 포정루에서 직각으로 꺾여 중삼문, 내삼문으로 이어지는 3문 구성이 조선말까지 변화 없이 지속된다.

<완산부지도>에는 포정루 앞 도로 건너편에 비각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본래 포정루 건너편에는 수성창과 고마고(雇馬庫)등 남창(南倉)이 있었다. 창고의 긴담에 면하여 9동의 비각이 그려져 있다. 『전주부사』 <전라도관찰부관아도>(1894년 3월)에도 비각이 그려져 있으며 9개로 칸이 나뉘어 있다. 1908-9년경에 찍은 사진(동국사 소장)에는 포정문 건너편에 개천을 따라 5~6동의 기와를 이은 비각이 줄지어 있다. 사진 하단에 '효자, 열녀를 표창하는 당우(堂宇)'라고 기록하고 있어 정려각임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촬영된 또 다른 사진에는 정려각 위 객사 방향으로 몇 개의 비석이 줄지어 있다. 『전주부사』에는 '약 30칸에 이르는 비석, 즉 선정비가 모여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비석들이 다가공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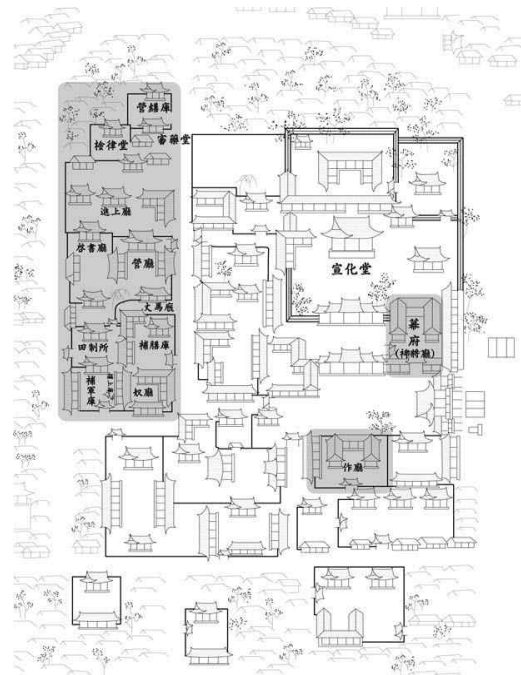
포정루는 정면(동쪽)에는 포정(布政), 서쪽에는 팔달(八達)의 편액을 달아 포정문 또는 팔달문으로 불렸다. 1743년(영조 19)에 창건된 후 1859년에 관찰사 조휘림(趙徽林)이 중수하였으며, 신문고를 설치하여 백성들이 억울함을 감사에게 직소하게 하였다. 포정루는 선화당 보다 먼저 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감영의 건물들은 도청사로 사용하다가 1921년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면서 많은 건물들이 철거된다. 1943년에는 선화당, 작청, 진흙청, 통인청, 관풍각²¹⁾만이 남게 되었다. 멸실 전 포정루의 모습은 1909년경의 사진과 <완산부지도>에 묘사된 모습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포정루 (1909년경, 「사진으로 보는 근대한국」 상)

3) 업무영역

업무영역은 부속 관원 및 그들을 보좌하는 하부실무자들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 공간이다. 전라감영의 부속 관원으로는 도사(종5품)·중군(정3품)·판관(종5품)·심약(종9품)·검률(종9품)이 있었으며, 또한 감사의 비서관 역할을 하던 비장이 있었다.²²⁾ 그밖에 소수의 관원을 보좌하며 감영의 실무를 담당하는 하부실무자그룹이 있다. 감영의 직제는 법전 상으로는 부속 관원의 숫자만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감영의 직제구성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들 하부실무자와 그들의 보좌역이다. 감영 건축에서 부속 관원 및 하부실무자의 공간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배치구성을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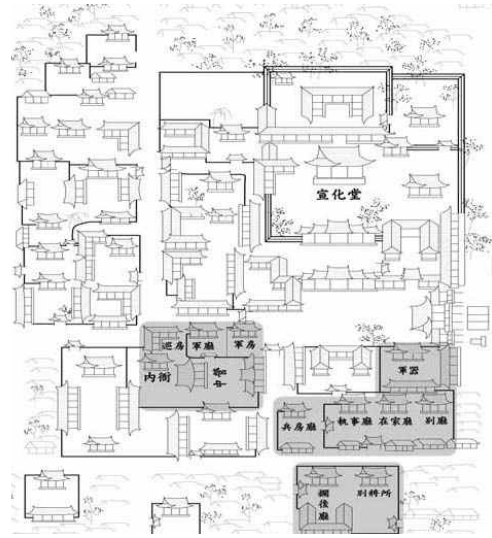
전라감영 업무공간

21) 『전주부사』(1943)에 관풍각을 순사교습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위치를 도청 동쪽 뒷문의 북쪽 옆에 있는 건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관풍각이 그때까지 실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28년 도청사 도면에도 관풍각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그려져 있다.

22) 『全羅道觀察使營志』官職 조

4) 군사영역

감사의 업무 중 하나는 경찰 및 군사업무이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중군(中軍)이다. 중군(中軍)은 감영의 친병인 순영속아병의 총지휘관이다. 병조에서 추천 임명되어 군사 사무를 관장하고 군사계획 등에 관하여 병조에 보고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중군의 집무시설은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여 중영(中營)으로 불렸다. 중영은 늦어도 1641년(인조 19) 이전에 전국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감영 밖에 배치되어 별도의 영역을 형성하는 것이 보통이나 전라감영은 감영 내에 위치한다. 전라감영은 포정문에서 중삼문으로 진입하는 주도로를 경계로 북쪽에는 선화당을 중심으로 관원과 하급 관리들의 업무시설 및 창고들이 위치하고, 남쪽에는 작청과 군사 시설 및 창고시설들이 자리하고 있다.



전라감영 군사시설

중영은 군사시설의 핵심적 공간이다. 중영에서 중군의 청사는 주필당(籌筆堂)이다.

5) 기타 시설

전라감영의 특징적인 공간은 지소(紙所)와 인출방(印出房), 선자청(扇子廳)을 들 수 있다. 지소(紙所)는 한지를 만들고 인출방(印出房)은 책을 인출하던 곳인데 진상청(進上廳) 바로 위에 있다.

전라감영은 조선시대 전 기간을 통해서 출판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428년(세종10) 『시경대전』 간행을 시작으로 정치서, 역사서, 제도서, 사회서, 의서, 병서, 어학서, 문학서, 유학 서적, 족보 등 총 60여 종의 전라감영판(完營版)을 출판하였다.

선자청(扇子廳)은 부채를 만드는 곳이다. 전주에서 생산된 부채는 지역특산품일 뿐 아니라 임금에게 올리는 진상품이었다. 감영의 서남부 구석에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위치는 중군의 청사인 주필당(籌筆堂)과 내아 서쪽이다.

감영 건축에서도 전주가 한지와 출판, 부채의 고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6) 창고 시설

『전라도관찰사영지』와 『호남읍지』의 『완산지』 및 고지도에서의 창고시설은 영고, 보군고, 공고, 군수고, 진출고, 군기고, 양사고, 마위고, 영선고, 보선고 등이 있었다. 이 시설은 18세기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IV. 맺음말

감영은 지방행정의 중심이며 해당 도의 최상위 관아이다. 전라감영은 조선 초에 전주에 설치된 이후 일제 강점기에 감영이 해체되기까지 한 자리를 지켜왔다. 전라감영의 입지는 전주부성의 전체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 전주부성은 한양의 도성계획과 같이 풍수사상과 그 시대의 시대정신이었던 유교적 이상과 예제(禮制)를 바탕으로 전주의 자연환경과 부성(府城)의 격에 맞추어 적용함으로써 전주부성만의 특성을 보여준다.

전라감영의 배치구성은 포정문, 중삼문, 내삼문으로 구성된 진입공간과 선화당을 중심으로 하는 감사의 영역이 중심축을 형성하며, 이 축을 중심으로 직제와 기능에 맞게 각 시설이 유기적으로 배치되었다. 감영은 공간의 성격에 따라 감영의 중심인 감사의 영역, 관원들의 업무영역, 군사영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영역 주변에 창고와 부속시설들을 배치하여 업무를 지원한다. 타 감영과 비교해 볼 때 전라감영은 직제별 상관성에 따른 가장 규범적인 배치구성을 보여준다.

전라감영의 특징적 공간으로는 지소(紙所), 인출방(印出房), 선자청(扇子廳)을 들 수 있다. 지소는 한지를 만들고, 인출방은 책을 인출하며, 선자청은 진상용 부채를 만들던 곳이다. 전주가 한지와 출판, 부채의 고장임을 감영 건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라감영은 전라감영 복원 및 재창조 사업을 통해 선화당을 중심으로 한 감사의 영역과 내삼문, 외행랑, 담장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강원감영과 경상감영도 감영 복원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여건과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감영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전라감영만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서편부지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라도의 수부(首府)이며 풍패지향(豐沛之鄉)인 전주는 전라감영의 복원과 함께 전주부성의 전체적 틀 속에서 읍성도시의 구조와 공간적 특성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성곽의 흔적과 동문, 서문, 북문 터에 대한 정비를 통해 성 안팎의 공간적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주간선도로 등 옛 도시의 골격을 회복하고 객사, 감영과 부영, 경기전과 조경묘, 풍남문, 향교, 한옥마을 등과 선적, 면적 연계를 통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역사도시로서 품격이 느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성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산까지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적 차원에서 도시 전체가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라감영지 발굴조사 내용 및 성과

유철*

< 목 차 >

- I. 머리말
- II. 조사경과 및 유적 층위
- III. 조사내용
- IV. 유구 및 출토유물의 성격
- V. 맺음말

I. 머리말

전라감영은 조선시대 500여년 동안 전라남·북도 및 제주도를 관할했던 지방통치의 중심지로서 전주부성 내 T자형의 동서길과 남북길로 이루어진 가로망의 남서쪽에 자리하며, 전체면적은 1만 2천평 정도였다.

전라감영은 관찰사의 집무실인 선화당을 중심으로 여러 부속건물들이 배치되었는데 전라감영의 초기 형태는 알 수 없으나, 18세기에는 정청(政廳)인 선화당(宣化堂)을 비롯하여 연신당(燕申堂), 관풍각(觀豐閣), 내아(內衙), 응청당(凝淸堂), 비장청(裨將廳), 통인청(通人廳), 작청(作廳), 정문인 포정루(布政樓)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또한 1830년(순조 30)에는 43동의 건물, 1875년(고종 12)에는 40여동의 관아 건물이 존재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라감영은 화재와 정유재란 등으로 인해 수 차례 소실과 중건을 거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전라감영의 각 건물들은 전라북도청의 행정 업무공간으로 사용되었는데 1921년에는 선화당을 제외한 많은 부속건물들이 헐리고 선화당 전면에는 전라북도청 본관이 신축되었다. 하지만 1951년 11월에 경찰국의 무기고가 폭발하여 도청사와 선화당이 모두 소실되었다. 이후 전라감영지에는 전라북도청사를 신축하여 사용되다가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원장

2005년에 전북도청이 전주시 효자동으로 청사를 옮기면서 이전의 도청사는 철거되었다. 아울러 전라감영지는 2000년 9월 8일에 전라북도 기념물 제107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주시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청사로 이전되면서 조선시대 전라도 행정의 중심지였던 전라감영의 흔적을 찾아 복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굴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전라감영 발굴조사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4차례 이루어졌다. 1차 발굴조사는 (재)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추진¹⁾하였고 2·4차 발굴조사는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진행²⁾하였으며 3차 발굴조사는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이 담당³⁾하였다. 비록 발굴조사가 4차례 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지만 15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3개 기관에서 나누어 조사를 추진하다보니 이를 종합하여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그간 이루어진 전라감영지 발굴조사내용을 정리하고 간략하게나마 조사성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전라감영 조사내용

조사연도	조사기관	면적(m ²)	조사내용	비고
2005 2007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0	통일신라~조선시대 건물지, 담장, 부석시설, 배수로 등	1차 발굴 선화당 북서쪽
2016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9,115	통일신라~조선시대 건물지, 내아, 관풍각, 인도, 부석, 담장, 우물 등	2차 발굴 남,동,서쪽
2018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	1,093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담장, 보도, 우물, 조선시대 수혈	3차 발굴 내아,내삼문,비장청 주변
2019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180	배수로, 외행랑 동쪽 기단부 석렬	4차 발굴 중삼문터, 비장청 동쪽

1)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9, 『전라감영』.
 2)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8, 『전라북도 기념물 제107호 전라감영지 발굴조사 보고서』.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전라감영지 추정 중삼문터 정비사업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3)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 2018, 『전라감영지 문화재 추가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II. 조사경과 및 유적 층위

1. 조사경과

전라감영지 일대는 분포지형을 볼 때 하천변의 하성평탄지로서 발굴조사에서도 맨 아래층은 하천과 관련된 자갈과 모래층의 충적토가 확인되었다.

이처럼 하상층의 퇴적토 위에 건립된 전라감영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2005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2005년에는 선화당 주변과 북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2006년과 2007년에는 시굴조사 지역에 대해 전면 발굴조사가 추진되었는데 조사면적은 2,000㎡ 내외였다. 당시 조사에서 통일신라~고려시대 건물지, 담장, 부석시설, 배수로 등이 확인되었다⁴⁾. 2016년에 진행된 2차 발굴조사는 1차 발굴조사 때 조사가 이루어진 선화당의 북서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조사면적은 9,115㎡이었다. 3차 발굴조사는 2차 조사 때 유구가 확인되었으나 조사기간 및 예산의 문제 등으로 인해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내아 남쪽의 통일신라시대 유구와 내삼문 및 비장청 주변에 대한 추가조사였다. 2018년에 이루어졌으며 조사면적은 1,093㎡ 내외였다. 4차 발굴조사는 전라감영의 건물들이 복원되면서 그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삼문터와 비장청 동쪽의 행랑터 부분의 180㎡에 대해 추진되었다.

전라감영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아스콘 포장 제거작업 → 교란층 등 제토작업 및 유구 윤곽선 확인작업 → 토층조사 및 기록작업 → 유구 내부조사 → 기록



그림 1 전라감영지 분포지형(농촌진흥청 출처)



그림2 전라감영지 발굴조사 전경

4)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9, 『전라감영』.

작업 → 유물수습 → 보완조사 및 기록작업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발굴조사는 각종 고지도와 문헌에 기록된 전라감영의 규모와 위치를 고려하여 1·2차 발굴조사는 바둑판식으로 Pit.를 구획하여 하강작업을 실시하였으며 3차 발굴조사는 1·2차 발굴조사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강 및 주변지역을 확장하여 조사하였다.

전라감영지의 여러 유구들은 전반적으로 훼손이 매우 심한 상태여서 각기 건물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전주부사』, 『완산십곡병풍도』, 『전주부4폭병풍도』등과 전라북도 구도청사 도면(1928·1937년 제작)을 참고하였다.

2. 유적의 층위

전라감영지는 1921년 도청사 건립과 1951년 무기고 폭발 및 2015년 도청사 철거 등으로 인해 원지형이 상당부분 훼손·파괴되거나 교란된 상태였다. 전라감영지의 북쪽 지역과 중앙부는 지표 아래 60~80cm 깊이에서 비교적 안정층이 확인되었고, 남쪽은 표토를 20cm 가량 걷어내자 도청사 건물의 잔존물이 노출되었으며 80cm 이상 교란되었다. 동쪽지역과 서쪽지역 역시 지표에서 1m 이상 하강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교란이 심하게 이루어져 유구의 흔적은 잘 남아있지 않았다.

선화당을 중심으로 북서편을 조사한 (재)전북문화재연구원은 전라감영지를 5개의 층위로 구분하였다. I 층은 표피층인 아스콘·콘크리트층 II 층은 흑색사질층 III 층은 흑갈색사질층 IV 층은 갈색사질점토층 V 층은 적갈색점토층으로 나뉘어지며, 이 중 유구가 확인되는 층은 III·IV·V 층이라고 했다.

북서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조사한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는 전라감영지의 토층을 세부적으로는 17개층, 크게는 3개의 문화층으로 구분하였다. I 층은 아스콘·콘크리트층으로 일제강점기 이후 시설층 II 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고려시대~조선시대 유구층 III 층은 황갈색사질점토층으로 통일신라시대 유구층 등 3개의 층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2018년에 선화당 북동쪽과 남쪽을 추가 조사한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은 선화당 북동쪽의 토층을 크게 6개 층으로 나누었다. I 층은 후대 교란층 II 층은 명갈색사질점토층 III 층은 황갈색사질점토층 IV 층은 암황갈색사질점토층 V 층은 흑색사질점토층 VI 층은 흑색사질점토층(점질 다량) 순으로 퇴적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으며, 이 중 III·IV 층을 통일신라시대 관련 유구층으로 보았다. 또한 내삼문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의 토층 양상도 파악하였는데 서쪽부분은 I 층은 황갈색사질점토층 II 층은 암흑갈색점

질토+황색점토 소량 혼입층 Ⅲ층은 황적갈색사질점토층 Ⅳ층은 암갈색사질점토층으로 구분하고, 동쪽부분은 Ⅰ층은 황갈색사질점토층 Ⅱ층은 암갈색사질점토층 Ⅲ층은 암흑갈색사질점토+황갈색사질점토층 Ⅳ층은 하상퇴적층 등 4개의 층으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서쪽부분은 Ⅳ층, 동쪽부분은 Ⅱ층이 조선시대문화층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개의 발굴조사기관이 제시한 토층의 양상은 도청사의 건립 및 철거로 인해 파괴나 교란이 심한 상태여서 구역별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크게는 4개의 문화층이 존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한다. 전라감영지에서 조사된 문화층을 종합해 보면 Ⅰ층은 표토층·아스콘·흑색사질층으로 일제강점기 이후의 시설물이 축조된 층이다. 이 층에서는 구 도청사와 관련된 콘크리트 건물의 구조물과 적심시설이 조사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교란이 심한 층이다. Ⅱ층과 Ⅲ층은 흑색사질점토층·흑갈색사질점토층·암갈색사질점토층·갈색사질점토층으로 조선시대 문화층과 고려시대 문화층이다. Ⅳ층은 황갈색사질점토층·적갈색점토층으로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이 확인된다. 통일신라시대 문화층 아래는 모래, 자갈 등의 하상층이 형성되어있다.

Ⅲ. 조사내용

1. 통일신라시대 유구

통일신라시대 유구는 전라감영지의 가장 아래층에 자리하고 있다. 건물지 5, 담장 3, 부석시설 2, 보도 2, 배수로 1, 우물 1,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유구 1기 등이 조사되었다.

1) 건물지

5기의 건물지는 지표 아래 130~200cm 깊이에서 확인되었다. 그림 3 내아 남서쪽 통일신라시대 2호 건물지



1기는 선화당에 인접한 북서편, 다른 1기는 내아터, 나머지 3기는 선화당의 북동편에서 조사되었다. 선화당 북서편에 자리한 1호 건물지는 직경 80~100cm 정도의 적심 3기만이 잔존하는데 적심은 20~30cm 내외 정도 크기의 할석을 이용한 원형이다. 적심내에서 선문이 타날된 기와편과 관(官)·전(全)자명 기와가 확인되었다. 조선시대 내

아터에서 조사된 2호 건물지는 고려시대 2호 건물지의 기단열 하단부에서 동쪽 기단열이 노출되었다. 기단은 30~70cm 크기의 석재를 사용하였는데 1단만이 남아 있으며 기단의 규모는 남북 길이 948cm, 동서 너비 610cm 내외이다. 기단의 북서쪽 모서리에서 건물의 적심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일부 확인되었다. 건물 내부에서는 등면이 각이 지고 선조문이 타날된 기와와 구름무늬의 암막새, 관(官)자명 기와 등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그림 4 관(官)자명 기와

3호·4호·5호 건물지는 기단과 적심의 일부만이 확인되었다. 기단은 20~30cm 내외 크기의 할석과 천석을 사용해서 만들었으며 적심은 20cm 내외 크기의 천석을 이용하여 원형으로 축조되었다.

2) 담장

통일신라시대 담장은 3기가 조사되었다.

담장은 모두 선화당의 북편에서 확인되었는데 담장의 기초부만이 남아있었다. 1호는 10cm 크기의 할석을 사용한 반면에 2호와 3호는 20~30cm 내외 크기의 할석을 사용하여 사용된 석재의 크기가 조금 다르다. 담장의 폭은 50~70cm 내외이며 잔존길이는 1호 담장이 520cm로 가장 많이 남아있다. 1호·2호 담장은 동서방향이며 3호는 남북방향으로 시설되어 있다. 1호 담장에서는 선문이 타날된 기와를 비롯하여 운형문 암막새가 출토되었다.

3) 부석시설

통일신라시대 부석시설은 선화당의 북서쪽에서 2기가 확인되었다.

1호 부석시설은 1호 건물지에서 북서쪽으로 약 1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지표아래 180cm 깊이에서 노출 되었다. 유구는 적갈색 점토층위에 냇돌과 할석을 이용하여 깔았는데 잔존규모는 남북길이 630cm, 동서폭 70~80cm 정도이다. 부석시설의 북쪽끝에서 전(塼)과 당초문암막새, 선문이 타날된 기와가 확인되었다. 1호 건물지에 가까이 자리하고 있어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호 부석시설은 1호 부석시설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적갈색 점토층 위에 냇돌과 할석을 이용하여 깔았는데 전체범위는 알 수 없으나 220cm 정도의 폭으로 동서방향으로 4m 이상 시설된 것으로 확인된다. 냇

돌과 할석 사이에서 선문이 타날된 기와와 관(官)자명 기와가 출토되었다.

4) 보도시설

2기의 통일신라시대 보도시설은 선화당의 북동쪽에서 조사되었다.

2기 모두 훼손되어 일부만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동서방향으로 진행한다. 이 시설은 크기 15~30cm 내외의 할석을 2열로 배치하고 그 내부에 10~25cm 내외의 다소 작은 할석을 깔아 조성하였다.

5) 배수로

통일신라시대 배수로는 1기가 조사되었다. 1호 건물지를 파기하고 남쪽 부분의 초석사이를 가로 지르는 'ㄱ'자형의 배수로는 확인되었다. 배수로는 폭 40~100cm 정도의 간격으로 16~30cm 정도의 깊이로 파내고 30~50cm 내외 크기의 자연석을 이용하여 측벽을 세웠는데 석재사이에서 선문이 타날된 기와편이 다수 확인되었다. 배수로는 북에서 남으로 낮아지고 있어 남쪽방향으로 배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잔존규모는 동서 4m, 남북 7m 정도이다. 선문이 타날된 기와와 관(官)자명의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1호 건물지의 출토유물과 거의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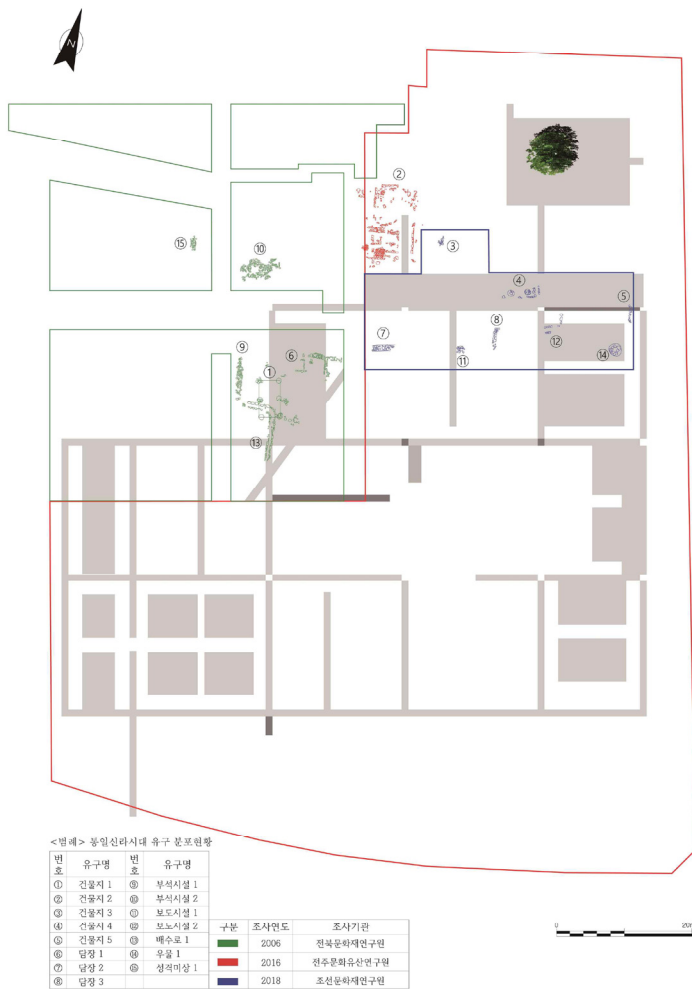


그림 5 통일신라시대 유구 분포현황도

6) 우물

통일신라시대 우물은 5호 건물지에서 남쪽으로 인접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우물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서 직경 70cm 내외이다. 깊이 260cm까지 하강하였으나 물이 차서 더 이상의 확인은 불가능하였다.

우물의 벽석은 30cm 내외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허튼층쌓기로 축조하였는데, 가장 상단에는 비교적 큰 석재를 이용하여 마무리하였다. 또한 우물 주변에는 자갈을 이용하여 상면을 편평하게 조성하였으며, 내부에는 기와편을 비롯하여 다량의 석재가 매립되어 있었다. 우물 내부와 주변에서는 통일신라시대 기와편을 비롯해 고려~조선시대 기와편 및 자기편 등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이 우물은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되어 그 이후 시기까지 사용되다가 폐기된 것으로도 추정된다.

7) 성격미상유구

지표 아래 160cm~170cm 깊이에서 석재가 일부 노출되었다. 유구는 유실이 심하여 성격이나 구조를 알 수 없다. 석재사이에서 관(官)자명과 전(全)자명의 명문와를 비롯하여 선문이 타날된 기와편 등이 다수 출토되었다.

2. 고려시대 유구

고려시대 유구로는 건물지 5, 부석시설 1, 성격미상 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1) 건물지

5기의 고려시대 건물지는 선화당의 북동편 주변에서 2기, 내아터에서 2기, 선화당과 내아 중간지점에서 1기 등이 확인되었다.

1호 건물지는 선화당과 내아터 중간지점인 지표 아래 65cm 내외에서 기단석 일부와 석렬이 확인되었는데 노출된 기단의 규모는 동서 145cm, 남북 415cm 내외이다. 큰 석재로 기단의 외면을 갖추고 내면에는 잡석과 흙으로 뒷채움 하였다. 유물은 기단의 뒷채움에서 고려시대 기와편, 청자편 등과 주변의 갈색사질점토층에서 막새편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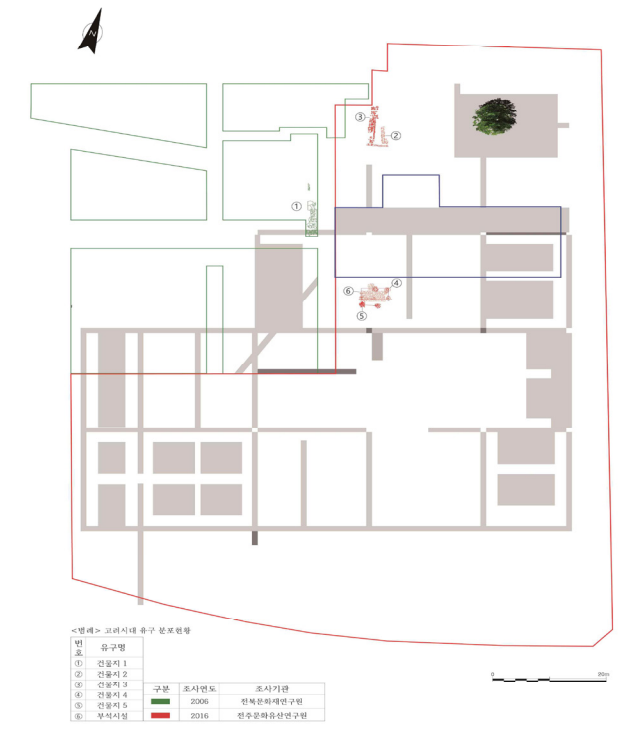


그림 6 고려시대 유구 분포현황도

2호와 3호 건물지는 내아터에서 확인되었다. 2호 건물지는 기단석과 고래 일부가 남아있는데 3호 건물 보다 먼저 축조되었다. 2호 건물지의 기단은 30~50cm 크기의 석재를 사용하여 동서방향으로 남쪽에 바깥면을 맞추었다. 1단이 남아 있으며 잔존길이는 327cm 내외이다. 구들은 기단과 직교하게 남북방향으로 소형 석재를 1~2단으로 쌓은 후 40~50cm 크기의 판석을 덮은 형태이며, 남쪽에 연도와 굴뚝이 남아있다. 잔존하는 구들과 연도부의 길이는 827cm, 고래의 간격은 25cm 내외이다. 유물은 청자편과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4호와 5호 건물지는 선화당의 북동쪽 하단에서 조사된 유구로써 고려시대 기와편이 출토된 소토층 위에 9기의 적심시설이 놓여져 있는 상태이다. 건물의 배치양상으로 보아 4호와 5호 등 2기의 건물이 중복되어 있다. 먼저 4호 건물지는 2동 중 북쪽의 건물로서 5기의 적심시설이 확인되었다. 적심에 의한 주칸거리는 250cm 내외이다. 5호 건물지는 적심시설 3기만이 남아있는데 이 중 2기는 부석시설 사이에 놓여져 있고 1기는 남쪽에 위치한 부석시설 위에 시설되었다. 적심의 주칸거리는 260cm 내외이다. 적심에 의한 건물의 잔존규모는 남북 667cm, 동서 501cm 내외이다. 유물은 적심시설 주변에서 청자접시편과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2) 부석시설

112cm 간격을 두고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확인되었다. 선화당 주변에서 조사된 유구로는 가장 선행하는 것으로서 판판한 석재를 사용하여 양단과 높이를 맞추어 동서방향으로 길게 깔았다. 양쪽 경계에는 바깥면을 맞추어서 장방형의 석재를 놓혀놓았고 그 안에는 경계석보다 작은 석재를 사용하여 채워 놓았는데 1단만 확인된다. 북쪽 부석시설



그림 7 전주목관(全州牧官)명 기와

의 잔존규모는 동서 454cm, 남북 216cm이며, 남쪽의 것은 동서 566cm 남북 176cm 내외이다. 한편, 부석시설 위에는 두께 10cm 내외의 소토층이 깔려 있으며, 소토층 위에 적심이 놓여져 있다. 이 소토층 내에서 전주목관(全州牧官), 경인이월지 정십년(庚寅二月至正十年)명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이 연대는 1350년에 해당한다.

3) 성격미상 유구

통일신라시대 배수로에서 남쪽으로 3m 내외 떨어진 지점으로 선화당터에서 서쪽으로 인접하여 확인되었다. 땅을 굴착한 후 병형토기를 어골문의 암키와로 감싸 매납하고, 뚜껑을 덮어 한조를 이뤘다. 병형토기 안에는 18개의 토제구슬을 담고 있다. 진단구의 용도로 추정된다.



그림 8 ‘庚寅二月至正十年’ 명 기와

3. 조선시대 유구

조선시대 유구는 흑색사질점토층·흑갈색사질층·갈색사질점토층에서 주로 확인된다. 건물지 16, 담장 2, 보도시설 2, 배수시설 5, 석렬 2, 우물 2, 수혈 1기 등이 확인되었으나 후대의 시설물인 도청이나 의회 건물 등의 신축과 철거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유실이 심하다. 교란과 훼손이 심한 상태여서 유구의 정확한 성격과 규모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1) 건물지

조선시대 건물지는 모두 16기가 조사되었다. 선화당 주변에서 3기, 내아터에서 3기, 관풍각터에서 1기, 내삼문터 1기, 비장청터 3기, 외행랑터 1기, 내아 서편 2기, 선화당 서편 1기, 내삼문 서편 1기 등에서 확인되었다.

선화당 주변에서 조사된 3기는 6호·7호·8호이다.

6호 건물지는 1951년에 소실된 선화당 보다 이전 건물로 추정되는데 건물의 적심만이 확인되었다. 지표아래 80cm 깊이에서 확인된 적심은 모두 7기로서 크고 작은 잡석으로 조성되었는데 내부에는 고려시대 기와편과 조선시대 기와편



그림 9 선화당터 남동편 근경

들이 섞여있다. 적심시설은 직경 102~158cm 내외로 둥글게 구덩이를 판 후 10~

30cm 크기의 할석들을 원형으로 두른 형태이며 주칸거리는 220cm 내외이다. 아궁이는 적심사이에서 노출되었는데 내부에 별다른 시설은 남아있지 않고 소결된 흔적만 보인다. 적심을 기준으로 잔존규모는 길이 625cm, 너비 628cm 내외이다. 유물은 백자와 기와들이 출토되었다. 7호 건물지는 6호 건물지 아래에서 적심 1기가 확인되었다. 적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흑갈색점토층을 'U'자형으로 파내고 소형 할석으로 채웠다. 적심의 크기는 108~110cm 내외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8호 건물지는 선화당 주변 고려시대 부석시설을 일부 파괴하고 건립되었다. 이 건물지는 남쪽과 동쪽에서 기단 일부와 아궁이가 노출되었는데 남쪽과 동쪽기단은 고려시대 부석시설 위에 축조되었다. 남쪽기단은 1단, 동쪽기단은 2단이 남아있으며 장방형의 석재를 사용하여 가로놓혀쌓기로 축조하였다. 기단을 기준으로 잔존규모는 남북(동쪽 기단) 582cm, 동서(남쪽기단) 501cm 내외이다. 아궁이는 건물의 남동쪽 모서리 안쪽에 동서방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아궁이의 입구는 수키와로 막음시설을 하였다. 유물은 분청사기편, 백자편, 어골문수키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내아터 주변에서는 1호·2호·9호 등 3기의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1호 건물지는 내아의 북서쪽에서 확인되었는데 전라감영 담장 밖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규모는 확인하지 못했다. 건물의 기단은 할석을 이용하여 시설하였으며 기단은 바깥에 면을 맞추고 안쪽에는 잡석으로 뒷채움 하였다. 노출된 기단의 규모는 동서 900cm, 남북 178cm 내외이다. 유물은 기단 안쪽에서 무문의 기와편과 수파문이 타날된 기와편을 비롯하여 백자편이 일부 출토되었다. 2호 건물지는 1호 건물지에서 남쪽으로 약 450c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조사되었다. 건물지의 기단은 2단으로 조성되었는데 하단은 30~40cm 크기의 할석재를 이용하여 면을 맞춰 놓았고 그 위의 상단은 하단에서 안쪽으로 50cm 정도 들어서 크기가 다양한 할석을 50cm 내외 높이로 쌓았다. 하단의 기단에서는 어골문 기와편과 분청사기편이 출토되었고, 상단 기단에서는 파수문이 타날된 기와편과 백자편이 소량 출토되었다. 노출된 기단의 규모는 동서 565cm, 남북 126cm 내외이다. 9호 건물지는 1호 건물지의 동쪽으로 지표 아래 60~70cm에서 기단 일부가 조사되었다. 9호 건물지의 기단과 부석시설이 고려시대 3호 건물이 폐기되고 그 위에 얇게 퇴적된 소토층 위에서 확인되었다. 건물 기단은 'ㄱ'자형으로 일부만이 남아있는데 북쪽과 동쪽에 면을 맞추어 1~2단 정도 축조되어 있다. 남아있는 기단의 규모는 남북 390cm, 동서 328cm이며, 기단의 너비는 100cm 내외이다. 기단석 밖으로는 10~20cm 크기의 천석이 두텁게 깔려있는데 이는 산수시설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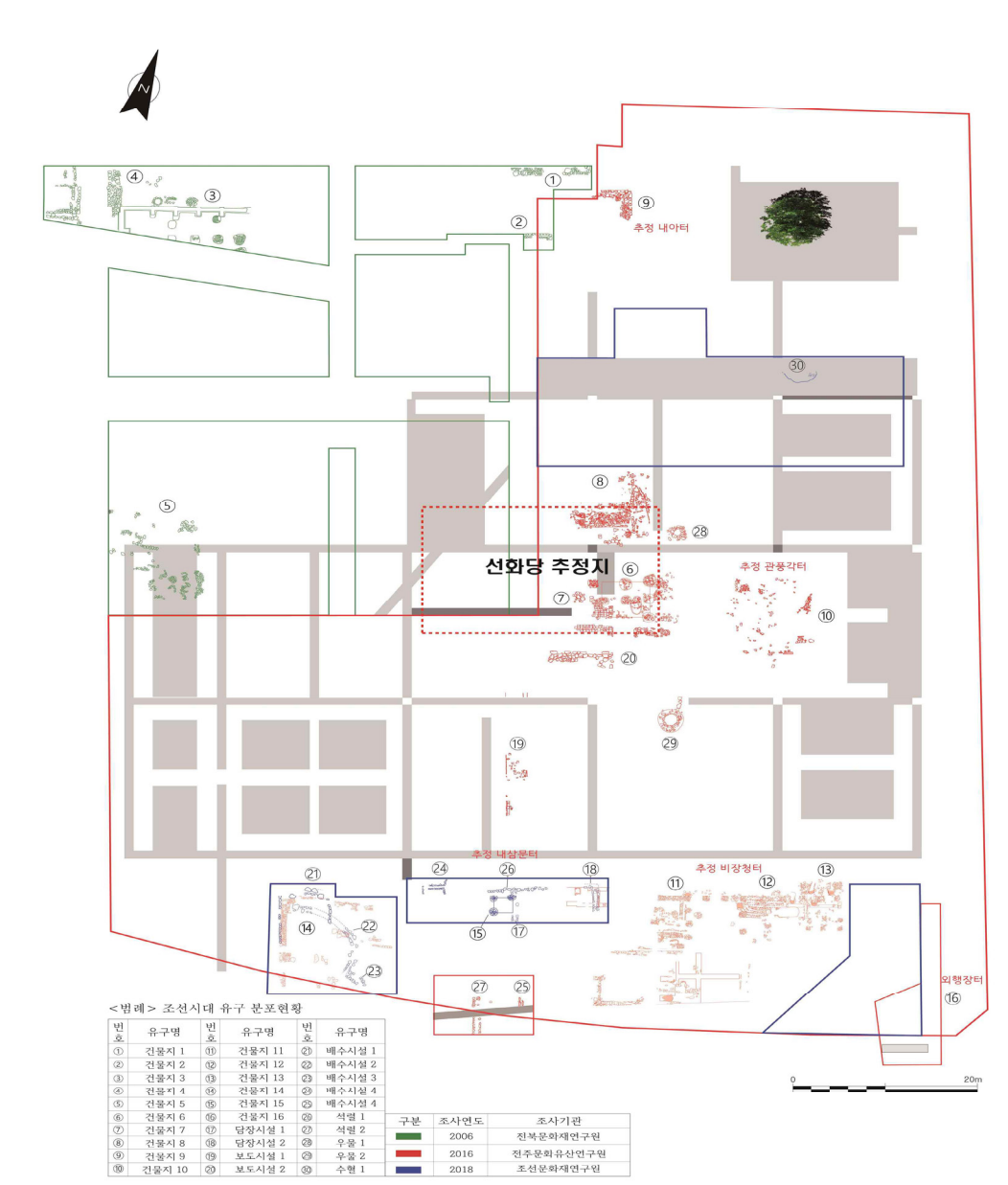


그림 10 조선시대 유구 분포현황도

유물은 소토층 위의 기단석과 부석시설 주변에서 조선시대 암키와와 수키와 등이 출토되었다.

관풍각터에서 조사된 1기는 10호 건물지이다. 발굴조사는 관풍각터로 추정되는 지역을 표토부터 80cm 까지 굴착하였으나,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 덩어리와 적벽돌, 잡석 등이 함께 뒤섞인 양상을 보였다. 다만 관풍각의 남쪽 기단선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장대석 1매가 안정적으로 놓여있었다. 따라서 이 장대석은 관풍각의 기단석으로 보인다. 관풍각터에서는 수막새와 소량의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내삼문터에서는 일제강점기 도청사의 적심아래에서 1기의 건물지가 조사되었는데 15호 건물지이다. 전라감영에서 정청인 선화당으로의 진입방식은 일반적으로 포정문-중삼문-내삼문의 과정을 거치며 내삼문은 선화당과 중삼문 사이에 남북방향의 동일한 축선상에 위치한다. 내삼문 좌우로는 담장을 둘러 선화당 영역을 형성한다. 고지도에 내삼문은 정면 5칸이나 7칸의 규모로 묘사되어 있다. 내삼문터의 발굴조사에서는 표토 아래 30cm 지점에서 일제강점기 도청사 콘크리트 시설과 적심시설들이 노출되었으며 그 아래에서 내삼문의 것으로 보이는 적심 3기가 확인되었다. 적심은 20cm 내외의 천석을 이용한 원형으로 적심크기는 87cm 내외이다. 적심간의 거리는 동서 200cm, 남북 180cm 내외이다.

비장청터에서는 11호·12호·13호 등 3기의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비장청은 전라감영 감사의 비서관 역할을 하던 비장들이 사용하던 공간으로 내삼문의 동쪽인 관풍각 앞에 자리하고 있다. 비장청터는 일제강점기 도청사의 콘크리트 시설물과 교란된 표토



그림 11 비장청터 전경

층을 70cm 내외를 제토하자 노출되었다. 건물지는 전체적으로 ㄷ자형으로 여러 개의 고래, 아궁이 등의 온돌시설이 서로 중첩관계를 이루고 있어 수 차례 건물이 개축된 것으로 보인다.

11호 건물지는 ㄷ자형의 건물지에서 서쪽에 자리하는 것으로서 3개의 방이 조사되었다. 3개의 방은 남북방향으로 이어져 있으며 고래시설과 아궁이가 남아있다. 1호 방의 고래 길이는 280cm이며, 고래 두둑의 너비는 30cm 내외이다. 2호 방은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래, 아궁이가 확인되었다. 고래는 동서방향으로 5열이 남아있는데 부정형의 소형 할석을 사용하였다. 잔존하는 방의 규모는 동서 404cm, 남북 310cm 내외이다. 3호 방은 가장 남쪽의 방으로서 건물의 기단과 아궁이 등이 조사되었다. 12호 건물지는 비장청터의 중앙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1개의 방이 조사되었다. 아궁이와 고래, 연도가 비교적 온전히 잘 남아있다. 아궁이는 방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고래

는 5열로 동서방향으로 뻗어있으며, 동쪽 끝부분에서 직각으로 꺾여 연도로 이어진다. 잔존하는 방의 규모는 길이 520cm, 너비 284cm 내외이다. 13호 건물지는 비장청에 속한 건물로 동쪽에 자리하고 있다. 아궁이와 고래가 조사되었는데 맨 북쪽의 방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남쪽은 도청사 적심시설로 인하여 더 이상의 확인은 불가능하였다. 고래는 장방형의 할석을 하단에 놓고 그 위는 소형의 판석을 얹혀놓아 남북방향으로 시설하였다. 고래의 잔존 상태로 방의 규모를 추정해보면, 남북 길이 260cm, 동서 너비 347cm 내외이다. 방의 북쪽에는 4기의 아궁이가 축조되었는데, 2기씩 나란히 열을 이루며 배치된 양상이다. 아궁이는 생토면을 타원형으로 파내고 그 안에 양벽은 석재를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비장청의 동쪽에 자리한 16호 건물지는「완산십곡병풍도」를 통해 볼 때 외행랑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 결과 50~70cm 내외의 장방형 석재를 얹혀 축조한 형태인데 동쪽으로 면을 맞추고 있어 외행랑의 동쪽 기단부로 보인다. 기단은 남북방향으로 1열을 이루고 있는데 1~2단이 잔존한다. 하층 기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놓여 있으나 위에 놓인 상층 기단은 기단석사이에 콘크리트 흔적 등이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후대에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기단의 잔존길이는 15.7m 내외인데 남쪽 부분은 훼손되었다. 조선시대 기와편이 소량 수습되었다.

내아의 서쪽에서는 3호와 4호 등 2개의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3호 건물지는 6기의 적심이 확인되며 주칸거리는 동서 230cm, 남북 160cm~192cm이다. 적심은 10~20cm 내외 크기의 냇돌과 할석을 이용하여 조성하였다. 유물은 적심내에서 조선시대 기와편과 자기편이 출토되었다. 4호 건물의 기단은 북서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워 전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다. 건물의 기단은 2단으로 조성하였으며 상단은 하단에서 약 50cm 정도 뒤로 물러쌓았다. 유물은 기단과 주변 배수로 내부에서 기와편과 상평통보 2점이 출토되었다.

5호 건물지는 선화당의 서쪽에서 조사되었다. 유구는 대부분 유실되고 부분적으로 적심과 배수로로 생각되는 석렬 등이 잔존한다. 건물의 적심은 2기가 확인되는데, 냇돌을 사용하여 직경 약 100cm 정도의 크기로 축조하였다. 상평통보 1점이 출토되었으며, 적심사이와 주변석재들 사이에서 조선시대 무문의 기와편과 수파문이 타날된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14호 건물지는 전라감영지의 남서쪽에서 조사된 건물지로서 내삼문의 서쪽에 자리한다. 대부분 심하게 결실된 상태여서 그 규모와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

이다. 기단의 잔존규모는 길이 610cm, 너비 560cm 내외이다.

2) 담장

일제강점기 도청 외벽 기초부의 안쪽과 그 주변에서 2기의 담장이 확인되었다.

1호 담장은 내삼문과 비장청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장자리에 지대석을 깔고 그 위로 되물림하여 석재를 쌓고 내부에 흙을 채운 형태로서 너비는 80cm 내외이다. 이 담장은 북쪽으로 15.2m 가량 이어지다가 서쪽으로 직각형태로 꺾인다. 담장은 2단이 남아 있으며 1단에는 30~45cm 내외 크기의 장방형에 가까운 할석을 바깥면에 맞춰 2열로 나란하게 배치한 후, 그 위에 1단의 것보다 크기가 작은 15~25cm 내외의 할석을 올려 쌓았다. 후대의 건물로 인해 파괴되어 정확한 형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2호 담장은 1호 담장의 동쪽에서 조사되었다. 잔존규모는 길이 420cm, 너비 70cm 내외이며 장축은 남북방향이다. 담장은 크기 15~35cm 내외의 할석을 바깥면에 맞춰 2열로 배치하고, 내부에는 소할석을 채워서 축조하였다. 2호 담장은 남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나 중앙부 일부는 15호 건물지 적심과 후대의 교란으로 인해 파괴된 상태이다.

3) 보도시설

2기의 보도시설이 조사되었는데 2기 모두 내삼문과 선화당 사이에서 확인되었다.

1호 보도시설은 선화당터에서 남쪽으로 21m 떨어진 지점까지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전주부 4폭병풍도」에 묘사된 것을 보면, 보도는 중삼문-내삼문-선화당까지 일직선상으로 이어지는데 조사된 보도는 선화당과 내삼문사이에 놓인 것이다. 보도는 전돌을 사용하여 축조하였으며 양 경계에는 전돌을 세우고 그 안에는 전돌을 눕혀 깔아 만들었다. 보도의 너비는 234cm 내외이며, 전돌의 크기는 25~32cm 내외로서 대체로 방형이다. 단면조사 결과 한 차례이상 확장하여 보수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2호 보도는 선화당터 주변에서 조사되었는데 지표 아래 60cm 깊이의 흑갈색사질점토층에서 노출되었다. 보도시설은 선화당터의 동쪽 경계부분부터 남서쪽의 일제강점기 연결통로까지 전돌과 판석을 사용하여 시설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일부만이 남아있다. 판석을 사용한 보도시설은 선화당터의 남쪽 전면에서 확인되는데 전체규모는 남북 2.1m, 동서 20.1m 내외이다. 잘 다듬은 석재를 경계석으로 세우고 그 안을 전돌로 깔았는데 주로 남동쪽에서 장방형의 전돌이 확인된다.

4) 배수시설

5기의 배수시설이 내삼문의 서쪽에서 4기, 중삼문터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1호·2호·3호·4호 배수시설은 내삼문의 서쪽에서 조사되었다. 1호 배수시설은 내삼문터의 서쪽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후대 건물지로 인해 대부분 훼손되어 극히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배수로의 방향은 동서로 이어지다 남쪽으로 살짝 꺾여 내려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2호 배수시설은 1호 배수시설에서 동쪽으로 인접해서 확인되었다. 14호 건물지와 지하에 설치된 하수관으로 인해 일부가 훼손된 상태이다. 잔존규모는 10.8m 내외이며 20~35cm 크기의 할석을 안으로 서로 마주보게 맞추어 축조 하였다. 3호 배수시설은 2호 배수시설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25~43cm 크기의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남쪽의 조사지역 외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되며 잔존규모는 길이 250cm, 너비 40cm 내외이다. 4호 배수시설은 1호 배수시설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도청사의 적심시설로 인해 파괴되어 일부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잔존규모는 남북 110cm, 동서 270cm, 너비는 60cm 내외이다. 10~20cm 크기의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3단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5호 배수시설은 중삼문터에서 아스콘을 제거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배수로의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이며 길이 40~50cm 내외의 석재를 세워 시설하였다. 모두 유실되고 석재 3매만이 남아있으며 뚜껑은 훼손되어 없는 상태이다. 배수로의 너비는 17cm 내외이다.

5) 석렬

석렬은 2곳에서 확인되었는데, 일부만이 남아있어 정확한 형태나 규모는 알 수 없다. 1호 석렬은 20~35cm 정도의 석재를 사용하여 축조하였는데 동서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로서 규모는 740cm 내외이다. 2호 석렬은 추정 중삼문터에서 조사되었다. 장축을 남북으로 두고 있는데 현재 도로가 개설된 부분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다. 크기가 작은 천석을 2줄로 놓았고 바깥쪽으로 돌의 면을 맞추었는데 너비는 60cm 내외이다. 석렬은 선화당터와 내삼문터 사이에서 조사된 보도와 방향이 같다. 보도시설이거나 담장의 기초석으로 추정된다.

6) 우물

2기의 석조우물이 조사되었다.

1호 우물은 선화당터에서 동쪽으로 5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표토를 70cm 가량 제토하자 함몰양상이 보이는 석재들이 노출되었으며, 내부의 잡석들을 제거하자 우물의 벽석이 확인되었다. 우물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부정형의 할석을 이

용하여 허튼층쌓기로 축조하였다. 직경은 70cm 내외로 소형인데 내부조사는 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사유로 165cm까지만 진행하였다. 우물 내부에서는 백자편과 기와편들이 출토되었다. 2호 우물은 1928년과 1937년 일제강점기 도청사 도면에도 표기된 우물로서 선화당 기단에서 남동쪽으로 11.1m 떨어진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우물이 자리한 지점은 2015년에 이루어진 도청사 철거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지표 아래 2m 깊이에서 노출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직경은 150cm 내외로 큰 편이다. 우물은 30cm 내외의 할석을 사용하여 허튼층으로 쌓아올렸으며 우물의 깊이는 380cm 이상으로 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더 이상 하강할 수 없었다. 우물 내부에는 적벽돌, 콘크리트, 펜촉 등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다.

7) 수혈유구

수혈은 선화당의 북동쪽에 자리하고 있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잔존 규모는 동서 610cm, 남북 200cm, 높이 40cm 내외이다. 수혈은 지표 아래 150cm 정도에서 노출되었는데, 상부에 형성된 퇴적층은 후대 교란층으로 여러 차례 복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수혈의 단면형태는 완만한 'U'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내부 퇴적양상은 황갈색사질점토가 소량 혼입된 흑회색사질점토층의 단일층을 이루고 있다. 수혈 내부에는 기와편, 자기편과 함께 석재가 다량으로 퇴적되어 있고 바닥면 중앙부를 기준으로 소토층이 5~10cm 정도 깔려있는 상태이다. 폐기장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4. 일제강점기 유구

1) 도청사 본건물터

일제강점기 도청사 및 관련 시설물의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지표 아래 30~60cm내외에서 노출되는데 전라감영지 전면에 걸쳐 부분적으로 잔존하고 있다. 선화당 서쪽에 인접한 곳과 고려시대 4·5호 건물지 동쪽, 내아터 남쪽에도 1928년과 1937년 일제강점기 도청사 도면에 표기된 건물의 콘크리트 기초부가 남아있다.

전라감영지 남쪽의 도청사 본관의 건물 형태는 '一'자형으로 장축은 동서방향이다. 남쪽 한 가운데에는 돌출된 현관을 두었으며, 바로 안쪽에는 로비를 둔 형태이다. 1928년과 1937년의 도면에 의하면 청사의 평면형태는 '山'자형으로 청사의 동쪽과 서쪽에는 남북방향의 건물이 있으며, 청사 중앙부의 후면에도 돌출된 부분이 있다.

도청사 본관터에는 건물의 기초부분과 적심시설들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데 도청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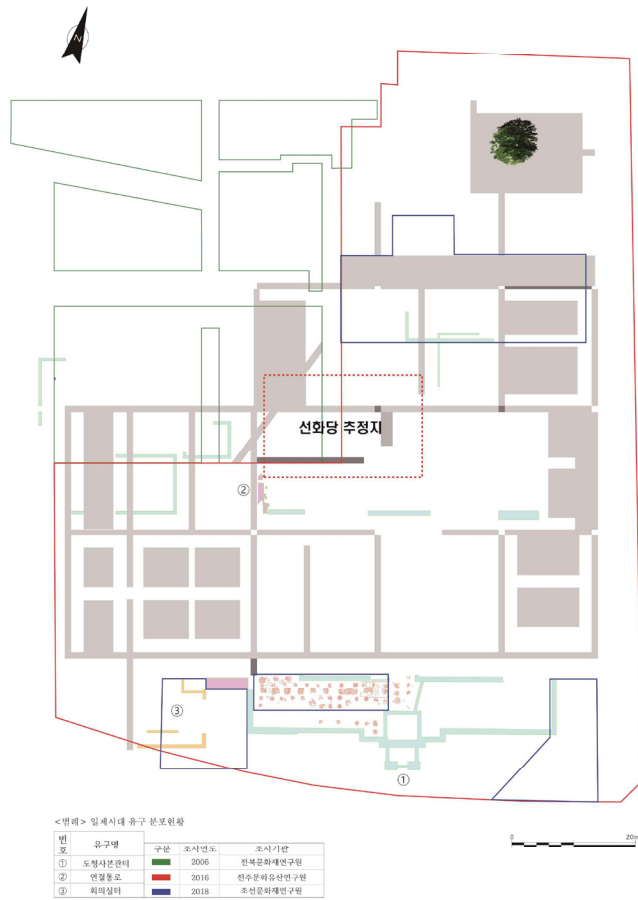


그림 12 일제강점기 이후 유구 분포현황도

적심시설은 2가지 형태가 확인된다. 하나는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1~2단정도 적석한 것으로 적심의 간격은 160cm 내외로 조밀하다. 또 다른 형태는 방형의 평면형태로 깊이 80cm 내외로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여 적석한 것이다. 이러한 적심시설은 일제강점기 도청사 건물 안쪽에만 열을 맞추어 200~220c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렇듯 크기와 형태가 다른 2가지의 적심이 보이는 것은 기둥과 마루 등 하중을 받는 것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아울러 적심 및 동자석 사이에 불탄 재층이 깔려있고 일부 동자석에는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어서 1951년 화재에 의한 소실을 입증하고 있다.

2) 연결통로

선화당터의 남서쪽에 접한 부분과 일제강점기 도청사터의 서쪽에는 각각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으로 시설된 건물간의 연결통로가 있다. 이 연결통로는 지표 아래 30cm 내외에서 확인되었는데, 양쪽 경계는 장대석을 놓고 그 내부에 잡석을 넣은 후 콘크리트를 부어 만들었다. 1937년에 제작된 일제강점기 도청사 도면을 보면, 선화당 남서쪽의 연결통로는 도청사 본관과 당시 농무과로 사용하던 선화당을 이어주는 통로로 잔존길이는 520cm, 너비는 202cm 내외이다.

3) 회의실터

회의실은 도청사의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 회의실은 1922년 3월에 신축한 것으로 1928년 도면에는 연결통로만 나오는데, 통로시설로 보아 회의실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7년 도면에는 '현회의실'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 회의실터는 지표

아래 30cm 내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콘크리트 구조물인 기초부만 남아있다. 기초시설은 아래에 잡석을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만들었으며, 높이 30cm, 너비 43cm이다. 도면에 의한 회의실의 형태는 동서방향으로 긴 형태인데, 잔존길이는 9.29m이다.

IV. 유구 및 출토유물의 성격

전라감영지에서 조사된 유구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건물지 26, 담장 5, 부석시설 3, 보도시설 4, 배수로 6, 우물 3, 수혈 1, 성격미상유구 3기 등으로 나누어진다.

표 2. 시대별 유구 조사내용

시 대	유 구	출토유물
통일신라	건물지 5, 담장 3, 부석시설 2, 보도 2, 배수로 1, 우물 1, 성격 미상 유구 1기 등	토기류, 기와류
고려시대	건물지 5, 부석시설 1, 성격 미상 유구 2기 등	청자편, 기와편
조선시대	건물지 16, 담장 2, 보도시설 2, 배수시설 5, 석렬 2, 우물 2, 수혈 1기 등	기와편
일제강점기 이후	도청사, 회의실, 연결통로 등	펜촉

건물지 26동 중에서 조선시대 전라감영 건물지는 16동이 조사되었다. 그런데 이 16동의 건물지는 19세기 후반까지도 전라감영의 건물이 40여동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40% 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조사된 건물지의 수가 적은 이유는 전라감영 경역 전체를 조사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도청사 및 부속건물의 건립과 철거에 따른 파기가 컸기 때문으로도 생각된다. 아울러 잔존하는 유구도 대부분 유실이 심한 상태여서 유구의 성격과 규모를 온전히 파악하기에도 적잖이 어려움이 많았다.

전라감영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기와류, 토기류, 자기류, 금속류 등인데 기와를 제외한 나머지 유물들은 출토량이 많은 편이 아니며 파실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교적 잔존 상태가 양호하고 문양이나 제작방식 등을 알 수 있는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⁵⁾.

1. 통일신라시대 유구 및 출토유물

전주지역에서 통일신라시대 건물지는 전라감영지 이외에도 전주 동고산성, 찰방유적⁶⁾, 경기전 부속건물지⁷⁾ 등에서 조사된 바 있다. 전라감영지에서는 선화당의 북쪽에서 지표 아래 130~200cm 깊이에서 노출되었는데 5기의 건물지 중 2호 건물지를 제외한 4기는 모두 기단의 일부만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전체규모를 알 수 없다. 다만, 2호 건물지는 기단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상태여서 전체면적이 57.8㎡ 내외 크기의 건물임을 알 수 있으며 건물 내부에서는 등면이 각이 지고 선조문이 타날된 기와와 구름무늬의 암막새, 관(官)자명 기와 등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아울러 건물지 주변으로는 담장과 부석시설 및 보도시설, 배수로, 우물 등이 조사되고 있다. 이처럼 전주 지역 일대에서 한 유적 내에 통일신라시대의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는 곳은 전라감영지 이외에는 아직 조사된 예가 없다.

통일신라시대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토기류 9점, 기와류 103점, 전돌 1점 등으로 기와류가 91%를 차지한다.

9점이 출토된 토기류의 기종은 완 3점, 뚜껑 2점, 벼루 2점, 호편 1점, 등잔 1점 등으로 일상용기가 대부분이다. 완은 3점 중 2점이 높이 3.3cm 내외의 소형으로 바닥은 비교적 편평하고 색조는 회백색과 적갈색을 띠며 연질소성으로 등잔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다. 뚜껑은 반구형이며, 중앙에 낮은 형태의 꼭지를 부착한 것으로 형태와 크기가 서로 유사하다. 벼루는 반파된 것으로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연반 아래로 대각을 부착하였다. 연강의 주변으로는 'U'자형의 연지를 만들었다. 이와 유사한 벼루는 부여 관북리유적에서 출토된 것이 있으며, 전주에서는 찰방유적 3지구 2호 건물터에서 출토된 바 있다.

기와류는 막새 4점, 수키와 45점, 암키와 54점 등 모두 103점이 출토되었다. 막새는 암막새 3점과 수막새 1점이 출토되었는데 암막새는 주연부에 연주문이 시문되고 내면에 당초문이 확인된다. 수막새는 연화문으로 장식한 연판 일부만이 남아있다. 평기와는 수키와 45점, 암키와 54점으로 구분된다. 이들 기와의 색조는 연질소성의 경우 회백색, 회청색, 황갈색, 암갈색, 적갈색을 띠고 경질의 경우 주로 회청색과 회백색을 띤다. 소성도를 보면, 경질소성이 연질소성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기

5) 전라감영지 발굴조사는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에서 추진하였으나 본 고에서는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및 출토유물 정리가 완료된 (재)전북문화재연구원과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의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6)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全州 察訪遺蹟』.

7) 전주대학교박물관, 1998, 『전주 경기전 부속건물지 발굴조사 보고서』.

와는 편으로 조사되었으나 이 중 길이를 알 수 있는 것을 살펴보면 암키와는 26.4cm ~ 32.5cm 내외 크기로서 대부분이 30cm를 전후하며 수키와는 크기가 22.4~33.0cm 내외이다.

기와에서 타날판의 길이는 기와 외면에 나타나는 속성 중 하나로 시기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타날판은 크기에 따라 단판·중판·장판으로 나뉜다. 평기와의 길이를 30~40cm로 기준을 두었을 때 단판은 중복되지 않게 타날 단위가 4~5회 내외이며, 타날판의 길이는 6~8cm에 해당한다. 중판은 2~3회이며, 15~20cm, 장판은 1회 타날만으로 두드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말하는데 타날판의 길이는 30~40cm이다⁸⁾. 그런데 전라감영지의 통일신라시대 유구에서 출토된 기와 중 타날판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대체로 20cm 내외의 중판과 30cm의 장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에서 중판의 타날판을 사용하여 제작된 기와가 출토된 유적은 김제 봉월리 기와요지⁹⁾, 전주 동고산성¹⁰⁾, 전주 찰방유적, 익산 왕궁리¹¹⁾, 미륵사지¹²⁾, 고창 부곡리 증산유적 I¹³⁾, 정읍 이문유적¹⁴⁾ 등이 있는데 이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의 중판 길이는 대략 18~20cm 내외여서 전라감영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기와는 이와 유사하거나 이보다는 다소 큰 타날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신라 기와와 통일신라말기~고려초기의 기와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등면 문양의 타날에 사용된 타날판의 길이이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개 중판 타날판은 7세기 후엽부터 9세기 중엽까지 사용되다가 9세기 초엽부터 장판 타날판 기와가 출현¹⁵⁾하는데 호남지역에서 장판 타날판이 사용된 기와는 9세기 중엽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장판 타날판이 사용된 기와 중 분할방향이 내·외측으로 서로 다르거나 내면 하단부가 조정되지 않은 기와는 9세기 중반~10세기 초반의 한정된 시기에 사용된 기와이므로 시기적으로 후백제에 매우 근접한 유물로 추정되고 있다¹⁶⁾. 따라서 타날판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전라감영지의 통일신라시대 유구에서 출토된 기와들의 제작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출토된 기와의 문양은 크게 선조문, 격자문, 무문, 어골문으로 구분된다. 암키

8) 이수경, 2011, 「영산강유역 고려시대 평기와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4, 『金堤 鳳月里 기와窯址』.

10)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전주 동고산성 서문지 발굴조사 보고서』.

1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2, 『왕궁리IV』.

1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6, 『彌勒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II』.

13)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고창 부곡리 증산유적 I』.

14)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3, 『井邑 淨土·望潭·里門遺蹟』.

15) 이인숙, 2004, 「통일신라-조선전기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한국고고학보』제54호.

16) 차인국, 2014, 「전북지역 통일신라-고려시대 평기와 연구」, 『야외고고학』제20호.

와의 문양은 선조문 47점, 격자문 4점, 어골문 1점, 무문 2점 등으로 선조문이 주를 이룬다. 수키와도 암키와와 유사한데 선조문 39점, 격자문 5점, 무문 1점 등으로 선조문이 많다. 이처럼 암키와와 수키와 모두 선조문계가 87%를 차지한다.

선조문은 크게 종방향과 사선방향으로 타날이 이루어졌다. 문양의 구성에 있어서는 종방향과 사선방향으로만 타날된 것도 있으며, 종방향과 사선방향이 복합된 기와도 출토되었다. 일부 수키와는 외면을 상·하면으로 구분하여 상단부는 사선방향, 하단부는 직선방향으로 선문을 타날한 것도 보인다. 선조문은 대부분 조밀한 간격으로 평행문이 새겨진 타날판을 사용하여 선명하게 문양이 남아있으나 문양이 굵은 타날판이 사용된 기와는 물손질로 문양이 지워지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경우도 확인된다. 전북 지역에서 선조문 기와가 출토된 유적은 전주 찰방유적, 김제 봉월리 기와요지, 전주 찰방유적, 익산 저토성¹⁷⁾, 미륵사지, 미륵산성¹⁸⁾, 고창 부곡리 증산유적, 정읍 이문유적 등이 있는데 이들 유적들은 대체로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로 편년되고 있다. 하지만 전라감영지에서 출토된 각이 진 형태의 선조문이 타날된 기와가 전주 동고산성과 장수 침령산성 등 후백제 유적에서 다수 출토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한편, 선조문 기와 중에는 관(官)·대(大)·전(全)자 등의 명문이 찍혀있는 암키와 27점과 수키와 16점이 출토되었다. 대(大)자의 명문와는 1점만 출토되었고 전(全)자는 2점, 나머지 40점은 관(官)자명 기와이다. 글의 서체는 해서체(楷書體)나 행서체(行書體)에 가깝다. 관(官)자는 방곽을 구획하고 그 안에 찍혔는데, 방곽의 형태는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으로 구분되며 크기는 다양하다. 관(官)자는 정서(正書)·좌서(左書) 등과



그림 13 관(官)자명 기와 각종 (좌측 1-2 정서, 3-4 좌서, 5-8 약자)

몇 가지의 흘림체 등으로 변형된 약자로 구분된다¹⁹⁾. 전북지역에서 관(官)자명 기와가 출토된 유적은 동고산성, 익산 미륵사지, 미륵산성, 왕궁리유적, 전주 경기전(慶基殿), 정읍 고부 구읍성²⁰⁾ 등으로 대체로 관아건물이나 사찰 등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17)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1, 『익산 저토성 시굴조사 보고서』.

18) 원광대학교박물관, 2008, 『彌勒山城 건물지 및 남문지 발굴조사보고서』.

19)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8, 『전라감영지 발굴조사보고서』.

기와의 측면분할 방향은 기와가 제작되는 전 시기에 걸쳐 내측이 가장 많으며, 고려시대 이후에는 내측으로 정형화된다²¹⁾. 전라감영지에서 출토된 기와의 측면 분할은 대부분 내측에서 외측으로 분할하였다.

이상에서 평기와의 여러 성격 등을 검토해 볼 때 전라감영지의 통일신라시대 유구에서 출토된 평기와는 9세기 중후반에서 10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 고려시대 유구 및 출토유물

고려시대 유구는 선화당의 북동쪽과 내아터 주변에서 조사되었는데 건물지의 적심시설과 부석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고려시대 유구층은 조선시대 유구가 들어서면서 파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잔존유구가 많지 않다.

고려시대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은 자기류 7점, 기와류 51점, 토기 2점, 토제구슬 18점 등이다.

자기류는 건물지에서 7점의 청자편이 출토되었다. 무문청자와 압출양각청자, 철화청자 편들인데 제작시기는 11~13세기로 추정된다²²⁾.

기와류는 건물지와 부석시설 등에서 암막새 7점, 수막새 4점, 암키와 24점, 수키와 16점 등이 조사되었다. 이 중 암막새 7점은 드림새만 극히 일부 남아있으며, 문양은 3점이 당초문이 시문되었다. 수막새는 중앙에 3점은 연화문, 1점은 물결문이 배치되었다.

평기와의 색조는 회백색과 회청색, 흑회색을 띠는데 연질소성의 경우 회백색과 흑회색이고, 경질은 주로 회청색이다. 연질소성에 비해 경질 소성에 가까운 것이 많다. 내면은 포목문을 사용하였으며 정선한 것과 솔질하여 정선한 것도 일부 확인된다. 분할 방법은 와도로 기와두께의 1/2~2/3 정도 깊이로 그어 올린 후 나눈 것과 와도로 긁지 않고 분할 것이 확인된다. 전체 규격을 알 수 있는 기와를 보면 암키와는 길이가 40cm 내외이며, 이에 비해서 수키와는 35cm 정도이다. 또한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암키와의 타날판 크기는 대략 35cm 내외로서 장판을 사용하였다.

기와의 문양은 대부분 어골문과 어골복합문이 주를 이룬다. 암키와편의 외면에는 건

20)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13, 『井邑 古沙夫里城-종합보고서(1~5차 발굴조사)-』.

21) 차인국, 2014, 「전북지역 통일신라~고려시대 평기와 연구」, 『야외고고학』20, 한국매장문화재협회.

22)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9, 『전라감영』.

- 철화청자는 11-12세기 초까지 성행하다가 12세기 중엽 이후 상감청자가 유행하면서 급격히 쇠퇴하였고 청자의 압출양각 문양은 12-13세기 유행하였다.

물의 성격과 조성시기를 말해주는 전주목관(全州牧官)·경인이월지정십년(庚寅二月至正十年)·목관(牧官)·국(國)·전(全)자 등의 명문이 찍혀있다. 전주는 983년(성종 23)에 설치된 12목의 하나였다. 전주목의 행정치소에 대해 그동안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전주목관(全州牧官)명 기와가 전라감영지 선화당 북편에서 출토되어 주목된다. 1350년의 절대연대를 제시하는 경인이월지정십년(庚寅二月至正十年)명 기와와 동반하여 전주목관(全州牧官)명 기와가 출토되었는 바, 전라감영지가 고려시대에는 전주목의 관청 건물물이 존재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전라감영의 선화당에서 북쪽으로 내아까지의 일대가 그 경역으로 추정된다.

전북지역에서 출토된 평기와를 살펴보면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로 가면서 타날판은 단판→중판→장판으로 길어지며, 타날의 문양은 선문·격자문→어골문·복합문으로 변화되고 수기와는 토수→미구기와로, 타날면의 형태는 각짐→동금, 상단부는 정면·무정면→정면, 하단부 조정은 무조정·깎기→물손질, 와도질 방향은 내측으로 정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²³⁾.

따라서 전라감영지 고려시대유구에서 출토된 기와는 어골문과 복합문이 등장하고 장판의 타날판 사용, 미구기와만 보이는 수기와 등으로 볼 때 13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3. 조선시대 전라감영 유구 및 출토유물

선화당은 조선 초기에 건립되어 여러 차례 소실되고 다시 중건되었다. 『전주부사』기록에는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 전주성이 왜군에 점령되면서 선화당이 소실되었는데, 그 이듬해 1598년 전라감사 황신(黃愼)이 선화당을 재건하였다고 하며, 1771년(영조 47)에는 전라감사 윤동승(尹東昇)이 또 한 차례 중수하였다고 한다. 20여년이 지난 1792년(정조 16)에 또 다시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화재 당시 전라감사였던 정민시(鄭民始)가 그 해에 다시 선화당을 중건하였으며 이 때 중건된 것이 1951년에 전소된 선화당 건물로 추정된다. 위의 기록으로 보아 선화당과 전라감영의 주요 부속시설은 4차례 이상의 증개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라감영지는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도청이 들어서면서 파괴가 심하게 되었으며 2015년 도청사 철거로 인해 또 한차례의 극심한 훼손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전라감영의 정청인 선화당을 비롯해서 여러 부속건물들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23) 차인국, 2014, 「전북지역 통일신라~고려시대 평기과 연구」, 『야외고고학』20, 한국매장문화재협회.

다행히 전라감영의 주요 건물들의 위치는 「전주부사」「완산십곡병풍도」「전주부4폭병풍도」와 1928년과 1937년에 작성된 구도청사 도면을 통해 짐작 할 수 있었다. 고지도에 그려진 전라감영은 내삼문과 선화당, 내아가 일직선상으로 남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림 14 선화당과 구 도청사 연결통로

『전주부사』에 수록된 1951년 이전의 선화당 사진을 보면, 구지표면에서 3단의 기단 석축을 쌓고 그 위에 초석을 시설하고

기둥이 올려졌다. 지붕은 팔작지붕이고, 건물의 규모는 정면 7칸이다. 전면에는 계단과 인도가 시설되어 있다. 따라서 구지표면이 발굴조사 때보다 현저하게 낮지 않다면 선화당의 흔적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²⁴⁾ 실제 발굴조사를 통해 선화당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1928년과 1937년에 작성된 구 도청사 도면에 선화당과 함께 표기된 2호 우물과 연결통로가 확인됨에 따라 전라감영의 핵심건물인 선화당과 관풍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내아터는 선화당에서 북쪽으로 31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내아터에서는 조선시대 건물지 3동이 조사되었다. 대부분 건물의 기단 일부가 확인되었는데, 3동의 건물이 'ㄷ'자 형태여서 「완산십곡병풍도」와 「전주부4폭병풍도」에 그려진 내아의 형태와 유사하다.

『전주부사』에 관풍각은 도청 동쪽 뒷문의 북쪽 옆에 있는 건물이라고 하고 있으며 고지도에 의하면 선화당의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관풍각터로 추정되는 지역은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 덩어리와 적벽돌, 잡석 등이 함께 뒤섞인 양상을 보였으나 관풍각의 남쪽 기단선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길이 105cm, 너비 30cm, 두께 18cm의 장대석 1매가 안정된 상태로 놓여있음으로 해서 관풍각터를 추정할 수 있었다.

내삼문은 고지도에 의하면 선화당과 남북방향으로 일직선상에 있으며 5칸이나 7칸의 규모로 그려져 있다. 2차례에 의한 발굴조사를 통해 도청사 내부에서 적심 3기와 함께 그 주변에서 담장이 확인되었다. 담장은 전라감영지의 남쪽경계부터 북쪽으로 15.2m 가량 남북방향으로 이어지다가 도청사의 시설물을 지나 서쪽으로 직각형태로

24) 유철, 2016, 「전라감영지 발굴조사 성과」,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학술세미나 자료집』.

꺾인다.

비장청은 내삼문의 동쪽인 관풍각 앞에 자리하고 있다. 「완산십곡병풍도」와 「전주부4폭병풍도」에 비장청은 남향의 건물로서 내아 평면형태와 유사한 ‘ㄷ’ 자형으로 묘사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내삼문의 동쪽에서 비장청이 확인되었다. 비장청은 아궁이와 고래시설을 갖춘 여러 개의 방이 선후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전체적인 건물의 평면형태는 고지도의 형태에서 크기 벗어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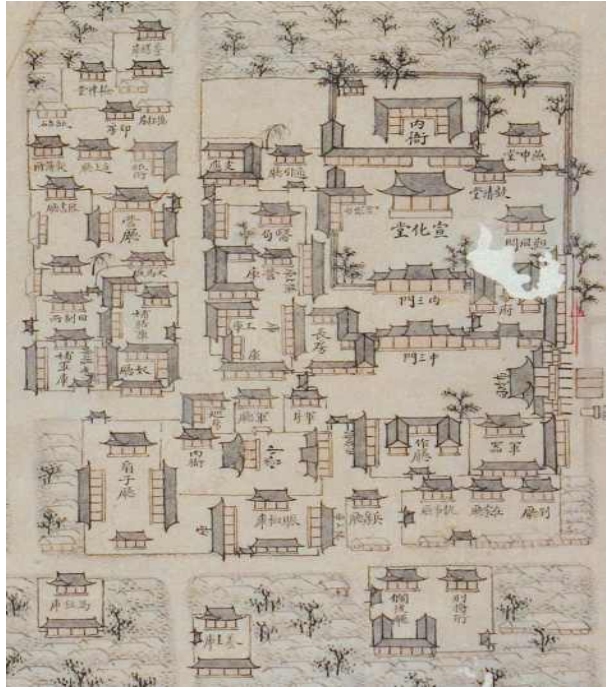


그림 15 완산십곡병풍도

이상에서 보면 전라감영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내아, 비장청, 내삼문 등의 건물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화당, 관풍각 등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전라감영지는 통일신라시대부터 2005년 7월 전북도청이 효자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지방행정의 중심지였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표 3 . 전라감영 시설 유구 조사현황

유구명	조사 내용	출토유물
선화당터	건물지 3기(기단, 적심시설, 아궁이)	분청사기편, 백자편, 기와편
내아터	건물지 3기(기단, 부석시설, 구들, 연도부)	백자편, 기와편
관풍각터	건물지 1기(기단석 1매)	기와편
내삼문터	건물지 1(적심), 담장, 보도시설	기와편
비장청터	건물지 3기(고래, 아궁이)	백자편, 기와편, 주화
우물	원형 우물 2기	백자편, 기와편, 펜촉

조선시대 전라감영 유구에서는 토기류 4점, 와제품 1점, 자기류 33점, 기와류 66점, 주화 8점(상평통보 6, 조선통보 1, 일본주화 1), 전돌 5점, 펜촉 6점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자기류는 33점의 출토품 중에서 분청사기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백자편이다. 백자편은 선화당 및 내아, 내삼문, 비장청, 우물 등지에서 출토되었다. 백자의 기종은 호와 대접, 접시류이고, 내삼문터에서는 소형의 종지와 잔이 출토되었다. 내저면에는 모래받침흔이 남아있다.

기와류는 66점으로 수막새 3점, 수키와 39점, 암키와 24점 등이다. 선화당과 내아, 내삼문, 비장청 주변 등 전라감영 조선시대 건물지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수막새는 관풍각터에서 1점, 내삼문터에서 2점 등 모두 3점이 출토되었다. 관풍각터에서 출토된 것은 연화문의 단판수막새로 드림새 일부만이 남아있다. 연판은 중앙에 자방이 있고 그 주변으로 능형의 연화문이 8엽으로 배치되었으며 연화문 주변으로 2겹의 주연부가 형성되어 있는 형태이다. 내삼문터에서 확인된 수막새 2점 역시 연화문이 새겨져 있다. 1점은 원통형의 자방부 주변으로 타원형의 연화문이 7엽 배치되어 있으며, 다른 1점은 복판수막새로 연판의 중앙에 원형의 자방을 배치하고 주변으로 8엽의 연화문이 새겨져 있는데 전면은 도구에 의해 마연되어 매끈한 상태이다.

기와는 대부분 편으로 출토되어 전체크기를 알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다만,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기와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암키와는 33.3cm~42cm, 수키와는 31.3~41.4cm 내외로 비교적 크기가 다양하다. 경질소성으로 색깔은 대부분이 회청색을 띠고 있으나 일부 회색계도 보이며 산화에 의한 적갈색도 확인된다. 또한 원통와통을 사용하여 제작²⁵⁾된 기와의 문양은 어골문 6, 집선문 9, 청해파문 20, 무문 18, 복합문 10점 등 모두 63점이 조사되었는데, 이 중 청해파문과 무문이 38점으로 전체 6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출토되었다.

한편, 내아 주변 건물지와 선화당 주변 조선시대 8호 건물지의 아궁이에서 재층을 채취하여 방사성탄소연대를 측정된 결과 내아 건물은 AD 1,570~1,630년, 선화당 주변 건물지는 AD 1,440~1,500년에 해당하는 절대연대가 제시되었다.

17세기에 접어들어 감사가 유영제(留營制)로 바뀌면서 내아건물 등 감영 관아 건물들이 확대되었는데 전라감영은 여러 감영 중 가장 먼저 유영제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에 의한 편년인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경과 전라감영의 유영제로 인한 내아의 건립시기가 비슷한 연대를 보이고 있다.

선화당 주변 조선시대 건물지는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에 의해 AD 1,440~1,500년에

25) 기와제작에 사용되는 와통은 통쪽와통과 원통와통으로 구분된다. 통일신라시대 중기 이후에는 원통와통을 이용한 기와제작이 정형화된다. 통쪽와통으로 성형할 경우 기와 내면에 대개 모골의 흔적이 남아있으나 동고산성 7차 조사에서 출토된 기와에서는 모골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이 건물지는 1350년에 해당하는 경인이월지정십년(庚寅二月至正十年)명 기와가 출토된 소토층보다는 상층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대측정 대상 건물지는 1350년 이후에 건립된 것이어야 하므로 방사성탄소연대의 측정치인 AD 1,440~1,500년 사이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VI. 맺음말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중심지였던 전라감영지는 2005년 전라북도청이 효자동으로 청사를 옮기면서 이전의 도청사는 철거되었다. 이후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전라감영지 12,388㎡의 면적에 대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4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1차 발굴조사는 도청사가 철거되기 이전시기에 진행되었으며, 선화당 추정지역과 선화당 북서편의 주차장 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선화당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콘크리트 구조물과 교란층을 제거하는 과정에 치석된 석재들이 흩어져 출토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걸친 건물터, 담장, 부석시설, 배수로 등이 확인되었다.

2차 발굴조사는 도청사가 철거된 이후인 2016년에 이루어졌는데 1차 발굴조사보다는 조사 여건이 좋았으나 도청사의 철거로 인해 전반적으로 훼손이나 교란이 심한 상태였다. 조사를 통해 통일신라시대부터 근대까지의 4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으며, 문화층 아래로는 모래와 자갈 등의 하상층이 드러났다. 1951년에 화재로 소실된 선화당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1928년과 1937년의 전라북도청사 도면에 나타나있는 유구(우물·통로) 등을 확인하여 선화당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선화당의 북쪽에서는 통일신라~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건물터와 부석시설 등이 조사되었고, 동쪽에서는 관풍각터, 남쪽과 남동쪽에서는 보도시설, 부석시설, 담장, 우물, 일제강점기 도청사의 기초시설, 연결통로, 적심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서쪽지역은 심하게 훼손되어 전라감영과 관련된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3차 발굴조사는 2차 조사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미조사 지역에 대한 추가조사가 목적이었다. 발굴조사 결과 조사지역은 후대의 건물지 조성 등으로 인해 훼손이 심하게 이루어진 상태였으나 원지형이 남아있는 지점에서 통일신라시대 건물지를 비롯하여 담장시설, 보도시설, 우물, 내삼문, 조선시대 수혈 등이 확인되었다.

4차 발굴조사는 중삼문과 남행랑의 존재여부 및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중삼문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비장청의 동쪽에서 외행랑의 동쪽 기단을 찾았다.

전라감영지의 토층 양상은 파괴나 교란이 심한 상태여서 구역별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크게는 4개의 문화층이 존재하는데 가장 상층은 주로 소토와 아스콘,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 뒤섞여 자리하고 있는 교란이 심한 층으로 일제강점기 이후의 시설물이 축조된 층이다. 그 아래로는 흑색사질점토층·흑갈색사질점토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조선시대 문화층으로 전라감영 시설이 확인된 층이다. 구역에 따라 조선시대 문화층 아래로 암갈색사질점토층·갈색사질점토층의 고려시대 문화층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아래의 맨 하단은 황갈색사질점토층·적갈색점토층으로 구성된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이 위치한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의 아래는 모래, 자갈 등의 하상층이 형성되어있다.

전라감영지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통일신라시대 유구로는 건물지 5, 담장 3, 부석 시설, 보도 2, 배수로 1, 우물 1,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유구 1기 등이 조사되었다. 토기류 9점, 기와류 103점, 전돌 1점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기와는 대부분 경질 소성으로 타날판은 중판과 장판을 사용하였으며 문양에 있어서는 선조문계가 87%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측면분할방향은 내측 분할이 사용되었고 대부분의 기와에서 포목흔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관(官)자명 기와가 40여점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전라감영지가 통일신라시대 때 완산주의 치소였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고려시대 유구는 건물지 5, 부석시설 1, 성격이 확인되지 않은 유구 2기 등이 확인되었는데 출토된 유물로는 자기류 7점, 기와류 51점, 토기 2점, 토제구슬 18 점 등이 있다. 기와류에 있어서 타날판의 크기는 장판을 사용하였으며, 문양은 어골문과 어골복합문이 주를 이루고 있고 선화당 북동쪽 하단부의 부석과 적심에서는 전주목관(全州牧官)명 기와와 1350년에 해당하는 경인이월지정십년(庚寅二月至正十年)명 기와가 출토되었다. 전주목관(全州牧官)명 기와가 출토되는 것은 전주에 전주목이 설치되었다는 고고학적 자료이며, 더 나아가 전라감영지에 전주목관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로 보인다.

조선시대 전라감영 유구로는 건물지 16, 담장 2, 보도시설 2, 배수시설 5, 석렬 2, 유물 2, 수혈 1기 등이 확인되었다. 이들 유구에서는 토기류 4, 와제품 1, 자기류 33, 기와류 66, 주화 8, 전돌 5, 펜촉 6점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 중 기와는 대체적

으로 31cm~42cm 내외 크기로서, 경질소성으로 대부분이 회청색을 띠고 있다. 기와의 문양은 어골문, 집선문, 청해파문, 무문, 복합문 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 청해파문과 무문이 38점으로 전체 6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출토되었다.

이렇듯 발굴조사를 통해 전라감영의 선화당, 내아, 관풍각, 비장청, 내삼문을 비롯한 우물, 부석시설, 보도시설, 담장 등이 확인되고 관련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전라감영 복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전라감영지 발굴조사의 성과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조선후기 외국인에 비친 전라감영

-전라도를 최초 방문한 미국인 외교관 포크

조법종*

< 목 차 >

- I. 서언
- II. 조지 클레이튼 포크
- III. 미국 최초 외교관 포크 기록에 나타난 전라감영
- IV. 결론

I. 서언

전주는 조선시대 전라도를 총괄해 통치한 도청에 해당하는 전라감영이 설치된 곳이다. 전라감영 자리는 전주 구도심의 중앙지역인 (구)전라북도 도청사 자리였다. 이곳은 조선을 식민지화한 일제가 전라북도청사로 활용하면서 조선시대 전라감영 건물들은 대부분 해체되었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전라도 관찰사의 집무 공간인 선화당도 1951년 불의의 화재사고로 불타 사라졌다. 이 공간에 1954년 전라북도청사가 다시 지어졌고 2004년 전라북도청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복원사업이 진행되었다.

필자는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함께 구성한 ‘전라감영 복원재창조위원회’에 참여해 부위장직을 맡아 역사관련 자료 고증 등을 함께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라감영의 중심 건물인 선화당자료들을 수집하였는데 선화당 내부의 사진 2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사진은 전라관찰사와 6방 권속 등이 함께 찍은 사진과 4명의 기생이 춤을 추는 모습의 사진이었다. 이중 전자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시대와 출처가 불명한 자료로 단지 ‘전라도 관찰사와 육방권속’이란 표현으로 소개되었던 자료인데 누가 언제 찍은 사진인지 제시되지 않은 자료였다. 그런데 그 자료가 바로 포크가 찍은 사진이란 점이 확인되게 되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조선과 미국이 1882년 수호조약을 맺고 1883년 미국에 처음으로 파견된 민영익 등 보빙사 일행을 맞아 통역 수행을 맡았던 포크(George Clayton Foulk) 미국 해군소위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포크가 이 사진을 찍게 된 계기가 1884

*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년 5.31.제물포에 도착해 해군 무관으로 부임해 조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을 위해 11월 조선 남부지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찍은 사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포크가 조사일기를 남겨 놓았고 이 일기가 2007년 사무엘 홀리교수¹⁾에 의해 손으로 쓴 노트기록 상태에서 탈초되어 책자로 간행되었음을 알게 되었다.²⁾ 본인은 곧 이 책을 구입하여 전체 내용을 일별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남긴 초기 서양인들의 기록과는 내용과 형식에서 다른 점을 발견하여 번역에 착수하였다.

1884년 조선에 부임한 최초 미국 외교무관 조지 클레이튼 포크가 미국 국무부 및 해군부에 보고하기 위해 진행한 현장 조사 기록을 남겼다. 이 기록은 기본적으로 조선에 대한 정보 파악 등을 목적으로 진행하여 미 국무부 등에 제출하기 위한 조사원본이며 그가 조선에 대한 별도의 책을 저술하기 위한 자료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이 기록은 100여년이상 부각되지 못하고 활용하기 쉽지 않은 자료로서 남아있었다.

포크는 2차례에 걸친 조사를 진행하여 1차 경기북부권역(1884.9.22.-10.8.), 2차 경기남부,충청,전라,경상지역(11.1.-12.14.)을 조사하였는데 본 발표의 내용은 2차 조사시 전라도를 방문한 포크의 기록 가운데 전라감영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1) 새뮤얼 홀리(Samuel Hawley)는 선교사 부모의 아들로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다. 온타리오 주 킹스턴 퀸즈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07년 퇴직 후 캐나다에 거주하며 책 출판 및 영상자료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그의 대표적 역사관련 저술로 1990년대 초 일본에서 '임진 전쟁'을 출간하였고 Foulk에 대한 Hawley의 관심은 2007년에 출판된 America's Man in Korea 와 Inside the Hermit Kingdom 이라는 두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2) 일기 원본은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반크로프트 도서관에 조지 클레이튼 포크 관련 수집품 중 일부로 소장되어 있다.

II. 조지 클레이튼 포크(George Clayton Foulk, 1856년 10월 30일 ~ 1893년 8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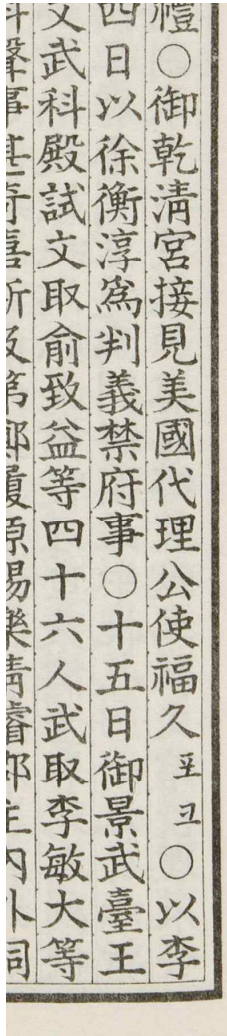


그림 1
고종22년 (1885)
9월13일



그림 2 조지 클레이튼 포크
조선에 파견된 미국 공사관의 무관으로, 대리공사를 역임했다. 한자 이름은 복구(福久)이다. 조지 클레이튼 포크는 1856년 10월 30일 펜실베이니아의 메리에타에서 태어났다. 클레이튼과 캐롤린 포크의 세 아들 중 맏이였다. 그는 1876년 메릴랜드 아나폴리스에 위치한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태평양과 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국의 해군 전력인 아시아 함대(Asiatic Squadron)에 복무하기 위해, 철함 증기선인 알러트(Alert) 호의 선원으로 6년을 함대에서 근무했다.

1883년 서구에 대한 첫 번째 조선 사절단인 보빙사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통역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 안에서 포크가 유일했다. 그는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를 순회하는 사절단과 동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여행이 끝날 무렵, 포크에게 깊은 감명을 받은 사절단 대표 민영익은 조선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동행해줄기를 부탁한다. 해군과 국무부는 포크를 새롭게 만든 직책인 “해군 무관”에 임명해서 그의 조선 파견을 추진했다. 11월 19일 그는

민영익과 사절단의 서열 3위인 서광범, 수행원 변수와 함께 USS 트렌턴 호(Trenton)를 타고 뉴욕을 떠났다. 배는 유럽과 수에즈 운하를 거쳐 조선으로 향했다.

트렌턴 호는 1884년 5월 31일 제물포에 도착했고 다음 날 포크는 해군 무관의 임무를 맡기 위해 서울로 부임하였다.

포크에게 부여된 임무는 두 가지로 국무부와 해군에서 지시된 요지는 조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능한 한 최고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포크는 열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날마다 조선인과 대화하여 언어 능력을 키웠고 중요 관료와 유대관계를 맺었다. 정부와 문화, 주민에 대해, 또 중국, 일본, 영국, 러시아 사이에 놓인 위태로운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 공부했다. 실제, 조선어 실력이 늘면서 포크는 곧 그의

상관이자 첫 번째 조선 주재 미국공사인 루시우스 푸트(Lucius Foote)보다 이 나라를 더 잘 이해했다. 그가 자랑스럽게 부모에게 털어놓았듯이 푸트가 조선어로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은 “이곳의 실제 정세를 거의 파악하지 못한다는 의미였다. 반면에 나는 이곳에 와서, 모든 곳을 뛰어다니고 많은 조선인과 대화를 나누며 푸트 장군이 알아야 할 업무를 파악하고 있었다.

조선에 관한 보다 나은 정보를 모으기 위해, 포크는 조선을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처음에는 세 번의 조사계획을 세워 - 경기도 중심부와 조선 남반부를 가로지르는 조사 및, 북부 지방을 조사하는 계획이었다. 처음 두 번의 조사는 진행하였지만 세 번째 계획은 1885년 1월 푸트 공사의 이임으로 대리공사로 임명되며 진행할 수 없었다. 이 역할은 2년 가까이 지속된다.

한편 여행 수행원으로서 포크는 통역과 총괄역할을 위한 조선 관리 전양묵¹⁾과 집사성격의 정수일과 동행했다. 일행의 나머지 인원들은, 포크가 “경 속이(Kyong Suki)”라고 이름 붙인 두 마리의 말을 관리하는 소년이였다(세 번째 말과 소년은, 여행 5일 째에, 공주에서 지방 관료들로부터 포크가 받은 선물들이 쌓이면서 합류한다). 그리고 12명의 가마꾼을 포함해 총 18명의 일행이 된다. 짐으로는 5개의 트렁크(모두 포크의 것), 세 개의 손가방(각각 포크, 목, 수일의 것), 카메라와 삼각대, 총기 상자, 돈궤짝을 가지고 다녔다.

한편 포크는 충청-전라-경상지역 여행허가서인 호조(護照)를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에서 발급받아 이를 지참하고 각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감사를 비롯한 관리들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다. 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p>護照³⁾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⁴⁾ 爲 給發護照事照得 美國人福久氏遊歷內地前 往 合行給照護送仰沿途 各官驗照放行毋令 且滯該員亦不得 藉端遠留致于事究切切須至護照者 右給 美國人福久氏 持憑</p> <p>甲申八月初二日</p> <p>限 回日繳銷</p> <p>忠清監司 朴齊寬 江華府判官 李承耆 晉州牧使 金靖鎮 全羅監司 金聲根⁵⁾ 羅州牧使 朴奎東 開城留守 李憲植⁶⁾ 水原留守 洪祐昌⁷⁾</p>
--	---

	<p>照會</p> <p>大朝鮮署理督辦交涉通商事務金 爲</p> <p>照覆事接准 貴大臣照會爲 貴國人福久氏遊歷內地執照盖印一事除將原執照 盖印繳還外查此英文本國地方官未便曉鮮茲將 本署漢文護照一紙盖印配送庶無阻礙之端爲 此照覆請煩 貴大臣查照轉給可也 尙 至照福者</p> <p>言卡附送執照盖印一紙 漢文護照一紙</p> <p>右 照 覆</p> <p>大美國欽差便宜行事全權大臣福</p> <p>甲申 八 月 初 二 日 照 覆⁸⁾</p>
--	--

3) 호조 (護照)

조선 말기에 외국인에게 내주던 여행권. *행장(行狀).

4)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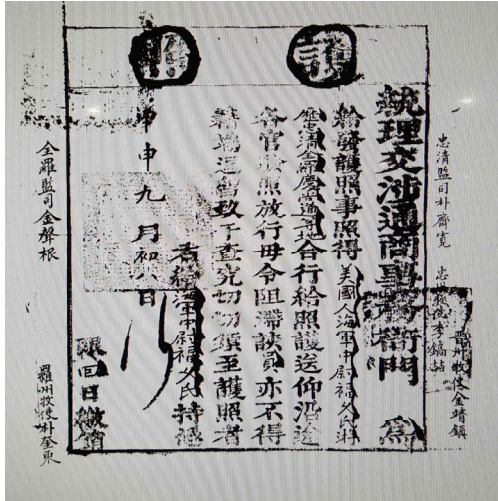
조선 고종 19년(1882)에 통리아문을 고친 이름. 외아문.

5) 조선 후기의 문신·서예가(1835~1919). 자는 중원(仲遠). 호는 해사(海士). 1862년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이조판서·궁내부특진관·의정부참정 등을 역임하였다. 1910년 국권침탈 때에는 일제에 의하여 자작이 수여되었다. 서예에 뛰어났으며, 미남궁체(米南宮體)로서 《근역서화징》에 글씨가 전한다.

6) 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문우(文遇). 본관은 한산(韓山). 부친은 이정부(李鼎溥)이다.

7) 조선 후기의 문관(1819~?). 자는 유성(幼盛). 호는 소운(小芸). 시호는 정헌(貞憲). 1866년(고종 3)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부수찬·성균관대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1875년 동래부사가 되어, 일본 관리관 곤도와 외교협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도총부부총관·예조참판·형조판서·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8) 조복(照覆) 사람의 인적 사항 등을 물어 온 데 대하여 답함. 또는 그런 회답.



護照⁹⁾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¹⁰⁾ 爲

給發護照事照得 美國人海軍中尉福久氏游
歷忠清全羅慶尙道等地 合行給照護送仰沿途
各官驗照放行毋令 且滯該員亦不得
藉端遠留致于事究切切須至護照者
右給 海軍中尉福久氏 持憑

甲申九月初八日

限 回日繳銷

忠清監司 朴齊寬
忠州牧使 李鎬喆
晉州牧使 金靖鎮
全羅監司 金聲根
羅州牧使 朴奎東

9) 호조 (護照) 조선 말기에 외국인에게 내주던 여행권. *행장(行狀).

10)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조선 고종 19년(1882)에 통리아문을 고친 이름. 외아문.

포크의 조사단과 일정

1. 포크 조사단



그림 6 포크의 조선 남부지역 조사단일행

정수일(포크 집사) , 전양목(통역 일어) 포크(대리공사), 고인수(전령)

포크의 일정표와 노정지도

1884	포크의 44일에 걸친 조선 남부지역 조사지역 노정과 일정	출발	도착
11.1.		서울	수원
11.2.		수원	소사평
11.3.		소사평	천안삼거리
11.4.		천안삼거리	공주
11.5.		공주	공주
11.6.		공주	은진
11.7.		은진	용안
11.8.		용안	용안
11.9.		용안	삼례
11.10.		삼례	전주
11.11.		전주	전주
11.12.		전주	원평
11.13.		원평	군영다리
11.14.		군영다리	영신
11.15.		영신	나주
11.16.		나주	나주
11.17.		나주	경양(광주)
11.18.		경양(광주)	개고개(순창)
11.19.		개고개(순창)	여원치(운봉)
11.20.		여원치(운봉)	사근역(함양)
11.21.		사근역(함양)	권빈(합천)
11.22.		권빈(합천)	해인사
11.23.		해인사	야로(합천)
11.24.		야로(합천)	평구(삼가)
11.25.		평구(삼가)	진주
11.26.		진주	반성역
11.27.		반성역	마산포
11.28.		마산포	김해
11.29.		김해	부산
11.29.		부산	부산
11.30.		부산	부산
12. 1.		부산	부산
12. 2.		부산	통도?
12. 3.		통도?	이창점(밀양)
12. 4.		이창점(밀양)	남촌주막
12. 5.		남촌주막	대구
12. 6.		대구	장내거리(인동)
12. 7.		장내거리(인동)	성골(상주)
12. 8.		성골(상주)	신원(함창)
12. 9.		신원(함창)	조령(문경)
12.10.		조령(문경)	충주
12.11.		충주	장해원
12.12.		장해원	이천
12.13.		이천	광주
12.14.		광주	서울 미공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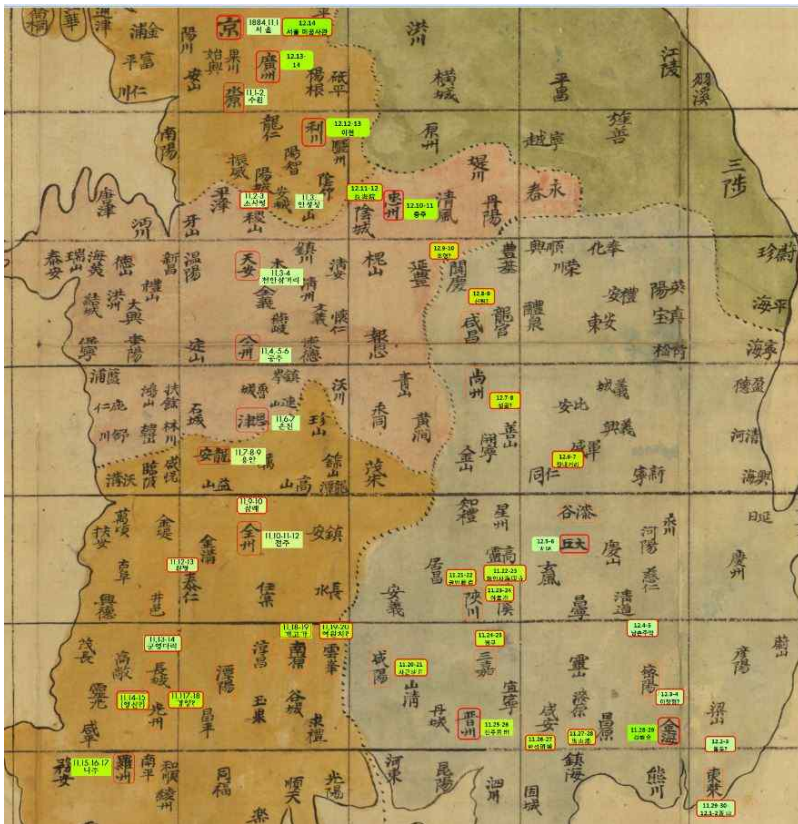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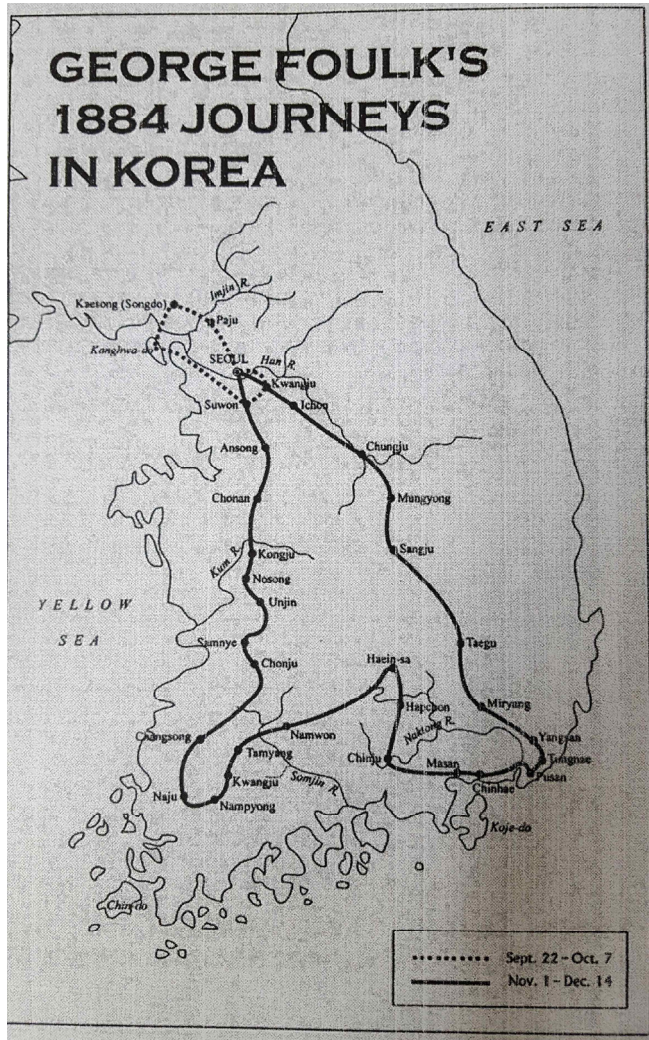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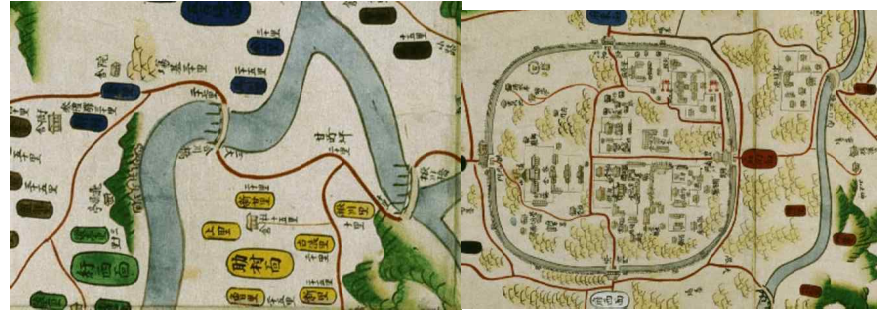
그림 7 포크의 44일에 걸친 조선 남부지역 조사지역 일정

포크의 조사단과 전라감영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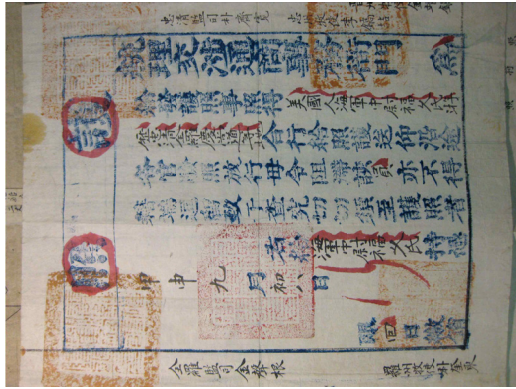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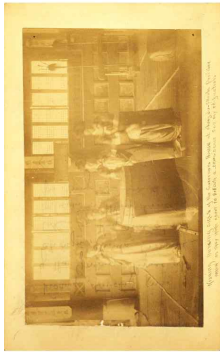
3. 포크의 전주방문

1884.11.10.삼례-전주



시간	영문	지명/언급지명	설명
날씨: 비 T40-55	9:23	▼출발, ●점심, ■도착 ○경유 ○휴식 ▼삼례	
	9:44	Sac-su-gang	泗水江 4feet, 450피트넓 이 별판
	10:45	Chonju초입	
	11:08	Chonju남쪽 시내	사수강본류
	11:18	Karina	가리내주막
	11:50	마을경유	
	12:10	south gate Chonju	全州南門
		Chonju Yongmun	全羅監營, 監司영점
			무역관련 언급,토지활용언 급
			전주시내 사진 촬영허가

1884.11.11. 전주



시간	영문	지명/언급지명	설명
날씨: 8:00 9:00 11:00	영문 ▼출발:●점심,■도착 ○경유 ○휴식 전주기상 아침식사	지명/언급지명	설명
	Chonju Yongmun	표정루-중삼문-내삼문 청불전쟁, 류큐문제 전라감사사진, 기생 복춤사진	5푼 4000냥-1푼 4000냥교환 숙소 사당존재 【宣化堂】3단의 돌 계단 용과호랑이병풍,종이등 여권관심/제주도 일본어선조업 여성2. 무희4.악사6. 대북, 높임머리,16-17세소녀 녹색치마,노란저고리,적청녹항희 색소매,적색띠 【음식상】항동냄비고기야채조리, 국수,떡고 꿀,술
	음식	두 개탁자,직경30인치,10 명분 음식	

III. 미국 최초 외교관 포크 기록에 나타난 전라감영

1) 포크기록에 나타난 전주, 전라감영

1) 전라감영에 대한 기록 내용 검토

(1) 포크와 감사의 대화

1884년 11월 10일, 포크는 삼례를 떠나 전주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다시 하루 동안 머물렀다. 그는 고을을 돌아보고 통역인 전양묵과 함께 사진을 찍은 후, 전라도 감영에 가서, 하루 종일 호화로운 접대를 받았다. 포크는 자신의 일기에 이 상황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전라감영을 11월 10일 그리고 11일 두 차례 공식 방문한 포크는 전라감사 김성한을 만나 공식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내용은 다양한 방면에 걸쳐있는 데 그 내용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라감사와 포크의 대화			
	<table border="1"> <tr> <th>포크</th> <th>전라감사</th> </tr> </table>	포크	전라감사
포크	전라감사		
11월10일 전라감영	<table border="1"> <tr> <td> 1)자신의 방문 목적 설명 2)미경작지 활용에 대한 문제 -무역의 장점 설명 3)호조와 통행증 제시 -나주 방문 의사 피력 -조선에서 증기선 활용의 이익과 증기선 운항 가능성 확인 목적 4)미국과 다른 외국에 대한 이야기 -미국의 크기와 상품, 유럽과의 무역 언급 -미국에도 조선의 음식들과 더 많은 음식이 있다 </td> <td> 1)서양문명에 대한 질문 2)조선은 쌀을 자족해 왔음 강조 -조선은 무역가능성 잘 몰랐으며 서서히 타국과 교류하면 좋을 것- 포크 의견 동의 3)나주방문 만류 4)미국에 대한 우호적 이야기 이미 들었음 - 동석자 놀람 -조선의 음식이 미국보다 더 풍부한가? 미국은 조선만큼 좋은 나라인가? </td> </tr> </table>	1)자신의 방문 목적 설명 2)미경작지 활용에 대한 문제 -무역의 장점 설명 3)호조와 통행증 제시 -나주 방문 의사 피력 -조선에서 증기선 활용의 이익과 증기선 운항 가능성 확인 목적 4)미국과 다른 외국에 대한 이야기 -미국의 크기와 상품, 유럽과의 무역 언급 -미국에도 조선의 음식들과 더 많은 음식이 있다	1)서양문명에 대한 질문 2)조선은 쌀을 자족해 왔음 강조 -조선은 무역가능성 잘 몰랐으며 서서히 타국과 교류하면 좋을 것- 포크 의견 동의 3)나주방문 만류 4)미국에 대한 우호적 이야기 이미 들었음 - 동석자 놀람 -조선의 음식이 미국보다 더 풍부한가? 미국은 조선만큼 좋은 나라인가?
1)자신의 방문 목적 설명 2)미경작지 활용에 대한 문제 -무역의 장점 설명 3)호조와 통행증 제시 -나주 방문 의사 피력 -조선에서 증기선 활용의 이익과 증기선 운항 가능성 확인 목적 4)미국과 다른 외국에 대한 이야기 -미국의 크기와 상품, 유럽과의 무역 언급 -미국에도 조선의 음식들과 더 많은 음식이 있다	1)서양문명에 대한 질문 2)조선은 쌀을 자족해 왔음 강조 -조선은 무역가능성 잘 몰랐으며 서서히 타국과 교류하면 좋을 것- 포크 의견 동의 3)나주방문 만류 4)미국에 대한 우호적 이야기 이미 들었음 - 동석자 놀람 -조선의 음식이 미국보다 더 풍부한가? 미국은 조선만큼 좋은 나라인가?		

	<p>5)조선어의 특정 이름과 영어가 닮았음 언급 -seed(씨), pear(배), porridge(귀리죽)</p> <p>6)전주관찰 요청</p> <p>7)카메라 촬영가능여부 요청 -</p>	<p>5)사람들이 흥겨워함</p> <p>6)전주관찰 허가 -동행 집사파견</p> <p>7) 감사, 카메라에 관심 가짐 -자신 사진 촬영요청 -감사가 몇 장 사진 제시 : USS 앨럿 호와 앨럿 호에 승선했던 하웰(Howell)이 찍은 다른 사진 독일인에게 그 사진들을 얻었다고 언급</p>
11월11일	<p>1. 중국-프랑스전쟁에 대해 전라감사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p> <p>2.나는 그에게 류큐 제도(오키나와 섬)의 문제를 말함</p> <p>3.향후 발생 가능한 중국과 일본의 전쟁언급하며 조선의 중용성 언급</p>	<p>1.중국과 프랑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내게 그 전쟁의 모든 내력을 질문¹¹⁾</p> <p>2. 일본과 중국의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 질문. -감사 깊은 관심표명, 문제제기 없음</p> <p>3. 많은 대화 진행 - 동양적인 주제로 옮겨갔다. 그는 얼마 전, 전라도의 어느 산속 동굴에서 발견된 50년 된 종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거기에는 “나는 불교 승려 xxxx이다”라는 글에 이어 50년 전 날짜가 쓰여 있었고 이어서 “나는 (날짜)에 태어나서 전라도의 감사가 됐다. 그리고 내 이름은 (감사의 전체 이름)이다”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쓰인 날짜가 그의 계산에 따르면 해당 월과 일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 말했다. 출생일을 따지면 자궁에 10개월이 아니라 11개월 있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만 빼면 말이다. 그는 오래되어 노랗게 변한 종이를 내어놓았다. 그리고 나를 위해 번역해 주었다. 그는 이런 일이 불교적인 존재에 의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등, 내 생각을</p>

		<p>물었다.</p> <p>4.감사는 통행증에 강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 제주 목사가 일본 배 두 척이 제주에 와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갔다는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럴 권리가 없다는 말을 하자 일본인들은 제물포에 가서 허락을 받겠다고 말하고 배 한 척을 보냈다. 나머지 배는 그 사이 긴 시간 활발하게 물고기를 잡아서 조선 농부들에 팔았다고 했다. 그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정부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의아해했다.¹²⁾</p>
	감영 식사대화	<p>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사이 감사는 나를 보고 말했다.</p> <p>“나는 나이가 50인데 아무것도 모른다. 너는 28살이고 나는 어린아이, 학생일 뿐이다.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의 관리인데도 아무것도 모른다.”</p> <p>이는 이상하지만 가슴을 파고드는 말이었다. 나는 이 말에 무척 감명을 받았다.</p>
작별인사	약수	<p>나는 감사에게 작별을 고했다. 이곳까지 오면서 만난 다른 관리들과 모두 악수를 나눴다고 알렸다.</p> <p>그는 6가지 선물 목록이 적힌 종이를 건넸다.</p> <p>-인삼, 두 종류의 부채, 빗 여러 개, 병풍 등이었다. 작별은 따듯했다. 그는 우리가 서울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p> <p>그는 오페라 안경과 농사를 위한 씨앗을 원했다.</p>
사진작업		<p>숙소로 돌아와 잠시 낮잠을 잤다.</p> <p>그리고 어둠속에서 사진 홀더(photo holders)를 다시 채웠다. 희한한 수작업이었다.</p>

정리		<p>그러자 밥이 들어왔다. 이윽고 자정이 되자 민 참판 댁에 있던 아전[유일환(Yu Il Whan)]이 직접 아주 훌륭한 술상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감사 아래에서 아전으로 일할 수 있도록 민 참판에게 부탁해달라고 내게 요청했다.</p> <p>. 나는 약속을 했고 민영익에게 긴 편지를 썼다. 눈이 빠질 듯이 아팠다. 오늘은 정말 내게 멋진 하루였다.</p> <p>비가 내려 고을을 둘러보지 못해서 전체적인 특징을 놓칠까 봐 걱정이 생겼다.</p> <p>나는 각 감영(Kamyon)에 걸린 6개의 널이 6명의 비장(Pijang)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호판(Hopan)(호조(Hojo))은 돈을 관리하는 식이었다. 각 감영은 그래서 그 자체로 하나의 왕국이었다.</p> <p>나는 감사에게서 5,000푼을 받고 영수증을 썼다. 그는 나를 돕기 위해 나주로 보내는 여러 장의 편지를 써줬다. 값어치가 나가는 선물은 묵과 수일에게 보내 놓았다. 감사와 아전에게서 잔치상을 받았을 때도 음식을 덜어 그들에게 보냈다.</p>
----	--	--

11) 1884년 8월에서 1885년 4월까지 베트남 북부의 톤킨을 프랑스가 차지하기 위하여 벌인 전쟁이다. 이 전쟁은 베트남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놓고 프랑스와 청나라 사이에 벌어진 전쟁으로 청불전쟁(淸佛戰爭)이라고 부른다.

12) 고종시대사 2집 高宗 21年(1884) 7月 18日

高宗 21年 7月 18日(庚申) 全羅道觀察使 金聲根, 濟州牧使 沈賢澤의 狀啓에 日本船 3隻이 漁業次 旌義縣浦口에 來到하였다 하니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하여금 從長妥辦케 하다. (日省錄 高宗 21年 7月 18日/ 備邊司謄錄 高宗 21年 7月 18日/ 高宗實錄 高宗 21年 7月 18日)

국역비변사등록 265책 > 고종 21년 7월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감사(全羅監司) 김성근(金聲根)과 제주목사(濟州牧使) 심현택(沈賢澤)의 장계(狀啓)를 보니, ‘일본 선박 3척(隻)이 어업(漁業)을 하기 위해 장비를 가지고 정의현(旌義縣) 포구(浦口)에 당도하였습니다. 본도는 망망한 바다 한쪽에 외따로 있어 수십만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고기잡이와 수산물 채취에 의지하고 있는데 미역과 전복 채취 같은 것은 모두 여자들이 하는 일이라 다른 나라 사람들과 무리지어 뒤섞이려 하지 않을 것이니 형세가 앞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처할 방도를 모당에서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본주(本州)는 망망한 바다의 외딴 섬으로서 살고 있는 백성들의 생활은 오직 고기잡이와 수산물 채취에 의지하는데 이제 만약 생업을 잃게 된다면 뿔뿔이 흩어질 것은 형세가 당연한 일입니다. 교섭아문(交涉衙門)에서 좋은 쪽으로 잘 처리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안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포크는 자신의 방문 목적을 설명하면서 크게 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첫째, 조선과 미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선의 많은 미경작지를 개간하여 경작할 수 있음을 제기하였다. 이 문제는 조선이 농업 국가로서 쌀을 비롯한 농업생산에 국가적 관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파악된다. 특히, 전라도 관찰사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농업생산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책임자라는 점에서 가장 rhhkstladIT을 부분으로 파악된다.

둘째, 나주지역 방문 의사를 피력하는 과정에서 조선에서 서양식 증기선 운항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양선으로 상징되는 증기기관선의 도입을 통해 조선의 조세운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라도 관찰사 및 조선의 입장에서 환영할 내용이었다. 특히 전라도지역의 많은 쌀이 서울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조운선의 난파와 여러 문제로 인한 원활치 못한 세금 운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트랜트호를 제공하여 보빙사를 귀국시켰던 사실과 연결되어 미국의 해운항만사업 진출을 위한 정보 확보차원의 활동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전주지역에 대한 관찰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지역방문 목적이 이같은 여러 목적을 포괄한 조사활동임을 언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표로 정리한 것처럼 조선과 미국 등 서양문물에 대한 소개와 비교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조사를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카메라 촬영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때 촬영한 사진 2장이 현재까지 남아있어 1884년 당시 전주 전라감영의 생생한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 점이다.

한편 포크가 일기형식으로 정리한 2권의 노트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 매우 중요한 개항이후 조선시대의 상황을 전하는 사료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

1)가공되지 않은 원사료

이 기록은 포크가 진행한 2차례의 조선 조사중 2차조사 전과정을 가마타고 일정이 진행되는 순간순간 기록한 것으로 여과되지 않은 기록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다양한 상황에 접하였을 때 느낀 그의 감정과 구체적 정황을 거의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이 기록의 진정성과 의미를 확인케 한다.

2)[시간대별 조사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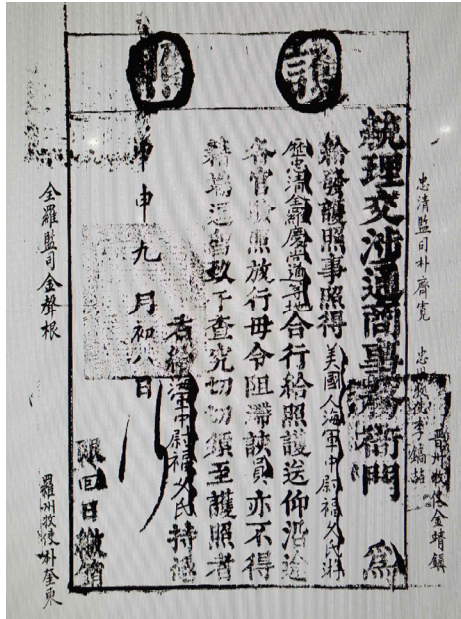
이 일기는 우선 형식적으로 매우 세밀한 시간대별 일지형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즉, 매일 기상한 이후 여행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거의 1시간 단위보다도 짧게 세분하여 휴식한 사실과 각 상황이 발생한 내용을 기록하여 어떤 조사기록보다 시간적 구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동 경로별 시간이 명시되어 당시의 교통로와 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자료이다.

3) [최초 온도와 기압 기록]

포크일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자신이 방문한 지역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온도와 기압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점이다. 특히, 기압계를 이용해 해발고도를 추산하는 등 과학적 측정기록을 남겨 놓았다는 점에서 과학사적으로도 중요한 기록이다.

4) [현존하는 최고 여행비자]

포크는 당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발급한 국내 내지여행 허가서인 '호조(護照)'



를 지참하여 자신이 방문한 지역 최고 책임자들에게 확인을 받고 여행허가를 얻어 여행을 진행하였다. 호조의 발행은 주로 중국 및 일본 상인을 위해 발급되었던 것으로 일부 선교사들이 후에 활용하기도 하였지만 미국공사관원인 포크가 조선정부의 허가를 정식으로 받고 이를 통한 여행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의미가 매우 크다.

호조에는 포크가 통과한 지역의 장들이 서명한 표시가 남아 있어 당시 포크가 만난 관리명칭들이 모두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충청감사 박제관(朴齊寬), 충주목사 이호철(李鎬喆), 전라감사 김성근(金聲根), 나주목사 박규동(朴奎東), 진주목사 김정진(金靖鎭) 등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다.

그림 14 포크가 사용한 호조

5) [대동여지도], [여지도]를 이용한 외국인 최초의

조선 여행

1861년 간행된 대동여지도는 현존 20여종이 국내외에 소장되어 있다. 이들 현존지도를 분석한 결과 대동여지도가 일괄 제작된 것이 아니라 주문 제작된 지도로서 각 지도마다 약간의 수정, 보완이 나타나며 나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포크가 활용하고 현재 남아있는 대동여지도는 그 가운데 가장 최상품의 지도로 각 지역의 행정 관할구역 공간을 달리 채색한 최상의 인쇄본이란 점에서 특별 주문된 지도로 파악된다. 포크는 여행 전체 일정과 구체 계획을 짤 때 대동여지도를 기본으로 전체 리수와 여행 대상 지역을 미리 정하고 진행하였다. 특히, 직접 여행을 진행하면서 대동여지도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언급을 하는 등 대동여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최초의 외국인이었다.

또한 위스콘신 밀워키 대학에 보관된 여러 종류의 우리나라 관련 지도들을 볼 때 매우 체계적인 지리정보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즉, 여지도(여지도)의 경우 모든 지명을 한글 발음을 그대로 영문으로 표기하여 전국 지명을 영문으로 표기한 최초의 자료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

특히, 가장 주목되는 것은 최초로 한글지도를 만든 것이다.

현재 확인된 서양인에 의해 제작된 지도는 1901년 캐나다 선교사 게일이 만든 수선 전도를 한글로 표현한 지도였다.

그런데 적어도 1884년 서울에 부임하고 1887년 포크가 면직되어 퇴임되기 전까지 기간중에 제작된 한글지도로 된 서울지도가 만들어졌다. 즉, 대동여지도 제1판에 있는 '경조오부' 지도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한 지도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특히, 한자로 된 지명을 고유명칭으로 변환하여 표시하였고 영어로 가장 중요한 지명 정보를 표시하여 이 지도가 서울주재 미국인들을 위해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된다.

즉, 서울(Söul), 북한산성(Puk han fortress), 마포(Mapho) 3곳에 대해서만 영어로 표기하여 유사시 미국인들이 대피할 장소인 '북한산성'과 한강을 통해 제물포로 갈수 있는 '마포'를 특별히 영어로 표현하였다고 파악된다.

6) [주막과 역원을 활용한 여행]

포크는 조사를 위한 여행시 숙박장소로 전통적인 주막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 관청을 방문할 경우에는 관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역원과 주막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머무는 숙박장소인 주막을 원칙적으로 이용하였다. 특히, 매일 최소 80에서 90리를 이동할 것을 가마를 메는 보교꾼들과 약속하였고 그 거리에 해당하는 주막을 이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이 때 관련비용을 밥값으로 지불하였다. 이비용은 기본적으로 밥값이고 숙박비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당시 여행과 관련된 비용과 상황을 보여주었다.

포크는 숙박했던 공간이 기본적인 형태에서 유사함을 발견하여 대표적인 주막의 모습을 그려 그 공간구조에 대한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7)[한국어를 영어로 표현하는 사례집 제작]

포크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이와 관련된 기록이 그의 일기 노트에도 남아있다. 특히, 지명발음을 최대한 당시 음가에 충실하게 표현하였으며 일반 단어들도 표현과 발음 등을 매우 세심히 구분하여 정리되어 있어 이들 자료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요청된다.

3) 포크가 묘사한 전라감영

포크기록에 나타난 전라감영에 대한 묘사기록을 먼저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포크가 묘사한 전라감영				
표 현 명 칭	실제명칭	내용		
관 아 의 첫 번째 대문	포정루문	늘 그렇듯이 높고 화려한 형태였다. 그곳에는 항상 길나장이, 병사 등이 군중을 이뤘다		
두 번째 문	중삼문	-첫 번째 대문과 150피트(45m) 너머에 직각을 이루는 곳에 위치 -두 번째 마당과 문 주변으로 커다란 모자를 쓰고 파란 겹옷을 입고 모여 있는 군수의 무리가 대단했다. 두 번째 문에서 몇 명의 빨간 겹옷을 입은 남자들이 우리에게 오더니 감사가 안방(Anpang:선화당)에 있다는 말을 전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문	내삼문	100피트(30m) 떨어진 곳에 매우 높고 당당하게 서있었다.		
거대한 스탠드 형태의 건물.	선화당	외부 모습	규모	100피트(30m) 길이의 거대한 건물이었다.
			형태	돌로 포장된 대로의 정상에 세워진 거대한 스탠드형태의 정자였다.
			기와	문양이 새겨진 기와가 덮인 높다란 넓은 지붕이
			기둥	수많은 거대한 나무 기둥에 의해 지지됐다. 기둥은 직경이 1½(45cm)에서 2피트(60cm) 정도였고
			기단	북돋은 석축에 놓인 주춧돌 위에 세워졌다. 건물이 올라왔을 석축은 대략 6피트(180cm) 높이였고 세 개의 돌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기둥 단청	앞부분에는 전체적으로 화려한 붉은색이 칠해졌다.
			구조	최대 50피트(15m) 길이의 중간 부분은 전면으로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깔끔하게 바닥이 닦여 있었다.
			천장 단청	그리고 천장 목재들은 밝은 색상의 세밀한 무늬로 장식됐다.
	대청마루	병풍	가운데에는 뒷벽에 기대어 두 개의 커다란 병풍이 나란히 세워졌다. 오른쪽은 거대하고 화려한 용, 왼쪽은 맹렬한 큰 호랑이가 모두 화려하고 생동감 있게 그려졌다.	
		의자	그 앞으로 중간 지점에 빨갱게 덮인 중국식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다시 그 앞에는 대인이 몸을 높힌 자세로 기대어 사용할 수 있는 두꺼운 매트와 커다란 매트가 놓여있었다.	

		내 부 모 습	안식	다시 그 앞에는 대인이 몸을 눕힌 자세로 기대어 사용할 수 있는 두꺼운 매트와 커다란 매트가 놓여있었다.
			종 이 등	천장에는 4피트*4피트 크기의 커다란 사각형 종이 등이 걸렸다.
			독 기, 기 치 대	한쪽 구석에 있는 시렁에는 창 하나와 보기 흉한 쇠스랑처럼 생긴 무기가 몇 개 걸렸다.
			구조	전체적으로 단정한 곳이었다. 화려한 그림들, 붉은 색칠, 건물 물이 지어진 방식 등이 다른 주변 환경과 함께 가장 고풍스 러운 외관을 연출했다.
		측 실 (a)	탁 자 와 의 자	건물의 양쪽 끝부분은 아래 그림과 같이 세 개의 방으로 나 누어졌다. 빨간색으로 덮인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복장	감 사			감사의 옷은 모두 비단이였다. 위아래로 녹색, 연보라색, 빨간색, 오렌지색, 파란색이 섞인 양단(금·은색 명주실로 두껍게 짠 비단)으로 만든 옷이였다.
	관 리			그리고 다른 관리들의 옷 역시 색깔이나 품질에서 크게 다르 지 않았다.
공연	악 단			키가 큰 6명으로 이뤄진 토속 악단이 뒷마루에 자리 잡은 모 습이 보였다
	여 인			화려한 옷을 입은 두 명의 중년 여인들 어마어마한 가채를 머리 위에 올린 모습 한 명이 두 개의 나무패로 손뼉을 치듯 소리를 내자
	무 용 수			네 명의 소녀가 어여쁘게 차려입고 열을 지어 뒤편에서 천천 히 움직이며 들어왔다. 각자는 10인치 높이에 적어도 18인치 넓이의 머리카락 뭉치 를 머리위에 쌓아올려 그 무게 때문에 고개를 똑바로 들 수 없을 지경이였다. 두 명은 녹색 치마를, 한 명은 어두운, 다른 한 명은 연한 푸 른색 치마를 입었다. 치마는 길고 풍성했으며 뒤로 질질 끌렸다. 그리고 치맛단을 팔 아래 몸통까지 바짝 올려 묶었다. 치마 위로는 노란색 비단 겹옷을 입었다. 앞뒤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빨강, 파랑, 녹색, 노랑, 그리고 하얀색의 띠로 이루어진 곧고 넓은 소매가 달렸다.

			<p>소녀들은 무척 어렸다. 16-17세가 채 되지 않은 것 같았다. 몹시 창백한 얼굴에 대체로 예쁘지 않았다.</p>
	고 연		<p>악단이 기묘한 음악을 시작하자 뻗뻗하게 팔을 내민 채 천천히 미끄러지며 몸을 돌리는 동작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p>
		북	<p>마루 한가운데에는 노랑, 파랑, 그리고 하얀색 비단 띠로 장식된 커다란 북이 놓였다.</p>
			<p>북 주변으로 무용수가 움직였다. 얼마간 한 줄로 움직이다가 다시 짝을 이뤄 마주보다가 등을 췌다. 그러더니 사각형으로 움직였다. 빨간 술이 달린 북채 네 쌍이 바닥에 줄지어 놓였다. 얼마 후, 소녀들이 줄을 이뤄 북채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 자세를 바꾸다가 마침내 손에 주워들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북 앞에 도달했고 다시 언제나처럼 느린 동작으로 북 주변을 움직였다. 그러더니 곧 함께 북을 치기 시작했다. 매우 느리고 미끄러지는 무용수의 일정한 동작은 30분 이상 계속되었다.</p>
			<p>내가 앉은 곳에서 보는 광경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장면보다도 더 동양적이고 원초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다.</p>

한편 포크는 그림으로 전라감영 선화당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이 그림과 현존 사진자료 및 현재 복원된 선화당의 모습을 비교하면 포크의 그림과 사진 및 복원 평면도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내부공간구조를 보면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공간이 좌우로 양분되어 동일한 모습으로 측실이 배치된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있다. 이 내용은 기생들의 춤사진에서도 그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이 발생한 것은 선화당 복원 설계도제작 및 건축작업시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로 향후 체계적인 후속 조사와 관련자료 검토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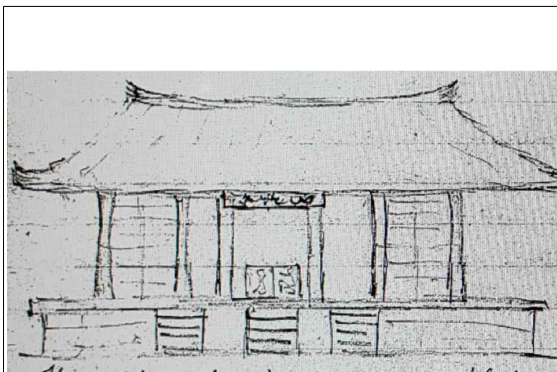


그림 15 1884년 포크 일기에 그려진 전라감영 선화당 외부 모습



그림 16 1910년경 전라감영 선화당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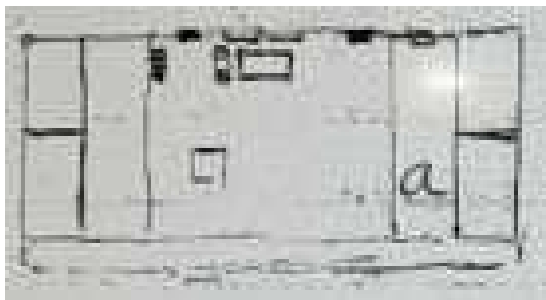


그림 17 포크일기에 묘사된 선화당내부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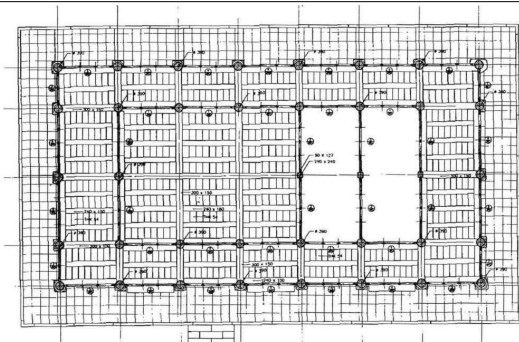


그림 18 복원 전라감영 선화당 내부 평면도

4) 전라감영에 대한 포크의 사진검토

(1) 전라관찰사와 6방권속 사진



그림 19 1884년 11월 11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촬영한 전라감사와 육방권속 등의 사진-밀워키대학 소장본

1884년 미국의 외교무관 포크(Foulk, George Clayton, 1856~1893)는 전라감영(全羅監營)을 방문하여 총 6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현존하는 당시 사진은 전라감사와 6방권속 및 나인들이 함께 찍힌 사진과 기생들이 포크를 위해 ‘승리의 춤’을 추는 모습의 사진 등 총 2점이다.



그림 20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사진-전라도관찰사와 6방권속

이 때 찍은 사진 인화본이 총 2점 전하고 있는 데 1점은 미국 위스콘신(Wisconsin) 대학교 밀워키캠퍼스 도서관에 또 1점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전라도관찰사와 6방권속’이란 제목으로 시대불명으로 소장되어 있다.

밀워키 도서관 소장본 사진에는 전라감사 김성근(金聲根, 1835~1919)과 육방(六房)의 아전들, 그리고 나인(內人)들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섰다. 나인들은 남성 소년들이다. 그런데 사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인물들의 뒤편에 2폭짜리 대형 가리개 병풍이 펼쳐져 있다. 병풍의 상단 1/3만이 드러난 이 가리개 병풍은 용과 호랑이를 그린 ‘용호도(龍虎圖)’이다.

《용호도》는 화면의 왼쪽에 호랑이, 오른쪽에 용 그림을 장황한 가리개 병풍으로 제작되었다. 호랑이의 몸체 일부가 드러나 있는데, 줄무늬가 아닌 원형 무늬로 그려져 있다. 표범으로 볼 수 있지만, 편의상 ‘호랑이’로 지칭하겠다. 그렇다면, 화원이 그린 호랑이 그림에 까치가 등장한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선화당의 《용호도》에 까치호랑이가 그려진 것은 민화 까치호랑이의 도상을 범본으로 삼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었다.¹³⁾ 이와 유사한 자료로 남한산성 병영의 《용호도》는 전라감영 선화당 《용호도》의 호랑이처럼 화원급 화가가 민간의 까치호랑이를 범본으로 하여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영의 《용호도》와 감영의 《용호도》는 두 점 모두 화원이 그린 그림이며, 까치호랑이를 그린 것이 공통점이다. 이러한 구성은 19세기 용호도의 기본 도상으로 짐작할 수 있고, 까치호랑이가 화원들에게도 용호도의 도상으로 수용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림 21 남한산성 병영의 내부사진에 보이는 용호도병풍-, 19세기말~20세기초 촬영(윤진영2020, 보고서 자료 인용)

13) 윤진영, 2020, 『전라감영 선화당내 병풍가리개 고증』, 『전라감영 선화당 사진자료 검토 보고서』

(2) 승리의 춤을 추는 기생 사진



그림 22 1884.11.11. 전라감영(전주) 선화당 내에서 승전무를 추는 기생 사진

두 번째 사진에 나타난 전라감영 선화당의 모습은 포크의 기록과 연결될 때 구체적인 기물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그와 관련된 설명을 살펴보면

“중심건물(선화당)은 큰 건물로 길이 100피트(30m) 정도로 돌로 포장된 담도가 놓여진 커다란 스탠드나 누각형 건물이다. 건물은 찬란한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다. 길이가 50피트나 되는 중심 구간은 전면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깔끔하게 ①뒫자리[地衣]가 깔려 있으며, 천장 나무들은 밝은 색상의 미세한 패턴 [단청]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중앙에는 뒷벽에 기대어 ②두 폭의 커다란 병풍이 나란히 서 있었고, 오른쪽은 훌륭한 용, 왼쪽은 사납게 날뛰는 큰 호랑이를, 둘 다 아주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그렸다. 그 앞에는 ③붉은색으로 칠해진 중국 양식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앞에는 ④더 두꺼운 방석[安息]과 감사가 몸을 기대는 자세로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⑤좌대 받침[평상]이 놓여 있었다. 천장에는 가로 세로 4피트 크기의 커다란 ⑥네모난 종이 등이 걸려 있었다. 한 쪽 구석에는 ⑦참[수정장]과 삼지참[독] 같은 무기[의물]들이 있는 ⑧기치대[趺, 機]가 있었다.”

“화려한 그림과 붉은 칠, 엄숙한 분위기, 그리고 다른 주변 환경이 훌륭한 그림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선화당 건물의 끝부분은 도면에 그린 것처럼 세 개의 방으로 분할되어 있다. 평소 감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선화당 안쪽마루와 바깥 마루에 모여 문에서 내려다 보는 것 같은 경치를 만들었다. 나는 단 위로 올라가서 조금 둘러본 다음 ⑨빨간 덮개가 덮인 탁자와 ⑩의자가 놓여진 방 'a'로 들어갔다. 길게 끌린 날카로운 외침이 있고, 곧 화려한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감사가 뒤에서 들어왔다.”

이에 대한 고증자료에 의하면 포크가 찍은 사진과 도면을 통해 알 수 있는 기물은 다음과 같이 총 10점이다. ①지의, ②두 폭 병풍, ③붉은색으로 칠해진 중국양식 의자, ④더 두꺼운 방석[安息], ⑤좌대 받침[평상], ⑥네모난 종이등[紙燈], ⑦수정장과 독 같은 의물, ⑧기치대[跌, 機], ⑨빨간 덮개가 덮인 탁자, ⑩의자가 그것이다.

특히 자료에서 주목되는 것은 전주감영 선화당 내 구석에 세워진 의물은 삼지창에 붉은 상모가 꽂힌 독이 받침대[機]에 꽂힌 모습이다.

이렇게 독은 감사를 상징하는 기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독을 독이라고 읽는다. 고대 중국에서 장례에 사용되던 깃발[纛]에서 기원하여 한 대(漢代)에는 군기로 사용되었는데, 실상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 긴 장대에 장식을 달아 깃발을 만든다. 독은 고려시대에는 통수권자를 상징하여 군영에 독을 설치하고 독 주변에서 군령을 집행하거나, 군대의 출병에 앞서 독제사를 거행하여 군대를 통솔하는 데 상징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했다.¹⁴⁾

한편, 포크는 일기기록에 저주 전라감영 선화당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14) 장경희, 2020, 「전주감영 선화당 내 기물 고증 연구」, 『전라감영 선화당내 포크사진자료 고증연구』

I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포크의 전라감영 관련 기록은 1884년 11월 당시 전라감영의 생생한 현장기록으로 전라감영에 대한 총체적 사료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 우선 전라감영의 공간 구조에 대한 매우 세밀한 묘사와 스케치자료 및 선화당 내부의 사진 자료까지 기록과 그림과 사진이라는 과학적 기록 매체까지 활용된 근대 최초의 전라감영 종합 정리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자료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세부 논의가 요청된다.

먼저, 전라감영 선화당의 공간구조에 대한 부분이다. 포크의 기록과 평면도, 그리고 기생사진에 묘사된 선화당 공간은 현재 복원된 공간과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서쪽부분의 경우 현재와 같은 측면이 개방된 형식이 아닌 동쪽과 같이 격벽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본격적 검토가 요청된다.

또한 선화당내부에 묘사된 시계의 존재, 종이 사각등, 탁자와 의자 등에 대한 검토와 재현이 요청된다. 이와 연결되어 두장의 사진에 나타난 각종 기물들의 재현이 요청된다.(정경희교수 발표 참조)

이와함께 전라감영 음식문화에 대한 보다 체계적 검토가 요청된다.

또한 포크는 전라감영에서 전라관찰사와 만남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진행하여 자신의 조사목적에 부응하는 결과를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라감사 김성근과의 대화에서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국제정세와 관련된 언급이다.

첫째, 청-프전쟁 상황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당시 서구 제국의 동아시아 진출과 기존 청에 의해 유지된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상황을 언급하였다.

둘째, 청과 일본의 갈등상황문제와 관련하여 류큐 제도(오키나와 섬)의 문제를 언급하여 청일갈등의 심화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셋째, 향후 청일갈등이 전쟁으로 연결될 동북아 정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특히, 조선의 역할과 입장 등에 대한 언급을 통해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와 조선의 능동적 대응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또한 자신의 방문 목적을 설명하며 조선의 경제문제에 대한 언급을 진행하였다.

넷째, 농업생산 향상을 위한 미경작지 활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섯째, 미국과 다른 외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무역의 장점을 설명하였다.

여섯째, 나주 방문 의사를 피력하며 조선에서 증기선 활용의 이익과 증기선 운항가능성 확인 목적을 피력하였다.

일곱째, 전주관찰 요청

한편, 조선과 미국사이의 우호적 관계 형성을 위한 언급도 하였다.

여덟째, 조선어의 특정 이름과 영어가 닮았음 언급하여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였

다.[seed(씨), pear(배), porridge(귀리죽)]

아홉째, 근대적 기자재인 사진촬영을 요청해 카메라로 상징되는 근대문물을 전주에 소개하였다. 특히, 이미 근대 과학적 발명품을 대변되는 시계가 감영에 존재하며 미국 전함 Alert호에 대한 사진자료를 전라감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이를 시연하여 근대문물을 처음으로 경험케하는 새로운 문화충격을 선사하였다.

이같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근대문물의 전라도지역 소개와 전라감찰사이 깨달음을 유도하고 불교적 윤회관에 대한 대화를 통해 서양과 동양의 인식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등 포크가 남긴 전라감영에서의 활동은 전라감영이 새로운 문물 수용의 중심이자 전파지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전주관련 기록 가운데 용안에서 언급된 개화를 지지하는 원로로 묘사된 존재에 대한 확인과 전라감사 김성근이 소지한 Alert호에 대한 사실과 그와 관련된 환생담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전라감영 선화당 내 기물과 의식구의 원형 고증 연구

장경희*

< 목 차 >

- I. 머리말
- II. 19세기 말 포크의 자료 분석
- III. 회화를 통한 기물의 종별 수량 고증
- IV. 유물을 통한 기물의 형식과 특징 고증
- 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시대에 감영(監營)은 팔도의 관찰사(觀察使)가 상주하며 업무를 보던 관청이다. 조선왕조의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 팔도체제를 시행하였던 1895년(고종 32) 13도 체제로 바뀌었다. 지방을 다스린 관아 중 최상급인 감영은 8도마다 전라감영, 강원감영, 평안감영, 황해감영, 함경감영, 경기감영, 충청감영, 경상감영은 임진왜란이 끝난 17세기에 감영처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병합된 후 조선의 지방 통치제도는 총독부 체제로 변화되면서 감영이 그 기능을 잃고 새롭게 개편되면서 건물의 내외부가 변질 변형되었다가 해방 이후 개건되었다.

조선 감영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사 분야에서 조선의 지방 행정체제를 연구한 성과가 있는데, 이를 통해 지방의 관아명으로 관찰부(觀察府)보다 감영(監營)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¹⁾ 각도 감영의 경우 궁궐이나 중앙 관아와 마찬가지로 원래의 건물이 원형대로 유존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어서, 건축사 분야에서는 각도 행정의 중심인 관아를 연구하였고,²⁾ 1994년 최영철 등에 의해 감영의 구조와 건

* 한서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1) 孫禎睦, 『韓國地方制度, 自治史研究(상)』, 일지사, 1992, 119-120쪽.

2) 李達勳, 「조선시대 관아건축물의 양식에 관한 고찰」, 『공주공전논총』 15집 1호, 1982; 朱南哲, 「관아건축에 관한 연구」, 『건축학회지』 116호, 1983.2; 朱南哲, 「객사건축의 연구」, 『건축학회논문집』 3호, 1986.6; 유영수, 「조선시대 객사건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朴彥坤, 「임진왜란 이후의 관아건축에 대한 연구」, 『임진왜란 이후의 조영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재보존진흥협회, 1992; 李炯圭, 「朝鮮時代 東軒建築의 構成形式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물의 시설 배치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다.³⁾ 즉 감영은 정문인 포정문(布政門)부터 삼문(三門)을 거쳐 정청(政廳)인 선화당(宣化堂)에 이르는 영역을 중심으로 부속관원과 실무자의 업무에 따라 시설과 그에 부설된 행랑과 창고 및 감옥 등이 위치하였음을 밝혔다. 그중 선화당은 감영의 우두머리인 감사(監司)의 주 공간이며, 감사 가족의 주거공간인 내아(內衙)는 징청각(澄清閣)이나 잉청당(凝淸堂)으로 불리고, 선화당의 주위에는 감사가 누상에 올라 세속을 살피는 누각인 관풍루(觀風樓, 觀風閣)가 있고, 그 주변에 후원이 자리하고 사당의 시설도 있었다. 그밖에 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도사, 판관과 중군, 비장, 검률과 심엽, 군교, 영리, 사령 등과 관련된 영역의 시설도 마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에서 선화당 내부의 기물이나 배치 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전라 감영의 선화당을 대상으로 삼아 조선시대 선화당 내부에 배치될 기물과 의식구의 원형을 밝혀 보고자 한다. 다만 1995년 경북궁 근정전을 비롯한 조선 궁궐의 복원사업을 통해 궁궐 내부 생활상을 재현하면서 전각마다 집기와 의식구를 고증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된 바 있었는데, 그중 종묘의 의물을 보수하고 수리하거나 교체한 것이 다종다양하여 참고가 된다.⁴⁾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전라감영 중 선화당을 대상으로 삼아 내부의 집기나 기물 및 의식구에 종별 수량 등을 고증하여 향후 이를 복원하는데 참고자료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9세기 말 미국 외교 무관인 포크(Foulk, George Clayton, 1856-1893)가 전라 감영의 선화당을 참관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고 스케치와 사진으로 찍은 것을 분석해 보았다. 다음으로 조선 후기 회화에 그려져 있는 선화당 내외부의 기물과 의식구의 종별 수량 및 특징 등을 살펴보고, 그에 해당되어 각급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현존 유물을 분석하기로 한다.

II. 19세기 말 포크의 자료 분석

1884년 11월 11일 미국 해군 중위인 조지 클레이턴 포크 포크(Foulk, George Clayton, 1856-1893)는 구한말 조선에 외교 무관으로 부임하였다. 그는 45일간 조선을 여행하였는데 여행 말미에 1884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에 수령들의 호의와 편의를 받기 어려워 1884년

-
- 3) 崔榮喆, 「朝鮮時代 監營의 職制와 建築的 構成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崔榮喆, 朴彥坤, 「朝鮮後期 監營施設의 配置構成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0권 4호, 통권66호, 1994.4, 83-90쪽; 崔榮喆, 「職制를 중심으로 본 18세기 監營의 空間構成에 나타난 相關性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제72호, 1994.10.
- 4) 종묘의 경우 원래의 의물이 존재하여 이것들에 대한 문헌기록 등을 고증하여 보수나 수리 및 교체 등이 여러 차례 시행된 바 있다. 종묘관리소, 「종묘 정전 및 영녕전 신실 면장 방염처리 교체사업 보고서」, 2009; 종묘관리소, 「종묘 신주장 보수 보고서」, 2012; 문화재청 종묘관리소, 「종묘 황화문석 및 황방주옥 교체사업 보고서」, 2014; 종묘 관리소, 「종묘 정전 제상 보수사업 보고서」, 2016; 종묘관리소, 「종묘 제상 및 준상 수리보고서」, 2017; 종묘관리소, 「종묘 공신당 및 칠사당 지의 교체사업」, 2018.

12월 14일에 귀국하였다.

포크는 1884년 전라감영을 방문했고 선화당 내에서 관찰사와 아전들의 모습이나 승전무를 추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스케치하였다.

피트의 기록에 의하면

“중심건물(선화당)은 큰 건물로 길이 100피트(30m) 정도로 돌로 포장된 답도가 놓여진 커다란 스탠드나 누각형 건물이다. 건물은 찬란한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다. 길이가 50피트나 되는 중심 구간은 전면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깔끔하게 돛자리[地衣]가 깔려 있으며, 천장의 나무들은 밝은 색상의 단청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포크의 설명이나 스케치(그림 1)처럼 전라감영의 선화당은 매우 커 길이 30m 정도 되는 건물이었다. 건물은 왼쪽으로 치우쳐 앞쪽에 답도가 깔려 있고, 3단의 장대석이 놓이고 월대 위로 오르는 3개의 계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건물의 기둥에는 붉은 석간주가 칠해져 있고 처마 아래 창방과 평방 및 공포에는 단청이 그려져 있었다. 정면에는 ‘선화당’ 편액이 걸려 있고 그 아래 중앙의 창호문은 들어 올려 개방되었으며, 마루 바닥에는 돛자리로 짠 지의가 깔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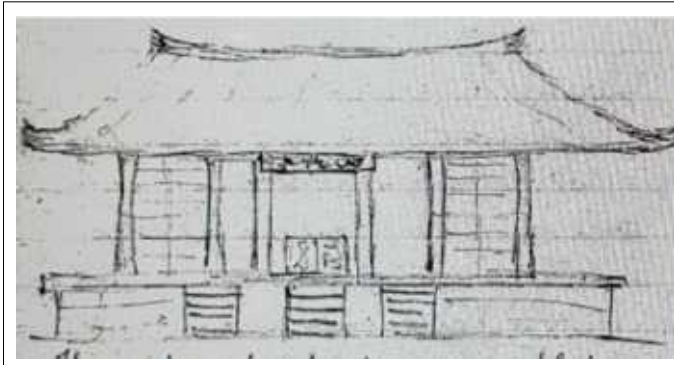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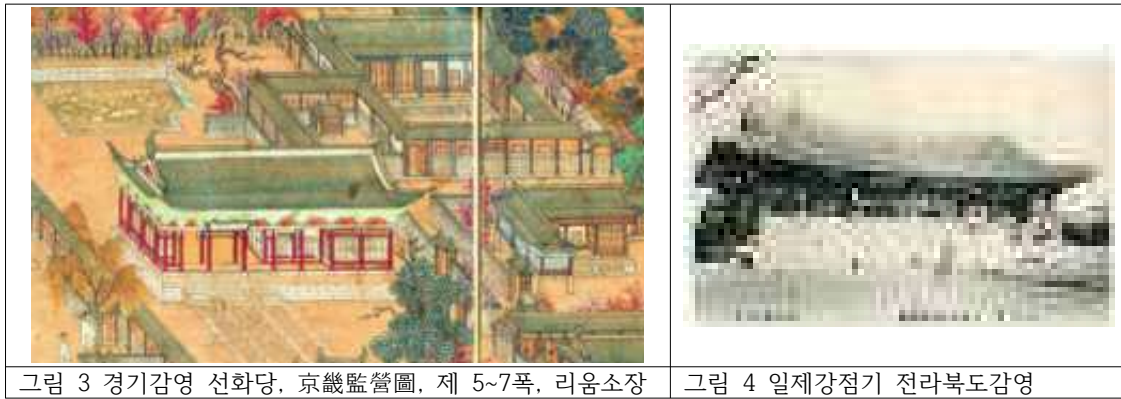
그림 1 1884년 포크가 스케치한 전라감영 선화당



그림 1 1900년대 전주감영 사진

이러한 선화당의 모습은 1900년 전주감영을 촬영한 흑백사진(그림 2)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중삼문을 통해 앞쪽에는 방전을 깬 답도가 3줄 깔려 있고, 월대 위로 오르는 계단이 3개가 설치되어 있다. 처마에는 ‘선화당’ 편액이 걸려 있는 모습이고 중앙은 마루방, 좌우는 방과 실로 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선화당은 정청의 정당으로서 감영의 중요 행사와 업무가 이루어진 공간이다. 선화당은 각 도의 관찰사가 그 지방을 통치하던 정청으로서 18세기부터 그 명칭이 통일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전국 팔도에는 유사한 형식의 건물로 건축되고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19세기의 그림이나 유리 원판에 찍힌 선화당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경기감영도>(그림 3)에 그려져 있는 경기감영의 선화당은 정면 8칸, 측면 4칸에 다포식의 팔작지붕의 장대한 건물이다.⁵⁾ 앞쪽의 삼문으로부터 정청 전면까지 답석이 세 줄로 깔려 있고, 그 위에 각각 중앙 운문을 좌우로 둔 어계와 신계, 삼계의 3개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4단의 장대석으로 월대를 배치하였다. 정면 8칸 중 왼쪽 1칸의 방, 중앙 3칸은 대청, 오른쪽 4칸은 다시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화당>이라는 편액은 세 번째 칸에 걸려 있다.

근정전을 비롯한 궁궐 정전의 경우 좌우 대청의 홀수칸 건물에 삼도나 계단 및 편액이 정중앙에 걸리는 것과 다른 구조를 보인다. 행사를 위해 전돌을 깬 월대를 배치한 것은 공통되나, 궁궐의 정전은 내부가 통칸의 마루로 되어 있으나, 감영의 선화당은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실과 온돌방을 둔 것에 큰 차이가 있다. 이로 미루어 궁궐의 정전은 의식행사를 거행하기 위한 공간이었으나, 감영의 선화당은 감사가 의식을 거행함과 동시에 일상 업무를 관장하는 편전(便殿)의 역할도 동시에 거행했음을 알 수 있다.⁶⁾

이러한 감영의 건축 형식은 조선 말기에 경기감영의 선화당을 그린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아울러 일제강점기에 유리창으로 막아서 도청으로 사용되기 전 대구 감영의 선화당(그림 5, 6)에서도 같은 형식을 엿볼 수 있다.



5) 강서연, 「京畿監營圖로 본 韓國建築圖法의 특징」,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59-60쪽.
 6) 崔榮喆, 朴彥坤, 「朝鮮後期 監營 中心軸의 構成과 직제별 相關性에 관한 研究」, 『建築歷史研究』제3권 2호 통권6호. 1994.12, 40쪽

이러한 선화당 내부에 놓여 있던 각종 기물이나 의식구의 종별과 관련하여 현재 위스콘신 밀워키대학에는 피트가 1884년에 촬영한 2장의 사진이 있다. 선화당 내 병풍 앞에서 ‘관찰사와 지방관원’이 찍은 사진(그림 7)과 ‘통영북춤(승전무)을 추는 무용수’(그림 8)의 2장이 소장되어 있다.⁷⁾



그림 7 1884.11.11. 전라감영 선화당 내 병풍 앞 의자에 앉은 관찰사와 지방 관원들

그림 8 1884.11.11. 전라감영(전주) 선화당 내에서 승전무를 추는 기생 사진

사진에 의하면 관찰사는 의자에 앉았고, 뒤쪽에 2폭의 용호 병풍이 세워져 있다. 승전무를 추는 기생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바닥에는 선을 두른 지의가 깔려 있고, 4명의 기생 사이에는 큰 북이 놓여 있고, 그 오른쪽에는 안식(安息)으로 추정되는 둥근 물체가 있다. 오른쪽 위쪽 모서리에는 받침대[跣]에 돌이나 선개와 같은 의물이 꽂혀 있는 것이 확인된다. 건물 기둥의 아래쪽 부분에는 흰색 종이에 청색 능화지가 발라진 주근도지(主根塗紙)가 보이고 기둥마다 주련(柱聯)이 걸려 있으며, 창호마다 창호지가 발라져 있다.

당시 포크가 관찰한 기물이나 의물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중심건물(선화당)은 큰 건물로 길이 100피트(30m) 정도로 둘로 포장된 담도가 놓여진 커다란 스탠드나 누각형 건물이다. 건물은 찬란한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다. 길이가 50피트나 되는 중심 구간은 전면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깔끔하게 ①돗자리[地衣]가 깔려 있으며, 천장 나무들은 밝은 색상의 미세한 패턴[단청]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중앙에는 뒷벽에 기대어 ②두 폭의 커다란 병풍이 나란히 서 있었고, 오른쪽은 훌륭한 용, 왼쪽은 사납게 날뛰는 큰 호랑이를, 둘 다 아주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그렸다. 그 앞에는 ③붉은색으로 칠해진 중국식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앞에는 ④더 두꺼운 방석[安息]과 감사가 몸을 기대는 자세로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⑤좌대 받침[평상]이 놓여 있었다. 천장에는 가로 세로 4피트 크기의 커다란 ⑥네모난 종이 등이 걸려 있었다. 한 쪽 구석에는 ⑦창[수정장]과 삼지창[독] 같은 무기[의물]들이 있는 ⑧기치대[跣, 機]가 있었다.

화려한 그림과 붉은 칠, 엄숙한 분위기, 그리고 다른 주변 환경이 훌륭한 그림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선화당 건물의 끝부분은 도면에 그린 것처럼 세 개의 방으로 분할되어 있다. 평소 감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선화당 안쪽마루와 바깥 마루에 모여 문에서 내려다 보는 것 같은 경치를 만들었다. 나는 단위로 올라가서 조금 둘러본 다음 ⑨빨간 덮개가 덮인 탁자와 ⑩의자가 놓여진 방 'a'로 들어갔다. 길게 끌린 날카로운 의침이 있고, 곧 화려한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감사가 뒤에서 들어왔다.”

7) South Korea, dancers performing tongyong drum dance (victory dance)
<https://collections.lib.uwm.edu/digital/collection/agsphoto/id/190/rec/13>

이렇게 당시 피트가 찍은 사진과 도면을 통해 알 수 있는 기물은 다음과 같이 총 10점이다. ①지의, ②두 폭 병풍, ③붉은색으로 칠해진 중국양식 의자, ④더 두꺼운 방석[安息], ⑤좌대 받침[평상], ⑥네모난 종이등[紙燈], ⑦수정장과 독 같은 의물, ⑧기치대[跣, 機], ⑨빨간 덮개가 덮인 탁자, ⑩의자가 그것이다. 이러한 기물을 현재 각급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에 의해 해당 기물을 순서대로 고증하도록 한다.

III. 회화를 통한 기물의 고증

앞장에서 살펴본 바처럼 1884년 피트는 전주 감영 내 선화당에서 감사가 베푼 잔치에 참석을 하였다. 이 때 그가 관찰한 바를 유리원판 사진으로 찍고 건물 내부를 스케치하고 설명을 기록하였다. 이에 이 장에서는 조선 후기 잔치그림 중 감영 내 건물에서 이뤄진 풍속화를 중심으로 감사와 관련된 기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기로 한다.

1) 1702년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탐라순력도>(그림 9, 10)는 제주병마수군절제사를 겸했던 제주목사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1702년(숙종 28) 10월 그믐부터 한 달 동안 제주도 내를 순력하면서 그 내용을 화공 김남길로 하여금 40장면으로 그리게 한 것이다.⁸⁾ 제주목사는 관례적으로 매년 봄, 가을에 직접 도내를 순력하며 방어 실태와 군민의 풍속을 살피는데 이것을 기록화로 남긴 유일한 예이다. 김남길은 지방 화공이어서 솜씨는 그다지 뛰어나지 않지만 제주목사와 그에게 필수적인 기물에 대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다.

그중 정의양로는 정의현 성내에서 베푼어진 양로연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화면 전체를 둥근 성벽으로 둘러쳐 현성의 모습을 간략하게 지도처럼 묘사하고, 1702년 11월 3일 동헌에서 목사 이형상이 90세 이상 5명, 80세 이상 17명의 노인들에게 양로연을 베푼 모습을 그리고 있다. 화면 중앙의 동헌 건물 안쪽에는 제주목사가 앉아 있고, 동헌 건물 앞 월대 위에는 보계(補階)를 설치한 다음 잔치의 대상인 노인들이 앉아 있고, 그 옆으로 기녀들이 악기를 연주하거나 복춤을 추고 있으며, 남자 악공들은 관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8) 서인화, 진준현, 『조선시대 음악풍속도 I』, 민속원, 2002. 209쪽. 5-2 도판 설명. 29쪽 도판 5-2. <탐라순력도 정의양로>. 지본채색, 36.4x56.8cm, 43면 화첩, 보물 제652-6호, 제주시청 소장.



정외헌 동헌(東軒) 건물 내부에 앉은 제주목사의 주위에는 간략한 기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목사는 화면 중앙 평상 위에 앉아 있으며, 그 앞에는 간략한 다과를 놓은 안상이 2개 있고, 목사의 옆으로는 조금 높고 검은 칠한 탁자 위에 2좌의 도장을 넣은 관인함이 배치되어 있다. 동헌 앞 월대에 보계(補階)를 설치한 위에 노인들이 앉아 양로연을 받고, 악공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기생이 북을 치며 춤을 추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동헌 내 제주목사와 관련된 기물은 평상, 안상, 탁자, 인신궤 2좌이다.

<제주사회>(그림 11, 12)는 1702년 11월 18일 제주읍 관덕정에서 활쏘기를 하기 위해 모인 모습을 그린 것이다.⁹⁾ 관덕정 안의 중앙에는 제주목사 이형상이 앉아 있고, 관덕정의 내부 1층과 2층 그리고 월대 아래 담도 좌우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다. 당시 제주판관 이태현(李泰顯), 대정현감 최동제, 정외헌감 박상하, 군관 15명, 무과 급제자 23명이 참석하였다.



관덕정은 기둥마다 붉은 석간주칠을 하였고, 내부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목사는 2층에 판관과 현감 및 군관들이 좌우로 마주보고 앉아 있고, 1층에는 무과 급제자가

9) 서인화,진준현(2002), 210쪽. 5-6 도판 설명. 33쪽 도판 5-6. <탐라순력도 제주사회>

목사를 향해 앉아 있다. 1층 중앙에는 9명의 기생들이 가야금을 연주하거나 북춤을 추고 있으며, 관덕정 앞 월대 위에는 악공들이 관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관덕정 2층 중앙에 위치한 제주목사의 모습을 통해 목사의 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목사는 넓은 평상 위에 방석을 깔고 앉아 있으며, 앞쪽에는 다과상이 놓여 있으며, 그 뒤쪽으로는 탁자 위에 도장 2개를 넣은 관인함 2좌가 놓여 있다.

이를 통해 18세기 초 제주지방을 관할한 목사와 관련된 기물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관찰사 겸 목사의 핵심기물은 직급을 알리는 도장 2좌와 그것을 담은 관인함 혹은 인신궤(印信櫃)가 반드시 배치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목사는 다른 관원보다 중앙에 크게 그려졌는데, 그는 바닥이 아닌 평상 위에 방석을 깔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낮은 잔치상이 놓였다.

따라서 제주목사의 기물은 2좌의 관인함과 탁자 2기, 평상, 방석, 안상을 확인하였다.

2) 18세기 <동래부사 접왜사도(東萊府使接倭使圖)>(그림 13)

18세기 어느 때 동래부사가 초량왜관(草梁倭館)에 온 일본 사신을 환영하기 위해 행차하여 오른쪽 1쪽에서 연회가 열리는 왼쪽 10쪽까지 파노라마식으로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이다. 특히 10쪽은 연대청에서 일본 사신들에게 환영연의 연회를 베풀 때 기생들이 춤을 추고 악공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조선과 일본의 사신들이 보는 모습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¹⁰⁾



그림 13 <연대청연회도>, 동래부사접왜도, 18세기

10) 서인화,진준현(2002), 49쪽. 도판 7-5. 동래부사 접왜사도는 18세기, 지본채색, 81.5x460cm, 10쪽 병풍, 국립중앙박물관(본관8360) ; 도판설명 212-213.

화면 중앙 지붕 아래에는 ‘연대청’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고, 동래부사는 오른쪽 부분에 조선의 신하들과 함께 배치되어 있고, 왜의 사신들은 왼쪽 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화면의 중앙에는 4명의 기생들이 검무를 추고 있고, 그 좌우로 각각 2명씩의 악공들이 피리를 연주하고, 월대 위에서는 6명의 악공들이 삼현육각을 연주하고 있다.

오른쪽에 위치한 동래부사의 모습을 통해 그의 기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등까지 오는 높은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앞에는 붉은 천을 씌우고 흰 천으로 동도리를 돌린 탁자에 음식이 놓여 있다. 그의 오른쪽 화면 중앙 부분에는 붉은 탁자 위에 2개의 도장을 넣은 관인함¹¹⁾이 배치되어 있다. 계단 아래쪽에는 의장대가 서 있는데, 그들은 수정장과 삼지장 및 몇 개의 기치를 들고 서 있다.

이를 통해 동래부사의 의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붉은 탁자 2개와 관인함 2좌, 의자, 탁자, 수정장, 독(蠶) 등이 확인된다.

3) 1745년 <평양감사환영도(平壤監司歡迎圖)>

이 그림은 김홍도가 그렸다고 전하며 새로 부임한 평양감사를 평양의 백성들이 환영하여 베푼 연회도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그림은 <부벽루연회도>, <연광정연회도>, <원야선유도>의 세 폭이고,¹¹⁾ 피바디 에섹스박물관에 소장된 그림에는 <선화당 연회도>가 포함되어 있다. 장소는 건물의 지붕 아래 편액에 부벽루, 읍호루, 연광정 및 선화당이라고 쓰여져 있어 평양 대동강변과 선화당에서 평양감사가 베푼 잔치의 모습을 담았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부벽루 연회도>(그림 14, 15)는 대동강변의 수려한 경관에 부벽루 건물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연회는 앞마당에서 춤과 음악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오른쪽 끝에 녹포를 입은 집박악사가 위치하고 그 옆으로 해금1, 대금1, 장구1, 좌고1명이 있으며 나머지 2명은 피리 2명으로 삼현육각의 구성을 보인다. 여기가 열을 지어 앉아있고, 춤은 처용무, 북춤[舞鼓], 칼춤[劍舞], 포구락, 헌선도 등이다.

11) 서인화,윤진영, 『한국음악학자료총서 36-조선시대 연회도』, 민속원, 2001. 도판 23. <평양감사환영도>, 226-227쪽. 도판설명.



그림 14 평양감사환영도 중 부벽루연회도, 1745년, 지본담채, 71.2x196.9cm,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15 부벽루 연회도 세부, 병풍, 평상, 안식, 탁자, 인신궤, 안상, 독, 수정장

그림 속 ‘부벽루’는 편액이 보이지 않지만, 정면 5칸의 붉은색 중앙 기둥 중앙에 평양감사는 병풍 앞 평상 위 안식(案息)에 기대어 있다. 감사의 앞쪽에는 안상이 놓이고, 감사의 옆에는 안상 위에 인신궤(印信軌) 2좌가 놓여 있다. 부벽루의 앞쪽 기둥에는 독과 수정장이 각각 세워져 있다. 그리고 마당에 깎 자리 위 가장 앞쪽에는 기생 4명이 복춤을 추고 있다.

이처럼 부벽루의 평양감사와 관련된 기물로는 병풍, 평상, 안식, 인신궤, 탁자 및 독과 수정장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기물은 피트가 스케치한 배치도나 언급 내용과 비슷하다.

다음 <연광정연회도>(그림 16, 17)는 평양성 안의 마을과 집집마다 환영 깃발이 세워져 있어 평양에서 열린 잔치의 화려한 면모를 볼 수 있다.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은 낮에 연광정에서 거행하는 연회이고, 피바디에섹스박물관 소장본 <연광정 연회도>(그림 18, 119)은 야간에 햇불을 밝히고 거행하는 연회여서 기물이나 세부 소품에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강가나 건물 주위에 햇불을 밝히고 있다.



그림 16 평양감사환영도 중 연광정연회도, 1745년, 지본담채, 71.2x196.9cm,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17 연광정 연회 속 평양감사 관련 기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연광정 연회도>를 그리고 있는데, 곧 연광정의 가장 왼쪽 중앙 병풍 앞쪽에 평양감사가 앉아 있는데, 앞쪽에는 낮은 안상을 놓고, 그의 오른쪽 옆으로는 인신귀 2좌가 놓여 있다. 그 앞쪽에 음식상이 배치되고 좌우에 흰옷에 갓을 쓰거나 조복을 입은 사람들이 벌려 앉고 맞은편에는 기생들이 앉았으며, 중앙에서 무희 2명이 검무를 추는 모습이다.



그림 18 평양감사환영도 중 연광정 연회,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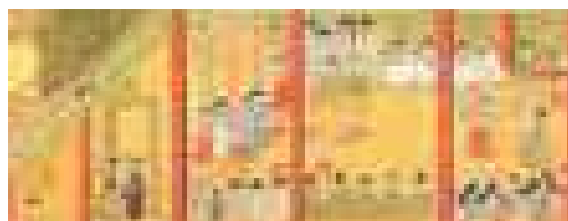


그림 19 연광정 연회 속 평양감사 기물 배치, 피바디 에섹스 소장

이처럼 연광정 내 감사의 기물은 평상 위 보료에 앉아 있고, 앞쪽에는 안상을 놓고, 옆쪽에는 인신궤 2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붕 위에는 종이등[紙燈]이 매달려 있어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고 있다.

한편 <월야선유도>(그림 20)는 야간에 대동강 위에서 펼쳐지는 뱃놀이 연회이다. 평안감사가 탄 배를 중심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악대 및 관선(官船)이 늘어서 있고 뒤로는 관기(官妓)들이 탄 배, 음식을 준비하는 배, 사대부나 아전들이 탄 작은 배들이 따르고 있다.



그림 20 평양감사환영도 중 <월야선유도>, 1745년, 지본담채, 71.2x196.9cm, 국립중앙박물관

<평양감사환영도> 중 야간 뱃놀이(그림 21, 22)는 밤에 횃불을 켜고 등불을 켜는 배 뱃놀이를 하며 향연을 벌이는 장면이다. 그림 속 배 위에 감사의 공간은 붉은 기둥 위에 지붕을 씌우고 장막을 둘러쳤다. 감사의 뒤쪽으로는 병풍을 둘러쳐 있고, 평상에는 화문석을 깔고 그 위에 호피방석을, 그리고 감사는 안식(案息)에 기대어 앉아 있다. 감사의 옆쪽으로는 인상 위에 인신궤(印信軌) 2좌가 놓여 있다. 지붕 아래 기둥에는 불을 밝힐 등이 매달려 있고, 네 귀퉁이에는 좌등이 불을 밝히고 있다. 뱃머리 쪽에는 평양감사를 상징하는 의물로서 독과 수정장 및 송덕산이 세워져 있다.

이처럼 배 위 평양감사와 관련된 기물로는 바닥에 왕골로 짠 지의가 깔려있고, 병풍, 평상, 호피방석, 안식, 탁자와 인신궤, 종이등, 좌등, 독과 수정장 등이 배치되어 있다. 부벽루나 연광정 및 배 등이 비록 감영 내 선화당의 장면은 아니지만 평양감사의 주위에 배치된 기물은 공통되는 것이 확인되고, 전체적으로는 피트가 스케치한 배치도나 기물을 언급한 내용과 비슷하다.



그림 21 평양감사환영도의 야간 뱃놀이



그림 22 평양감사의 안팎 기물 배치

한편 피바디에섹스박물관 소장 <평양감사향연도> 제3폭은 <월야선유도> 대신 평양 감영의 ‘선화당’에서 펼쳐지는 <선화당 연회도>(그림 23)을 그리고 있어 주목된다.



그림 23 평양감사향연도 제3폭 선화당 연회장면, 피바디 에섹스박물관 소장

건물 지붕의 아래쪽에 ‘선화당’이라는 편액이 선명하다. 지붕 아래 공포에는 단청이 그려져 있고 기둥은 붉은색 석간주칠이 되어 있으며, 기둥에는 각각 ‘관풍찰속(觀風察俗)’과 ‘승류선화(承流宣化)’라는 주련이 걸려 있어 관찰사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글로 써 놓고 있다. 평양 감영의 선화당 건물은 정면 6칸이며, 정면에서 볼 때 오른쪽 두 칸은 앞쪽에 창호가 설치되어 문을 열어둔 온돌방이고, 왼쪽 4칸은 대청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선화당 내 평양감사와 관련된 기물의 모습을 살펴보면 건물 오른쪽에 자리를 잡고 평상 위 보료 위에 기대어 앉아 있으며, 그 앞에는 안상, 감사의 옆으로는 낮은 안상 위에 2좌의 인신궤(印信軌)가 놓여 있다. 현재 평양감사가 앉은 공간은 1884년 피트가 들어간 ‘안방’에 앉았던 ‘a’라는 공간과 일치한다.

평양감영의 선화당에서는 마루방의 바닥에 지의를 깔고 건물의 양옆으로 흰색 두루마기에 갓을 쓴 남자들과 기생, 악공들이 앉아 있고 왼쪽 두 번째 칸에서 두 명의 무희가 검무를 추는 공간 배치로 되어 있다. 이것은 1884년 피트가 찍은 사진에서는 4명의 무희가 북을 두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만 찍혀 있고 구경꾼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4) 18세기 후반, <신관도임연회도>(그림 24)

지방 관아에서 새로 부임한 감사나 혹은 수령의 주관하에 베풀어진 연회 장면을 그린 <신관도임연회도>가 있다.¹²⁾ 참석자들의 규모나 위치 및 배열은 궁중행사도의 장면과 유사하여 이 연회가 공식적인 성격의 행사였음을 알려준다.

12) 서인화,윤진영, 『조선시대 연회도』, 민속원, 2001. 도판 24. <신관도임연회도>, 228쪽. 도판설명.



그림 24 신관도입연회도, 18세기 후반, 지본채색, 140.2x103.2cm,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신관사또 부임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화면 하단에 중삼문이 있고 담으로 둘러쳐져 건물이 좌우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중앙에 있는 건물은 동헌이고 여기에는 새로 부임한 감사가 착석해 있고 그의 모습과 시선은 마치 초상화의 장면처럼 그려져 있다. 내부의 잔치 모습(그림 25)을 보면 초대 손님과 구경꾼, 기생과 동자에 이르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중앙의 무대가 되는 마당 한 가운데에는 기녀 두 사람에 의한 쌍검대무(雙劍對舞)를 추고, 악공들은 해금1, 대금1, 피리2, 장구1, 북1로 구성된 삼현육각을 연주하고 있다. 하면 화단 중삼문 안쪽에는 음식을 만드는 찬방의 모습도 그려져 있다.



그림 25 신관사또 부임도의 잔치 모습 세부

높은 월대 위 선화당은 붉은 기둥으로 되어 있고 그 위로 차일을 치고 세 공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건물 내부 중앙에는 새로 부임한 신관 감사는 족자 앞 호피가죽을 걸친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앞에는 붉은 안상을 놓고, 그 앞에 2개의 탁자에 2좌의 관인함이 놓여 있다.

이처럼 감영 선화당 내 감사와 관련된 기물로는 족자, 의자, 호피방석, 안상, 탁자와 인신괘 등이 배치되어 있어, 대체로 앞에서 살펴본 평양감사향연도 등의 기물과 흡사하다.

5) 1848년 <호송첩(呼嵩帖)>(그림 26. 27)

호송첩은 헌종(憲宗)의 22세 탄일을 기념하여 1848년(헌종 14) 7월 18일 전라감영에서 헌종의 축수(祝壽)를 기원하는 모임을 기록한 시화첩이다. 여기에는 연회 장면 1면과 전라감영 소속 판관(判官)·현감(縣監) 등 관원이 여러 색지에 쓴 축수 시문이 수록되었다. 첩의 앞뒤는 나무로 꾸몄고, 앞면에는 음각으로 ‘호송첩(呼嵩帖)’이라고 새겼다. ‘호송’은 문무백관이 국왕의 즉위나 탄신일 등 국가 경사가 있을 때 축수(祝壽)·송축(頌祝)하는 것을 뜻한다.

연회 장소는 전주감영 <선화당(宣化堂)>이며, 당시 관찰사는 홍희석(洪羲錫, 1787~?)이었다. 관찰사를 중심으로 30인의 판관, 현감, 목사, 부사 등이 좌우로 연회를 즐기고 있다. 여기(女妓)와 악공들도 그려져 있으며, 축소한 <선유락(船遊樂)>과 학무(鶴舞)가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호송첩은 전라관찰사는 전라감영의 선화당에 앉아 관원이나 지방민들과 함께 잔치를 베푼 것을 그린 그림이다.



그림 26 호승첩(呼嵩帖), 1848년, 종이, 45x28cm, 국립고궁박물관



그림 27 호승첩 중 선화당 내 전라관찰사의 모습

호승첩의 화면 중앙에는 선화당 내에 전라관찰사가 평상 위에 앉아 있다. 그가 앉아 있는 앞쪽에는 낮은 상 위에 여러 기물이 올려져 있다. 그의 뒤 좌우에는 불자(拂子)를 들거나 부채를 들고 관찰사를 호위하고 있다.

이처럼 전주감영 선화당 내 전라관찰사와 관련된 기물 또한 평상 위에 앉고 앞에는 안상을 두고, 뒤쪽에는 불자와 부채 등이 배치되어 있다. 제주감영이나 평양감영에서 볼 수 있던 기물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IV. 유물을 통한 선화당 내 기물의 고증

앞 장에서 조선후기 제주감사나 평양감사 및 전라관찰사 등의 감영 내 선화당을 비롯한 부속 누정에서 거행한 잔치에서 감사의 기물들을 살펴보았다.

1) 지의(地衣)

지의는 마루바닥 위에 여러 개의 자리를 잇대어 바닥에 까는 깔개의 일종이다.

조선시대 궁궐에는 전각 내부의 전돌 바닥이나 마루바닥에 지의를 깔았다. <동궐도>의 그림에서 마루 부분에서 확인된다. 현존하는 공간에서는 종묘의 정전, 국왕의 어진을 모신 신선원전 등의 진전만이 원형대로 지의가 깔려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왕릉을 조성하는 산릉도감에서도 정자각 내부에 지의를 깔았다. 당시 들인 종별을 보면, 별문석과 초석이 사용되어 바닥에는 초석을 깔고 그 위에 별문석을 깔았던 것이다. 그 수량은 건물 바닥 전체를 깔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이고, 이것을 잇대어 가장자리에 선을 돌려 깔았다.

감영 중 일제강점기 사진에서 내부가 확인되는 것으로 함경도 함흥감영의 경우 8칸으로 되어 있고 왼쪽 2칸은 온돌이고, 오른쪽 6칸은 마루로 되어 있으며, 5번째에 선화당 편액이 걸려 있고, 그 앞으로 답도가 배치되는 등 좌우 대칭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까지 전주감영 선화당과 유사하다. 그 내부 모습 또한 기둥에 붉은 주철이 칠해져 있고 천장에는 화려한 단청이 그려져 있으며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는 점도 전주감영과 비슷하다.

하지만 함흥감영의 경우 내부에 지의가 깔려 있는 모습은 함흥본궁(그림 28, 29)에서 확인된다. 이것은 궁궐에서도 마찬가지로 근정전이나 인정전 등의 정전에 지의가 깔린 것이 남아 전하지 않고, 다만 종묘 정전이나 신선원전과 같은 의례용 공간에 지의가 깔린 사례가 남아전하는 것이 확인된다. 함흥본궁 외부의 마루바닥에도 지의가 깔려 있어 함흥감영의 마루에는 지의가 배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림 29 함흥본궁 내부 지의와 의물 배치



그림 30 함흥본궁 복도 바닥 지의

특히 함흥본궁에서는 전주감영에서 피트가 보았던 의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먼저 본궁 내외부의 마루 바닥 부분에는 자리에 선을 두른 지의가 길게 깔려 있는 것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문 입구 쪽에는 삼지창형 독과 선개기가 받침대[機]에 꽂혀 있다. 이를 통해 지의와 삼지창 및 선개 및 받침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2) 붉은칠한 서양식 의자



1884년 피트가 촬영한 유리원판을 보면 전라관찰사는 붉은 주칠 의자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그는 망건으로 이마를 정리하고 갓을 쓰고 있으며 전복을 입고 앞에 고름을 두껍게 매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짚고 앉아 있다. 이렇게 전복을 입은 모습은 1906~7년에 한국을 방문한, 독일 장교 헤르만 산더(Sander, Hermann Gustav Theodor ; 1868~1945)가 수집한 구한말(舊韓末) <군대 지휘관 흑백사진>과 유사하다. 이 사진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칼을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군대 지휘관을 찍은 흑백사진이며, 뒷면에 'Offizier(장교)'가 적혀 있다. 그림으로 그려진 모습으로는 군복을 입은 무인의 초상과 흡사하다. 피트의 설명에 의하면 병풍 앞에는 “붉은색으로 칠해진 중국 양식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피트가 촬영한 유리원판에 전라관찰사가 관원들을 거느린 모습과도 일치한다.

조선에서 온돌방으로 조성된 안방이나 사랑방 등은 바닥에 앉는 좌식생활을 주로 한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의자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임원경제지』에 의하면,

“근래에는 온돌방에 거처하는 것이 익숙하긴 하나 구들장 만드는 것에 능숙하지 못하여 순전히 흙

과 돌만을 사용하여 구들을 만들기 때문에 부역의 재에 열이 식기만 하면 곧 흠이나 돌 위에서 자는 것과 아무런 차이도 나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산증(痲症)과 반신불수 등의 질병이 모두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앉는데 의자나 등받이가 없는 의자(椅, 櫪)를 사용하고 눕는데 상탁(牀榻)을 사용한다...”¹³⁾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의자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궁궐의 정전이나 감영의 선화당 등 공식적인 의식이나 행사가 거행되는 마루 공간의 경우 국왕이나 관찰사 등 행사의 주인공이나 계급이 높은 주변들은 주위 사람보다 높은 공간에 입식의 의자에 앉는 것이 확인된다. 궁궐 정전의 국왕은 교의(交椅) 형식의 의자에 앉고, 감영 선화당의 관찰사는 원의(圓椅) 형식의 의자에 앉는 차이가 있다.

『임원경제지』에 의하면 “의자에는 방의(方椅), 원의(圓椅), 절첩의(折疊椅) 등이 있다”고 했다. 그중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붉은색 주철의자가 소장되어 있다.¹⁴⁾



이들 의자는 등받이가 간결하여 피트가 언급한 양식 의자라는 묘사에 부합된다. 다만 손잡이 부분의 경우 국립민속박물관의 것은 각이 져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것은 둥글게 처리된 형태로 되어 있다.

13) 徐有榘, 『임원경제지』, 贍用志, 起居之具 臥床.
 14) 김미라, 「조선후기 회화에서 보는 입식 목가구」, 『』,



그림 38 흥선대원군초상, 의자와 탁자



그림 39 창덕궁의 의자. 국립고궁박물관



그림 40 의자, 가로 65cm, 세로 47cm, 높이 104cm, 국립민속박물관



그림 41 함경도에서 과거시험,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42 기생모습, 조선의 풍습. 일제기

3) 안식(安息)과 평상(平床), 안상(案床) 및 보안(寶案)

피트가 선화당을 찍은 사진에서는 볼 수 없지만, 그가 한 설명을 보면 병풍과 의자 앞쪽에 “더 두꺼운 방석[安息]과 관찰사가 몸을 기대는 자세로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평상[좌대받침]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그린 도면을 보면 병풍 앞에 평상이 놓인다. 그런데 평양감사와 관련된 기물이나 그밖에 평상과 관련된 기물에는 평상 위에 깎아낸 화문석과 두꺼운 방석

[보료, 장침, 단침]이 있고, 관찰사 앞에는 낮은 안상이 배치되고, 관찰사 옆에는 그를 상징하는 도장을 넣는 관인함 2좌와 그것을 올려놓는 보안(寶案)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3 피트의 기물 배치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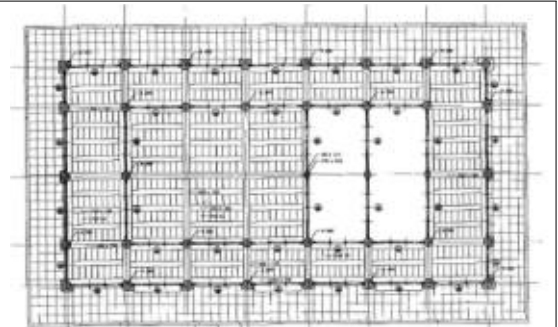


그림 44 복원 전라감영 선화당

우선 안식의 경우 평양감사가 그려진 풍속화를 보면 감사가 몸을 기대어 앉을 수 있는 둥글고 두툼한 형태의 기물이다. 왕실의 잔치를 그린 여러 궁중행사도를 보면 세자와 세자빈은 화문석 위에 호피무늬 방석을 깔고 앉으면 왼쪽에 안식을 두어 기대 앉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확인된다.



그림 45 신축진찬병풍, 1901, 화문석 위 방석 및 안식, 국립고궁박물관



그림 46 신축진찬병풍, 1901, 화문석 위 방석 및 안식, 국립고궁박물관

한편 피트의 표현에 의하면 선화당 내 관찰사가 앉을 수 있는 평상[좌대받침]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받침은 국왕의 용상 아래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며, 왕실의 잔치에서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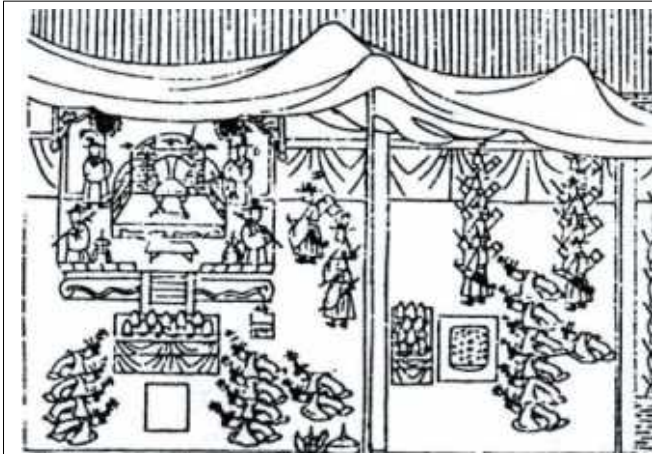


그림 47 순조기축진찬의궤, 좌대 위 교의 및 안상, 182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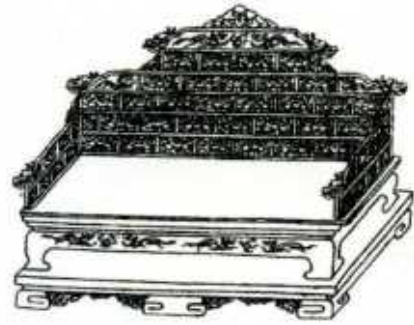


그림 48 어진도사도감의궤 중 용상과 좌대 도설, 1901

이러한 평상은 조선후기에 사용한 기록이 있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 의하면,

“따라서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앉는데 의자나 등받이가 없는 의자(椅,橙)을 사용하고 눕는데 상탁(牀榻)을 사용한다.....근래 들어 세상에서 말하는 평상(平床)의 제도를 이용하되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것은 와상(臥床)이라 하고 그 방식이 침대를 안에 창살처럼 나무 대를 설치하고 두 틀을 이어 하나의 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한다. 그리고 그의 방식은 그 나무 살에 위로 종이를 몇 겹 바르고, 그 위에 보료 등을 덮어쓰고, 여름에는 등나무 자리를 깔고 쓴다.”¹⁵⁾

이러한 평상의 형태는 다리 위에 천판으로 된 형태이다.



그림 49 좌대형 평상



그림 50 평상, 서울역사박물관

상탁류에 해당하는 가구를 사용하다가 당시 생활에 맞도록 창살 같은 나무 대를 설치하고 종이를 발라 사용하였고 그것이 ‘평상’임을 설명하고 있다. 즉 탁을 닦았으나 우리 나라 생활에 맞도록 새롭게 고안한 가구의 사용을 기록한 것이다. 평상과 탁의 형태를 비교하면, 낮은 높이의 좌구 혹은 와구라는 것은 같으나, 세부 꾸밈 뿐 아니라 형식에 차이를 보인다.

15) 徐有榘, 『임원경제지』, 贍用志, 起居之具 臥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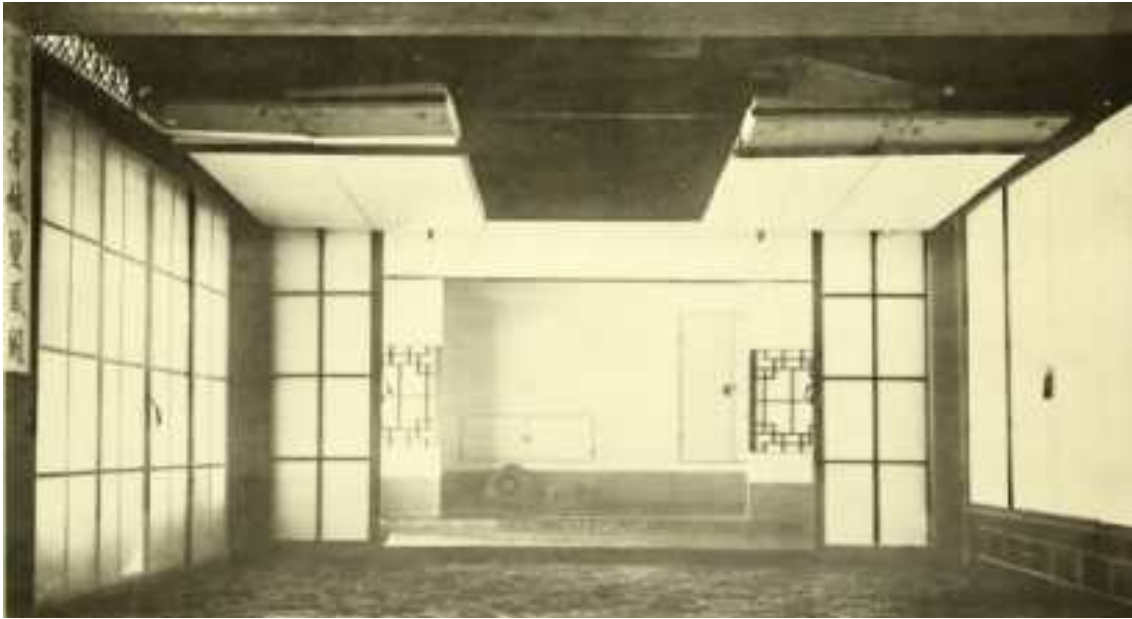


그림 51 창경궁 연경당 내 보료와 장침, 방침의 배치, 일제강점기

안방 아랫목에 까는 방치레로서 앉거나 기대어 쉬기 위한 보료 일습이다. 바닥에 까는 넓은 요인 보료, 등받이인 안석(安席), 팔을 기대는 방침(方枕) 및 장침(長枕)으로 구성된다.¹⁶⁾

보료에는 주인이 앉고 마주 앉은 손님에게는 방석(方席)을 내어 주었다. 방침과 장침은 비스듬하게 앉아 편안하게 팔을 기대할 때 사용하였다.



그림 52 보료일괄, 19세기말-20세기초, 비단, 무명, 서울역사박물관

16) 방침 높이 22.5cm, 길이 22.5cm, 너비 22.5cm H 22.5cm, L 22.5cm, W 22.5cm / 장침 높이 22.5cm, 길이 62cm, 너비 22.5cm H 22.5cm, L 62cm, W 22.5cm / 안침 높이 48.5cm, 너비 49.5cm, 두께 7cm H 48.5cm, W 49.5cm, T 7cm

		
방침 높이 22.5, 길이 22.5, 너비 22.5	안침 높이 48.5, 두께 7, 너비 49.5	장침 높이 22.5, 길이 62, 너비 22.5

왕실 잔치나 평양감사의 자리에서 평상 앞에는 안상이 놓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6 칠회연당문다반, 20세기초, 72.5 x 56.0 x 16.4cm, 일본 도쿄박물관 오쿠라컬렉션	그림 57 서류상, 19세기, 세로 16, 가로 34.7, 높이 10.5, 독일 라이프치히 그라시민속박물관
	
그림 58 형상, 높이 55.4cm, 69.2x54cm, 서울역사박물관	그림 59 방형 탁자, 높이 51.5cm, 41x41cm, 서울역사박물관

평양감사의 기물을 보면 평상 위 왕골자리를 깔고 호피방석에 안식을 놓고 앉고 그 옆에는 보안(寶案)을 놓은 다음 관관함 2좌를 올려놓고 있다. 이것은 신관사또의 기물에서도 의자 위에 호피를 걸쳐두고 앞에는 안상을 놓고 그 옆에 2개의 보안 위에 관인함을 각각 올려 놓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조선 정부의 관인을 보면 관청의 인장과 우두머리의 인장 2개가 사용되었다. 곧 호조의 경우 '호조지인'과 함께 '호조판서지인'이 함께 사용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주감영에서 마찬가지로였을 것으로 보여 관인이 2개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라감사인과 관찰사인 2개가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한다.



5) 종이등

피트의 표현에 의하면 전주 감영 선화당의 천장에는 4피트 길이의 커다란 네모난 종이등이 걸려 있다고 한다. 앞서 평양감사의 행사 때 부벽루나 연광정 등 야간 행사 때 전각에 등이 걸려 있는 것이 확인된다.

조선왕실의 궁궐에서 거행된 연향 때에도 이와 같은 각종 등이 걸려 있던 것이 확인된다. 다만 이것들은 가장자리 프레임은 철사로 되어 있고, 얇은 비단(紗)으로 만든 청사초롱이 대부분이다. 피트가 이것을 종이등이라고 했는데, 감영에서 종이등을 썼을지 알 수 없으나, 민속공예품 중에 종이등의 사례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중에 있다.



그림 75 신축진찬병풍, 1901, 전등, 초롱, 국립고궁박물관

 <p>그림 76 등덮개,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지, 높이 71, 너비 25.3, 국립민속 박물관</p>	 <p>그림 77 제등 내골, 19세기말 20세기 초, 나무, 철사,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 높이 31.5, 지름 6.8</p>	 <p>그림 78 초롱, 국립민속박물관</p>	 <p>그림 79 제등, 국립민속박물관</p>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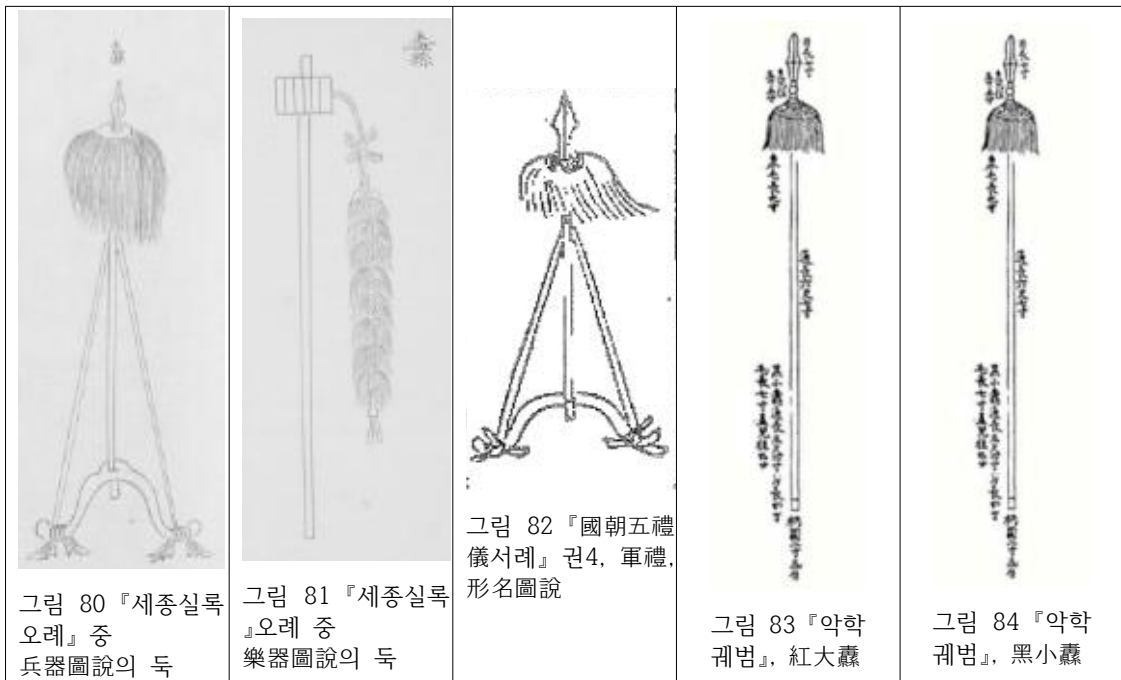
종이등의 등덮개는 등불이 바람에 꺼지는 것을 막고 은은한 조명 효과를 주는 등 썩우개이다. 들기름 먹인 장지를 접고 접착 부분에 시침질하여 봉투처럼 만들었으며, 펼치면 사각기둥 모양으로 세울 수 있다. 등잔대나 촛대 전체를 덮어씌울 수 있도록 높게 제작되었다.

6) 독과 수정장 및 선개기

앞에서 살펴본 평양감사연희도를 보면 평양감사를 위해 잔치를 하는 곳에 감사를 상징하는 의물로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삼지창형 독과 수정장이 세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트가 찍은 전주감영 선화당에서 승전무를 추는 기생들의 오른쪽 위 구석에 의물이 세워져 있다. 여기에는 삼지창에 붉은 상모가 꽂힌 독과 수정장이 받침대[機]에 꽂혀 있다.

이렇게 독은 감사를 상징하는 기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독을 독이라고 읽는다.¹⁷⁾ 고대 중국에서 장례에 사용되던 깃발[纛]에서 기원하여 한 대(漢代)에는 군기로 사용되었는데, 실상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 긴 장대에 장식을 달아 깃발을 만든다. 독은 고려시대에는 통수권자를 상징하여 군영에 독을 설치하고 독 주변에서 군령을 집행하거나, 군대의 출병에 앞서 독제사를 거행하여 군대를 통솔하는 데 상징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했다.¹⁸⁾

조선에서는 독제사가 정례화되어 주요 국가 제사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여 흥미롭다. 독에 대한 조선의 기록은 대부분 무관이 중심이 되어 거행하였던 독제와 관련된다.¹⁹⁾ 독제는 왕이 직접 주관하지 않고 병조판서가 주관하였고, 조선 초기 독은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에서 보관하고 제사도 이곳에서 지냈다.



세종실록이나 국조오례의서례 등을 보면 조선시대 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²⁰⁾ 하나는 독제(纛祭)를 지낼 때 사용하는 병기(兵器)로서의 독이고, 다른 하나는

17) 纛을 “독”으로 읽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18) 『高麗史』권121, 列傳 34; 『高麗史節要』권21, 忠烈王3
 19) 이옥, 「조선 전기 유교국가의 성립과 국가제사의 변화」, 『한국사연구』 118, 2002, pp161~193
 20) 『세종실록오례』; 『국조오례의서례』, 권137

종묘나 문묘에서 무무(武舞)를 출 때 악기로서 사용하는 독이다. 원래 독은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병기의 기능을 담당했던 독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루어, 무무(武舞)를 출 때 독은 병기의 독기는 무용을 위한 소품으로 의물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무무(武舞)를 출 때 사용하는 의물(儀物)인 독의 모양과 독제를 할 때 모시는 병기(兵器)로서의 독의 모양은 차이가 난다.

악학궤범의 정대업정재 의물에는 독의 제작법이 소개되어 있다.²¹⁾ 『악학궤범』권6에 의하면 독의 길이는 4척 1촌 5푼(약 125.7cm)으로 한쪽으로 겹을 만들며, 깃대의 전체 길이는 8척6촌(약 261cm)이고, 깃대의 지름은 1촌(약 3cm)으로 깃대 머리에는 나무로 만든 봉새를 꽂고 주모(注旄)가 하나 있으며, 훈백(纁帛)을 잇대고 있다. 이처럼 조선 전기에 병기에 해당되는 독은 나무로 창처럼 생긴 자루를 만들고, 창 아래쪽에 말꼬리털(馬鬃)로 만든 상모를 등글게 꽂은 형태이다.

다만 조선후기 의궤를 비롯한 문헌에 그려진 독은 자루 끝의 창이 형태가 단창에서 삼지창의 형태로 변화되는 것이 특징이다.²²⁾



그림 85 평양감사 의물

그림 86 독, 순조순원왕후가례의궤 (1802) 2책, p330

그림 87 독, 민박

그림 88 독, 민박

이것은 현존하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의 독 유물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현재 이들 유물은 자루의 창끝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어 이것을 ‘삼지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각종 왕실의궤에 그려진 도설을 살펴보면 이것은 삼지창이 아니라 ‘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독기의 용도는 군대가 출정할 때 뿐 아니라 임금이 행차할 때 군통수권자인 국왕을 상징하는 깃발로도 사용되었다.²³⁾ 그리하여 노부반차에 독기가 등장한다. 즉 대가노부에서 백기가 제일 먼저가고 그 다음에 독기가 뒤따른다.²⁴⁾ 이는 법가노부와 소가노부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독기는 늘 임금의 수레인 대가(大駕) 앞이나 군중(軍中) 앞에서 대장의 앞에 세운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독은 군권을 상징

21) 『악학궤범』권8. 만드는 법. 홍독은 홍색 상모(象毛)를 쓰며 나무로 만든 자루에 주칠을 하고 하단은 쇠로 장식한다. 상모 위에 분칠한 접시꽃[葵花] 모양의 개아(盖兒)를 씌우며 칼날에 분칠한다.

22) 『國朝續五禮儀』卷1, 軍禮序禮, 形名圖說, 蠶

23) 『經國大典註解』, 한국학중앙연구원, 208쪽

24) 『世宗實錄』卷132, 五禮序禮, 嘉禮, 鹵簿

하는 의장물이었음을 잘 말해 준다. 따라서 전주감영에 세워진 독은 전라관찰사의 병권을 상징하는 핵심의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정장(水晶杖)은 나무로 만든 자루를 은으로 싸고 그 위 끝에 목정주(木精珠)를 걸고 도금한 철사를 구부려 수정주의 사방에 걸어서 불꽃 모양과 같게 한 의장을 말한다.²⁵⁾ 조선왕실에서 국왕의 행차에 해당되는 대가노부, 법가노부, 소가노부 등에 있어 수정장은 왼편에, 금월부는 오른편에 세울 정도로 핵심적인 의물이다.

수정장과 금월부를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조선시대 내내 국왕의 법가의장 등으로서 태묘를 전배하거나 어진을 모시거나 할 때 예를 갖추어 위엄을 강조하기 위해 장중하게 사용하는 핵심적인 의물이다.²⁶⁾ 이것은 『영정모사도감의궤』이나 가례도감의궤 및 1928년 순종황제와 순명황후純明皇后的 신주를 종묘에 부묘하는 전말을 기록한 『순종효황제순명효황후부묘주감의궤』에도 수정장에 관한 기록을 엿볼 수 있다.²⁷⁾ 의궤에 따르면, 수정장은 1점을 만들었는데, 수정장은 숙동(熟銅)과 함석(含錫)으로 화염 모양의 판을 만든다. 그 안에 수정구슬[水晶珠] 1箇를 달아 완성한다. 그리고 창 형태로 된 나무로 제작하여 결합한 것이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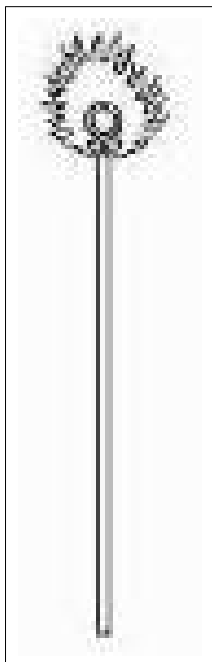


그림 89 세종실록오례, 수정장



그림 90 화성능행도 중 수정장, 1795년, 국립고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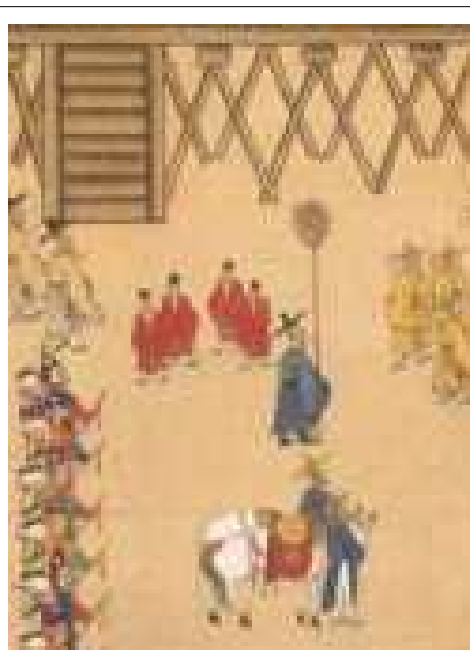


그림 91 왕세자두후평복진하도 중 수정장, 2폭 세부, 1879년, 국립중앙박물관

수정장은 나무로 만든 자루를 은으로 싸고 그 위 끝에 목정주(木精珠)를 걸고 도금한 철사를 구부려 수정주의 사방에 걸어서 불꽃 모양과 같게 한 의장을 말한다.²⁹⁾

25) 『世宗實錄』卷132, 五禮序禮, 嘉禮, 鹵簿

26) 일성록, 영조 51년 12월 8일(신해).

27) 『순종효황제순명효황후부묘주감의궤』권하, 1928년.

28) 「화령전 운한각 주렴 및 의장물 고증 재현 결과보고서」, 수원시 화성사업소, 2016.

29)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1방의궤, 1759년 6월일, 품목질.

왕실에서는 수정장과 금월부가 좌우 1쌍으로 핵심의물이었고 1931년 동관왕묘의 흑백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월부나 독은 무(武)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수정장은 거울을 밝히는 상징물로서 조선왕실에서는 금월부와 함께 국왕의 어진을 모신 진전의 의장물 중 하나이다.



그림 92 수정장의 모습, 동관왕묘의 감실, Norbert Weber, 1915년



그림 93 엘리자베스 키스



그림 94 수원 화령전 수정장 복원

그런데 평양감사의 의물로는 독과 수정장이 배치되는 것으로 미루어 관찰사의 문무 겸전의 권력을 상징하는 의물로서 양자가 배치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독과 수정장의 경우 평양감사의 감영에서는 건물의 기둥에 세워져 있었고, 동래부사의 경우 건물 앞 마당의 의장대가 들고 서 있었다. 피트가 찍은 유리원판 속 흑백사진을 보면 이것들이 받침대[機]에 꽂혀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렇게 선개기에 꽂힌 경우는 궁궐에서 펼쳐진 잔치 그림을 보면 각종 의물들이 꽂혀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림 95 화성능행도 중 잔치 때 세워둔 수정장과 선개기, 1795년, 국립고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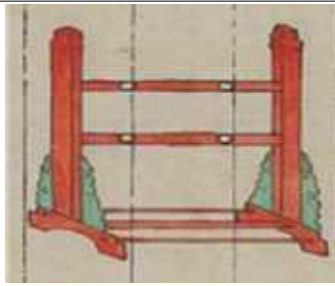


그림 96 『정조국장도감의궤』
선개기, 1800년



그림 97 종묘의 선개기

8) 기둥의 주근도지

주근도지(柱根塗紙)는 건물 기둥 하단에 칠하여 신성한 지역을 표시하고, 마치 건물이 구름위에 떠 있는 것 같아 건물이 더 높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림 98 1931년 동관왕묘 정전
기둥의 주근도지



그림 99 창덕궁 신선원전의 기둥
의 주근도지

피트가 촬영한 전주감영 선화당 건물의 내부를 기둥의 하부에 하얗게 종이가 발라진 것이 확인된다. 이로 미루어 붉은 기둥의 아랫 부분에 종이를 바르는 주근도지가 발라져 있다고 여겨진다.

동관왕묘나 조선국왕의 어진을 모시는 창덕궁 신선원전의 내외부의 기둥 하단에는 흰색 능화지로 발라져 있는데, 이곳을 주근도지나 주근도배(柱根塗褸)라고 부른다. 조선 국왕의 어진을 모시는 진전으로서 창덕궁 신선원전의 내·외부에는 주근도배가 여전히 현존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기둥 부분에 붉은색으로 주칠을 한 위에 흰색의 능화지[白菱花紙]를 바른 뒤 위쪽에 파란색의 청능화지를 발라 상부에 띠를 두르는 방식이다.

선화당의 경우 백능화지만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윗 부분이 약간 짙은 색이 엿보여 백능화지 위에 청능화지를 발랐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선화당의 마루바닥에는 지의를 깔고 붉은색 기둥 위에는 백능화지를 바르고 상부에는 청능화지로 띠를 두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건물 밖에 능화지를 바를 경우 자칫 비가 들이치거나 유지 관리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선화당 내부로 제한하여 바르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전주감영 선화당 내부의 기물을 고증하기 위해 먼저 1884년 피트가 찍은 사진과 관련 일지 및 배치도를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조선 후기 풍속화 속에 평양감사나 제주목사, 전라감사 및 신관사또 등과 관련되어 어떠한 기물들이 배치되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현재 확인 가능한 사진자료나 각급 박물관 소장 유물을 통해 지방 관아의 관찰사와 관련된 기물에 대해 밝혀 보았다.

이를 통해 전주감영의 선화당에는 다음과 같은 기물이나 의식구를 복원하여 재현 제작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마루바닥에는 돛자리[地衣]를 깔고, 붉은 칠한 기둥에는 하얀 한지를 바르고 가장자리에는 청능화지[柱根塗紙]를 바른다. 다음으로 병풍은 청룡도와 백호도 2폭으로 만들어 세운다. 선화당의 대청 마루에는 관찰사가 앉을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칠한 중국식의 양식 의자를 제작하여 배치한다. 선화당의 내부 방에는 관찰사가 기대어 앉을 방석[安息]을 제작하여 배치한다.

선화당의 대청마루는 궁궐의 정전과 마찬가지로 의식의 공간으로서, 관찰사가 앉을 의자를 놓고 그 좌우 좌대 받침[평상]에는 화문석과 방석을 깔고 안식을 배치한다. 관찰사의 앞에는 안상을 앞에 두고, 옆에는 2개의 보안(寶案) 위에 관인함 2좌를 만들어 올려둔다. 내부에는 어두운 밤을 밝히기 위해 네모난 종이등[紙燈]은 기둥에 걸어둔다. 한편 의식용품으로 수정장과 독 같은 의물은 기치대[跌, 機]에 꽂아서 세운다. 빨간색 탁의를 덮은 탁자를 만들어 놓는다.

이처럼 전라감영의 선화당 내부에 포크의 기록에 보이는 바에 의해 기물이나 의식구의 종별 수량을 갖추되, 그것은 포크의 사진이나 현존하는 그림을 통해 배치하고, 현존하는 유물을 관련 분야의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술을 재현, 복원하여 전라감영의 원래 위치에 배치되길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치기로 한다.

참고문헌

-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고려대박물관, 『조선시대 기록화의 세계』, 고려대 박물관, 2001.
국립국악원, 『조선시대 연회도』, 민속원, 2001.
국립국악원, 『조선시대 음악풍속』1, 민속원, 2002.
국립문화재연구소, 『최후의 진전-창덕궁 신선원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풍속화』, 한국박물관회, 2002.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향연과 의례』, 국립중앙박물관, 2009.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궁중행사도』1, 국립중앙박물관, 2010.
문화재청, 『한국의 초상화:역사 속의 인물과 조유하다』, 놀와, 2007.
박정혜 외,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 민속원, 2005.
방애영, 『조선말기 연향가구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12.
서울역사박물관, 『운현궁생활유물1, 서울역사박물관 2003.
이춘일, 「운현궁 목가구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4.
장경희, 「19세기 왕실 잔치 때 전각 내 왕실공예품의 배치연구」, 『조선시대 향연과 의례』, 국립중앙박물관, 2009.
장경희, 『고궁의 보물』, 국립고궁박물관, 2006.
조시내, 「대한제국기 궁중연향용 가구연구」, 『미술사학연구』 264, 2009.12.
최윤정, 「조선시대 목제좌구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6.
홍선아, 「고려,조선시대 원등(圓凳)연구」, 『조형디자인연구』, 2015.

<소장품 검색>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

국립고궁박물관 www.gogung.go.kr/

국립민속박물관 www.nfm.go.kr/

『완영일록』으로 본 전라감영 문화콘텐츠와 활용방안

김순석*

< 목 차 >

- I. 서론
- II.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전라감영 복원과 전라감사 기록물
- III. 전주한옥마을 연도별 방문객 현황분석과 문화관광자원
활용전략
- IV. 전라감영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 V. 맺음말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조선왕조의 어향(御鄉)이며 감영과 경기전 전주사고 등 다른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관청이 밀집해있고 역사적으로 행정과 문화의 발신지이자 구심점이며 음식으로 지명도가 있는 전주는 역사적 연원이 있다.

전주는 『삼국지 위서동이전(『三國志』「魏書」東夷傳)』 기록에 의하면 삼한(三韓)시대 마한(馬韓)에 속한 원지국(爰池國)이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 위덕왕(威德王) 원년(554)에 완산주(完山州)가 설치되었고 위덕왕 11년(564)에 주(州)를 폐지하였다가 통일신라 신문왕 5년(685)에 다시 완산주를 설치하여 9주의 하나가 되었다.¹⁾ 전주라는 지명 사용은 서기 757년 신라 경덕왕(景德王)16년부터이다.

고려 1018년(현종9)에 단행된 행정구역 개편에서 가장 먼저 전라도로 성립되어 경상도(慶尙道)보다 296년 먼저 지방통치제도를 갖추기 시작했다.²⁾ 이후 전라북도과 전라남도로 행정구역이 분리 되는 1896년(고종32)까지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도의 중심이자 한반도 최대의 곡창지역으로 문화·예술의 수준이 나라의 제일이라는 전주사람의 자부심은 컸다. 전주 부성은 면적이 대략 18만 평으로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읍성이

* 전주전통문화연구소 원장

1) 홍성덕, 「전주의 역사문화 정체성과 전주학 연구」『역사와실학』56(2015), 205쪽.

2) 김순석, 「全羅道 復原監營 활용방안」『지역사회연구』26-1(2018), 206쪽.

고 여기에 자리한 전라 감영은 대략 1만 2,000평³⁾에 중심 건물인 선화당은 건평이 78평⁴⁾으로 큰 건물이었다는 사실과, 제반 경비 부담 때문에 매년 좌절되었던 감사의 감영 유영(留營) 제도를 물산이 풍부한 전라 감영에서 가장 먼저 시행⁵⁾하였다는 사실에서도 기인한다. 여기에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농민군 자치기구인 집강소(執綱所)⁶⁾의 총본부인 대도소(大都所)를 설치하여 민관상화(民官相和)의 협치 경험의 역사적 사실은 ‘저항과 풍류’⁷⁾라는 전주 도시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전라도의 역사문화를 상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전라감영 복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예부터 동학을 기억하고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전주시민의 관심은 남다르다.

2005년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 육성사업 기본구상 모델이후, 2010년 ‘한국관광의 별’ 선정, ‘국제슬로시티’ 지정부터 2016년 세계적인 여행서 ‘론리플래닛’에 아시아 3대 관광명소로 선정⁸⁾ 등으로 주목을 받으며 발전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전주한옥마을이 문화예술관광산업의 성공사례로 지속적 성장을 해갈 수 있을지 모두의 주목을 받기 때문이다.

지역의 정체성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누적된 역사적 경험의 산물로 언제나 현재적 관점에서 새롭게 구성되고 재생산된다.⁹⁾라는 견해에서 전주의 정체성은 전주가 지금까지 쌓아온 역사문화적 특성이며, 현재 전주 시민들에 의해 합의되고 지켜지며 후세에게 전승될 역사문화적 도시의 특성이다.

올해 전주시는 지역관광거점도시¹⁰⁾로 선정되어 글로벌 도시화를 위한 획기적 사고

3) 張明洙, 『城郭發達과 都市計劃 研究- 全州府城을 中心으로』(學研文化史, 1994), 49쪽.

4)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국역전주부사』(신아출판사, 2009), 637쪽.

5) 金泰雄, 「朝鮮後期 監營 財政體系的 成立과 變化-全羅監營 財政을 中心으로-」『歷史教育』89(2001), 164쪽.

6) 집강소(執綱所)는 1894년 음력 5월8일(양력 6월11일, 全州和約 체결)부터 동년 9월12일(양력10월10일, 再起包)이 시기에 존속한 동학 농민군의 자치기구이다. 집강소는 향촌사회에 종래부터 있었던 그 지역의 기강확립을 담당하던 기관이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종래부터 동학교단에도 敎長·敎授·都執·大正·中正이라는 6임제도를 제정하여 포교사업을 하였는데 동학농민전쟁시기에 역시 큰 활약을 하였다. 통상 ‘집강소 설치’라 함은 농민군의 치안기구와 폐정개혁기구에 중점을 두는 시각과 단순히 정부측의 협조기구였다는 쪽에 중점을 두는 시각의 논의가 있다. 그러나 집강의 역할이 조선시대 모든 공식·비공식 조직에 기율(紀律)을 담당하며 조화로운 추구를 이끈 이견이 없다. 대도소(大都所)는 집강소보다 규모가 큰 조직이었다.(김신재, 「집강소의 역할과 성격」 『동학연구』18(2005), 52-62쪽; 김양식, 「동학농민전쟁기 집강소의 위상과 평가」 『역사연구』19(2010), 59-63쪽.)

7) 저항과 풍류의 도시란 말은 소설가 최명희가 전주의 도시적 특성을 표현한 말이다. 전주가 농경문화의 중심으로서 풍부한 물산과 문화적 자산을 갖고 있는 반면, 후백제의 왕도로서 이루지 못한 꿈을 안고 살아온 무화적 이중성을 가진 도시라는 것이다.(원도연, 「전라감영의 도시문화적 의미구성과 복원사업」 『지방사와 지방문화』11-2(2008), 77쪽.)

8) 전주시는 ‘한국관광의 별’이후 한국관광의 으뜸명소 지정(2011), 지방브랜드 세계화사업 시범사업 선정(2012), 국토교통부 대통령업무보고 시 도시재생 모범사례 보고(2013), 한국문화체협의 관광콘텐츠화 대표사례소개<문화융성 방향과 추진, 문체부>(2015),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선정(2015)되었다.(전주시청 내부자료(2019.6))

9) 이지훈, 「경기도 정체성과 경기학의 과제」 『全州學研究』13(2019), 20쪽.

10)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해소하고 방한 관광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관광거점도시 5곳을 선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지역 관광도시를 5년간(‘20~’24년) 새롭게 육성한다. 이에 국제관광도시에 부산광역시, 지역관광거점도시에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 총 5곳을 선정하였다. 전주의 비전은 ‘가장 한국적인 한(韓)문화 거점도시’로 한옥마을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통 문화 브랜드가 가장 확고한 도시로서 내국인 관광이

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올 11월 안에 전라도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전라감영 복원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전주한옥마을을 기반으로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관광의 도시로 재도약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산업의 지평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원된 전라감영을 전주한옥마을 내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아우르는 구심점으로 활용해야 함을 피력하고, 무형의 전라감영 문화는 한옥마을의 울타리를 넘어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연계하는 중심축으로 삼아 지역관광거점도시 전주한옥마을의 위상을 채워갈 수 있도록 전라감영 문화콘텐츠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옥마을 문화관광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민관협치 5집강소(執綱所)[知/味/風/宿/綱] 한옥마을 문화콘텐츠 개발·운영조직을 제안하고자 한다.

시민의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이 서로 협치하고, 문화예술인까지 참여하는 연대의 틀을 집강기구로 공식화하는 전략은 전주문화예술관광의 조직구성과 운영이 동학의 집강소 문화를 재현하였음을 대내외에 알려 그 자체가 문화관광사업의 차별성이 됨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하여 전주한옥마을은 동학의 협치정신을 계승한 명실상부한 주민참여형 문화예술관광 사업의 모범이 되고, 문화유산을 통한 역사교육과 예술인과 함께하는 재미와 한옥체험을 집강의 조직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향후 대한민국의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전주를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전라감영 문화콘텐츠 관련 선행연구에서 주목되는 점은 전라감영 전면 복원과 부분 복원, 전라감영 활용을 두고 복원된 전라감영 자체로 국한할 것인지 감영지(監營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¹¹⁾

본 연구에서는 전라감영 문화 활용으로 넓혀 감영이 존재하였던 전 기간의 문화는 물론 유무형의 전라감영문화를 대상으로 하고, 유형의 건물은 한옥마을 문화관광자원의 구심점으로 삼고 무형의 감영문화는 최소한 전북지역 14개 시군까지 영역을 넓히는 감영문화 콘텐츠 활용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라감영의 수부(首府)인 전주의 고유성이 있는 문화콘텐츠 활용을 위한 전제로 전주 정체성을 전주한옥마을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의 특성으로 살펴보고 민관상화 정신에 입각한 주민참여형 5집강소(執綱所) 문화관광사업 운영조직과 문화콘텐츠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주민은 한옥마을주민만을 특정 하는 개념이 아닌 문화예술인·전문가 집단은 물론 전주한옥마을 문화예술관광 콘텐츠화에 동조하며 기술(記述)할

활성화된 한옥마을의 관광성을 도시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점과 전라북도 내 지자체간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 관광상품을 계획하는 등 지역관광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높게 평가받아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0.1.28.)

11) 원도연, 「전라감영의 도시문화적 의미구성과 복원사업」 『지방사와 지방문화』11-2(2008), 85-93쪽.

집강소 조직에 뜻을 같이하는 광의의 시민이다.

복원된 전라감영을 포함한 유무형의 감영문화자원을 현전하는 전라감사의 기록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라감사의 기록물은 감사들의 일기류와 『전라감영계록』으로 살펴보고, 감사의 공적 직무(執務)를 감영 공문서만을 모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감사 서유구의 『완영일록』내용으로 전라감영 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복원되는 전라 감영의 활용과 전라감영의 역사 문화적 역할에 따른 문화관광 콘텐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조선시대 관청문화가 집약된 전주한옥마을을 6대 한(韓)의 한류 원형 체험지로 극대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전라감영 복원과 전라감사 기록물

1.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전라감영 복원의 의미

문화자원과 문화유산, 문화재와 사적, 관광자원 문화예술인의 개념이 다르지만 잠재적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고, 콘텐츠화가 가능하며 관광의 대상이 되는 것 모두를 아울러 문화관광자원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전라감영 복원은 전주시민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한옥마을 콘텐츠와 연계하여 전라북도 문화관광산업화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원 감영 건축물의 위용에만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감영문화로 한옥마을 콘텐츠를 연계하여 한옥마을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구심점이자 전북지역 문화관광의 연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주한옥마을의 문화관광자원의 특성은 한스타일¹²⁾에 부합하는 한국문화의 원형성을 간직하고 있다.¹³⁾ 이는 1995년에 ‘문화예술관광도시 종합개발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과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도시발전 전략이 수립된 점, 전주의 이미지가 ‘예향’, ‘맛과 멋’, ‘소리’의 고장으로 인식된다는 점, 2007년 전주 방문객을 상대로 조사한 향후 도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전통문화도시와 문화예술도시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¹⁴⁾ 또한 전주는 3한(韓)의 한옥·한식·한지 등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의 먹거리 비빔밥, 한옥마을의 지역적 매력요인을 보완한 신바람 나는 이미지로 포지셔닝(Positioning) 되어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⁵⁾ 여기에 전주한옥마을은 700여 채의 한옥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국내 최대

12) 2005년 문화관광부는 전통문화콘텐츠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해 한국의 대표 국가 브랜드로 한국의 의식주를 기반으로 한글·한식·한복·한옥·한지·한국음악 6개 분야 한(韓)브랜드를 선정했다가 2006년 ‘제1회 한브랜드 박람회’ 개최 직전 브랜드 명칭의 어색함으로 ‘한스타일’로 교체되었다. 김봉석, 「한스타일을 소재로 한 역사 기반의 초등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습자 중심 교과교육연구』16-12(2016), 788쪽.

13) 앞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1.28.)

14) 홍성덕, 「전주의 역사문화 정체성과 전주학 연구」 『역사와실학』56(2015), 213-216쪽.

15) 권기백·김신애·권기대, 앞의 논문, 6쪽.

규모의 전통 한옥촌(韓屋村)이다.

전주한옥마을과 전주시민의 삶과 지향점을 담고 있는 전주한옥마을이라는 장소 정체성¹⁶⁾을 6대 한스타일(K-STYLE)을 활용한 한류문화의 원형을 체험하는 도시 이미지로 강조하고 채워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전주시는 한옥마을 문화관광비전과 운영 조직을 전주의 정체성에 입각하여 구현할 필요가 있다. 곧 한옥마을 주민이 문화예술인과 함께 6대 한스타일을 일상 생활에서 구현하며 살아가는 “한스타일로 다함께 하는 문화예술관광마을”로 한옥마을 문화관광 비전을 설정할 것과, 이러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해갈 조직으로 동학의 집강(執綱)정신을 상징하는 문화콘텐츠 5집강소(執綱所)[知/味/風/宿/綱] 운영 조직을 제도화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5집강소(執綱所) 문화콘텐츠 운영 전략은 전라감영 문화관광자원의 볼거리(知-執綱), 먹을거리(味-執綱), 놀거리(風-執綱), 체험거리(宿-執綱), 그리고 이를 모두 아우르는 총괄 버리(綱-執綱)로 묶어내는 민관상화의 집강조직을 구성하여 한옥마을 문화관광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참여를 구조적으로 제도화하는 강점과 전주 정체성이 문화관광 사업 속에서 발현되는 감영 문화콘텐츠 활용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옥마을에서 다함께 정신으로 주민참여를 조직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장소 정체성의 중요성은 문화자원과 거주공간으로서의 생활적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공공자원의 활용은 공통의 문화적 특성과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율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¹⁷⁾

복원된 전라감영은 건축물의 문화관광 자원성뿐만 아니라 전라감영을 상징하거나 감영에서 일어난 일 또는 감사의 집무(執務)행위나 집무 내용 진상품과 기우제 등까지 유무형의 감영문화 전반으로 문화관광 자원화 해야 한다. 이를테면 국왕과의 부임 직전 사조(辭朝)장면, 망궐례, 관복, 과거시험, 재판, 취점(聚點), 정려(旌閭), 순행(巡行), 포폄(褒貶), 장계(狀啓), 집강(執綱) 등의 내용을 관광객의 요구에 맞게 문화콘텐츠화 하여 문화관광산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6) 송영민의 장소 정체성 구성요소에 의하면 전주한옥마을 장소 정체성은 전주한옥마을의 공간이 시간 속에서 한옥마을 거주자 및 방문자를 만나 그들의 장소가 되고 장소를 인지한 무리가 시간과 공간속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질 때 한옥마을 장소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내방객 및 인지도에 의한 전주한옥마을은 매력 있는 장소 정체성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장소 정체성의 구성요소는 물리적 환경, 인간의 활동, 그리고 의미로서 이 요소들이 시공간적 맥락과 결합하고 변증법적 조합이 이루어질 때 장소 정체성이 형성된다. 공동체가 시간적으로 공유하는 기억과 경험, 사상 등을 바탕으로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공간은 장소가 된다.(송영민, 『문화자원 활용공간의 장소 정체성 강화방안-도시형 한옥마을과 전통마을을 중심으로-』 『한국관광디자인학회논문집』 10-5(2015), 106쪽.)

17) 송영민, 앞의 논문 112쪽.

2.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전라감사 기록물

1) 전라감사 기록물의 최고봉 『완영일록』 가치와 내용

『완영일록』은 조선시대 국왕중심의 통치체제에서 왕명을 받들어 복무한 전라도 관찰사 서유구(徐有榘)가 재임 시기 공문서만을 선별하여 기록한 책이다. 이를 통해 전라도 관찰사의 직무(執務)와 전라도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저자 풍석(楓石) 서유구는 1833년(순조33, 계사) 4월 10일에 전라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도순찰사 전주부윤(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全州府尹)으로 부임하여 이듬해인 1834년(순조34, 갑오) 12월 30일까지 21개월 동안 재임하였다. 그 기간 관찰사로서 56개 고을 수령, 각 군영·진영장, 국왕께 주고받은 공문서 가운데 선별하여 내용을 요약 하여 총 15종 1,071건¹⁸⁾의 공문서들을 날짜별로 정리 기록하여 전 8권으로 엮은 책이 바로『완영일록』이다.

풍석(楓石) 서유구(1764~1845)의 집안과 전라도 지방은 각별한 인연이 있다. 고조부 서문유(徐文裕, 1651~1707), 증조부 서종옥(徐宗玉, 1688~1745), 생부 서호수(徐浩修, 1736~1799)가 모두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서유구는 선비들의 자립적 임원 생활을 위한 백과사전인 113권 52책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저자이기도 하다. 다산 정약용(1762~1836)과 동시대 활동하였고, 다산이 1789(정조13)년 식년문과(式年文科) 갑과(甲科)에 급제한 이듬해인 1790년 증광 문과의 병과에 급제하였다. 방대한 저술가인 서유구는 단순 관료나 실학자로 평가하기보다는 조선 시대 군자의 길을 걸어간 수기치인의 성실한 실천자이자 전통을 중시하는 생태농학자의 표상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선 시대에 552명¹⁹⁾의 전라도 관찰사가 임명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재임 기간 공문서만을 거의 매일 기록하여 전해지는 것은 서유구의 『완영일록』이 유일하며, 현재까지는 조선시대 전 기간 8도 관찰사를 통틀어도 이와 같은 감사 기록은 유일하다. 내용 또한 조선시대 중앙통치체계에서 지방 장관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史料)이다.

『완영일록』은 단순히 어느 특정시기 전라도 관찰사 기록물로서 중요성뿐만 아니라 전라감영 문화콘텐츠 논의의 출발점이며 적어도 전북지역 감영문화 전반을 아우르고 문화콘텐츠화하는 구체적 근거자료이다. 전라감사의 공무 기록은 왕명사신으로 행정·형정·군정권을 갖고 전라도 전역에 왕명을 수행하고 민의를 모은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를 문화콘텐츠화 하는 것은 전라감영이 한옥마을에서 새롭게 문화관광자원의 구심

18) 김순석의 역주, 『완영일록』(흐름, 2018), 14-15쪽.

19) 전라 감사는 고려 시대 71명 조선 시대 552명이 임명되었다. 이는 기존 『全羅道 道 先生案』에 518명이 기록된 것보다 많은 숫자이다. 1895년(고종32) 8월부터 1896년 8월까지 3명의 전주부 관찰사가 임명되었고, 1896년 8월부터 1910년까지는 14명의 전라북도 관찰사와 17명의 전라남도 관찰사가 각각 임명되었다.(전라북도·(사)전북향토문화연구회, 『全羅監司 下』(2008), 620-621쪽.)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어 추후 검토할 과제이다. 이동희는 조선시대 전라감사에 임용된 자는 557명이나 미부임자 80명을 제외하면 전라감영에 부임한 감사는 480명으로 밝힌바 있다.(이동희, 「조선시대 전라감사의 출신 및 임용실태」 『전라감영연구』, 전주역사박물관·전라문화연구소(2008), 90쪽.)

점이자 상징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고 전북문화관광 연결의 중심축이 형성 된다는 것이다.

『완영일록』의 내용은 서유구가 계사년 4월 10일 국왕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부임지로 가기위하여 흥정당(興政堂)에 입시(入侍)하고 친구들과 전별하고 오후에 부임지로 출발하고, 6일 만인 동년 4월 15일에 여산(礪山) 황화정(皇華亭)에서 전임 관찰사 이규현(李奎鉉)과 임무 교대식인 교귀식(交龜式)을 행하고 가장 먼저 도계(到界) 장계(狀啓)를 국왕에게 올리는 것으로 시작한다.²⁰⁾

전주만의 특성이 반영된 조경묘, 경기전의 봉심시기와 절차 등 관찰사 공무 전반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일기이다. 감사로 제수되어 부임과정까지 절차와 행로는 물론 단오절 부채 진상은 전주 뿐 아니라 나주·광주·남원·순천·담양·장성·영광·순창 등 여러 고을에서 진상했다는 사실도 엿볼 수 있고²¹⁾, 최치원의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을 간행하여 한 질을 영영(嶺營)에 보내어 합천 해인사에 보관하게하고 또 한 질을 태인현(泰仁縣) 무성서원(武城書院)에 보내며, 원록(院錄)에 재록(載錄)하고 착실히 보관하여 함부로 출납하여 손상되거나 잃어버리지 말라는 관문²²⁾을 보낸 일로『계원필경집』의 보관 경로도 알 수 있다.

『완영일록』의 기록을 통하여 조선 후기 직계아문의 외직인 관찰사의 역할과 이에 따른 국왕 및 수령과 주고받은 문서식과²³⁾ 지방 수령에게 전달되는 체계를 소상히 알 수 있고, 관찰사의 사법행위 범위와 절차까지도 알 수 있는 기록물이다. 이러한 관찰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살육사건·교귀식·연명식·출판문화·감사집무 등에 대한 연구²⁴⁾가 진행되어 전라감영 문화콘텐츠 활용 가능성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시대 552명이 임명된 전라감사 가운데 현재 전라감사 집무 관련 기록물이 전하는 것은 12명이고 도사(都事) 1명의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완영일록』같이 21개월 재임 전 기간을 공문서만을 선별·필사하여 전라감영의 다양한 현안을 기록한 예는 없다. 현재 전해지는 감사들의 기록은 기간이 산발적이고 신변잡기가 섞이기도 하고 재임 기간 국왕께 올리는 장계문서 1종류만 기록된 것이다. 따라서 『완영일록』은 살육송사, 환곡정책, 우택, 농형, 제방, 우역, 군역점고, 과거시험, 효열정려, 수령 포폄, 절기제례, 망궐례, 순행, 출판, 진상, 방역, 소나무·술빚기·도축 금지 등 전라감영 문화 전반과 당대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전라감사 기록물의 최고봉이며 나아가

20) 김순석, 「『完營日錄』 國譯 研究」(조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10쪽.

21) 『완영일록』, 갑오 2월 3일.

22) 『완영일록』, 갑오 10월 30일.

23) 김순석, 「『완영일록』을 통해 본 전라도관찰사의 공문서 유형과 문서식」 『지역사회연구』22-3(2014).

24) 김선경, 「1833년~34년 전라도 지역의 살육 사건과 심리 : 『완영일록』의 분석」 『歷史教育』122(2012); 배경옥, 「『완영일록』으로 본 전라감사 서유구의 교유서와 교귀·연명」 『全北史學』56(2019); 배경옥, 「『鑲板考』의 評論과『完營日錄』의 農政에 나타난 서유구의 실학적 측면」 『全北史學』49(2016); 김현영, 「완영일록」을 통해 본 전라감영의 구조」 『전라감영연구』(전주역사박물관·전라문화연구소, 2008); 이해령, 「서유구의『완영일록(完營日錄)』과 검안처리 업무」(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여상진, 「『完營日錄』에 나타난 19C초 전라감사의 집무와 전주부 관영시설 이용」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2(2010); 孫炳圭, 「徐有矩의 賑恤政策 : 『完營日錄』·『華營日錄』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42(2003)

현전 조선시대 8도 감사들의 기록물과 비교해도 최상급이라 할 수 있다.

『완영일록』은 관찬(官撰) 사료(史料)는 아니지만 여러 정황으로 전라도 관찰사의 공식 업무와 문서를 필사한 기록이기 때문에 등재된 문서는 전라도 관찰사의 공문서라 할 수 있다. 『완영일록』 전 8권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 보관되어 있다. 서유구가 만년에 번계(樊溪 현 서울 도봉구 번동)에서 살았을 당시의 서재(書齋)명 자연경실장(自然經室藏)이 판심 하단에 새겨져 있다.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이 2002년 4월에 3책 1질로 영인(影印)하였다.

2) 현존 전라감사 집무 관련 기록물 소개

조선시대 전라감사 가운데 현재 전라감영 관련 기록물이 전하는 것은 감사 4명의 일기류와 감사 8명의 계록(啓錄)과 도사(都事)²⁵⁾ 1명의 일기가 <표-1> 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전라도 감사에 의한 행정업무 일기류는 감사의 집무 과정을 소상히 알 수 있고, 감사 개인의 신변잡기적 일기류 또한 당시의 사회상과 감영 시설 활용 예를 파악하게 함은 물론 사대부 문화 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감영 문화콘텐츠 개발에 많은 정보를 준다. 그러므로 도시의 정체성과 도시문화관광을 위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보고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1>. 현존 전라감사 집무 관련 기록물

이름	기록물 명	기록시기	특징		
全 羅 監 司 日 記	柳希春	『眉巖日記』	1571(선조4).4-10(7개월)	종합生活, 가장방대하고 솔직한 개인 일기, 보물 제260호. 전라 감사 재임기의 내용이 간략이 기술되어 있음. 『미암집』으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2013년 번역 출간됨.	
	李錫杓	『湖南日記』	1750(영조26).5-1751(영조27).1(8개월)	개별仕宦, 부임시 교귀 의례와 망하례(망궐례) 의장(儀仗)정황을 자세히 기록. 사후에도 15일간 기록됨.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	
	李相瓚	『湖南日記』	1810(순조10).7-1812(순조12).3(20개월 13일)	개별仕宦, 여러사람이 필사함. 감사 업무 전반을 살필 수 있으나 공문서 양식은 많지 않음. 3월 윤달 기록.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	
	徐有渠	『完營日錄』	1833(순조33). 4-1834(순조34).12(21개월)	개별仕宦. 관아일지에 가깝게 21개월 재임 시 거의 매일 사적인 내용 없이 공문서만을 취사선택하여 15종 1,071건으로 기록한 감영 기록의 독보적 기록물. 풍석 총서 번역서로 흐름출판사에서 2018년에 출간됨.	
都事 李 煒	『卑牧齋日記』	1780(정조11).8-12(5개월)	종합生活, 감사(監司)아닌 도사(都事)의 기록. 개인 소장.		
【全 羅 監 司	趙寅永	『全羅監營啓錄』	1829(순조29).8-11(4개월)	책1 원문은 필사본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보관(奎15095-v.1-7) 되어있는 『전라감사계록』 7책, 1질로 구성되어 있다. 전라북도과 전주시에서 2018년부터 번역 사업 진행 중.	
	金景善	『各道啓錄』	1 8 4 5 (현 중 11).7-12(6개월)		책2
	洪義錫	『各道啓錄』	1847(헌종13). 3-5(3개월)		책3
	南秉哲	『全羅監營啓錄』	1849(헌종15). 1-7(7개월)		책4

25) 도사(都事)는 종5품관으로 관찰사의 다음가는 위치로 수석보좌관 역할을 한다.

啓 錄	鄭基世	『全羅監營啓錄』	1854(철종5).2~1855.2.(12개월)	책5	조선시대 감사(監司)는 왕명을 전달하고 수령 칠사(七事)를 감독하며 일 년에 두 번 포폄(褒貶)하였다. 또한 살육사건은 반드시 관찰사가 심리를 하여 국왕에게 보고하였기 때문에 판결의 내용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 포폄장계, 살육사건 심리 내용, 농형(農形)상황과 관할 각 읍진(邑鎭)에서 보내 온 첩정(牒呈)을 종합하여 상계(上啓)한 것과 비변사(備邊司)·의정부(議政府) 등 중앙관청의 지시에 대한 시행 사항을 보고한 것이 감사기록 내용의 대부분이다.
	鄭範朝	『全羅監營啓錄』	1876(고종13).2-7(6개월)	책6	
	尹榮信 · 李憲植	『全羅監營啓錄』	1885(고종22).4-1887.3. 1887.4~1889(고종26).4.	책7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목재 일기 1책은 도사의 기록이고, 소유도 개인이 갖고 있어 원문을 접하기가 어려웠으나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에 원문정보 서비스가 되고 있으나 아직 자세히 살펴보지 못 하였다.

일기류 가운데 『완영일록』은 앞에서 언급하였고 나머지 일기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희춘(柳希春)의 『미암일기(眉巖日記)』 : 유희춘(1513~1577)이 해배(解配)되어 조정에 출사한 1567년(중종 8) 10월 1일부터 1577년(선조 10) 5월 13일까지 약 11년간의 자필일기 이다.²⁶⁾ 이 일기는 개인 일기로는 가장 방대한 것으로 미암의 유배생활을 엿볼 수 있고, 조선 선비가의 생활 규범과 관료의 집무 등을 엿 볼 수 있음은 물론, 문학적·역사적·정치사적 등의 가치가 있어 보물 제260호로 지정되어있고 관련 연구 또한 많다. 그러나 여기서 살펴볼 대상은 유희춘이 전라감사로 재직하던 7개월의 기간으로 1571년(58세) 4월 도임(到任)때부터 당해 10월까지이다. 유희춘은 1571년(신미(辛未)) 2월 11일에 전라감사로 제수(除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3월 4일에 숙배례를 하고 4월에 감사(監司)가 되었다는 고유례를 하는 내용만 있고 특별히 감사의 도계(到界)·부임(赴任)의 행례(行禮)과정은 없다. 그럼에도 일기의 생명인 자신의 솔직한 감정표현²⁷⁾이 가장 잘되었다고 평가받으며 실록 봉안행례²⁸⁾와 사사(四使, 병사·좌수사·우수사·관찰사)가 모여 수령들을 포폄(褒貶)하는 모습²⁹⁾ 등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26) 宋幸鏞, 『『眉巖日記』의 書誌와 史料的 價値』, 『退溪學研究』12(1998), 117~151쪽.

27) 8월22일, 이달 14일자 인사행정에서 정언신(鄭彦信)이 본도의 도사(都事)가 되었다. 듣고 기뻐서 잠이 오지 않는다.(八月二十二日 今月十四日政 鄭彦信爲本道都事 聞之喜而不寐)

28) (初十日 卯時 余率都事 守令 以迎實錄 詣五里亭近處裴貴仁妻家暫歇 聞奉安使到皇華亭 辰時 出待五里亭幕下 改服朝服 巳初雨止 實錄擔舁來到 監司以下鞠躬祇迎 自下先騎馬而行 監司最後 以近實錄爲首也 入大廳之庭 以雨濕 諸官員依中間簷下而立 實錄四櫃之來 皆祇迎奉安 使立于東階下 監司以下行四拜禮 禮畢 余歸西軒)

29) 7월 28일. 오시 초에 4사(使 병사·좌수사·우수사·관찰사)가 희경루(喜景樓)에 모였다.……두 수사가 첨사(僉使)와 만호(萬戶)의 포폄을 논의했는데, 우수사는 목포(木浦)를 토(土 5등)로 삼고 어란진(於蘭鎭)을 수(水 3등)로 삼았다. 나는 임치진(臨淄鎭)이 군졸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어 또한 토(土)로 삼으려 했는데 좌수사는 여도(呂島)를 토로 삼았다. 두 수사가 물러간 뒤에 병사와 마주하여 수령들의 포폄을 논의했는데, 순창을 내가 토로 삼으려 하자 도사(都事)와 병사(兵使)는 수가 합당하다고 했다.(『미암집 9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 종합 DB)

(2) 이석표(李錫杓)의 『호남일기(湖南日記)』: 이석표(1704~1751)가 전라감사 재임기간인 1750년(영조 26) 5월부터 1751년(영조 27) 1월까지 8개월간의 일기이나 기록한 사람은 미상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있다.

1750년 5월 26일부터 1751년 1월 27일까지 날짜와 날씨의 변화 및 그 날의 업무가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주변 인사들의 문안인사나 의례거행 과정 등의 일이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고, 부임과 망하례 의식을 보면 의장(儀仗) 등을 자세히 엿볼 수 있다.

5월 26일에 은진(恩津)으로부터 임지로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가 여산(礪山) 황화정(皇華亭)에 도착해 보니 이미 전임감사가 도착해 있었고, 인부(印符) 등을 넘겨받고, 전주(全州) 오리정(五里程)에 도착했을 때는 남원 신부사(南原新府使), 용안 현감(龍安縣監) 및 하리(下吏) 등이 나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함께 객사(客舍)로 가는 부임과 망하례에서 의례의 정황과 의장품 등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했다.

이 일기는 이석표가 죽은 뒤 장례절차 일부까지 기록으로 남아있어 이석표를 가까이서 보좌한 사람이 그의 전라감사 생활을 모두 글로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부임 초반의 의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기록해 둔 것이 특징이고, 망하례[망궐례] 정황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이석표의 일기는 감사직을 수행하다가 부임지에서 사망한 관직자의 기록으로 당시 전라감사와 관내 수령과의 관계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3) 이상황(李相瓚)의 『호남일기(湖南日記)』: 이상황(李相瓚, 1763-1841)이 1810년(순조 10) 6월 23일 전라도관찰사가된 이후 7월 27일부터 1812년 3월 9일까지 1810년 3월 윤달이 있어 20개월간을 기록한 관직일지이다. 업무는 대체로 간결하게 기록하였고, 그 날의 공사(公事) 수효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있다.

이상황의 전라도관찰사 일기는 20개월의 재임 간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적고 있는데, 날짜, 날씨, 시간 순으로 수행한 업무를 기록해 놓았다. 그러나 공문서 몇 건을 처리하였다고 매일 자세히 적어놓았으나 21개월간 재임한 서유구의 관찰사 일상과 관문서 모음 기록인『완영일록』과는 달리 구체적 내용은 없고 여러 사람의 필체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찰사로서 그날의 업무를 처리한 결과를 기록한 일지(日誌)적 성격이 강하다. 이는 미암처럼 개인사를 위한 일기와도 다르다.

전라감사 이상황이 부임 첫날인 7월 27일과 다음날 28일 일기에 여산에서 전주부로 들어가는 과정과 망궐례를 행한 기록을 보면 여산 동헌에서 교귀식을 하고 표의를 입고 화살통을 차고 나팔을 3번 불게 한 다음 풍남문 밖에 도착하여 조경묘와 경기전을 거쳐 선화당으로 들어갔고 다음날 흑관대를 차고 견여로 객사로 가서 망궐례를 행했음을 볼 수 있다.³⁰⁾

(4) 이위(李煒)의 『비목재일기(卑牧齋日記)』: 호가 비목재인 이위(李煒, 1716~1797)가

30) 1810년 7월 28일. 맑음. 아침에 여산부사가 문안하고 하직하고 나갔다. 3번 나팔을 불게 한 뒤에 출발하여 삼례에 도착하니 전주판관 이현수가 지경공문(地境公文)과 척독(尺牘)을 올렸다.

과거시험 합격 과정부터 관직에 처음 진출한 이후 관직 생활과 관련된 내용 및 일상을 기록한 일기이다.

이위는 1780년(정조 11) 8월부터 동년 12월 까지 전라도 도사(全羅道都事)를 역임하였다. 당시 전라감사는 서유린(徐有隣, 1738~1802)으로 1779년(정조 3) 11월~1781년(정조 5) 4월까지 17개월간 전라감사로 재임하였다. 이 일기는 후손들에 의해서 소장되어 연구³¹⁾되다가 최근에 국립중앙도서관 아카이브로 원문 공개되어 있다.

(5) 『전라감사계록(全羅監司啓錄)』³²⁾ : 1829년(순조29)부터 1889년(고종26)까지의 감사의 계문을 수록한 7권의 책으로, 1829년 8월부터 1889년 4월 사이에 전라감사가 올린 장계(狀啓)를 비변사(1864년 이후는 의정부)에서 기록한 책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奎15095-v.1-7)

내용은 전라감영 관할의 각 읍진(邑鎭)에서 보내 온 첩정(牒呈)을 종합하여 상계(上啓)한 것과 비변사(備邊司)·의정부(議政府) 등 중앙관청의 지시에 대한 시행 사항을 보고한 것이 대부분이다. 곧 장계, 첩정, 관문, 살육 사건의 제송(題訟) 등을 통하여 감사의 보고 내용, 국왕의 전달 사항, 농형을 포함한 전라도 지방민의 당시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³³⁾ 조선후기 지방행정 및 전라도 생활 문화콘텐츠 연구의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표제(表題)가 제1·4·5·6·7책은『전라감영계록(全羅監營啓錄)』이고 제2·3책은『각도계록(各道啓錄)』으로 되어있다. 책별 내제(內題)와 수록연대는 다음과 같다. 제1책-전라감사 조인영(趙寅永) 계록(제2권), 1829년(순조29) 8월~11월; 제2책-전라감사 김경선(金景善) 계록 제5권, 1845년(헌종11) 7월~12월; 제3책-전라감사 홍희석(洪羲錫) 계록 제1권, 1847년(헌종13) 3월~5월; 제4책-전라감사 남병철(南秉哲) 계록 제1권, 1849년(헌종15) 1월~7월; 제5책-전라감사 정기세(鄭基世) 계록 제1권, 1854년(철종 5) 2월~1855년 2월; 제6책-전라감사 정범조(鄭範朝) 계록 제1권, 1876년(고종 13) 2월~7월<정범조는 정기세의 아들이다.>; 제7책-전라감사 윤영신(尹榮信)·이헌직(李憲植), 1885년(고종 22) 4월~1889년(고종26) 4월이다.

III 전주한옥마을 연도별 방문객 현황분석과 문화관광자원 활용전략

1. 전주한옥마을 연도별 방문객 현황분석

2005년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 육성사업 기본구상 모델이후 2006년 대통령자문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마을’로 선정한 이후부터 2019년까지 한옥마을 방문객은 전체

31) 현재 소개된 자료는『비목재일기(卑牧齋日記)』(이두희·이충구 공역, 전통문화연구회, 2000) 번역책과, 김의환·이근호, 「이위의 생애와 『비목재일기(卑牧齋日記)』의 사료적 가치」 『한국사학보』19(2005). 등이 있다.

32) 규장각 원문 검색서비스, 서지정보.(<http://kyudb.snu.ac.kr/book/view.do>)

33) 김순석의 역주, 『전라감사계록1』전라북도·전주시·(사)완산역사문화연구회(2019), 14쪽.

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방문객 현황분석 자료의 의미는 전주한옥마을을 문화관광마을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저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6대 한(韓)을 중심으로 한 한류원형 체험지로 특화시키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2>는 연도별 방문객 현황을 나타내고 <표-3>은 2018년과 2019년도 방문객 현황을 나타낸다.³⁴⁾

연도별 현황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세월호 침몰 여파로 국내 관광이 늘어 2015년 전년 대비 약 60% 증가율을 보이면서 급기야 1,000만 방문객 시대를 열었다. 2018년까지 1,000만 관광객의 특수를 이어가다 예상보다 재방문율이 낮고 경기 침체와 더불어 2019년에는 1,000만 방문객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방문객은 2013년 23만 명이었던가 줄어들어 최근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14만 명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의 방문객이 매우 저조함에도 1,000만 방문객을 4년여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국인에게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외국인의 방문율이 낮은 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표-2>. 한옥마을 연도별 방문객 현황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023	1,095	1,306	2,848	3,500	4,092	4,930	5,080	5,928	9,458	10,648	11,097	10,540	6,445
내국인	미구분			2,759	3,424	3,988	4,718	4,850	5,783	9,362	10,508	11,097	10,403	6,345
외국인				89	76	104	212	230	145	96	140	112	137	100
증가율		7.0%	19.3%	118.1%	22.9%	16.9%	20.5%	3.04%	16.6%	59.5%	12.5%	4.2%	△5%	8월 기준

2018년과 2019년도 방문객 현황을 비교하면 <표-3>과 같이 내국인 방문객은 2018년 대비 1분기 감소를 보이다가 4월부터 증가하다가 7월 하반기부터 다시 큰폭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방문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한옥마을 방문객 현황 비교(2018~2019)

구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증감 비교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합계	6,864,734	6,778,910	85,824	6,444,619	6,345,116	99,503	-420,115(-6.1)	-433,794(-6.4)	13,679(15.9)
1월	847,958	841,139	6,819	739,691	732,576	7,115	-108,267(-12.8)	-108,563(-12.9)	296(4.3)
2월	892,251	884,986	7,265	813,659	804,166	9,493	-78,592(-8.8)	-80,820(-9.1)	2,228(30.7)
3월	1,006,013	995,059	10,954	798,283	785,729	12,554	-207,730(-20.6)	-209,330(-21)	1,600(14.6)
4월	785,730	772,869	12,861	854,460	839,347	15,113	78,730(10)	76,478(9.9)	2,252(17.5)
5월	999,820	987,453	12,367	1,135,692	1,122,494	13,198	135,872(13.6)	135,041(13.7)	831(6.7)
6월	772,870	762,519	10,351	799,651	784,594	15,057	26,781(3.5)	22,075(2.9)	4,706(45.5)
7월	713,432	700,006	13,426	577,706	564,758	12,948	-135,726(-19)	-135,248(-19.3)	-478(-3.6)
8월	846,660	834,879	11,781	725,477	711,452	14,025	-121,184(-14.3)	-123,428(-14.8)	2,244(19)

2018년 대비 2019년 방문객 현황 상세 분석의 특징은 전주한옥마을은 세대 간, 도 내외 간, 남녀 간의 방문 비율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폭넓게 층을 형성하고 있어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문화관광지로의 개발 발전 가능성도 보여 주고 있다.

34) 전주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2018년 대비 2019년 한옥마을 방문객 현황을 상세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연령별 분석에서는 20대가 약 20%로 가장 많았고 1%의 차이를 보이며 40대가 뒤를 이었고 가장 낮은 방문객은 60대로 나타났으나 20대와 60대의 차이는 5% 차이밖에 나지 않아 전주한옥마을은 방문객의 연령대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오히려 세대를 아우르는 관광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8년 대비 19년에 방문객 중 가장 많이 감소한 연령층이 20대로 13.1%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 가장 낮은 방문율을 보인 60대는 3.9%의 방문 증가율을 보였다.

20대 (19.8%) > 40대(19.7%) > 30대(18.9%) > 50대(16.5%) > 60대이상(14.7%)
 - 18년 대비 20대-13.1%, 30대-12.6%, 40대 5.3% 감소 / 60대이상 3.9% 증가

2) 성별 분석에서는 예상과 달리 전체적으로 남성 방문객이 여성보다 근소하게 (2.6%) 많았고, 남성은 40대(20.6%), 여성은 20대(21.8%)가 방문율이 높았다. 이는 전주한옥마을 방문객 중 돈을 쓸 수 있는 40대 남성과 패션과 디지털에 강한 20대 여성의 방문율이 높다는 것은 문화관광지의 매력이 많음을 상징한다고 여겨진다.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여성 방문객은 증가한 반면 남성 방문객은 감소하였다.

여성 48.7%, 남성 51.3% / 여성 비율 증가, 남성 비율 감소
 -(남성) 40대(20.6%)>30대(19.5%)>20대(18%)>50대(17.4%)/ 20대 15.1%, 30대 14.9% 감소
 -(여성) 20대(21.8%)>40대(18.6%)>30대(18.2%)>50대(15.6%)/20대 11.4%, 30대 9.9% 감소

한편, 2015년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자료에 의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34.6%)이 남성(24.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30,40대 매출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형성되었고,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노년층이 한옥마을의 관광소비문화에 동화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는 견해³⁵⁾도 있다.

2015년 대비 2019년 방문객 현황은 시사하는 바는 한옥마을 전체 방문객 수가 여성보다 남성이 많게 역전된 사실과 여성 20대 방문비율이 남성 40대 방문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여전히 비교적 생활이 안정된 장노년층의 방문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에서 한옥마을 문화관광전략은 젊은 20,30대 여성 방문객을 다시 늘리고 소비력 있는 50,60대 남성을 한옥마을로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콘텐츠개발과 문화예술관광지 한옥마을의 차별적 마케팅과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 유입지별 분석에서는 도내가 수도권보다 약간(2.3%) 많았다.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대세는 변함이 없으나 수도권 방문객이 증가세를 보여 전주한옥마을이 지역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고무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도내 (2,197,114명/34.6%) > 수도권 (경기·서울·인천 2,049,357명/32.3%)
 - 18년 대비 도내 방문비율 감소 36% → 34.6%, 수도권 비중 증가 30.9%→32.3%

4) 외국인 분석에서는 중국이 2위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방문객이 많았다. 앞으로도 중국 방문객의 증가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35) 진혜련·김경미, 「지역아이덴티티 강화를 위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전주한옥마을 문화관광상품을 중심으로-」46(2016), 95쪽.

중국(43%) > 일본(14%) > 미국(7%) > 대만(4%) > 태국(4%)
 - 18년 대비 15.9% 증가, 중국(4,824명 ↑), 일본(4,361명 ↑), 미국(255명 ↑), 대만(585명 ↑)

2. 전주한옥마을 문화관광자원 활용전략

방문객은 늘어나는데 정작 주민들은 전통문화, 역사예술, 천년 고도의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려 오래 살수록 소외되는 느낌이 있다. 그러므로 한옥마을의 문화관광 운영 전략은 마을에서, 어떻게 거주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그 많은 문화예술인과 일상에서 교류하며 경제적 부가가치를 누리는 매력적인 마을로 자리매김 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전통문화 관광도시 전주한옥마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비전은 무엇인가? “전주만의 독특함을 유지해가며 살아가는데 그 일상이 남들에게 닮고 싶은 문화관광자원이고, 이런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으로 설정하면 어떨까. 그 독특함이 전통의 맛이고, 전주의 멋이고, 한국문화의 원형성이 된다고 보기에 이러한 비전을 전제로 한옥마을 문화관광자원 활용전략이 세워져야 한다.

전주한옥마을 문화유적 현황은 현재 <표-4>와 같이 국가 지정 5종, 전라북도 지정 3종이고, 문화거점시설은 26개소, 주차장은 18개소 3,284면, 업체수는 575개소[숙박(203), 식음료(183), 판매 및 대여(189)]이다.³⁶⁾

<표-4>. 한옥마을 문화유적 현황

문화유적 명	내용
조선태조어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보 제317호 •조선태조어진(태조 이성계)은 1872년(고종9년)에 제작(어진박물관)
전주 경기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적 제339호 •조선 태조의 어진을 모시기 위해 태종10년(1410년)에 지어진 건물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 경기전 정전 보물 제1578호 ▶ 조경묘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호 ▶ 전주 경기전 하마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22호
전주 전통성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적 제288호 •1791년 한국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과 권상연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세워진 성당
전주향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물 제931호 •공자를 비롯 안자, 자사, 증자, 맹자 등 다섯 성인의 위패와 우리나라 동방18현의 신위가 모셔져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향교 대성전 보물 제1578호
전주 풍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물 제308호 •전주부성 4대문 중 남문으로 호남 제일성으로 불려짐
오목대 이목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기념물 제16호 •오목대는 태조 이성계가 남원 황산의 왜구를 정벌하고, 승리의 전고를 울리며 개선하여 개경으로 돌아갈 때 야연을 베풀. •이목대는 이성계의 5대 할아버지인 목조 이안사의 출생지로 전해지는 곳임.
한 벽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5호 •전주8경중(寒碧晴樓) 하나로 조선시대에 지은 건물.
학 인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8호 •조선말 한국전통 건축기술을 전승받아 지은 건물

여기에 2019년 말에 전라감영 복원 준공이 추가되면, 감영문화로 불리는 감영관련 기록과 감영에서 행해졌던 재판, 출판, 음식, 집강소, 의례, 관복, 건축, 진상품, 각 시

36) 전주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군과의 교류 등이 구체적으로 재현될 수 있는 연결 콘텐츠들이 한옥마을 문화관광자원으로 추가됨을 의미한다.

한옥마을 내 문화유적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 자원은 반드시 마을을 가꾸는 주체적 집단이 드러나야 하고 문화관광자원의 구심점이 형성되어야 한다. 곧 한옥마을 거주민을 포함한 전주시민의 참여와 문화예술인의 참여공간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전라감영 복원의 의미는 건축과 공간의 유형적 의미만이 아니라 조선시대 논, 밭의 생산물이 중시된 농업사회에서 논이 가장 많았던 전라도의 왕명 사신이 중앙통치조직의 일원으로 집무한 역사 문화적 공간을 소환해내는 일이다. 그 뿐만 아니라 조선 초 이래로 600여 년 동안 장소를 공유하고 기억하는 현재의 사람들이, 552명의 관찰사와 당대의 사람들의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 매개체를 확보하는 매우 극적인 일이다.

따라서 한옥마을 내 유형의 전라감영 건물이나 감영 기록물만을 문화관광자원으로 인식하여서는 안 된다. 행정·군정·형정을 갖고 조선의 중앙집권체제를 유지 했던 감사의 모든 유무형 활동을 찾아내고, 공간적으로는 전북 14개 시군 지역까지 연결해내는 전라감영 문화관광 자원화가 필요하다.

한옥마을 문화관광자원 활용 전략은 “관청문화가 살아있는 6대 한류 원형 체험의 장”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슬로건은 “U FEEL K-STYLE JEONJU/한류는 전주에서 느낀다.”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문화예술인의 참여 방식은 기존의 전주산조예술제³⁷⁾를 통하여 드러났듯이, 문화예술인들이 한옥마을 공간 활용과 문화예술인들의 목표³⁸⁾에 치우친 경험을 극복하고 다시 새롭게 재편되는 한옥마을 주민참여 집강소 운영자로서 연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문화예술인이 한옥마을에서 추구한 목표가 마을주민과는 시도해보지도 못 한 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떠난 공백을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문화예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주민주도 문화사업에 초청하고, 문화예술인은 한옥마을 문화관광자원의 폭을 넓히고 지역관광거점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주체세력으로 주민공동체와 결합한다면 한옥마을을 가꾸는 주체가 기능적 전문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문화자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주한옥마을의 모든 문화관광의 상징적 구심점을 전라감영문화로 설정하여 감영과 관청 문화를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느낄 수 있는 체험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풍남문>>조경묘>>경기전>>선화당>>객사>>동헌>>향교>>오목대>>오목대>>

37) 전주산조예술제는 전주한옥마을에서 ‘산조정신’을 화두로 순수 민간문화예술인들이 당시 전주 “다문 찾집”을 중심으로 1999년 전조선조페스티벌이란 명칭으로 시작하여 6회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큰 반향을 일으킨 축제가 중단된 주요 원인으로 ‘전주의 산조’와 ‘한국의 산조’에 대한 내부 분열이라고 밝히고 있다.(박흥주, 「전주한옥마을 살리기 전략으로서의 축제, 그리고 그 역할 전주산조예술제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54(2011), 200-215쪽.

38) 전주한옥마을이 주거지에서 관광지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결사체의 네 유형(거주정치, 문화정치, 이해의 정치, 공동체의 정치)으로 분류했을 때,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며 전주한옥마을 안에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한 것을 ‘문화정치’로 표현한 바와 같은 의미이다.(진명숙, 「전주한옥마을 관광화와 결사체 정치」 『비교민속학』63(2017), 188쪽.

승암산으로 이어지는 전라감사 부임길 루트를 조선 왕실 관청문화 콘텐츠로 화려하게 부각시키고 이를 위해 감영과 동헌의 의장기, 군물, 관복 등의 활용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도시 구성원이 역사적 건물과 공간과 사건을 기억해내는 작업은 현재 구성원 집단의 삶의 방향에도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도시의 정체성은 그 도시의 역사문화가 강력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감영은 실질적 왕권의 상징이었고 전라도의 중심지역으로 기능하며 그 지역민의 모든 삶을 관장하며 감사가 거주하며 국왕께 보고하던 정청(政廳)이다. 그러므로 감영이 있었던 곳은 감사들의 기록물과 감영 문화를 구심점으로 문화콘텐츠를 채워나갈 때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역사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전라감영 문화가 세대 간 지역 간 소통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감영문화 학술연구를 제도화하고 최소한 전북지역 14개 시군과 연대하는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

IV. 전라감영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문화콘텐츠는 무엇이며 누구를 위하여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시작되는가?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집단을 이루며 사는 모든 공동체는 그 집단과 개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시간과 공간속에서 모든 유무형의 옛 것을 돌아보고 지금의 위치와 미래의 꿈을 여러 각도로 분석하여 시행한다. 이러한 행위가 소위 문화콘텐츠 발굴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전라감영의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활용하여 전주정체성을 한옥마을과 전북지역에 실감나게 느끼게 하고, 전주만의 고유한 문화와 정신을 남들이 닮고 싶어 전주를 찾아오게 하고자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한다.

문화콘텐츠란 “인간 삶의 질적 가치의 제고를 위하여 문화적 전통과 현상을 특정한 매개체를 통하여 현대화[동시대화]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³⁹⁾되기도 한다. 이는 유무형의 옛 것을 현재 사람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하여 어떤 촉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좋은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콘텐츠화를 위한 촉매이며 그 만큼 모든 것이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5년 지역특화 문화콘텐츠를 ‘지역(행정구역, 문화권)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소재로 지역에서 개발(제작)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문화콘텐츠’⁴⁰⁾로 규정하며 지역특화 콘텐츠의 발굴, 육성과 지역 콘텐츠산업 성장을 지원하여 문화콘텐츠를 부가가치 측면에 방점을 두었다.

39) 임대근, 「문화콘텐츠 개념 再論」 『글로벌 창의 문화연구』, 4(2014), 19쪽.

40) <http://www.kocca.kr/cop/pims/view.do?intcNo=115C802001&menuNo=200828>

전라도 수부(首府)였던 전주 시민은 전라도의 으뜸 시민으로 전라문화의 부흥에 앞장서왔던 주체라는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공간으로 전라감영을 활용하여야 하고, 한옥 마을을 넘어 전북 14개 시군까지 아울러야 한다.

또한 유적지와 기록물, 복원되는 유형은 물론 무형의 제례·풍악 등 풍속문화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 자체가 전라감영 문화콘텐츠를 채워가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감영 자체에서 전라도 감영 문화로 시각을 확대하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는 연구⁴¹⁾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전라감영 문화콘텐츠 개념은 광의적이고 부가가치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먼저 전주시민과 전주의 장점인 많은 문화예술인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고, 전주 정체성이 내포되어 있는 동학의 집강소 문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감영문화 콘텐츠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

전라감영 문화콘텐츠 활용 운영전략은 민관 협치의 표상인 집강문화를 재현하는 민관상화(民官相和)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전주문화관광 콘텐츠의 활용 기저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저항과 풍류라는 전주의 도시 정체성은 정신적으로는 조화로움을 지향하고 현실속에서는 주민참여를 요구하듯이, 전주시민의 고유성은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만 끝까지 함께하며 끝내 의로움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전주시민의 고유성을 시민과 행정이 협치하는 틀을 제도화 하여 전라감영 문화를 구심점으로 전주한옥마을 문화관광산업을 주도하게 한다면 그 자체가 모범적 주민참여형 도시문화관광 운영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이때의 주민은 그 지역의 거주민만을 지칭하지 않고 전주한옥마을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운영에 동참하는 시민, 문화예술인, 관련 전문가그룹 모두가 해당된다.

민관상화(民官相和)의 제도적 틀은 <표-5>와 같이 5집강소(執綱所)(知/味/風/宿/綱)조직으로 분류하여 만들어 낸다. 곧 볼거리로 지집강(知執綱), 먹을거리로 미집강(味執綱), 놀거리로 풍집강(風執綱), 체험거리로 숙집강(宿執綱), 문화관광자원을 총괄하고 융합하는 조직으로 강집강(綱執綱)으로 분류하여 6대 한스타일의 강점이 있는 전주를 한류의 원형 체험장으로 자리매김 하는 민관상화 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선도한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집강별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5> 전주한옥마을 5집강소(執綱所)운영 문화콘텐츠 활용(안)

집강 문화 조직	콘텐츠 개발 운영 대상	문화콘텐츠 활용
거주민, 전문가그룹,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5집강소(執綱所) 볼거리 운영	전라감영 문화와 전주한옥마을 문화자원 기반 “한스타일로 다함께 하는 문화관광전주”	6대 한(韓) 한류원형을 느끼는 전주 “U FEEL K-STYLE JEONJU”
	지적 자원 문화콘텐츠	- 전라감영 및 전주관련 기록물은 전시와 디지털 아카이브로 제

41) 석대권, 「감영문화의 종합성과 문화콘텐츠활용」, 지방사와 지방문화, 12(1), 2009, 212쪽.

<p>지(知) 집강소(執綱所)</p>	<p>활용을 위한 민관(民官) 조직을 구성하여 유형·무형의 콘텐츠를 발굴 운영 함.</p> <p>기록물/공예품/예술품/사상/의례/의식/교육 등</p>	<p>공하고/전북 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자료의 출판 보급을 한 곳에서 관리할 필요 있음./한지 복본화/전라감사 병풍제작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귀 고문서, 미술품 등을 전주 한지로 복본화 하는 연계 사업을 세계적으로 추진 함. - 14개 전북 시군 자치단체장 주말 전라감사 행차의 날 운영. - 감영문화 학술대회/전주별시 재현/서유구 학술상/관군 취집식. - 기록물 눈대목 읽기 체험과 창작판소리, 창극, 탁본체험 등. - 지적 기록물에 나타난 답사코스 진행. <p>(감사 부임/순행길, 왕조실록 피난길, 소리길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전에서 경연(經筵)시연, 감영에서 수령 연석회의 시연. -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체험장 및 게임 콘텐츠 개발.
<p>먹을거리 운영 미(味) 집강소(執綱所)</p>	<p>음식 맛 문화관광산업 집강소로,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전라도 맛 대상 콘텐츠 개발 운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도 맛 장인 아카이브 제작하고 정례 초청 마당 운영. - 김치 담그기/두부 만들기/가양주 빗기 체험 활성화. - 전라도 관찰사 밥상/전라 감사 술상 문화 상품화하고 가격대 별로 택배 상품까지 개발하여 전국화 진행. - 맛 장인, 문화예술인, 주민과 함께하는 전주 십미(十味) 여행.
<p>놀거리 운영 풍(風) 집강소(執綱所)</p>	<p>멋스런 풍류 문화 집강소로 전라도 문화예술인의 사상과 놀이, 음악, 춤, 무예 콘텐츠 개발 운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홍보와 교류를 위해 주한 해외 문화 체험장 상설 운영. - 예(禮)와 악(樂)이 있는 향음주례(鄉飲酒禮) 체험. - 나도 한춤/한소리/한끼/한자태/한국인/한음악 한다 콘테스트 -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내인생 리셋 상담의 날 운영. - 모든 신나는 대동놀이, 우아하고 고상한 풍류방 놀이터 진행.
<p>체험거리 운영 숙(宿) 집강소(執綱所)</p>	<p>한옥체험 및 모든 놀이 체험 집강소로 한옥마을 주민 문화상품 콘텐츠 개발 운영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 숙박 쿠폰으로 한옥마을 체험하기(식사/체험/공연/선물) - 한옥에서 문화예술인 토크와 산조의 밤 운영. - 동문사거리 길거리 축제 기획 운영. - 감영 내에 있었던 지소(紙所), 인청(印廳), 선자청(扇子廳), 공방청(工房廳), 훈련청(訓練廳) 등과 연계하여 체험장과 시범장을 기획 운영한다.
<p>총괄 조화 운영 강(綱) 집강소(執綱所)</p>	<p>전라문화예술관광 산업대 집강소로 각 집강 사업을 연결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 운영과 융·복합 축제 등을 관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년 도시 문화축제 기획 운영. (세계 천년 도시 교류마당) - 전주 정체성을 상징하는 동학혁명과 감사 등의 소재로 규모 있는 대표 마당 창극 운영 - 집강조직 대동연합 한마당 개최하여 전북지역 특산품 반값 할인하고 직소 신문고 설치 운영.

1. 지집강(知執綱) : 전라감영 지적 자원 문화콘텐츠 활용을 위한 민관(民官) 조직을 구성하여 유형·무형의 콘텐츠 발굴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중요 콘텐츠는 전라감영 및 전주관련 기록물 수집 전시와 더불어 디지털 아카이브로 제공하고, 전북 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자료의 출판 보급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 운영 한다. 또한 전주 한지산업과 연계하여 세계 희귀 고문서, 미술품

등을 전주 한지로 복본화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전북 14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순번에 따라 매 주말 전라감사 행차의 날을 기획하여 각 시군이 한옥마을에서 해당 시군의 문화관광 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은 매 주말 각 시군이 마련한 장터와 셔틀버스 당일 관광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감영문화 학술대회/전주별시 재현/서유구 학술상/관군 취점식/기록물 눈대목 읽기 체험/창작판소리/감사 부임길 답사/감사 순행길 답사/왕조실록 피난길답사/소리길 답사/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체험 등을 운영한다.

2. 미집강(味執綱) : 음식 맛 문화관광산업 집강소로,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전라도 맛 대상 콘텐츠 개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전라도 맛 장인 아카이브를 제작하고 맛 장인을 정기적 초청 마당을 운영한다. 김치 담그기/두부 만들기/가양주 빚기 체험을 활성화 한다.

- 전라도 관찰사 밥상/전라 감사 술상 문화를 상품화하고 가격대 별로 택배 상품까지 개발하여 전국화를 진행한다.

- 맛 장인, 문화예술인, 주민과 함께하는 전주 십미(十味) 여행을 운영한다.

3. 풍집강(風執綱) : 멋스런 풍류 문화 집강소로 전라도 문화예술인의 사상과 놀이, 음악, 춤, 무예 콘텐츠 개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한류원형 체험지 전주 홍보와 교류를 위해 전라감영 마당에 주한국 대사관과 연계해 해외 문화 체험장을 상설 운영한다.

- 예(禮)와 악(樂)이 있는 향음주례(鄉飲酒禮) 체험을 주민과 문화예술인 참여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 “나도 한춤/한소리/한끼/한자태/한국인/한음악 한다.” 콘테스트를 추석과 설 명절 전후에 진행한다.

- 한옥마을에서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내인생 리셋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

- 모든 신나는 대동놀이, 우아하고 고상한 풍류방 놀이터를 진행하고 아리랑 축제를 막걸리 문화와 호응시킨다.

4. 숙집강(宿執綱) : 한옥체험 및 모든 놀이 체험 집강소로 한옥마을 주민 문화상품 콘텐츠 개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한옥 숙박 쿠폰으로 한옥마을 식사/놀이/공연/체험/선물 등을 할 수 있게 기획 연계한다.

- 감영 내에 있었던 지소(紙所), 인청(印廳), 선자청(扇子廳), 공방청(工房廳), 훈련청(訓練廳) 등과 연계하여 체험장과 시범장을 기획 운영한다.

- 한옥에서 문화예술인 토크와 산조의 밤을 운영하고 금요일 밤 동문사거리 길거리 축제를 기획 운영한다.

5. **강집강(綱執綱)** : 전라문화예술관광 산업 대 집강소로 각 집강 사업을 연결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 운영과 융·복합 축제 등을 기획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세계 천년 도시 교류마당으로 천년 도시 문화축제를 기획 운영한다.
- 전주 정체성을 상징하는 규모 있는 대표 마당 창극을 전문단체와 연대하여 운영한다.(동학혁명/춘향전/정여립/전주사고/전주별시/전라감사 등)
- 집강조직 대동연합 한마당을 개최하여 전북지역 특산품 반값 할인의 날을 마련하고, 직소 신문고 설치로 소통의 장을 운영한다.

V. 맺음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⁴²⁾를 전주시의 슬로건으로 내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주시의 도시 운영 방향은 사람의 격을 중시하는 한국적인 예악(禮樂) 정신을 일상에서 구현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민족문화유산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고유한 정체성을 내포하듯 지역문화유산은 그 지역만의 독특한 역사 문화적 경험이 배어 있는 정체성이 있다. 이러한 정체성은 현재의 지역민들의 역사 문화적 삶속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적 지향점이며 자부심으로 전승(傳承)된다.

전통문화도시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10가지 전제 조건을 주장⁴³⁾하기도 하지만, 전주의 정체성은 전주의 역사문화사회적 경험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전주다운’ 특성을 강화하면 된다.

2016년 전주시는 전주정신을 ‘꽃심’으로 발표하였다.

후백제의 건국, 조선의 건국, 정여립의 대동계,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진 새로운 세상을 지향한 전통은 대동, 풍류, 울곧음, 창신의 정신을 아우르는 전주정신 “꽃심”으로 정립되었다.⁴⁴⁾라는 내용에서 보듯 전주의 정체성은 저항과 풍류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곧 울곧음을 위한 저항과 십시일반 함께하는 풍류문화가 바로 전주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주시의 정체성 잇기는 이미 민선 6기부터 7기 현재까지 전주시 민관 거버넌스의 대표정책인 다올마당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마당’을 뜻하는 우리말 조어인 다올마당은 전주시 주요 현안이나 중심 시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게 제도화한 것으로 총 28개의 다올마당을 운영하여 거버넌스 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대동 정신, 혹은 동학의 민관상화(民官相和) 정신이 현대적으로 구현된 사례라 하겠다.⁴⁵⁾

42) 전주시는 이전 ‘가장 한국적인 도시’의 슬로건을 이어 민선6기(2014.7.1.~2018.6.30.) 김승수 시장부 터 현 7기(2018.7.1.~2022.6.30.)까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다.

43) 권기백·김신애·권기대, 앞의 논문, 20쪽.

44) 김승중, 「전주정신의 현재와 미래」『全州學研究』13(2019), 209쪽.

45) 김승중, 앞의 논문, 193쪽.

500여 년간 전라도의 중심 건물이며 국왕 통치권의 상징이며 모든 문물이 모이고 때론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했던 전라감영이 조선 초 그때처럼 그 자리에 복원된다는 것은 전라도민은 물론 전주시민에게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전라감영 복원의 상징성을 활용하여 기록문화와 풍류문화 그리고 민관 협치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공간적 동선을 확장시키며, 전라도 역사문화의 구심점이자 숨터로 전라감영의 위상을 재현해 내야 한다.

감영문화를 시대에 맞게 재탄생 시키는 계기로 삼아 문물교류의 장, 민의 수렴의 장, 역사 체험의 장, 기록물 집대성의 장 등으로 문화관광산업의 중심거점이자 한옥마을 문화관광자원의 구심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주시민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변혁의 몸부림과 국난을 함께 극복하며 대동 풍류마당으로 풀어내는 높은 문화예술적 자부심은 성공적 전주국제영화제⁴⁶⁾와 전주한옥마을의 한(韓) 문화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관광산업시기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다고 본다.

국가 사업으로 지정된 지역관광거점 전주의 성공을 위하여 복원된 감영을 전북지역 문화관광의 구심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민, 문화예술인, 행정이 5개 문화집강조직을 구성하여 “한스타일로 다함께 하는 전주한옥마을 문화관광사업”을 꾸려나갈 때 “한국문화 원형 체험지 전주”/“U FEEL K-STYLE JEONJU”의 명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

46) 2000년에 시작한 전주국제영화제는 2020년 현재 21회째 진행 중이다. 디지털영화제, 독립영화제, 새로운 영화의 대안을 제시하는 차별화를 추구하며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다. 인근 한옥마을 음식과 볼거리가 풍부하고 판소리 공연과 전주라는 예향의 이미지와 상영관이 밀집해있어 관람하기에 편한 동선이라는 강점 덕에 해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참고 문헌>

□ 사료

이상황, 『湖南日記』(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열람실).

이석표, 『湖南日記』(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열람실).

□ 단행본

이희권외, 『전라감영연구』(전주역사박물관·전라문화연구소, 2008).

김순석·박정화·배경옥·이덕현·이선아 역주, 『完營日錄』(흐름, 2018).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국역전주부사』(신아출판사, 2009).

전라북도·(사)전북향토문화연구회, 『全羅監司 下』(신아출판사, 2008).

김순석·문미애·박정화·배경옥·신용권·이덕현 역주, 『전라감사계록 1』(전라북도·전주시·(사)완산역사문화연구회2019).

□ 논문

김봉석, 「한스타일을 소재로 한 역사 기반의 초등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학습자 중심 교과교육연구』16-12(2016).

김선경, 「1833년~34년 전라도 지역의 살육 사건과 심리 : 『완영일록』의 분석」『歷史教育』122(2012).

김순석, 「『완영일록』을 통해 본 전라도관찰사의 공문서 유형과 문서식」『지역사회연구』22-3(2014).

-----, 「『完營日錄』 國譯 研究」(조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全羅道 復原監營 활용방안」『지역사회연구』26-1(2018).

김승종, 「전주정신의 현재와 미래」『全州學研究』13(2019).

김신재, 「집강소의 역할과 성격」『동학연구』18(2005).

김양식, 「동학농민전쟁기 집강소의 위상과 평가」『역사연구』19(2010).

김의환·이근호, 「이위의 생애와 『비목재일기(卑牧齋日記)』의 사료적 가치」『한국사학보』19(2005).

金泰雄, 「朝鮮後期 監營 財政體系의 成立과 變化-全羅監營 財政을 중심으로-」『歷史教育』89(2001).

김현영, 「완영일록」을 통해 본 전라감영의 구조」『전라감영연구』(전주역사박물관·전라문화연구소, 2008).

박흥주, 「전주한옥마을 살리기 전략으로서의 축제, 그리고 그 역할 전주 산조예술제를 중심으로」『한국민속학』54(2011).

배경옥, 「『鏤板考』의 評論과『完營日錄』의 農政에 나타난 서유구의 실학적 측면」『全北史學』49(2016).

배경옥, 「『완영일록』으로 본 전라감사 서유구의 교유서와 교귀·연명」『全北史學』56(2019).

석대권, 「감영문화의 종합성과 문화콘텐츠활용」, 지방사와 지방문화, 12(1), 2009.

孫炳圭, 「徐有矩의 賑恤政策 : 『完營日錄』·『華營日錄』을 중심으로」『大東文化研究』42(2003).

- 송영민, 「문화자원 활용공간의 장소 정체성 강화방안-도시형 한옥마을과 전통마을을 중심으로-」『한국관광디자인학회논문집』10-5(2015).
- 宋宰鏞, 「『眉巖日記』의 書誌와 史料的 價値」, 『退溪學研究』12(1998).
- 여상진, 「『完營日錄』에 나타난 19C초 전라감사의 집무와 전주부 관영 시설 이용」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11-2(2010).
- 원도연, 「전라감영의 도시문화적 의미구성과 복원사업」『지방사와 지방문화』11-2(2008).
- 이동희, 「조선시대 전라감사의 출신 및 임용실태」『전라감영연구』, 전주역사박물관·전라문화연구소(2008).
- 이지훈, 「경기도 정체성과 경기학의 과제」『全州學研究』13(2019).
- 이혜령, 「서유구의『완영일록(完營日錄)』과 검안처리 업무」(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임대근, 「문화콘텐츠 개념 再論」『글로벌 창의 문화연구』, 4(2014).
- 張明洙, 『城郭發達과 都市計劃 研究- 全州府城을 中心으로』(學研文化史, 1994).
- 진명숙, 「전주한옥마을 관광화와 결사체 정치」『비교민속학』63(2017).
- 홍성덕, 「전주의 역사문화 정체성과 전주학 연구」『역사와실학』56(2015).

□ 인터넷 사이트 및 기타 자료

- 규장각 원문 검색서비스, 서지정보.(<http://kyudb.snu.ac.kr/book/view.do>).
- 미암집 9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 종합 DB.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0.1.28.
- 전주시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cop/main.do>)

전라감영 복원의 의미와 과제

홍성덕*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전라감영 복원과정과 쟁점
- III. 전라감영 복원의 의미
- IV. 전라감영 복원의 과제
- 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전라감영은 조선시대 전라도의 치소(治所)로서 조선왕조 5백년 동안의 지방통치의 중심이었다. 특히 전주에 설치된 전라감영은 조선시대 감영이 설치된 이후 일제에 의해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존속했었다. 충청감영이나 경상감영이 임진왜란을 전후로 치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것과는 달리 전라감영은 전주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이는 감영도시 전주의 위상이 공주나 대구 보다 역사적이며 그만큼의 문화적 역량을 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감영이 소재한 전주는 '전통문화중심도시'의 도시정체성을 수립하고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전통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한옥마을이 전통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전통적 지방통치행정의 중심 도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 문화자원은 전주부성의 남문인 풍남문이 있을 뿐 현존하지 않는다.

전라감영 복원은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전주시의 역사문화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 감영 복원 논의가 전주의 도시정체성과 연결지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주의 역사문화적 변화는 감영 복원을 그 변화의 중심으로 끌어들이었다. 1996년 도청사 이전 결정 이후 도청사 부지의 활용 측면에서 다양하게 검토된 논의는 감영 복원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화당을 중심으로 한 감영 건물의 일부 복원이 완공된 2019년까지 무려 2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전라감영의 복원은 사라진 건물을 다시 짓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감영 복원은 전라도 역사의 재인식이라는 현상적 의미에서 출발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전라도 특히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전라북도와 전주지역의 거주민의 문화적 자존감과도 직결된다. 역사적 패배의 기억 아래 침체된 소극적 역사인식, 저성장에 가려진 불안한 미래인식 등 지역에 만연한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지난 20여 년 동안의 논의를 통한 복원 과정과 쟁점을 정리하고 복원된 감영의 역사 문화적 의미를 살펴본다. 나아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여 전라감영이 가지는 현재적 가치와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전라감영 복원과정과 쟁점

수십 채에 달했던 전라감영의 건물은 일제에 의한 지방통치기구의 강점 이후 ‘근대적 효율성’ 아래 근대 건물로 대체되었다. 선화당 앞 중삼문과 포정루 등이 철거되고 2층으로 된 서양식 건물의 전라북도청 본관이 들어섰다. 이후 전라감영의 부속 건물들이 사라졌다. 1951년 한국전쟁 기간 중 무기고 폭발로 선화당과 전라북도청 본관이 전소되었다. 전쟁 직후 새로운 도청 건물이 세워졌지만 선화당은 복원되지 않았다. 이후 시내에 남아 있던 몇 채의 감영 부속 건물 역시 도시의 확장과 함께 철거되었고, 그 결과 1980년대 무렵 이후 전라감영의 부속 건물로 현존하는 것은 한 채도 남지 않게 되었다. 천년의 전통도시인 전주의 모습은 찾을 수 없게 되었다.

1) 복원의 배경

1952년 전쟁 기간 중 도청사가 건립되었지만, 최근 철거된 도청 본관은 1956년 11월에 준공되었다. 처음 2층으로 세워진 도청사는 몇 차례의 증축을 통해 3층 건물이 되었다. 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 이후 인구 증가로 전라북도의 행정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도청사는 1·2청사로 분산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청 및 의회청사의 신축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도청사 이전을 처음 거론한 것은 1989년 당시 강현욱 도지사였다. 1990년 최용복 도지사는 도청사 이전을 역점 사업으로 정하고, 1993년 청사 이전을 위해 5만 평의 부지에 252억원을 들여 1996년까지 1만5천평 규모의 청사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이전 부지를 정하지 못하고 1994년 사실상 무산되었다.

1995년 7월 첫 민선 도정을 출범한 유종근 도지사는 도청사 신축 이전을 도정 방침으로 결정하였다. 1995년 11월 청사신축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12월 도민공청회를 통해 전북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6년 4월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대한방직 공장부지 12만 평 가운데 공장 가동에 지장이 없는 3만1천평의 나대지를 신축부지로 결정하였다. 전주시의 도청사 부지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커서 전주시의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견 청취를 계속 유보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전라북도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 재정투·융자 사

업승인을 받고, 건설교통부의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 승인, 전라북도 의회의 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을 거치면서 도청사 신축을 추진하였다. 이후 행정절차에 들어가 1996년 11월 설계 경기 현상공모를 통하여 (주)반도건축사사무소가 출품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기본설계에 착수하였다.

그렇지만 IMF의 여파와 도청사 이전 반대 등으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유보되었고, 도청사 이전 역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지반조사, 교통영향평가 승인, 지방건축위원회 사전심사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1999년 2월에서야 기본설계를 완료하는 등 더디게 진척되었다. 2000년 6월 전주시에서 도청사 시설부지를 결정을 요청하였고, 청사 설계가 완료된 것은 같은 해 12월이었다. 2001년 도청사 건설추진단이 구성되고 입찰을 통해 금호산업을 사업자로 결정한 뒤 10월 29일 도청사 신축이 시작되었다. 도청 및 의회청사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7번지 일원(대한방직 나대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31,275평, 연건평 24,951평(지하2층, 지상 18층)으로 사업비 1,910억원(토지매입 195, 공사 1,602, 설계비등 113)을 투입하여 2005년 5월 완공되었다.

1995년 민선 시대와 함께 시작된 도청사 이전 논의가 청사 이전이 가시화된 1999년 이전 이후 구 도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구 도청사 부지는 도청사 신축 비용 마련 문제와 맞물리면서 문화재 지정 활용을 전제로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한편 도청사 이전의 문제는 전주 도심의 팽창과 연결된다. 전통적으로 전주는 조선시대 전주부성이 있던 공간(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가 북동쪽으로 확장해나가면서 1980년대에 전주역 이전으로 6지구까지 개발되었고, 80년대 후반 90년대에는 완산능선의 서쪽 현재의 효자동, 서신동 방면으로 넓어져 삼천으로 경계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주시는 1993년 ‘新 全州건설계획’을 수립하였다. 신전주건설계획은 팔달로와 동서로(현 충경로)를 축으로 하는 밀집된 업무 상업지역을 전주 서부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분산 수용하려는 것이었다. 2011년까지 총 2천8백억원을 들여 삼천천과 황방산 사이 서부지역 7백40만평을 개발하여, 전북도청 등과 같은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행정, 업무, 문화예술, 교육문화도시로 개발하는 것이었다.

신시가지 건설은 ‘전라북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 건설’을 목적으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신시가지 조성을 통한 전주시 공간구조의 개편’과 ‘양질의 택지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주민 숙원사업의 해소’에 있었다.

그렇지만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곧바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용지분양의 불투명, 막대한 소요 사업비 조달 등으로 1998년 사업을 재검토하였다. 1998년 말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87만 평을 사업지구로 결정하였다. 1999년 3월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2000년 3월부터 착공하여 2006년에 완공하고자 했다. 2000년 7월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고 2002년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 2003년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요청

하였고 2006년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된 뒤 2008년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었다. 1990년대 후반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시작되면서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를 새로운 도시 중심권역으로 설정하였고, 구도심에 위치한 여러 공공기관의 이전이 결정되면서 상대적으로 구도심의 공동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2) 복원의 쟁점

① 전라감영 복원 당위성 확보

전라감영 부지인 옛 도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도청사 이전이 확정된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정책 방향이 결정되기 이전이었으므로 도정신문 등을 통해 고증자료를 수집하거나 타 지역사례를 조사하고 주요 기관에 소장된 전라감영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1999년 전라북도 신청사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신청사 건립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었다. 감영부지에 대한 정책 결정은 이 당시 매각이었다. 한국소리문화전당, 전주 월드컵경기장 건설비 지원 등 막대한 예산 소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전라북도가 1, 2청사, 구 잠업검사소 부지 등을 매각하고 지방재정공제회 기금과 전라북도 일반회계를 통해서 1천9백억 원에 달하는 신청사 건립비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감영부지 매각은 도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도심부 내 녹지공간이 필요하고 특히 감영부지는 전라도 수부인 전주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 매각되면 안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아울러 5·18성지 조성을 조건으로 전라남도 신도청 건립비를 지원받은 전라남도의 사례를 들어 전라북도 감영부지도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이므로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라감영 복원이 필요하다는 논리개발이 제안되었다. 즉 도청사가 있던 곳은 전라감영터이고 전라감영터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대도소가 설치된 성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각하지 않고 감영을 복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논리개발을 위해 전라북도는 '동학농민혁명 성역화와 전라감영 복원' 학술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전라감영 부지를 기념물로 지정하는 등 보존을 위해 노력하면서 문화재 지정-복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통한 청사건립비 확보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전라북도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5백억 원의 청사건립비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증액교부금의 명목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도청사 신축 자금으로 5백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라감영 부지였던 도청사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감영복원을 비롯한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② 복원과 구도심 활성화

1896년 도제가 시행된 이후 전라북도 행정 중심으로 기능한 도청 이전이 가시화하면서 이전 후 도청 일원의 상권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도청으로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은 80년대 후반 이후 도시의 급격한 확대와 맞물려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당면이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전북도에서는 도청 이전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용역을 시행하였고, 세 차례의 심포지엄과 공청회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전라감영 복원이 필요한 것인지, 전라감영을 복원하므로 이를 통해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제기되었다. 전주의 도시발전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감영 복원인지 아니면 감영은 복원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를 통해서 어떻게 구도심을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으로 어떤 방향을 추진하는가에 따라서 도출될 수 있는 사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에서 발주한 용역과제는 ‘전북 도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라감영의 장단기적인 구분에 따른 복원’ ‘도청사 부지의 전라감영 복원과 연계한 단계별 접근’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즉 감영복원을 전제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 한 것이다. 이런 정책방향은 이미 2000년 전라감영터를 기념물로 지정하고 감영복원과 동학농민혁명 성역화를 전제로 신청사 건립비를 받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도와 시의 실무회의에서 도청사에 아파트 건립 등의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지만 감영복원은 결정된 사안이었고, 다만 어느 규모로 복원할 것인지와 잔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주시와의 의견 조율과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였다.

2004년 전북도청 이전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 방안, 전북발전연구원

2008년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방안, 전북발전연구원

당시 상인회에서는 감영 부지의 현대적 개발과 조속한 활성화 정책의 시행을 요구하였다. 도청 부지 활용 문제가 논의될 때에는 한옥마을의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였고, 전통문화자원이 도시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2년 한옥마을이 조성되고 매년 급격한 발전이 가시화하면서 감영 복원에 대한 상인회의 의견도 점차 바뀌었다. 2014년 감영 복원 논의가 본격화하면서는 조속한 감영 복원과 활용을 촉구하였다.

③ 복원의 진정성과 규모

당초 전라북도의 감영복원 계획에는 선화당, 내삼문, 중삼문, 포정루, 내아, 관풍각, 선자청 등 6~7동의 감영건물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이럴 경우 잔여부지는 거의 남지

않을뿐더러 도청사 부지 내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도 있었기 때문에 복원의 진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감영복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먼저 지적된 것은 정확한 위치 비정과 복원의 방법이었다. 따라서 위치 고증을 위한 감영부지의 시굴·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활용의 여하에 따라 원 위치를 벗어나는 복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일부 개진되었다.

- 2005년 전라감영지 발굴조사, 전북문화재연구원
- 2007년 전라감영 복원 기본계획, 원광대학교 도시및지역개발연구소
- 2009년 조선시대 전주성 4대문 복원 기본계획,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1년 전라감영 선화당 위치 추정 조사연구, 전주역사박물관
- 2016년 전라감영지 발굴조사, 전주문화유산연구원
- 2018년 전라감영지 발굴조사,

이러한 도의 계획에 전주시는 감영 건물 복원을 최소화하고 활용시설의 건립을 확대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전주시는 선화당, 포정루를 복원하거나 아니면 선화당만 복원하는 것이 구도심 활성화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부지 활용을 위해서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전라감영터의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기념물 지정 해제 후 상징적 건축물의 최소 복원, 잔여부지 내 활성화 시설을 유치하는 방향을 결정하고 자세한 것은 심포지움, 여론조사와 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자고 주장하였다.

심포지움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라감영의 전체 복원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당시 전라감영 부지가 이전한 구 도청부지 외에 완산경찰서 일원 및 서쪽 한 블록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복원이나 부분 복원이나 하는 문제는 향후 전체 복원으로 간다는 전제 하에 부분 복원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위치의 확인은 선결해야 하는 과제였다. 전라감영의 복원은 원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발굴조사 → 위치 확인 → 고증 → 복원에 잠정적으로 동의하게 되었다.

④ 철거와 보존 활용

2004년 구도심 활성화 방안 용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원방향을 “전라감영의 전체규모는 약 12,000평이나 현 도청사 부지 4,884평 이외의 사유지와 연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완전복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3단계에 걸친 복원 계획을 제시하였다. 완전복원 때까지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완전복원의 현실적인 가능성(토지매입, 예산확보 등)과 복원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복합문화시설 등 현대적 공간의 필요성, 도청사의 근대문화유산 가치 등이 제기되면서 논의는 쉽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복원의 규모와 무관하게 전라감영 건물의 위치 고증을 위한 시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발굴조사가 끝나는 3~5년 여의 시간 동안 구도청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을 정해야 하는 문제도 논의되었다. 도청사 이전이 가시화하면서 구도심 활성화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고 일부 복원에 리모델링 또는 현대적 건물을 지어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2007년 전주시에서 발주한 전라감영 복원 기본계획 용역에서 선화당 등 감영 영역의 일부복원과 서편부지 활용으로 정리되면서 복원 규모에 대한 학계의 의견 대립은 계속되었고 2008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방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복원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 계획에서는 감영 자체의 복원을 최소화하는 상징적 복원의 형태를 제시하고 아울러 문화공간(감영문화관)을 건립하자고 제안하였다.

2009년 9월 전라감영·전주부성 4대문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감영 복원 및 서편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현상공모 등이 추진되어 2012년 7월 최종안이 선정되었다. 현상공모안은 기존 도청사·경찰청 건물의 철거를 전제하고 있었다. 2013년 구 도청사에 입주한 단체의 이주대책이 마련되었고 철거에 관한 전북도와 전주시의 협의가 완료되었고 2014년 철거업체가 결정되었다. 한편,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전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병수 후보가 도청사 철거를 반대하면서 정치 쟁점화하였다. 도청사와 도의회 건물의 역사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와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철거를 반대한 문화예술인행동에서는 구 도청사를 문화예술 창의거점 공간으로 만들자는 주장이며 일부 복원에 대한 의견이나 당시까지 논의된 내용에 대한 합리적 지적은 있지 않았다. 정치 쟁점으로 변질된 철거 복원 문제에 전주시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철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찬반으로 나뉘면서 시민 여론조사를 방송 3사에서 시행하였으나 시민들의 감영 복원 인지도가 45% 정도에 불과하여 정책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 다만 복원할 경우 완전복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42.1%였다. 철거 여부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민 추진위원회에서는 도청사 철거를 촉구하였고, 전주시 의회에서는 철거동의가 있었음에도 철거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2014년 9월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라감영재창조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원과 활용, 시민참여를 통해 감영복원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여 철거를 둘러싼 논의는 종식되었다. 도청사의 역사성도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역사성을 기록 기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III. 전라감영 복원의 의미

1) 역사적 의미

① 복원의 진정성 확보

전라감영의 부분 복원이 결정되는 데 있어 선결해야 하는 과제는 선화당 등 감영 건물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전라감영·4대문 복원 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2005년 선화당 위치 확인을 위한 1차 발굴은 진행하였다. 발굴은 선화당 위치로 알려진 구 도의회 건물 뒤편에서 진행되었으나 건물터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비록 선화당과 관련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통일신라시대~조선시대까지 전라감영 부지에 건물지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감영부지가 갖는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지층이 확인되었고 각 지층에서 시대 유물 도자기와 동전, 기와편 등이 출토되어 감영부지가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치소(治所)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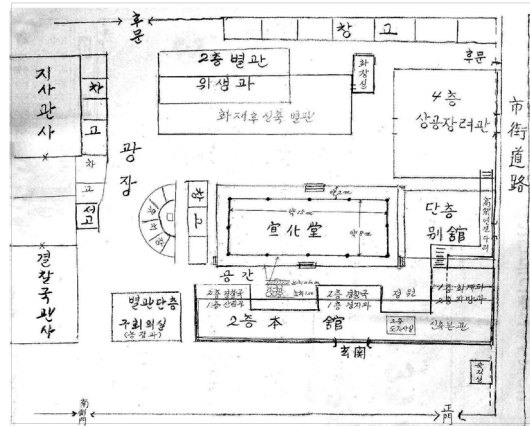


그림 1 도청 건물 분포(이원갑씨 구술)

발굴조사를 통해서 선화당의 위치를 찾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출토된 유물 유구를 통해서 보다 광범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매장문화재 조사에 의한 선화당 위치 고증이 아닌 문헌자료를 통해서 찾아보아야 한다는 조사 방법의 확대 의견이 개진되었다. 2010년 선화당의 위치 고증에 대한 구술·문헌자료 조사 결과 도의회 건물 뒤편에 있었다는 기존 구술과 달리 본관 건물 뒤에 있었다는 이원갑씨의 구술을 확보하고, 또한 국가기록원에서 일제강점기 선화당 건물이 그려진 도청 증축 도면과 관풍각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그려진 도면을 찾았다. 1928년에 작성된 도면은 이원갑씨의 구술과 일치하였다.

선화당 위치에 대한 구술·문헌자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청사 철거 이후 2016년 본격적인 2차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2차 발굴조사를 통해서 선화당의 유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 고려시대 건물지가 선화당 유구와 중첩되어 확인되었다. 1951년 도청 화재로 소실된 일제강점기 도청의 기단부를 확인하였고, 내아, 우물 2개소와 인도 등의 유구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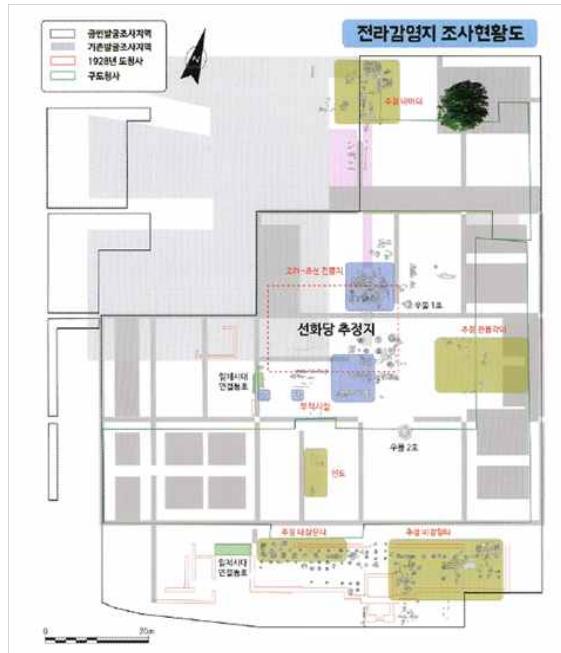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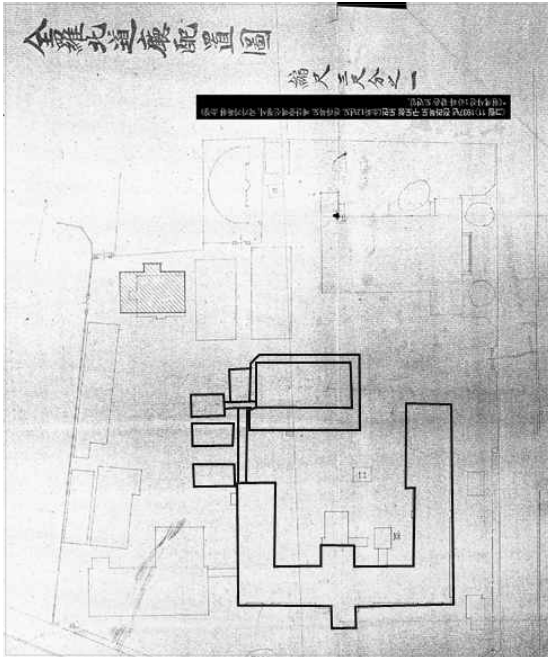


그림 2 일제강점기 선화당 위치(국가기록원) 그림 3 전라감영지 발굴조사 현황도

이외에도 관풍각, 내삼문, 비장청 등의 건물터로 추정할 수 있는 유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라감영 부지 발굴조사 결과 전라감영 부지는 통일신라시대 이후 관청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고려시대에는 전주목의 관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굴 조사 결과는 선화당을 비롯한 감사영역의 복원 위치를 확정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건물지의 위치가 확인됨에 따라 복원을 위한 1차적인 과제는 해결되었다. 다음으로 복원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건축의 고증이였다. 전라감영재창조위원회에서는 복원되는 감영 건물의 고증을 위하여 고건축, 역사, 조경분야의 전문가 9명으로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공사 기술지도자문단을 구성하였다. 기술지도자문단은 복원 건물의 규모, 목재, 석재 등이 규격, 복원 건물 이외의 건물터 흔적 남기기 방법, 건축 및 조경 전반에 관한 기술 자문을 통해 조선시대 전라감영 건축의 진정성을 확보하였다. 주지하듯 전라감영 건물에 대한 기록은 18세기 이후 제작된 전주부성 고지도와 일제강점기 촬영된 선화당 사진이 전부였다. 국가기록원에서 찾은 도면은 선화당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건물의 형태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감영복원을 논의할 때 복원인지 재현인지에 대한 개념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다. 복원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감영 부지에 전라감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찾아내고,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최대한의 사례를 수집 분석 연구하여 재현이 아닌 복원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전라도 정체성 수립

전라감영의 복원은 “단순히 건축물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감영에 담긴 역사적 가치와 문화,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고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의 옛 영광을 복원”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1999년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이 추진된 전주 한옥마을의 성공과 연결된다.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의 발전전략으로 추진된 한옥마을이 2002년 1차 완료된 이후 스마트폰의 보급과 종편의 시행 등의 시의적인 성공요인이 결합하면서 2010년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면서 감영 복원은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와 전라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재확립할 수 있는 디딤돌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지역정체성의 수립은 지방자치제의 시행 이후 지역의 화두로 떠올랐다.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지역학에 대한 붐이 일어났고 전주 역시 ‘전주학’을 표방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정체성 수립의 관점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의 브랜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감영도시 전주가 표방한 다양한 역사적 이미지 중 전라도 수부, 전통문화의 중심에는 전라감영이 있었다. 따라서 전라감영의 복원은 단순히 조선시대 전라도를 통치하였던 행정기관의 건물 복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전라도는 조선시대 팔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광역행정구역이었으며, 특히 광역행정구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전주 위상은 전라도가 설치된 1018년 이래 변화한 적이 없다. 다른 지역의 감영 특히 충청, 경상감영 도시가 바뀐 것에 비하면 전라도는 줄곧 전주에 위치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의 1/3을 담당하고 전통문화의 중심으로서 전라도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바로 감영의 복원에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2018년 전라도 1천년을 계기로 전라도 역사 바로 보기가 진행되고 있다. 역사적 학문적 성과의 정리 못지 않게 감영 건물의 복원은 상징성을 갖는다. 1896년 전라도가 전라북도과 전라남도로 나뉘어지고 제주도가 분도하면서 전라도의 중심이었던 전라북도, 전주의 위상은 줄곧 줄어들었다. 근현대 정치적 중심이 광주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전주의 위상은 전통문화에만 머물러 있었다. 전라도 천년을 계기로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전북역사 재조명 사업은 전라북도라는 지역정체성의 재확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야, 백제, 후백제, 전라감영, 동학농민혁명의 역사 재인식이 중심에 놓여 있다.

2) 문화적 의미

①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재확인

전주는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2000년대 이후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으로 채택된 전통문화중심도시화 사업은 한옥마을의 성공으로 가시화하였다. 조선시대 왕실의 본향,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의 전주의 위상은 소위 한류, 한브랜드의 거점 도시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그 중심에는 천년을 이어온 전라감영, 감영 문화가 위치해 있다. 감영의 복원의 정치행정적으로는 전라도의 수부로서의 기능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전라감영이 가지고 있는 조선시대 전통문화의 모습을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지, 한식, 한국음악 등은 바로 감영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적 기반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조법종은 전라감영이 역사문화적 가치를 조선왕조 지방행정도시의 대표, 근대 관민협치의 역사공간, 전통교육·학술문화의 중심, 전주 음식문화의 중심, 판소리 예술문화의 중심, 전주한지·부채문화의 중심, 콩쥐팍쥐의 무대이기 때문에 완전복원 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전주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한브랜드 사업과 관련이 있다. 전통교육 및 학술문화의 중심은 완판본(완영본)으로 대표되는 출판문화가 감영의 인출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현재 완영본의 출판에 사용된 목판 5,059개가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 음식문화의 중심은 한정식과 비빔밥의 명성이 감영의 음식문화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감사 밥상에 관한 기록이 재인식되면서 전라감영의 음식문화가 가지는 위상이 다시 평가받고 있다. 판소리 예술문화는 전라감영의 통인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주대사습대회의 전통을 말한다. 전주한지·부채문화는 전라감영 내 있었던 지소와 선자청의 기능과 역할 때문이다. 특히 선자청의 경우 다른 감영에서는 볼 수 없는 전라감영만의 특징으로 조선시대 부채를 진상했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콩쥐팍쥐의 무대는 고소설의 배경이 완주 이서면 일대로 전주부에 속하였으며 콩쥐의 삶을 변화시킨 존재가 전라감사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의 전통문화 특징의 하나는 비가시적이라는 점이다. 전주의 전통문화 핵심자원으로 거론되는 한식, 한지, 판소리 등은 가시적 문화자원이 아니다. 먹고, 만지고 들어 봐야 느낄 수 있는 자원인 것이다. 이는 전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확장 사업이 필요했고 비가시적 자원을 가시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식은 전통문화센터, 한지는 한지체험관·공예관, 판소리는 소리문화관 등의 건립이 이루어졌다. 전라감영의 복원은 전통무형문화유산의 역사문화적 공간의 복원을 의미한다. 단순히 지방통치 행정기관으로서의 감영을 넘어 전라도 감영문화의 중심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복원된 건물의 효율적 활용에 고민해야 할 것이다.

② 기억의 공유와 기록화

공간의 역사는 한 시대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시대에 따라 공간의 역사와 의미는 새롭게 바뀌게 되고 과거의 역사는 사라져 왔다. 사라진 시대의 역사는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역사적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미래의 역사 또한 형성될 수 있다.

전라감영 복원의 결정은 과거의 복원이다. 사라져 버린 역사를 다시 재현하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전라감영을 대신한 전라북도청의 역사를 철거하고 과거를 복원하는 문제이다.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지만 이는 가시적 복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내용적으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의 역사를 다시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대의 역행으로 보일 수 있는 도청사 등 근현대 공간의 흔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도청사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라감영재창조위원회에서는 전라감영 복원에 앞서 감영 공간의 근현대 역사를 기록화하는 사업을 결정하였다. 기록화 사업은 전라감영백서, 다큐멘터리 영상제작, 도청사 등 철거대상 건물의 기록화, 도청사 등 철거 건물 내 주요 자재의 보존 조치 및 도민들과의 나눔 등으로 진행되었다.

전라감영백서는 전라감영 복원의 논의가 시작된 이후 최종적으로 복원이 결정되고 도청사가 철거되는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는 사업이며, 다큐멘터리 영상제작은 철거 이후 복원 과정 전체를 영상으로 촬영 기록해 놓는 것이다. 도청사 등 철거대상 건물의 기록화는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3D 정밀 스캔으로 하고 향후 감영이 복원된 뒤 도청사 등의 철거 건물 위치 좌표를 잡기 위한 기준점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밀측량된 데이터를 토대로 3D모델링과 항공 촬영, 사진 촬영 등을 진행하였다. 3D 정밀 스캔 데이터는 현상적으로 철거된 건물을 가상공간에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림 4 구 도청사 기록화 루미온 이미지(좌) 3D 모델링(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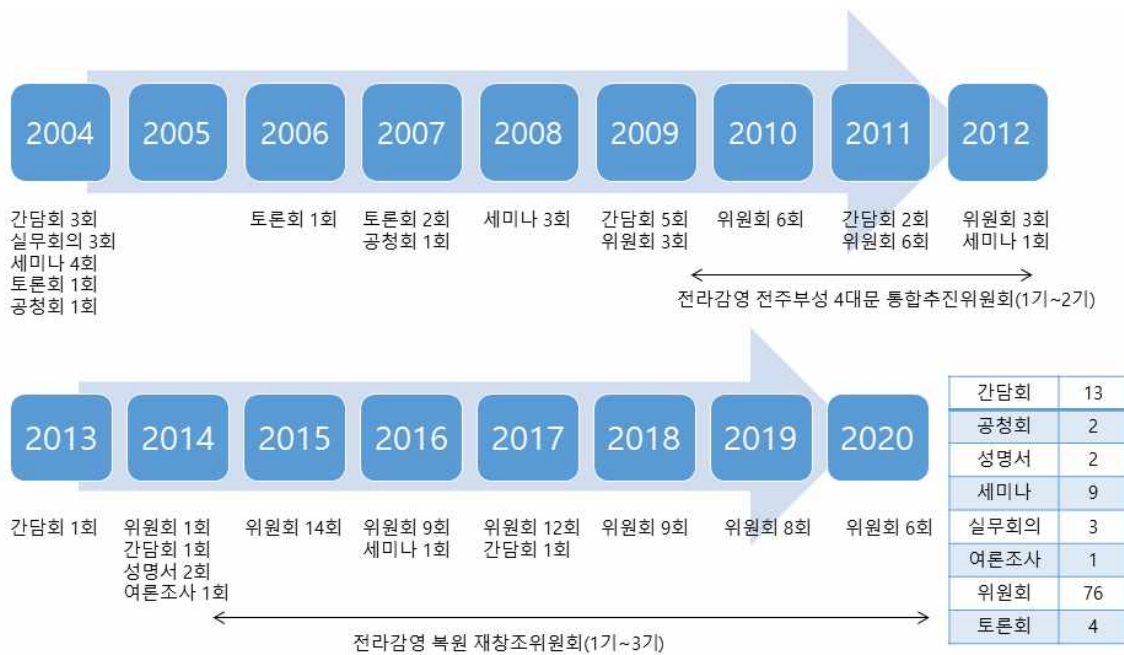
2015년 9월 본격적인 철거에 앞서 보존 조치를 위한 두가지 작업이 진행되었다. 첫째는 도청사 및 도의회 건물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재를 선정해 철거 전에 별도 보존하도록 한 것이며, 구 도청 부지 내의 조경수 30주와 외부 창문틀 20조, 벽돌 등을 도민들에 나누어 주는 사업이다. 건물이 철거된다 하더라도 기억을 공유하는 작업을 병행한 것이다. 철거 전 보존 조치된 자재들을 중심으로 2015년 12월 전주어진 박물관에서 ‘기억하는 역사 2015’ 특별전을 통해 사라진 도청의 기억과 복원될 감영의 역사를 공유하였다.

기억의 공유는 복원된 전라감영 부지내에 철거된 건물들의 기억화로 연결된다. 복원된 감영 부지 내에 근대 공간을 표식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중첩된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3) 미래지향적 의미

① 거버넌스 문화의 모범

전라감영 복원은 부지 활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2004년 이후 감영 복원을 최종 결정할 때까지 10년이 소요되었으며, 복원 결정 이후 복원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5년이 걸린 사업이다. 전라감영 복원의 논의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지방정부가 형식적 자문이나 공청회를 토대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4년 이후 2020년 7월까지 전라감영 복원을 둘러싼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전라감영 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였다. 전라감영 복원과 관련된 위원회는 2009년에 조직된 전라감영 전주부성 4대문 통합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도시계획, 고건축, 고고학, 한국사, 조경학, 관련전문가, 인류학, 근대건축, 언론계, 지역대표, 시의회, 정치권 등 다양한 분야가 총 망라되어 있다. 통합추진위원회의 기능은 전라감영 및 전주부성 4대문 복원 방향 설정 및 기본안 마련과 관련 현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문이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2009년 9월 23일 첫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2년 8월 29일까지 총 18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통합추진위원회의 성과는 복원 선화당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복원을 위한 아이디어 현상공모를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전라감영 복원의 규모와 방법에 대한 1차적인 합의의 도출이었다.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거론된 구 도청사 철거반대에 대한 논쟁을 전주시에서 종식하고 감영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2014년 12월 16일 첫 회의가 개최된 이래 2020년 7월까지 17차의 전체 위원회와 39차례의 실무위원회가 열렸다.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에서는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규모, 방법 등)를 진행하였다. 1기 위원회는 역사(4명), 건축조경(4명), 문화콘텐츠(6명), 의회(3명), 주민 및 시민단체(4명), 행정(2명) 등 23명으로 구성되었다. 재창조위원회는 2015년 4월 15일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전라감영 복원 방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논의, 협의,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재창조위원회가 조례를 통해 복원 방향에 대한 결정권까지를 가지면서 감영 복원은 관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전라감영 복원 과정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의 거버넌스는 한옥마을 조성 당시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 나가는 협력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시활력의 모델

한옥마을의 성공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한다. 한옥마을의 공간적 확대와 질적 전환 발전의 문제는 1천만 명 관광객 시대를 맞이한 한옥마을이 가지는 새로운 문제제기이다. 이를 위해서 전주시는 한옥마을 - 남부시장 - 객사로 이어지는 공간적 확대를 추진하였고, 한편으로는 전주부성 일원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조정하였다. 전주부성과 한옥마을을 교차하여 전주 구도심으로 새로운 도시활력의 중심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전주부성의 일부를 복원하고 감영의 전체 복원을 통해 전년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구도심이 개발의 대상이 아닌 활력의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감영의 그런 의미에서 부여된 가치가 있다.

전주시는 2016년 8월부터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전문가 자문, 주민설명회, 포럼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2018년 4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다.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은 전주한옥마을 주변의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일원의 옛 전주부성 터와 주변 도심부 약 151만6000㎡를 역사도심지구로 설정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전주시의 역사도심 지구단

위 계획은 한옥마을의 성공을 계기로 천년고도 전주의 역사성을 드러내고 도청 이전 후 전라감영 복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전주의 구도심 활성화를 ‘역사도시’의 발전 전략

을 통해 실현하려는 시도였다. 이에 앞서 전주시에서는 구도심 일원의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23개 사업 12,246백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려서 도심의 활력을 되찾는 사업 전략이다. 공간적으로 이 사업의 중심에 전라감영 복원이 위치해 있으며, 성공 여부에 따라 전주의 미래 도시이미지가 갖추어지게 될 것이다.

③ 전국 유일한 감영 공간 조성

복원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확인된 전라감영 부지는 구 도청부지의 남쪽 완산경찰서 부지 일원과, 서쪽 한 블럭을 포함하는 면적이었다. 그러나 2016년 전주시에서 추진한 역사도심 도시계획 변경 연구 결과 감영 부지의 동서폭이 구 도청 부지의 폭과 동일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전라감영 복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전라감영의 범위는 전라감영 복원 사업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고려하게 하였다.

전라감영 복원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감영 부지 활용 방안을 고려할 때 감영부지의 범위에 대한 전제가 결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다. 복원논의가 진행될 때 전체복원을 위해서는 추가 매입이 필요한 부지가 넓어서 사업성이 있겠는가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 결국 동편부지 감사영역 일부 복원 서편부지 활용으로 논의가 모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동서폭이 구 도청부지와 동일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현재 남한 지역의 조선시대 감영 도시 중 유일하게 전라감영 부지 전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전라감영 부지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는 향후 감영 복원의 규모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현재 단계에서 조선시대 오백년 동안 지방통치의 중심이었던 감영을 완전하게 전체 복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전라감영이 유일하다.



IV. 전라감영 복원의 과제

전근대시대 사라진 공간을 다시 만드는 것은 건물을 짓거나 공간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물이나 공간의 복원은 사라진 기억으로 가시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문제는 복원된 공간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특히 건물의 경우 건물 이상의 역사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단지 건축만 다시 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AR, VR 등의 첨단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현재 사이버 공간의 복원과 가시적 공간의 복원이 가지는 분명한 차이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재현된 건축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1) 운영

전통문화자원을 복원하는 것은 현재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과거의 모습을 재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복원함으로써 현재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때문에 복원된 감영을 어떻게 누가 운영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전라감영의 운영 주체는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전문성은 문화적이기 보다는 역사적이어야 한다. 이는 감영의 역사성이 전제되지 않는 문화적 행위는 기본에서의 일탈이기 때문이다. 복원된 감영의 운영과 관련해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첫째, 전주시의 직접 운영, 둘째, 전주문화재단 위탁 운영, 셋째, 박물관과 통합 운영 등이다.

첫째 전주의 직접 운영은 한옥마을사업소에 관리 운영을 부여하는 방안과 문화해설사를 배치하는 부서 직업운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 모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한옥마을사업소의 경우 시설 관리가 중심이며 문화해설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복원된 감영을 관광객을 상대로 '해설'하겠다는 것으로 감영 건물의 전문적 활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둘째, 전주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다. 현재 전주문화재단은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정책 연구 및 제안,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업무,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주문화재단 관련 조례에 의하면 전주시가 위탁 대행하도록 한다면 전주문화재단에서 감영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단의 경우 문화예술활동에 그 역할이 집중되어 있으며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업무는 제한적이다. 전주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할 경우 재단에서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을 재단의 이사장이 겸할 경우 새롭게 전라감영운영팀을 조직해야 한다. 전주시의 직접 운영에 비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전라감영이 가지는 역사정보다는 문화예술적 활용에 집중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전라감영의 역사성을 기반한 전문적 운영은 다소 어려울 것이다.

셋째, 박물관과 통합 운영이다. 박물관과의 통합 운영은 전라감영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의미를 상호 연계하여 상승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전주시는 2002년부터 박물관

관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간위탁에 의한 박물관 운영은 예산과 인력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박물관이 가지는 전문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현재 전주시에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은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전통술박물관 등이다. 아울러 최명희문학관, 소리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등 역시 민간위탁 중이다. 박물관·문화관의 민간위탁은 본질적으로 인력 운영 및 예산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으나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다. 전라감영은 전주가 중심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라도의 수부, 조선왕실의 본향, 동학농민혁명 정신 등과 연결된 핵심 공간이다. 다분히 역사적 관점에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감영의 운영 주체는 현 상황에서는 박물관 운영 주체와 통합될 필요가 있다. 감영 건물의 운영을 박물관 운영자와 통합함으로써 역사적 연계 효과를 확대하고 기본에 충실한 감영 기능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활용

복원된 감영의 활용은 역사성의 영역보다는 문화적 영역에 좀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건물만 감영 건물이어서는 안되며 문화적 활용 역시 기본적으로 감영과 연결되어야만 한다. 활용은 감영을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의 활성화와 맞물리기도 한다. 지나친 진지함은 오히려 대중적 친근감을 상실할 수 있다. 진정성과 활용성의 두 영역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감영이라 해서 꼭 조선시대의 이야기만을 담을 필요는 없으나 기본적으로는 조선시대를 기본으로 하되 가치지향적인 측면에서 현재화해야 한다. 활용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하드웨어적인 것은 지양해야 한다. 고정된 하드웨어적 활용은 지속적인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없다. 공간의 유연한 활용이 고민되어야 할 지점이다. 전주시에서는 2018년 전라감영 공간활용 계획 및 ICT실감형 콘텐츠 제작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각 건물의 프로그램 활용과 실감형 콘텐츠가 제시되었다.



복원된 감영 건물별 활용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나 현재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 제시된 활용 방안에 의하면 전시공간(행랑채, 비장청), 체험교육(내아), 자연프로그램(마당), 기획공원(선화당, 관풍각) 등이 오프라인 활용으로 제시되고 있고 VR, AR, 디지털 병풍, 프로젝션 비전 등이 내삼문 앞, 관풍각, 선화당 등에 제안되었다.

활용 방안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용 프로그램의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전라감사와 전라감영의 기능과 역할이 흥미롭게 담겨져야 할 것이며, 공간 내에 담아내는 스토리 역시 조선시대 전라도, 전라감영, 전라감사를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3) 전체 복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 전라감영 부지는 남한 내 유일하게 감영부지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호기를 가지고 있다. 감영부지는 구 도청부지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완산경찰서가 위치한 블록 전체와 북쪽으로 웨딩거리에 이르는 일부 구간이 전부이다. 완산경찰서의 경우 대체부지 조성 등의 방법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남쪽 건물과 북쪽 일부 부지만 확보한다면 조선시대 감영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역량은 조선시대에 대부분 형성된 것이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문화, 생활양태 등은 조선시대에 정립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감영부지는 근대 도시화 과정에서 철저히 파괴되고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어 왔다. 도시 중심이기 때문에 감영 부지 전체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전라감영은 용이하다. 전라감영 전체에 대한 복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V. 나오는 말

전라감영은 조선시대 오백년을 이어온 지방통치의 중심 공간이다. 정치행정은 물론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감영이다. 조선시대 8도에 있었던 감영은 모두 파괴되어 모습을 찾기 어렵다. 특히 호남의 보장처 기능을 수행했던 전라도 감영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전라감영의 복원을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전라도 수부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의 위상과 전라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감사영역의 일부만 복원 되었지만 현재 전라감영 부지의 전체 확보가 가능한 단계에서는 전라감영 전체 복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감영 복원의 논의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관민 거버넌스 체제가 잘 작동하였다는 점이다. 감영 복원의 논의가 시작된 1996년부터 기산한다면 무려 24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기간동안 전라북도과 전주시의 태도는 거버넌스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 온 것이다. 그 결과물이 감사 영역의 복원(선화당, 내아, 관풍각, 내삼문, 비장청 등)이었다.

전라감영의 역사와 복원

토론문

-
- 1 전라감영의 역사성과 그 의미 185
박정민 / 전북학연구센터
 - 2 전주부성과 전라감영의 건축 187
김지민 / 목포대학교
 - 3 전라감영지 발굴조사 내용 및 성과 189
이택구 / 조선문화유산연구원
 - 4 조선후기 외국인에 비친전라감영 191
김윤희 / 전주대학교
 - 5 전라감영 선화당 내 기물과 의식구의 원형 고증연구 193
최영숙 / 문화재청
 - 6 『완영일록』으로 본 전라감영 문화콘텐츠와 활용방안 195
문윤걸 / 예원예술대학교
 - 7 전라감영 복원의 의미와 과제 198
하태규 / 전북대학교

「전라감영의 설치와 확대」에 대한 토론문

박정민*

지난 2018년은 전라도라는 명칭이 나온 지 1000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전북과 전남, 광주 세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였다. 문화유산의 복원을 예로 들면, 전북은 전라감영의 재창조 복원, 광주는 희경루의 복원, 전남은 나주목 관아 복원 및 나주읍성권 재생 등이 있다. 특히, 오늘 주제인 전라감영의 복원은 1996년 8월에 고증자료 및 의견공모를 시작한 이래¹⁾ 약 24년 만에 그 결과물을 만나는 감격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 성대하게 개관하려는 계획이 어그러지는 했지만, 복원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의 학술대회는 여러모로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

전라감영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과연 전라감영이 언제 생겼는지,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었는지,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풀려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1872년 전주부지도나 보물로 지정된 완산십곡병풍도 등의 감영은 조선 후기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실상 언제부터 이러한 형태가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발표문은 그 해답을 준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전라감영이 전라도에서, 나아가 조선에서 갖는 의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준다.

토론자도 조선시대 전공자이고, 비록 다른 지역이지만 관찰사제도에 대해서 한 편의 논문을 쓴 적이 있지만, 고려말에서 조선 초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찰사 제도를 이해하기란 매우 복잡하고 지난한 일이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고려시대 안찰사제도에서 고려말 도관찰출척사의 설치, 도관찰사제, 관찰사 등의 명칭 변경과 행정도제의 의미를 갖는 감영제도를 명쾌하게 설명했고, 이 부분은 본고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의 상식과 달리 임진왜란 이전까지 감사가 감영에 머무르지 않고 도내를 순력한 사실을 유희춘의 『미암일기』를 통해 실증적으로 구현한 사실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조선 전기에는 후기와 달리 우리가 아는 감영의 시설이 완비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제도적인 것에서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7세기에 접어들며 감사가 감영에서 근무하는 유영제로 바뀌었고 여기에 발맞추어 감영시설들이 건립되며 우리가 아는 시설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만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증적인 부분의 강화이다. 본 논문에서 간략하게 전라감사의 재임실태에 대

* 전북학연구센터 연구원

1) 전주시.전라감영복원재창조위원회, 『천년의 시간을 읽다-전라감영 복원백서』, 2015, 443쪽.

해서 다루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필자도 언급한 것처럼 현재 도청에 소장되어 있는 『호남도선생안』은 감사의 재임과 체직 등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즉, 시대별 통계 변화 양상 등을 알 수 있고, 본 논문에 언급된 구임제의 실태를 알 수 있다. 여기에 출신자격과 본관, 임용 당시의 관직 및 품계, 퇴임 후의 관직 등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풍부하게 전라감사의 재임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라감영 관할 외관직은 감사를 비롯하여 도사, 중군, 심약, 검율, 비장 등이 있다. 하지만 1896년에 칙령 36호 반포 후 13도제가 시행되었고, 이들은 주사, 총순, 순검, 서기, 통인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총순은 원래 중군의 역할, 비장은 통인과 사령이 수행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은 계승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으로 검율은 사라지고, 의학을 담당했던 심약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선행 연구도 정밀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역할이 왜 사라지게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바뀌었는지 등을 후속 연구로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다.

셋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전라감영의 복원은 전라도의 수부였던 전주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랜드마크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과 방송 등에서도 특집기사 등을 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기에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주목할 것이 바로 최근(2020.09.09.)에 전주 MBC에서 실시한 ‘랜선 역사탐방’이다. 이를 통해 VCR을 통한 유적지 탐방과 역사전문가 강연 및 토크쇼, 백제역사유적지구 관련 스몰 퀴즈로 관심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새롭게 시작되는 전라감영의 개관에 큰 영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주시와 전북도에서 JTBC ‘차이나는 클래스’ 등의 방송 프로그램과 협업하여 중앙에도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주부성과 전라감영의 건축」에 대한 토론문

김지민*

■ 본 세미나는 1900년대 초까지 현 전주 시내 중심가에 있었던 ‘전주감영’의 주 영역 복원을 마치고 그 성과를 함께 돌아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복원(復元, 復原)’이란 사물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림을 뜻한다. 건축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약 300년 전에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드디어 원형대로 복원이 되었다”가 되겠다. 아쉽게도 조선의 그 많던 관아 건물은 일제강점기 도시화의 명분으로 아무 대책 없이 사라지거나 변형이 됐고 전주감영도 이에 해당됐다. 그리고 100여년 만에 주 건물인 ‘선화당’을 비롯하여 일부가 2020년에 복원이 됐다.

복원 과정에서 토론자는 5차례 정도 ‘기술자문위원회’ 일원으로 참여해서 복원 일련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 발굴을 1차적 토대로, 그리고 사진과 문헌 등의 자료를 근거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여겨지나 그 완성도 평가는 후대의 건축사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임란 시 소실된 경복궁이 300여년 만인 1800년대 후반 고종시에 복원을 시작하여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 홍승재 교수의 ‘전주부성과 전라감영의 건축’ 발표 내용은 주제에서 보듯이 크게 ‘전주부성’과 ‘전주감영 건축’ 두 섹터로 나누어 설명했다. 즉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 전주부의 형성 배경과 도시적 구조를 우선 언급했고, 그 다음에 감영의 건축적 구성을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적절한 학술용어 선택과 논리적 서술로, 다시금 전라감영의 건축적 맥을 짚어주었다.

감영건축의 전체적 맥락을 짚어주는 전주부의 이해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중국과 한양의 도성계획, 그리고 전주 관아의 관계 등도 언급하여 전체적인 전주부 관아의 구조를 이해하게 했다.

한편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용과 서술 방법이 너무 학술적, 즉 관련 전문가만이 접할 수 있는 수준이라 일반 전주 시민들에게는 다소 이해의 폭이 좁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세미나는 전주시민에게 복원의 의미를 알리고 함께 공유하자는 자리도 있었던 만큼 쉽게 도면으로 지방관아의 일반적 규범, 전주부 성내의 구조, 즉 객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사, 감영, 부청, 향교 등 전체적인 윤곽의 도식과 해설이 있었으면 더 좋은 발표가 됐을 것이다.

■ ‘전라감영의 건축’에서는 각주 19)에서 밝혔듯이 전라감영의 시대적 변화와 건축적 특징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표자가 연구한 것으로(홍승재, 전라감영의 시대적 변화와 건물의 구성, 『전라감영연구』, 전주역사박물관, 2008) 대신하고 본고는 간단히 영역별 특징만을 요약했다. 토론자는 그 연구물을 접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데 본 발표에서도 최소한 전주감영만의 건축적 차별성과 큰 특징 정도의 서술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왜 전주감영이 타 지역 감영에 비해 어떤 점이 우수하고, 혹시 어떤 점이 부족한지 등을.

건물의 내부공간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언급이 없는 데 앞에서 언급한 기존 연구에서 다루었는지도 궁금하다. 외부공간(영역) 만큼 내부의 활용도도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특히 선화당의 내부 치장, 감사의 동선, 일반 관원의 내부공간 활용 등.

영역은 크게 감사, 진입, 업무, 군사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 임무와 주요건물의 성격을 설명했다. 비교적 관제와 해당 영역의 건축적 구성, 특징이 잘 설명되어 있다. 한편 전주감영의 영역 구성이 다른 감영과 차별성이 보이는 지도 궁금하다. 그리고 영역 용어 구사에서 감사영역과 업무영역의 구분이 모호하다. 감사영역도 업무영역이며, 직책인 ‘감사’를 그대로 건축적 용어도 사용하는 것도 이상하다. 궁궐건축의 경우 왕 영역과 마찬가지로 될 수 있다. 아마 발표자도 고심을 하여 ‘감사영역(정청과 내아 영역)’으로 표기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 전주감영은 규모나 역사적으로 매우 주목이 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방 관아다. 금 번 중심영역 1차 복원에 이어 진입부, 일반 관원 업무시설 등 주변의 부속 건물도 함께 복원이 되어야 진정한 전주감영의 가치가 드러난다. 주변 도시화로 인해 복원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사업 만큼 전주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사업도 없을 것이다.

전주감영 복원은 단순히 전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작은 郡, 縣의 관아 복원에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다. 근대기에 대부분 사라진 지방관아의 복원이야 말로 지방성과 지방자치의 의미를 찾는 길이다.

전주감영의 효율적인 복원 및 보존 방안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수립’ 마련이 필요하다. 각계 전문가, 시민이 함께하여 전주감영의 가치를 새롭게 찾는 것이다. 2,000년 이후 전주는 ‘한옥마을’로 전주의 브랜드화에 성공했다. 감영도 결국은 한옥이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제 2의 전주 명소가 될 수 있다.

「전라감영지 발굴조사 내용과 성과」에 대한 토론문

이택구*

본 발표문은 전라감영지에 대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대략 15년에 걸쳐 실시된 총 4차례의 발굴조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조사기관도 한 곳이 아닌 총 3개 기관이 구역별로 조사하거나 중첩되는 구간들을 중복 조사한 관계로 각 기관별 내용의 정리가 서로 다르고 난해하여 종합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힘든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의 유철 원장님께서 전체 보고서를 수합하고 탐독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각 유구별 성격을 분류하였고, 긴시간 실시된 발굴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셨다.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시간을 할애하여 이렇듯 명료한 결과를 도출해 내신 원장님께 경의를 표하고 싶다.

내용을 살펴본 바, 발굴조사의 경과나 유적의 층위에 대한 정리, 각 유구에 대한 시대별 정리, 유구 및 출토유물의 성격 등 전체적인 내용이 발표문이라기보다는 전라감영 종합발굴조사보고서라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어 사소한 질문거리를 찾아내기란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는 발표문에서 피력하고 있는 통일신라시대 유구에 대한 질문 한가지와 근자에 토론자가 전라감영과 관련해 겪었던 일화를 소개하고 고고학이란 학문을 통해 본 전라감영지의 발굴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자분의 종합적인 내용 정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질문을 갈음하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다. 발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통일신라시대 유구는 선화당 추정지를 기준으로 북편 전반에 걸쳐 확인되었고, 고려시대 유구는 선화당 추정지의 북편과 북동편, 조선시대 유구는 선화당 추정지 주변과 그 남편을 중심으로 확인되었음을 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중 통일신라시대 유구에 대한 성격을 정리하면서 전라감영지에서는 전주지역에서 유일하게 다양한 통일신라시대 유구가 확인되었고, 유물 특히 기와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이들 유구를 9세기 중반에서 10세기 초반의 시기로 구분한 것을 알 수 있다. 본문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후백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사료된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 후백제의 견훤이 전주에 수도를 세우고 성을 쌓은 기록은 있으나, 아직까지 그 궁성지로 비정할만한 고고학적 결과는 도출되

*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지 않고 있다. 궁성지에 대한 추정도 물왕멸 일대설을 비롯하여, 동고산성설, 이번 발표 중심지인 전라감영터설, 최근의 중노송동 인봉리설 등 다양한 실정이다. 다행히도 이번 조사에서 전라감영지의 하상층 위로 통일신라시대 유구층이 확인되었고, 유물(기와류)도 이 시기에 맞는 것들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발표자께서는 전라감영지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시대 유구와 유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어떤 성격의 건물들이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론하고 계시는지 그 고견을 듣고 싶다.

두 번째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오늘의 학회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랜 시간 고고학을 공부하신 선학으로서 이번 전라감영 발굴조사 결과에 대한 명료한 해석을 다시 요청하는 바이다. 토론자도 전라감영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 와중에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에 수차례 참가하여, 본 연구원에서 발굴조사 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에서 들었던 충격적인 말이 “돈을 들여 발굴조사를 했는데 감영지 건물터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 고고학자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애석한 언행이 아닐 수 없다. 고고학은 건축학이나 건설업과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창작 작업이 아니다. 고고학은 땅속에 묻혀 현재 확인할 수 없는, 하지만 잔존하고 있는 유구와 유물을 찾아내는 발굴, 조사, 연구의 학문이다. 따라서 땅속에 유구들이 잔존해 있지 않다면 그 어떤 누가 조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다른 학문 혹은 분야처럼 ‘(재)창조’해 낼 수는 없다. 발표자께서는 유적 층위에 대한 각 기관별 분석에 대한 정리를 실시하고 각 유구층에 대한 분류를 행하셨다. 왜 전라감영지에서 전라감영에 관련된 건물지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고고학의 결과물 즉 유구와 유물을 해석하는데 있어, 왜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선후기 외국인에 비친 전라감영」에 대한 토론문

김윤희*

이 발표문은 이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미국해군 포크의 기록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그 자료적 가치를 탐색한 것입니다. 한국고대사 전공이신 조법종교수님이 근대 조미관계사 연구에서 언급되어왔던 포크를 대상으로 발표문을 작성하신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대사 연구자들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포크의 기록을 상세히 번역하고, 여행일정을 2개의 그림지도를 통해 밝힌 점은 이 분야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라감영 복원에 반드시 참조해야 할 사진, 그림, 감영에 대한 묘사 등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한 점은 앞으로 전라감영의 다양한 문화 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문은 포크 개인의 활동을 다룬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에 비친 19세기말 전라감영과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크의 기록을 통해 전라감영을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크가 어떠한 인물이었고, 19세기말 조선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의 이력을 소개합니다.

포크는 미군해군으로 1882년 조미조약 체결에 대한 답례로 파견된 보빙사를 수행했고, 그들과 함께 대서양을 건너 유럽을 여행하고 인도양을 거쳐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초대주한미국공사였던 푸트의 한국에 별 관심이 없었던 데 비해 포크는 한국에 대한 정보수집에 열중했고, 1885년 1월~1886년 6월, 1886년 9월~1886년 12월까지 공식인 공사를 대신하여 임시대리공사를 지냈습니다. 포크가 작성해서 미 국무부에 보낸 갑신정변 보고서의 내용 일부가 중국에서 발간된 *North China Herald*에 게재된 사건으로 인해 청이 미국에 포크의 송환을 요청했고, 이 일로 포크는 1887년 6월 미국공사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개화파가 친분이 있었고, 청의 간섭에 분개했던 젊은 미국 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종 등 당시 집권세력이 미국에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했던 미국인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크의 조선에서의 활동 전반을 고찰한 연구로는 손정숙의 「주한 미국 임시대리공사 포크 연구(1884~1887)」(『한국근현대사연구』 31, 2004)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로 조미관계사 또는 고종의 반청자주외교에 대한 연구에서 포크의 활동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 전주대학교 HK교수

이 발표문에 소개된 기록은 토론자가 처음 접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라감영에 대해 무지한 상황에서 포크의 기록과 현재 복원된 전라감영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문은 포크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 그는 1876년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아시아 지역 함대에 소속되어 중국과 일본에서 7년간 복무했습니다. 또한 1882년 중국 소재 미군 함대가 부산과 원산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항해했고, 이때 포크는 두 명의 해군 동료와 함께 시베리아 탐사여행을 했습니다. 그가 보빙사 수행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어와 중국어가 가능한 해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림 6> '포크의 조선 남부지역 조사단 일행' 사진에 일어 통역으로 전양묵이 함께 했던 것을 보면, 여행 당시 그는 아직 대화할 정도의 한국어 실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쪽에서 언급했던, 그가 부모에게 털어 놓았던 한국어 실력은 다소 과장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임시대리공사가 되기 전 포크의 조사업무는 무역상황, 광산조사(1886년 국무부에 보고), 조선의 지방사정 등이었습니다. 이시기 미국이 필요했던 조선 내륙에 대한 조사는 군사정보 보다는 경제정보였습니다. 조미조약 이후 앞으로 얻을 무역이익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포크 역시 전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포크가 나주지역 방문의사를 피력한 것이 증기선을 활용한 세곡운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당시 독일의 세창양행이 증기선을 활용하여 세곡수송을 시작했고, 수송 과정에서 일부는 조선정부의 허락을 받아 직접 일본 오사카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선정부는 세곡을 담보로 차관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서해안 지역 세곡수송은 경제적 이권의 하나였기 때문에 포크 역시 이 문제에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나주지역에 대한 관심은 조선정부가 독일 등에게 내주었던 경제적 특혜를 미국이 확보할 수 있을지를 타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나주지역 방문 기록이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 전라감영에 대한 포크의 기록은 현재 복원된 전라감영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활용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문에서 현재 복원된 선화당과 포크가 기록한 선화당이 다소 차이가 난다고 언급하셨는데 복원된 건물 내부의 모습과 포크의 기록과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림22> 전라감영 선화당 내에서 승전무를 추는 기생 사진'에 나오는 춤이 현재 재현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4. 제목에서 '조선후기'는 일반적인 시대구분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는 근대사로 보기 때문에 '개항기' 또는 '19세기말'이란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조법종교수님이 밝힌 전라감영에 대한 기록이 현재 복원된 전라감영의 다양한 문화 재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토론을 마칩니다.

「전라감영 선화당 내 기물과 의식구의 원형 고증 연구」에 대한 토론문

최영숙*

1. 본 발표는 조선시대 감영(監營)의 선화당(宣化堂) 내의 기물과 의식구의 원형을 고증하는 논문입니다. 조선시대 감영은 관찰사가 상주하며 업무를 보던 관청으로 8도(전라, 강원, 평야, 황해, 함경, 경기, 충청, 경상)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훼손되었던 것을 해방 후 개건하였습니다. 전주 감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대로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2. 그간 제도사나 건축사 쪽에서는 연구의 진전이 있었으나 미술사적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못한 상황이고, 특히 내부 기물과 의식구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 없는 상황에서 이 논문은 전주 감영의 중심 전각인 선화당의 내부 기물과 의식구의 복원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본 발표에서 주요 고증자료로 제시한 자료는 첫째, 19세기 말 미국에서 온 외교 무관 포크가 1984년 말 전라감영을 방문하고 선화당 내부 모습을 찍은 사진과 스케치, 기록이며, 둘째 조선시대 팔도의 감영 관련 회화, 셋째, 일제강점기 유리원 판사진이며, 참고자료로 궁중연향도와 비교하였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현재 남아 있는 왕실관련 전각들에 배치된 기물들과 의식구, 박물관소장 유물들을 참고하여 고증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4.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전라 감영을 비롯한 8도 감영의 선화당의 내부 장엄은 석간주를 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붉은색의 기둥 하단을 백능화지로 감싸고 그 상단은 청능화지로 띠를 둘렀으며, 마루바닥에는 선을 두른 지의가 깔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정에는 종이등이 걸려 있거나 좌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감사의 주변으로는 수정장과 독 등의 의물이 배설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중앙에 두폭 병풍을 두르고 붉은 칠의 중국 양식 의자 원의(圓倚)에 방석을 깔고 앉으며, 안식(案息)과 좌대받침(평상)이 있고, 앞에는 안상과 인신궤 2좌가 인상에 올려져있습니다.
다만 궁궐의 편전에 해당하는 안방격의 우측의 온돌방에는 감사가 의자가 아닌 보료 위에 앉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

또 야외나 선화당이 아닌 곳에서 열린 연회자리에서는 보료가 깔린 평상이나 의자가 배설되었고, 이외 배설 기물들은 선화당의 배설 기물들과 유사합니다.

5. 이와같은 선화당 또는 연회에서의 실내장엄과 감사 소용 배설 기물들은 곧 궁궐을 비롯한 주요 의례용 전각의 장엄과 배설 기물, 의식구들과 유사하기에 궁궐 정전과 편전, 신선원전, 종묘정전과 더불어 현존하는 유물들과 비교연구한 발표자의 연구가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발표자께서 제시한 선화당 내 장엄과 기물, 의식구의 원형은 유물재현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6. 다만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물 중 좌대받침(평상)이 나옵니다. 원문이 없어서 확실하지 않지만 발표자께서 옮기신 내용에 의하면 포크의 기록에 몸을 기대는 자세로 사용할 수 있는 좌대받침이라고 했고, 유물로는 좌대형 평상과 난간형 평상을 보여주시고, 『어진모사도감의궤』의 용상 아래 좌대도설을 제시하셨는데, 감사가 앉았던 좌대받침이 어떤 형상이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혹시 교의나 권의 앞에 높이는 발받침은 아니지요? 이 점에 대해 부언해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발표 내용 중 전라 감영의 선화당에서 열린 모임을 그린 호승첩(1848)에서 감사의 주변에 불자와 부채를 들고 호위를 서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다른 자료에서는 독이나 수정장이 주로 등장하는데, 유독 이 그림에서만 불자와 부채가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비교하신 의례용 공간 중 동관왕묘가 있는데, 동관왕묘는 배경에는 왕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나라 왕이 아닌 관왕을 모시는 공간인데 이곳의 수정장이나 금월부를 감영의 의식구들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 또 신선원전이나 다른 왕실관련 유물들과는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일록』으로 본 전라감영 문화콘텐츠와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문

문윤걸*

전라감영의 완전한 복원은 전라도 역사와 문화예술의 중심지, 전주의 위상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지역 역사계는 물론 문화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다.

2020년, 10월 준공식을 거쳐 비록 완전한 복원은 아니지만 전라감영의 위상을 보여주는 선화당을 비롯한 주요 부속 건물들이 원 위치에 원형의 모습으로 복원되고, 시민에게 개방됨으로써 일차 목표는 달성되었다.

전라감영의 복원과 재창조를 통한 현대적인 활용을 위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전라감영 복원재창조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계속해 왔다. 그 결과 전라감영 동편지역을 중심으로 한 1차 복원사업이 종결된 것이다.

하지만 전라감영과 관련하여 여전히 중요한 과제 몇 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 과제는 현재 복원사업이 완료된 것은 전라감영 동편 지역으로 아직 서편 지역과 남편 지역의 복원이 완료되지 않아 후속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과제는 남편 지역과 달리 서편 지역은 구역 정비사업까지는 종료되어 있어 완전 복원 전까지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현재 복원이 완료된 선화당을 중심으로 한 동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제안된 “『완영일록』으로 본 전라감영 문화콘텐츠와 활용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문은 세 번째 과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주제문에서 발표자는 몇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복원된 전라감영을 전주한옥마을 내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아우르는 구심점으로 활용하자.

둘째, 무형의 전라감영 문화는 한옥마을의 울타리를 넘어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연계하는 중심축으로 삼아 지역관광거점도시 전주한옥마을의 위상을 채워가는 방향으로 전라감영 문화콘텐츠를 활용할 방안을 찾자.

셋째, 한옥마을 문화관광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민관협치 5집강소(執綱所)[知/味/風/宿/綱] 한옥마을 문화콘텐츠 개발·운영조직이 필요하다.

*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이상의 제안에 대해 기본적인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듯 하다.

첫째, 복원된 전라감영을 전주한옥마을과 관련하여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감영복원의 최종적인 비전이나 목표가 아니며 이는 전라감영의 수많은 활용방안 중 하나에 국한하는 것임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전라감영은 관광자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역주민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만한 위상을 갖는 기능과 역할을 통해 지역정체성의 중심 공간으로서의 아우라를 창출하는 것을 더 우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발표자는 “전라감영 문화의 범위를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연계하는 중심축으로 삼아 지역관광거점도시 전주한옥마을의 위상을 채워갈 수 있도록 전라감영 문화콘텐츠 활용방안을 제안하자. 유형의 건물은 한옥마을 문화관광자원의 구심점으로 삼고 무형의 감영문화는 최소한 전북지역 14개 시군까지 영역을 넓히는 감영문화 콘텐츠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상의 제안으로만 보면 전라감영을 건물과 그 부속지로 보지 않고 전라감영의 관할 구역 전체(그중 전라북도 13개 시군지역 중심으로)로 이해하고 전라감영 콘텐츠 역시 전라감영 건물과 그 부속지가 아닌 가까이는 전주한옥마을, 멀리는 전주시와 전라북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감영문화는 무엇이고 전라북도 지역문화는 무엇인지에 대한 범위 규정의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전라북도의 모든 무형문화가 감영문화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오히려 감영문화의 정체성과 차별성이 흐려지는 것은 아닐지 논지를 보다 정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발표자는 “한옥마을 문화관광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민관협치 5집강소(執綱所)[知/味/風/宿/綱] 한옥마을 문화콘텐츠 개발·운영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최근 문화계의 흐름은 민관협력에 의한 거버넌스 체계에 의한 사업추진이 기본 체계가 되고 있다. 5집강소가 현대사회의 거버넌스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5집강소는 전주의 문화예술관광사업에만 국한해서 운영되는 특별한 추진체계로 제안하는 것인지 정리가 필요하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표자의 의견을 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발표자의 의견처럼『완영일록』은 조선시대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에서 왕명을 받들어 복무한 전라도 관찰사 서유구(徐有榘)가 재임 시기 공문서만을 선별하여 기록한 책으로 전라도 관찰사의 집무(執務)와 전라도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완영일록』은 단순히 어느 특정시기 전라도 관찰사 기록물로서 중요성뿐만 아니라 전라감영 문화콘텐츠 논의의 출발점이며 적어도 전북지역 감영문화 전반을 아우르고 문화콘텐츠화하는 구체적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충분한 기록물이다.

발표자의 지적처럼 전해오는 여타의 감사기록들은 기간이 산발적이고 신변잡기가 섞이기도 하고 장계문서 1종류만 기록된 것인 반면, 『완영일록』은 살육송사, 환곡정책, 우택, 농형, 제방, 우역, 군역점고, 과거시험, 효열정려, 수령포폄, 절기제례, 망궐례, 순행, 출판, 진상, 방역, 소나무·술빚기·도축 금지 등 전라감영 문화 전반과 당대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전라감사 기록물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완영일록의 여러 기사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 또는 분석하여 이를 어떻게 전라감영의 문화콘텐츠로 복원 또는 재창조할 수 있는지, 이것이 가지고 있는 현대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재현 또는 재창조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안할 수 있다면 현재 전라감영 복원 이후의 활용 방안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토론자의 의견이 실현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논의와 방법이 필요한 지 의견을 듣고 싶다.

「전라감영 복원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하태규*

홍성덕 교수님의 본 발표문은 전라북도청 이전에 따른 구 도청사 부지 활용 방안으로 대두된 전라감영의 복원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감영복원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복원의 당위성, 도청 이전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 문제, 복원의 진정성과 규모 문제, 구도청 청사의 존치와 철폐에 대한 문제 등의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고 마침내 감영이 복원되었는가 하는 점을 설명하고, 전라감영 복원이 갖는 역사적 의미, 문화적 의미, 미래지향적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나아가 복원된 전라감영의 운영, 활용에 관한 과제를 제시하고, 나아가 전라감영 전체의 복원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본 발표문은 오늘의 전라감영 복원이 얼마나 어렵게 이루어져 왔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복원된 감영시설의 운영과 활용 방안과, 추후 감영의 전체 복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논고라고 생각된다.

본 토론자는 전라감영의 복원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홍 교수님의 발표문에 공감하면서, 전라감영 복원과 활용에 대하여 갖고 있던 몇 가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홍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1. 역사는 시간과 공간상에 축적된 인간 행위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전주라는 공간에서는 선사시대 이래 중첩된 역사 문화가 전개되어왔다. 조선시대에는 전주부성 내에 전라감영이 설치되어 전라도의 운영의 중심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한말에 감영이 폐지되고, 일제강점기인 1921년 전라감영 부지에 전라북도청사가 건축되어 2015년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전라감영의 복원은 동일 공간에 중첩된 현대의 전라북도청의 역사를 철거하고, 100여년 전에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조선시대의 관아시설을 복원한 것이다. 홍 교수님의 발표문을 통해서 볼 때, 전라감영의 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따른 대한 많은 고민과 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떻든 전라감영의 복원 과정에서 이미 전라북도청사의 흔적은 사라져 버렸다.

역사와 문화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단층이 없어야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이라는 명분으로 복원하고 재현하기 위해 현재 것을 없애는 경우가 많다. 전라감영의 복원 과정에서도 오늘날의 역사 문화적 가치 판단과 사회경제적 목적에 의하여 1세기 역사를 갖는 전라북도청사의 역사를 제거하였다. 만약 후세에 또 다른 가치판단과 목적에 의하여

*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일제강점기 또는 대한민국시대의 전라북도청사의 역사에 대하여 주목한다면 이 또한 어떠한 아쉬움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전라감영 복원이라는 성과 이면에 그에 따른 역사 문화적 단층이라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홍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다.

2. 현재 복원된 감영시설을 보면, 선화당, 내삼문과 행랑채, 내아, 연신당, 관풍각, 비장청 등 감사 공간 몇 채가 복원되었다. 조선 후기 전라감영의 규모는 적어도 12,000여 평에 달한다고 하였으며, 건물도 약 40동이상의 규모를 갖는 거대한 시설이었다. 몇채의 건물을 재현하는 복원사업은 전라감영의 역사적 진정성을 약화시키고, 전라감영에 전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미지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홍 교수께서는 전라감영의 전체 복원을 추진해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 것으로 보인다. 본 토론자의 생각 또한 현재 복원된 상황이 전라감영의 완전한 복원이라고 하기는 어려울것 같고, 진정한 복원을 원한다면, 적어도 홍교수의 주장대로 전체적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전체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의 확보, 각 건물시설의 위치와 크기, 건축양식 등의 고증, 이러한 복원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의 확보 등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

전체 복원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전라감영의 공간영역에 대한 완전한 확보라고 생각된다. 아직 확보되지 못한 완산경찰서와 그 인근 상가 지역에 대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이 감영의 모든 관아시설을 재현해야 하는지, 또한 그것은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전라감영의 각종 관아시설은 고지도를 통해서 파악이 되지만, 각각의 건물의 위치, 형태, 크기 등은 사실상 정확히 고증해 내기 어렵다. 이러한 사항을 무시하고 전체 복원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확한 근거와 고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축물을 재현하는 것보다, 당시 감영공간을 확보하여 보존하고 건물지로 추정되는 지점에 해당 부지 위에 있었던 시설에 대한 표식을 함으로써 감영공간에 대한 이미지 왜곡을 방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는지 홍 교수님의 견해들 듣고 싶다.

3. 홍교수께서는 전라감영의 활용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 진정성과 활용성을 제시하고, 가치 지향적으로 현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전주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활용방안을 소개하고, 활용 프로그램에서 전라감사와 감영의 기능과 역할이 흥미롭게 담겨져야 하며, 조선시대의 전라도 전라감영 전라감사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토론자 역시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제시된 활용방안을 보면, 전라감영과 전라감사를 테마로 하는 전시관 또

는 박물관과 같은 느낌을 떨쳐 버릴수 가 없고,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이 실제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하는 생각도 든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과 전담기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홍교수가 지적한 운영의 기관에 대한 고민으로 생각된다.

본 토론자는 감영 복원에 있어서 단순히 하드웨어인 몇몇 건물을 건립하여 외형을 만들어 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영이 갖고 있던 기능을 복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라감영이 전북도청의 전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복원 재현된 감영 건물을 현재의 전라북도 도청 수행에서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조금은 엉뚱한 것 같지만, 선화당을 정무도지사의 집무공간으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전라북도의 문화유산, 관광, 여권업무 등과 같은 민원업무 관련 시설로 활용하면 어떨까 한다. 이와같이 복원된 공간을 도정에 활용한다면 전라감영의 기능 일부가 복원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복원된 전라감영의 시설을 실제 도정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홍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